HOMER · THE ODYSSEY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전24권

A. T. Murray의 1919년 영어판을 경유한 중역입니다.
주 AI가 수록된 전체 구간을 영어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전문 번역가의 교열을 거친 것은 아니며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24권 전체 본문 수록.

차례

1. 제1권 · 신들의 회의와 텔레마코스 4
2. 제2권 · 이타카의 민회와 출항 34
3. 제3권 · 필로스의 네스토르 63
4. 제4권 · 스파르타의 소식 98
5. 제5권 · 칼립소의 섬을 떠나다 154
6. 제6권 · 나우시카와의 만남 186
7. 제7권 · 알키노오스의 궁전 208
8. 제8권 · 파이아케스인의 잔치 230
9. 제9권 · 키클롭스의 동굴 269
10. 제10권 · 바람의 섬과 키르케 306
11. 제11권 · 죽은 자들의 나라 342
12. 제12권 · 세이렌과 바다의 괴물들 382
13. 제13권 · 이타카로 돌아오다 410
14. 제14권 ·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439
15. 제15권 · 텔레마코스의 귀환 475
16. 제16권 ·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512
17. 제17권 ·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544
18. 제18권 · 구혼자들 사이에서 585

19. 제19권 · 페넬로페와 나누는 이야기 615
20. 제20권 · 결전 앞의 징조..... 655
21. 제21권 · 활 겨루기..... 682
22. 제22권 · 구혼자들의 최후.....712
23. 제23권 · 페넬로페와의 재회..... 747
24. 제24권 · 마지막 화해..... 773

제1권

신들의 회의와 텔레마코스

뮤사여, 내게 그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소서. 신성한 트로이아의 성채를 무너뜨린 뒤 수많은 길을 떠돌았던, 지략이 뛰어난 그 사내의 이야기를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찾아갔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동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애쓰면서, 바다 위에서 마음속으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동료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리석게도 헬리오스 히페리온의 소들을 잡아먹었고, 신은 그들에게서 고향에 돌아갈 날을 빼앗았습니다.

제우스의 딸이신 여신이여, 원하시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처참한 죽음을 피한 다른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전쟁과 바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만은 고향과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했다.

여왕처럼 위엄 있는 님프, 빛나는 여신 칼립소가 그를 깊숙한 동굴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계절이 거듭 바뀌고, 마침내 신들이 그를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게 하기로 정한 해가 찾아왔다. 그렇다고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향에서도, 자기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련을 겪어야 했다.

포세이돈을 뺀 모든 신은 그를 가엾게 여겼다. 하지만 포세이돈만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에게 끊임없이 분노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고향 땅에 이를 때까지 이어졌다.

그때 포세이돈은 멀리 떨어진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가 있었다. 인간들 가운데 가장 먼 곳에 사는 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히페리온이 지는 곳에, 다른 쪽은 그가 떠오르는 곳에 살았다.

포세이돈은 그곳에서 황소와 숫양 백 마리를 제물로 받고 연회에 앉아 즐거워하고 있었다. 다른 신들은 올림포스에 있는 제우스의 궁전에 모여 있었다.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고귀한 아이기스토스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가멤논의 아들, 널리 이름난 오레스테스가 아이기스토스를 죽였던 것이다. 제우스는 그 일을 생각하며 불멸의 신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인간들은 얼마나 쉽게 신들을 탓하는가. 그들은 재앙이 우리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정해진 운명보다 더 큰 고통을 불러들이기도 하지.

아이기스토스가 바로 그랬다. 그는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리고 아가멤논이 돌아오자 그를 죽여 버렸다. 자신에게 파멸이 닥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랬지.

우리는 미리 눈이 밝은 헤르메스, 아르고스를 죽인 자를 보내 경고했다. 아가멤논을 죽이지도 말고, 그의 아내를 꾀지도 말라고 말이다. 오레스테스가 어른이 되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위해 복수할 테니까.

헤르메스가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일러 주었어도
아이기스토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일의 대가를 온전히 치른 셈이지."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아들이시여. 모든
지배자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여. 참으로 그 사내는 마땅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다른 자들도 모두 그처럼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를 생각하면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불행한 사람은 벗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채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의 배꼽에 있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말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그 섬에는 한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해로운
뜻을 품은 아틀라스의 딸이지요. 아틀라스는 모든 바다의
깊이를 압니다. 땅과 하늘을 갈라놓는 높은 기둥들을 직접
붙들고 있는 이도 그입니다.

바로 그의 딸이 그 비참하고 슬픔에 잠긴 사내를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그를 꾀어
이타카를 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기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죽기를 바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올림포스에 계신 당신께서는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디세우스는 넓은 트로이아 땅, 아르고스인들의 배 곁에서 당신께 아낌없이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우스여, 그런데 어찌하여 그에게 그토록 분노하십니까?"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내 딸아, 어쩌다 그런 말이 네 입 밖으로 나온 것이냐?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를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 그는 지혜로는 모든 인간을 능가한다. 넓은 하늘을 차지한 불멸의 신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기도 하지.

분노를 놓지 못하는 것은 대지를 감싸는 포세이돈이다. 오디세우스가 한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지. 모든 키클롭스 가운데 힘이 가장 센, 신과 같은 폴리페모스 말이다.

그를 낳은 이는 님프 토오사다. 쉬지 않고 출렁이는 바다를 다스리는 포르키스의 딸이지. 그녀가 깊숙한 동굴에서 포세이돈과 잠자리를 함께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죽이지는 않되, 고향을 떠나 떠돌게 하고 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를 고향에 돌아가게 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포세이돈도 분노를 거둘 것이다. 아무리 그라도 모든 불멸의 신들의 뜻을 거슬러 홀로 맞서 싸울 수는 없을 테니."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자 크로노스의 아들이시며, 모든 주권자 위에 높이 계신 분이여. 만약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된 신들의 뜻에 정말로 부합하는 일이라면, 전령인 아르고스를 죽인 자 헤르메스를 오기기아 섬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가 머리칼이 아름다운 님프에게 우리의 확고한 결심, 즉 굳건한 마음을 가진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지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타카로 가겠습니다.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북돋우고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을 모이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의
수많은 양들과 윤기 나는 소들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구혼자들에게 당당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들은
느릿느릿 뒤뚱거리며 걷는 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스파르타와 모래 많은 필로스로 이끌겠습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아테나는 발에 아름다운 샌들을 매어 신었다. 그
샌들은 불멸의 황금 샌들로, 바람처럼 빠르게 바다 위와
끝없는 대지 위를 그녀가 가로지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어 아테나는 날카로운 청동 끝이 달린 거대하고 무겁고
강한 창을 들었다. 위대한 신의 딸인 아테나는 이 창으로
자신이 분노한 전사들의 대열을 굴복시키곤 했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높은 곳에서 빠르게
내려갔다. 아테나는 이타카 땅에 있는 오디세우스의 집
바깥문, 즉 안뜰의 문턱에 자리를 잡고 섰다.

아테나는 손에 청동 창을 들고 있었으며, 타포스인들의 지도자인 멘테스의 모습과 같은 낯선 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테나는 오만한 구혼자들을 발견했다. 구혼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잡은 소의 가죽 위에 앉아 문 앞에서 말판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전령들과 분주한 시종들 중 일부는 그들을 위해 그릇에 포도주와 물을 섞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로 탁자를 닦아 차려놓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기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가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는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고귀한 아버지가 혹시 어디선가 나타나 궁전의 구혼자들을 쫓아버리고, 스스로 영광을 얻어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될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텔레마코스는 아테나를 보았다. 그는 곧장 바깥문으로 향했다. 낯선 이가 문 앞에 오래 서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텔레마코스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오른손을 맞잡고, 그녀가 들고 있던 청동 창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는 날개 돋친 말을 그녀에게 건넸다.

“반갑습니다, 이방인이여. 우리 집에서 대접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음식을 드신 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 텔레마코스는 앞장서서 나아갔고 팔라스 아테나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높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창을 들고 윤이 나는 창 거치대에 있는 높은 기둥에 창을 세워 두었다. 그곳에는 마음이 확고한 오디세우스의 창을 포함하여 많은 창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아테나를 직접 인도하여 의자에 앉혔다. 그는 앉을 자리에 아마포를 깔아 주었는데, 그 의자는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의자였고 발 아래에는 발받침대도 있었다.

그는 아테나의 의자 옆에, 다른 구혼자들과 떨어져 앉도록 상감 장식이 된 자신의 의자를 놓았다. 이는 구혼자들의 소란에 지친 이방인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식사를 꺼리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소식이 끊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러자 하녀가 아름다운 금제 주전자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왔고, 은 대야에 물을 부어 그들이 손을 씻게 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윤이 나는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점잖은 살림 담당 여인은 빵과 함께 풍성한 별미들을 가져와 그들 앞에 차려 놓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고기 자르는 사람이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담긴 접시들을 들어 올려 그들 앞에 놓았다.

또한 그들 곁에는 황금 잔들이 놓였고, 전령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포도주를 따르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때 오만한 구혼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의자와 높은 좌석에 줄을 지어 앉았다.

전령들이 그들의 손에 물을 부어 주었고, 하녀들은 바구니에 빵을 가득 담아 그들 곁에 놓아 주었다. 젊은이들은 그릇에 마실 것을 가득 채웠다.

구혼자들은 자신들 앞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구혼자들이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나자,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들, 즉 노래와 춤으로 향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잔치의 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령이 아름다운 리라를 페미오스의 손에 쥐여 주었다. 페미오스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는 달콤한 노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리라의 현을 퉁겼다.

텔레마코스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머리를 가까이 대고,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에게 말했다.

“귀한 손님이여, 제가 드릴 말씀 때문에 화를 내시지는 않겠지요? 저 사람들은 리라와 노래 같은 것들을 이리도 태평하게 즐깁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먹어 치우고 있으니까요. 그 재산의 주인은 어쩌면 육지에 쓰러져 하얀 뼈가 비를 맞으며 썩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다의 파도가 그 뼈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분이 이타카로 돌아오신 모습을 본다면, 저들은 금이나 옷이 더 많아지기보다 자기 발이 더 빨라지기를 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끔찍한 운명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세상의 누군가 그분이 돌아오신다고 말한다 해도, 저희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날은 사라졌으니까요.

자, 이것을 제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손님께서는 누구시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도시 분이시며,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종류의 배를 타고 오셨으며, 선원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타카로 데려왔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밝혔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손님께서는 결코 이곳에 걸어서 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것도 진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처음 오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의 집안과 친분이 있는 분인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사람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셨기에, 낯선 이로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에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니 내가 진실을 숨김없이 그대에게 말해 주마. 나는 지혜로운 안키알로스의 아들 멘테스이며, 노 젓기를 좋아하는 타포스인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대가 보는 것처럼, 나는 구리를 구하기 위해 테메세로 가는 길에 포도주 빛깔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다가, 낯선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 배와 선원들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빛나는 철을 가지고 있다.

나의 배는 저 멀리 도시에서 떨어진 들판 옆, 나무가 우거진 네이온 아래에 있는 레이트론 항구에 정박해 있다.

우리 집안은 부친들 때부터 서로 오랜 친구였다. 원한다면 노전사 라에르테스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그는 이제 도시에 나오지 않고 멀리 들판에서 고생하며 지낸다고 한다. 늙은 하녀 한 사람이 곁에서 그를 돌보고 있지.

라에르테스가 포도밭 비탈을 힘겹게 오가다가 팔다리가 지치면, 그 여인이 앞에 음식과 마실 것을 차려 준다고 하더구나.

이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네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 사이에 계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아라, 신들이 그의 귀환을 가로막고 있다.

아직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이 땅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바다로 둘러싸인 어느 섬에서 붙잡혀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잔인한 사람들이, 즉 야만적인 민족이 그를 붙들고 있으며, 아마도 그의 의지에 크게 반하여 그를 강제로 억류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해주마. 내가 점술가도 아니고 새의 징조를 읽는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불멸의 신들이 내 마음에 넣어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대로 말해주겠다.

그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있어야 할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령 철사슬이 그를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돌아올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는 수많은 계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나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사실대로 밝혀라. 네가 그렇게 키가 큰 것을 보니, 정말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맞느냐?

너의 얼굴과 아름다운 눈은 그를 놀라울 만큼 닮았구나. 그가 배를 타고 트로이아 땅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아주 자주 어울렸다. 아르고스인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다른 이들도 속이 깊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떠났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오디세우스를 보지 못했고, 그도 나를 보지 못했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러니 낯선 이여, 참으로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혈통을 알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 제가 자기 재산을 누리며 늙어간 복된 사람의 아들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물으시니 말씀드리건대, 사람들은 제가 죽을 운명의 인간들 가운데 가장 불운한 자의 자식이라고들 합니다."

그 말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페넬로페가 너를 지금의 모습으로 낳았으니, 신들이 장차 너에게 이름 없는 혈통을 정해주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구나. 자, 이것도 내게 사실대로 말해 다오.

이 잔치는 무엇이며, 이 무리는 누구냐? 너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술을 마시는 자리냐, 아니면 혼례 잔치냐? 네 궁전에서 저들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각자 자기 몫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 식사가 아닌 듯하구나. 저들은 내 눈에 너무나 무례하고 오만해 보인다.

그들 사이에 발을 들여놓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수치스러운 행태를 보고 분노를 느낄 것이다.”

이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낯선 분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제게 이것을 묻고 질문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분이 여전히 자기 사람들 곁에 계시는 동안에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안이 될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들이 악한 계략을 꾸며 달리 결정하셨습니다. 신들이 그분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트로이아 땅에서 전우들 사이에 있다가
전사했거나, 전쟁의 실타래를 다 풀었을 때 친구들의 품
안에서 죽었다면, 제가 이토록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카이아인들의 온 군대가 그분을 위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을 테고, 그분은 훗날 아들에게도 큰 영광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폭풍의 정령들이 그분을
휩쓸어 가 버렸고 소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습도
소식도 사라진 채 제게 고통과 눈물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 때문에만 슬퍼하고 우는 것은 아닙니다.
신들이 제게 다른 모진 시련들도 보내셨으니까요.

둘리키온과 사메,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섬들을 다스리는
귀족들과 바위투성이 이타카의 지배자들이 모두 어머니에게
청혼하며 저희 집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달갑지 않은 혼인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잔치를
벌이며 제 재산을 먹어 치웁니다. 머지않아 저마저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에 분노가 치민 팔라스 아테나가 그에게 말했다.

“이런! 수치심도 모르는 구혼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떠나버린 오디세우스가 네게는 참으로 절실하구나.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 투구와 방패, 그리고 두 자루의 창을 들고 집의 바깥 대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처음 우리 집에서 그를 보았을 때, 에피레의 메르메로스의 아들 일로스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말이다.

오디세우스는 치명적인 독약을 구하기 위해 빠른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가기도 했다. 청동 촉이 달린 화살에 약을 바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로스는 영원한 신들을 두려워했기에 그 약을 주지 않았다.

반면 나의 아버지는 오디세우스를 매우 아꼈기에 그 약을 주었다. 오디세우스가 그런 힘을 가지고 구혼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구혼자들은 모두 그들의 구애 속에서 빠른 파멸과 비통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돌아와 자신의 궁전에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는 참으로 신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구혼자들을 궁전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권한다.

자,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일 아카이아인 귀족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모든 이에게 네 뜻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신들이 네 증인이 되게 하여라.

구혼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라고 명령해라.

네 어머니에 대해서는, 만약 어머니의 마음이 재혼을 원한다면, 어머니의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곳에서 사람들은 혼례 잔치를 준비하고, 사랑받는 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수많은 선물들을 마련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귀담아듣는다면, 나는 너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겠다.

네가 가진 배 가운데 가장 좋은 배에 노 젓는 사람 스무 명을 태우고 떠나라.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는 네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나서라. 혹시 어떤 필멸자가 너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자주 소식을 전해주는 제우스의 목소리를 네가 들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먼저 필로스로 가서 덕망 높은 네스토르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스파르타로 가서 금발의 메넬라오스에게
물어보아라. 그는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집에 도착한 사람이었다.

만약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비록 네가 지금 몹시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로 일 년은 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만약 그가 죽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너는 네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를 위해 무덤을 쌓고,
마땅히 치러야 할 수많은 장례 의식을 거행한 뒤에 네
어머니를 새 남편에게 보내드려라.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끝낸 뒤에는, 네 궁전의 구혼자들을
속임수를 써서 죽일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죽일지 마음과
뜻을 다해 계획하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훌륭한 오레스테스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죽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처단했을 때, 인류 전체 사이에서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는지 듣지 못했느냐?

나의 친구여, 그대는 용모가 수려하고 키도 크니,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이 그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용맹하게 행동하라.

이제 나는 나의 빠른 배와 동료들에게로 내려가겠다. 내 생각에 동료들은 나를 기다리느라 몹시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대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유념하라."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낯선 분이시여, 진실로 당신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친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해 주시는군요. 저는 이 말씀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물러 주십시오. 떠나실 길이 바쁘더라도, 몸을 씻고 마음을 편히 하신 뒤에 기쁜 마음으로 배로 떠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아주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십시오. 그 선물은 친한 친구가 친구에게 주듯, 제가 드리는, 대대로 간직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 대답했다.

“나는 서둘러 떠나야 하니 이제 더 붙잡지 마라. 네 마음이 내게 선물을 주고 싶거든, 내가 돌아왔을 때 아주 아름다운 것을 골라 집으로 가져가게 해 다오. 그러면 네게도 그에 걸맞은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렇게 말하고는, 새처럼 날아올라 떠나갔다. 아테나는 텔레마코스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가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텔레마코스는 마음속으로 여신을 눈여겨보며 경탄했다. 그는 그녀가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텔레마코스는 신과 같은 기개를 품은 채, 곧장 구혼자들 사이로 나아갔다.

그들을 위해 유명한 악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구혼자들은 침묵 속에 앉아 그 노래를 경청했다. 악사는 아카이아인들의 귀환에 대해 노래했다. 그것은 팔라스 아테나가 그들에게 내린, 트로이아로부터의 비극적인 귀환에 관한 노래였다.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자신의 위층 방에서 그 경이로운 노래를 들었다. 페넬로페는 방에서 높은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두 명의 여종이 그녀를 수행했다.

아름다운 여인이 구혼자들에게 도착했을 때, 페넬로페는 잘 지어진 전당의 문설주 옆에 서서 빛나는 베일을 얼굴 앞에 들고 있었다. 충실한 여종 두 명이 그녀의 양옆에 서 있었다.

그러자 페넬로페는 울음을 터뜨리며, 신성한 악사에게 말을 건넸다.

“페미오스여, 당신은 인간을 매료시킬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사들이 유명하게 만드는 인간과 신들의 업적 말입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동안 그중 하나를 노래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침묵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 주세요.

그런데 내 가슴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슬픈 노래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잊을 수 없는 슬픔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움 속에 늘 그토록 사랑스러운 이를 기억합니다. 헬라스 전역과 아르고스의 한복판에서 명성이 자자한 나의 남편을 말입니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머니, 훌륭한 악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왜 못하게 하십니까? 악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우스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우스께서 고되게 살아가는 인간 하나하나에게 자신의 뜻대로 운명을 나누어 주시니까요.

이 악사가 다나오스인들의 불행한 운명을 노래한다고 해서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가장 새롭게 들리는 노래를 가장 칭찬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노래를 참고 들어 주십시오. 트로이아에서 고향에 돌아올 날을 잃은 것은 오디세우스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방으로 돌아가 베틀질과 실 잣기처럼 어머니의 일에 힘쓰십시오. 시녀들에게도 각자의 일을 하라고 이르십시오. 말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의 몫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제 몫입니다. 이 집의 권한은 제게 있으니까요.”

페넬로페는 아들의 현명한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는, 놀라움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시녀들을 데리고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위해 슬피 울었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녀의 눈꺼풀에 달콤한 잠을 내려줄 때까지 페넬로페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구혼자들은 어스름한 홀 전체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페넬로페의 곁에 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마다 기도했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에게 청혼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무례와 오만이 지나치다. 지금은 잔치를 즐기되 다툼을 벌이지는 말자. 신과 같은 목소리를 가진 이런 악사의 노래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아침에는 모두 민회에 나가 자리를 잡자. 그곳에서 내가 그대들에게 이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하겠다. 그대들의 재산으로 음식을 마련해, 집집마다 돌아가며 다른 잔치를 벌여라.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살림을 망치는 편이 더 낫고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먹어 치워라. 하지만 나는 영원히 살아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겠다. 제우스께서 응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대들은 내 집 안에서 죽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구혼자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며 텔레마코스가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경탄했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텔레마코스여, 참으로 신들께서 너에게 허풍 떠는 법과 대담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크로노스의 아들이 너를 결코 왕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에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아야 할 그 자리를 말이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내가 할 말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겠느냐?

제우스께서 왕위를 주신다면 나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너는 진정 이것이 인간에게 닥칠 가장 나쁜 운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왕이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왕이 되면 즉시 가문이 부유해지고 자신 또한 더 큰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에는 젊은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아카이아인 왕들이 아주 많이 있다.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어쩌면 그들 중 한 명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안의 주인이며,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나를 위해 얻어준 노예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텔레마코스여,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에서 아카이아인 중 누가 왕이 될지는 참으로 신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네 재산에 관해서라면, 네가 그것들을 직접 지키고 네 집의 주인이 되어도 좋다.

이타카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폭력을 휘두르며 네 의사에 반하여 네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가 결코 나타나지 못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선량한 친구여, 나는 그 낯선 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네게 묻고 싶구나. 그 남자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더냐? 그의 친척들과 고향의 들판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네 아버지의 귀환에 관한 소식을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일을 도모하러 이곳에 온 것이냐?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곧바로 떠나 버렸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시간조차 기다리지 않더니만, 그래도 보기에 결코 비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구나."

그 말에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여, 진정 나의 아버지의 귀환은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소식이 어디에서 오든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어머니께서 예언자를 큰방으로 불러들여 그로부터 혹시라도 듣게 될 예언 따위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이 이방인은 타포스에서 온 나의 아버지 집안의 친구다. 그는 자신이 지혜로운 안키알로스의 아들 멘테스라고 밝히며, 노를 젓기를 좋아하는 타포스인들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텔레마코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손님이 불멸의 여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혼자들은 춤과 즐거운 노래로 흥을 돋우며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어두운 저녁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에 남자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아름다운 뜰 높은 곳, 전망이 탁 트인 곳에 지어진 잠자리가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많은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페이세노르의 아들 옵스의 딸인 마음씨 착한 에우리클레이아가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따라갔다.

라에르테스는 오래전, 에우리클레이아가 한창 젊었을 때 자기 재산을 들여 소 스무 마리 값에 그녀를 사 왔다.

라에르테스는 자신의 궁전에서 충실한 아내를 대하듯 에우리클레이아를 예우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분노를 피하고자 했기에, 에우리클레이아와는 결코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텔레마코스를 위해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간 사람은 바로 에우리클레이아였다. 모든 하녀 중에서 에우리클레이아가 텔레마코스를 가장 사랑했으며,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를 돌보아 키웠기 때문이다.

텔레마코스는 잘 지어진 방의 문을 열고 침대에 앉았다. 그는 부드러운 튜닉을 벗어 지혜로운 노파의 손에 건네주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그 튜닉을 접고 매끄럽게 펴서, 끈을 엮어 만든 침상 옆 걸이에 걸어 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은색 손잡이를 잡아 문을 닫고, 가죽 끈으로 빗장을 걸어 방을 나갔다.

그리하여 텔레마코스는 밤새도록 양털로 몸을 감싼 채, 아테나가 자신에게 보여준 여정에 대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제2권

이타카의 민회와 출항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는 어깨에 날카로운 칼을 찼고, 빛나는 발에는 고운 샌들을
매어 신었다. 그리고 신처럼 눈부신 모습으로 방을 나섰다.

곧바로 그는 목소리가 맑은 전령들에게 명령하여,
머리카락이 긴 아카이아인들을 회의로 소집하라고 일렀다.
전령들이 소집 명령을 내리자, 아카이아인들은 매우 빠르게
모여들었다.

그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시작했을 때, 텔레마코스는 청동
창을 손에 들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
마리의 빠른 사냥개가 그를 따라갔다.

아테나가 그에게 베푼 은총은 경이로웠다. 텔레마코스가
다가오자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며 경탄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고, 원로들은 그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이깁티오스 영주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몸이 굽었으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전사 안티포스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함께 속이 깊은 배를 타고 말로 유명한 일리오스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만적인 키클롭스가 깊은 동굴에서 안티포스를 죽이고, 마지막 식사로 삼아 먹어 치웠다.
아이깁티오스에게는 다른 세 아들도 있었다. 그중 에우리노모스는 구혼자들과 어울려 지냈고, 나머지 두 아들은 줄곧 아버지의 농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며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을 들어라.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속이 깊은 배를 타고 떠난 날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열거나 모임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인가? 젊은이들이든 노인들이든, 대체 누구에게 이토록 급한 일이 생겼단 말인가?

그가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려고 부른 것인가?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전달해야 할 또 다른 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 눈에 그는 선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으로 보인다. 제우스께서 그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 징조가 담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 후로 그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민회 중앙에 섰다. 지혜로운 조언가인 전령 페이세노르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먼저 그 노인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아시겠지만 바로 접니다. 누구보다도 큰 슬픔이 제게 닥쳤습니다.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여러분께 알리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다른 공적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자신의 일 때문입니다.

제 집안에 두 가지 재앙이 닥쳤습니다.

첫째로 저는 고귀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여기 모인 여러분의 왕이셨고, 친아버지처럼 자애로우셨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쳐, 곧 제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살림을 모조리 망가뜨리려 합니다. 어머니는 원하지도 않는데 구혼자들에게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아버지인 이카리오스의 집으로 가기를 꺼립니다. 그곳에 가면 이카리오스가 직접 딸의 혼인 예물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딸을 주실 텐데 말입니다.

그 대신 날마다 우리 집으로 몰려와 소와 양과 살찐 염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빛나는 포도주를 마구 마셔대니, 재산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집안의 파멸을 막아 줄 오디세우스 같은 분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막아 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서 봤자 나약하고 용맹함을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날 뿐이겠지요. 그래도 제게 힘만 있다면 맞서 막아 내겠습니다. 이미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집안이 망가지는 정도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스스로 부끄러워하십시오. 주위에 사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신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악행에 분노한 신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올림포스의 제우스와 사람들의 모임을 열고 해산하는 테미스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제발 그만두시고, 제가 홀로 쓰라린 슬픔 속에서 지내게 내버려 두십시오. 혹시 저의 훌륭한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을 일부러 해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보복으로 이 사람들을 부추겨 저를 일부러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직접 제 보물과 가축을 먹어 치우는 편이 제게는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이 먹어 치우셨다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려받을 때까지 저희가 도시를 돌아다니며 돌려달라고 청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제 마음에 안긴 고통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하고는 지팡이를 땅에 내동댕이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연민이 일었다.

그 뒤로 다른 이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고, 그 누구도
텔레마코스에게 화난 말투로 대답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안티노오스만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텔레마코스,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허풍쟁이여,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여 우리를 망신 주고 우리에게 비난을 퍼부으려 하느냐!

아니, 내가 네게 말하건대, 잘못이 있는 것은 아카이아인 구혼자들이 아니라 바로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는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교활하니 말이다.

벌써 세 번째 해가 지났고, 곧 네 번째 해가 지나가려 하고 있다.

그녀는 아카이아인들의 마음을 속여 왔기 때문이다.
페넬로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각 사람에게
약속을 건네며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마음속으로 교활한 계획을 하나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궁전에서 베틀에 커다란 베를 걸고 짜기 시작했다. 그 베는 실이 가늘고 폭도 매우 넓었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곧장 우리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젊은이들이여, 나의 구혼자들이여,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내 결혼을 서두르더라도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이 옷을 다 완성할 때까지 말이다. 내 길쌈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구나. 이것은 라에르테스 경을 위한 수의로, 비참한 죽음이라는 가혹한 운명이 그를 덮칠 때를 대비한 것이란다.

만약 큰 재산을 가졌던 그가 수의도 없이 누워 있게 된다면, 이 땅의 아카이아 여인들이 나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우리의 오만한 마음도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매일 낮에는 커다란 베틀에서 옷을 짰지만, 밤이 되면 곁에 횃불을 켜 두고는 다시 실을 풀었다.

그녀는 이런 속임수를 써서 삼 년 동안 아카이아인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기만했다. 하지만 계절이 흘러 네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녀의 여종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페넬로페가 화려한 베를 풀고 있는 현장을 붙잡았다. 결국 페넬로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옷을 완성해야만 했다.

그러니 구혼자들의 대답은 이렇다. 너도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아카이아인도 알도록 해라.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아버지가 권하며 어머니 자신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과 결혼하시라고 해라.

다만 만약 페넬로페가 마음속에 이 생각을 품고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을 오랫동안 괴롭힌다면, 그것은 아테나가 그녀에게 다른 여인들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수공예 기술과 명석한 마음, 그리고 교묘한 꾀를 주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 꾀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어떤 여인도 알지 못했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다. 아주 오래전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던 아카이아 여인들인 튀로와 알크메네, 그리고 아름다운 왕관을 썼던 미케네를 생각해보아도, 그들 중 누구도 페넬로페처럼 영리한 책략을 가진 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만큼은 페넬로페가 올바른 방책을 세우지 못했다.

신들이 지금 그녀의 마음에 심어준 그 뜻을 그녀가 계속 고수하는 한, 사람들은 네 살림과 재산을 오랫동안 갉아먹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커다란 명성을 가져다주겠지만, 너에게는 네 막대한 재산에 대한 후회만을 남길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아카이아인과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중
누구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나를 낳아 기르신 어머니를 원치도 않으시는데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 아버지는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든
다른 땅에 계신다. 내가 자의로 어머니를 보내면
이카리오스에게 막대한 대가를 돌려드려야 할 텐데, 그것도
내게는 재앙이다.

나는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도 해를 입을 것이고, 신들도
다른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며 두려운
복수의 여신들을 부르실 테니까. 사람들의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어머니께 떠나시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 일에 화가 난다면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 집을
돌아가며 너희 재산으로 다른 잔치를 벌여라. 그래도 한
사람의 살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망가뜨리는 편이 더 낫고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먹어 치워라.

그러나 나는 영원한 신들께 간청하겠다. 제우스께서 응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때 너희는 내 집
안에서 죽고, 그 죽음에 대해 아무도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마코스가 그렇게 말하자, 멀리까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우스가 응답으로 두 마리의 독수리를 보냈다.
독수리들은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날아 내려왔다.

독수리들은 날개를 펼친 채 바람처럼 빠르게 나란히
날아갔다. 그러다 수많은 목소리가 섞인 회의장 한가운데에
이르자, 독수리들은 날개를 빠르게 퍼덕이며 방향을 틀었다.

독수리들은 모든 이의 머리 위를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죽음이 서려 있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서로의
뺨과 목을 할퀴며, 사람들의 집과 도시를 가로질러
오른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새들을 목격하자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때 마스토르의 아들인 노인 할리테르세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새들의 움직임을 읽는 지식과
운명을 말하는 능력에 있어서 당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이였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을 들으시오.
특히 구혼자들에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알리노니, 그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오.

오디세우스는 친구들 곁을 오래 떠나 있지 않을 것이오. 내
생각에는 그가 지금도 가까이 와 있으며, 이 사람들 모두에게
죽음과 운명을 뿌리고 있는 듯하오.

또한, 맑게 보이는 이타카에 거주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도 그는 재앙이 될 것이오.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이 일을 끝낼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 차라리 저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합시다. 그 편이
저들에게는 훨씬 나을 것이오. 나는 미숙한 풋내기로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말하는 것이오.

아르고스인들이 일리오스로 배를 띄우고 꾀 많은
오디세우스도 함께 떠났을 때, 내가 그에게 말한 일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오.

나는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모든 동료를 잃은 뒤, 스무
해째 되는 해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소. 보시오, 이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소.”

그 말에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노인장,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서 당신 자식들에게나 예언해 주시오. 훗날 그들이 재앙을 겪지 않도록 말이오. 이 일에 관한 예언이라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낫소. 햇빛 아래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새는 많지만, 모두 운명의 징조를 전하는 것은 아니오. 오디세우스는 멀리서 죽었소.

당신도 그와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징조를 읽는다며 그렇게 떠들거나 텔레마코스의 분노를 부추기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가 당신 집안에 선물이라도 줄까 기대하면서 말이오.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만약 당신이 옛 지혜에 밝은 사람으로서 말로 젊은이를 속여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 젊은이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 당신에게는 우리가 벌금을 물릴 것이니, 당신은 그 벌금을 내는 것이 몹시 괴로울 것이며 당신의 슬픔은 쓰라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모든 이들 앞에서 텔레마코스에게 직접 이 조언을 건넬 것이다.

텔레마코스는 자기 어머니에게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야 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혼례 잔치를 준비하고 수많은 예물을 마련할 것이다. 사랑받는 딸을 보낼 때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말이다.

내 생각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은 그 고통스러운 구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마코스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한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늙은이여, 당신이 선포할 그 어떤 예언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당신의 예언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은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그녀가 결혼 문제로 아카이아인들을 계속 미루는 한, 그의 재산은 악한 방식으로 탕진될 것이며 결코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탁월함 때문에 이곳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며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다른 여인들을 찾아 떠나지도 않고 있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와 다른 고귀한 구혼자 여러분, 이 일로 더는 간청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신들도 모든 아카이아인도 알고 계시니까요. 대신 빠른 배 한 척과 제가 갔다 돌아오는 길을 도와줄 동료 스무 명을 내어 주십시오. 저는 스파르타와 모래 많은 필로스로 가려 합니다.

오랫동안 떠나 계신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려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흔히 소식을 전하는 제우스의 목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한 해는 더 견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봉분을 쌓겠습니다. 그 위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장례 의식을 성대히 치르고, 어머니를 새 남편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고결한 오디세우스의 동료였던 멘토르가 일어났다.

오디세우스는 배를 타고 떠나면서 멘토르에게 자신의 집안 모든 것을 맡겼다. 집안 사람들이 멘토르의 말을 따르게 하고, 멘토르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멘토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회의에 말을 건넸으며, 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을 들어라.

앞으로 그 어떤 홀을 든 왕도 결코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고 온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음속으로 정의를 살피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언제나 가혹하게 굴며 불의를 행하라. 그가 다스리던 백성 중 누구도 신성한 오디세우스를 기억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는 아버지처럼 온화한 이였다.

그렇지만 진실로 나는 오만한 구혼자들이 그들의 사악한 꾀를 부리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오디세우스의 집을 폭력적으로 약탈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나머지 백성들이다. 너희는 수가 훨씬 많은데도, 구혼자들을 멈추게 할 꾸짖는 말 한마디 없이 모두 이렇게 침묵하며 앉아만 있으니 말이다."

그 말에 에우에노르의 아들 레오크리토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멘토르, 이 사고뭉치 같으니, 정신 나간 자여, 당신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막으라고 부추기다니! 잔치 하나를 두고 자기보다 수가 더 많은 사람들과 싸우기는 어려운 법이다.

만약 이타카의 오디세우스 본인이 직접 와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위엄 있는 구혼자들을 자신의 홀에서 몰아내고자 열망한다 하더라도, 그의 아내는 그를 간절히 그리워했을지언정 그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자신보다 수가 많은 사람들과 싸운다면, 그는 바로 이곳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다. 자, 이제 사람들아, 흩어져서 각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자에 대해서는 멘토르와 할리테르세스가 그의 여정을 도와줄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그의 아버지 집안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 자는 이곳에 오래 머물며 이타카에서 소식이나 듣고 있을 뿐, 결코 이 여정을 완수하지는 못할 것 같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회를 해산했다.

이에 사람들은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구혼자들은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바닷가로 따로 나갔다. 그는 회색빛 바닷물에 손을 씻고 아테나에게 기도했다.

"어제 우리 집을 신으로서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떠나 있는 아버지의 귀환 소식을 찾으러 안개 자욱한 깊은 바다로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십시오, 아카이아인들이 이 모든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구혼자들이 그들의 사악한 오만함으로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말을 끝냈다.

이에 아테나는 멘토르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대로 본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아테나는 날개 돋친 말을 그에게 건넸다.

“텔레마코스여, 만약 네 아버지의 고결한 정신이 조금이라도
네게 스며들어 있다면, 너는 앞으로 비겁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버지는 말과 행동을 모두
실천하는 분이셨다.

그렇다면 너의 이번 여정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이루지
못한 채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그분과
페넬로페의 아들이 아니라면, 네가 소망을 이루리라는
희망은 내게 없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참으로 드물다. 대부분은 아버지보다
못하며,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은 극히 적은 법이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도 비열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디세우스의 지혜 또한 너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 네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제 구혼자들의 뜻이나 의논에는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결코 신중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죽음이나 검은 운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검은 운명은 사실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며, 그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는, 네가 마음먹은 그 여정이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아버지의 집안에 진정한 친구이니, 너를 위해 빠른 배를 준비하고 나 또한 너와 함께 가겠다.

이제 너는 집으로 가서 구혼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거라. 식량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그릇에 담아두어라. 항아리에는 포도주를 담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보릿가루는 튼튼한 가죽 부대에 담아두어라.

그동안 나는 마을을 돌며 기꺼이 동행할 동료들을 재빨리 모으겠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에는 새 배와 낡은 배를 통틀어 아주 많은 배가 있다. 나는 그중에서 너를 위해 가장 좋은 배를 골라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재빨리 배를 준비하여 넓고 깊은 바다로 띄워 보낼 것이다."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그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는 여신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무거운 슬픔을 안은 채 집으로 향했다.

텔레마코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오만한 구혼자들이 대청에서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마당에서 돼지의 털을 불에 그슬리고 있었다.

안티노오스가 웃으며 텔레마코스에게 곧장 다가왔다. 안티노오스는 텔레마코스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 이 허풍쟁이 녀석아, 무모하게 용기를 부리는구나. 네 마음속에 더 이상 악한 행동이나 말을 품지 마라.

아니, 나는 네게 이전처럼 먹고 마시라고 권한다. 아카이아인들이 분명히 너를 위해 배와 엄선된 노꾼들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고귀한 아버님의 소식을 찾기 위해 신성한 필로스로 신속히 떠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티노오스, 너희처럼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잔치를 즐길 수 있겠느냐? 구혼자들아,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너희가 내 훌륭한 재산을 허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이제 나는 자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 깨달음을 얻으며 내 안의 정신도 커졌다.

필로스로 가든 이곳에 머물든, 너희에게 파멸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끝까지 힘써 보겠다.

나는 갈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 여정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비록 내가 배나 노잡이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항해할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텔레마코스는 말을 마치고는 더 지체하지 않고 안티노오스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낚아채듯 빼냈다. 그사이 구혼자들은 연회장 전체에서 잔치를 즐기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텔레마코스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중 오만한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정말로 텔레마코스는 우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는 모래 많은 필로스나 심지어 스파르타에서조차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데려올 기세야. 그가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지 보라고.

아니면 그 풍요로운 땅 에피레로 가서 치명적인 독약을 가져올지도 몰라. 그걸 술그릇에 몰래 타서 우리 모두를 몰살하려는 속셈이지."

그리고 오만한 청년들 중 또 다른 이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가 오디세우스처럼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곳을 떠돌다, 속이 깊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우리에게 더 큰 수고를 안겨줄 것이다.

우리는 그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그의 집은 그의 어머니와 그녀와 결혼할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테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지붕이 높은 보물 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은 금과 청동이 쌓여 있고, 궤짝 속의 의복과 향기로운 기름이 보관된 넓은 방이었다.

그곳에는 또한 오래되고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커다란 항아리들도 놓여 있었다. 그 항아리들 안에는 물을 섞지 않은 더없이 좋은 술이 담겨 있었으며, 만약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 벽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두 짝의 문은 빈틈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페이세노르의 아들 옵스의 딸인 에우리클레이아가 밤낮으로 머물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있었다.

텔레마코스는 그녀를 보물 창고로 불러낸 뒤,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모, 항아리에 달콤한 포도주를 담아 주시오. 늘 그 불운한 분을 생각하며 간직해 온 포도주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부탁하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가 죽음과 운명을 피해 어디선가 돌아오실지 몰라 남겨 둔 그 포도주 말이오.

열두 항아리를 채우고 모두 뚜껑을 덮어 두시오. 잘 꿰맨 가죽 부대에는 갈아 놓은 보릿가루를 스무 계량분 담아 주시오. 이 일은 유모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 모두 준비해 두면, 저녁에 어머니께서 쉬시려고 다락방에 올라가셨을 때 가져가겠소.

나는 스파르타와 모래 많은 필로스로 가려 하오.

혹시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는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아, 사랑하는 아이야, 어찌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외아들이자 이토록 사랑받는 네가 넓은 세상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죽고 말았단다.

네가 떠나기만 하면, 저 남자들은 앞으로 너에게 해를 끼칠 음모를 꾸밀 것이다. 네가 속임수에 빠져 죽게 만들고, 저들끼리 이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 할 것이다.

아니다, 너는 네 재산을 지키며 여기 머물러라. 네가 고난을 겪으며 쉬지 않고 몰아치는 바다 위를 떠도는 방랑자가 될 필요는 없단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유모, 안심하시오. 신의 뜻을 받아 세운 계획이오. 다만 열하루나 열이틀이 지나기 전에는, 또는 어머니께서 직접 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떠난 소식을 들으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일을 알리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슬픔 때문에 어머니의 고운 살결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오.”

텔레마코스가 그렇게 말하자, 노파는 신들을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맹세를 마친 노파는 즉시 그를 위해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았고, 잘 꿰맨 가죽 부대에는 보리 가루를 담았다.

그동안 텔레마코스는 대청으로 가서 구혼자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이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른 방책을 세웠다. 아테나는 텔레마코스의 모습으로 변하여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

아테나는 각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며, 저녁에 빠른 배 옆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게다가 아테나는 프로니오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노에몬에게 빠른 배 한 척을 요구했고, 노에몬은 기쁜 마음으로 배를 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해가 저물고 모든 길에 어둠이 깔렸다.

그때 아테나는 빠른 배를 바다로 끌어내어,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장비를 그 배에 실었다.

아테나는 배를 항구 입구에 닻을 내려 묶어 두었다. 그 배 주위로 훌륭한 일행이 모여들었고, 여신은 그들 각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시 다른 계책을 세웠다.

아테나는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테나는 구혼자들에게 달콤한 잠을 내려 그들이 술을 마시다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손에서 잔을 떨어뜨리게 했다.

구혼자들은 잠이 눈꺼풀을 덮치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일어나, 도시 곳곳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텔레마코스를 위엄 있는 홀 앞으로 불러냈다. 아테나는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멘토르와 똑같이 바꾸어 텔레마코스에게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여, 이미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춰 찬 네 동료들이 노를 잡고 앉아 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가자, 그들의 여정을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게 말한 뒤, 팔라스 아테나가 앞장서서 빠르게 나아갔고, 텔레마코스는 여신이 간 발자취를 따라 뒤따랐다.

두 사람이 배가 있는 바닷가로 내려갔을 때, 해안가에는 머리카락이 긴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강인하고 용맹한 텔레마코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자, 친구들이여, 물품들을 가져오자. 이제 모든 것이 연회장에 모여 있다. 어머니도 이 일을 전혀 모르시고, 하녀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내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한 뒤 텔레마코스가 앞장섰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다.

오디세우스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명령한 대로, 그들은 모든 물건을 가져와 좌석이 잘 갖춰진 배 안에 차곡차곡 실었다.

그다음 텔레마코스가 배 위로 올라갔다. 아테나가 그보다 앞서 가서 배의 선미에 앉았고, 텔레마코스도 그 곁에 앉았다.

그동안 사람들은 선미의 밧줄을 풀고 배 위로 올라와 좌석에 앉았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들에게 순풍을 보내주었다. 그것은 포도주 빛깔의 어두운 바다 위에서 노래하며 불어오는, 강하게 몰아치는 서풍이었다.

텔레마코스는 부하들을 불러 돛대와 밧줄을 잡으라고 명령했고, 부하들은 그의 부름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전나무 돛대를 세워 움푹 파인 받침대에 끼워 넣은 뒤, 앞쪽 지지줄로 돛대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소가죽을 꼬아 만든 끈을 사용하여 하얀 돛을 끌어 올렸다.

그때 바람이 돛의 불룩한 부분에 가득 찼다. 배가 나아가자 검은 파도가 배의 이물에서 크게 노래하듯 부딪혔고, 배는 파도 위를 빠르게 가로지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이 빠른 검은 배에 돛대와 장비들을 단단히 고정하자, 그들은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들을 내놓았다.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신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제사를 올렸다. 무엇보다도 제우스의 딸인 번뜩이는 눈의 아테나에게 바쳤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녘까지도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제3권

필로스의 네스토르

이제 태양이 아름다운 물을 떠나 청동빛 하늘로 솟아올랐다. 불멸의 신들과, 곡식을 내주는 땅 위의 죽을 운명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였다. 일행은 넬레우스의 견고한 성채가 있는 필로스에 도착했다. 바닷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대지를 뒤흔드는 검은 머리의 신에게 검은 황소를 바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홉 무리로 나뉘어 앉아 있었다. 한 무리에 오백 명씩이었고, 무리마다 제물로 바칠 황소 아홉 마리를 준비해 두었다.

그들이 내장을 맛보고 신에게 바칠 허벅지 살을 태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곧장 해안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모양이 잘 빠진 배의 돛을 끌어올려 접고 배를 정박시킨 뒤, 자신들도 배에서 내렸다.

텔레마코스도 배에서 내렸고, 아테나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먼저 텔레마코스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이제 더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전혀,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 네가 바다를 건너 항해한 목적은 바로 네 아버지의 소식을 찾기 위함이 아니냐. 아버지가 땅속 어디에 묻히셨는지, 그리고 어떤 운명을 맞이하셨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다.

자, 이제 곧장 말들을 길들이는 네스토르에게로 가거라. 그가 가슴속에 어떤 조언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꾸나. 그리고 네가 직접 그에게 간청하여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거라.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니,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멘토르여, 제가 어떻게 가야 하며,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저는 아직 교묘한 말솜씨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께 여쭙기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 말에 번뜩이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할 말 중에는 네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찾아낼 것도 있고, 신이 일러 줄 것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너는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신들의 은총을 받은 아이니까.”

팔라스 아테나가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텔레마코스는 여신이 간 발자취를 따라 뒤따라갔다.

그들은 필로스 사람들의 모임과 무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네스토르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백성들은 잔치를 준비하며 고기 일부를 굽고 다른 조각들을 꼬챙이에 끼우고 있었다.

낯선 이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환영의 뜻으로 손을 맞잡으며 그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먼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모두 잡았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그의 형제 트라시메데스와 아버지 곁, 바닷가 모래 위 부드러운 양털이 깔린 잔칫상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들에게 내장 부위를 나누어 주고 황금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었다. 그는 잔을 권하며,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방인이여, 이제 포세이돈 신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우연히 발을 들인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예법에 따라 포도주를 부어 기도를 올린 뒤에는, 당신의 친구에게도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잔을 건네어 그가 술을 따를 수 있게 하십시오. 내 생각에 그 친구 또한 불멸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분은 손님보다 젊고 저와 나이가 비슷하니, 제가 당신에게 먼저 황금 잔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잔을 아테나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런데 팔라스 아테나는 그 남자의 지혜와 판단력에 기뻐했다. 그가 자신에게 먼저 황금 잔을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즉시 포세이돈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대지를 감싸 안는 포세이돈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마다하지 마소서. 먼저 네스토르와 그 아들들에게 명성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 성대한 희생제에 대한 은혜로운 보답을 나머지 필로스 사람들 모두에게 내려주소서.

또한 텔레마코스와 제가 빠른 검은 배를 타고 이곳에 온 목적을 모두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테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텔레마코스에게 아름다운 두 손잡이 잔을 건넸고, 오디세우스의 사랑스러운 아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했다.

그들이 내장을 뺀 고기를 구워 꼬챙이에서 빼낸 뒤, 고기를 나누어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였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그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누구인지 묻고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더 품위 있는 일인 듯합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누렸으니 말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바닷길을 따라 항해해 왔습니까? 어떤 특정한 용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목숨을 걸고 떠도는 해적들처럼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입니까?”

그때 지혜로운 텔레마코스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아테나가 직접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텔레마코스가 떠나간 자신의 아버지를 물어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넬레우스의 아들이자 아카이아인들의 큰 영광이신 네스토르 어르신,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셨으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온 아래 이타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제 개인의 일이지 백성 전체의 일이 아닙니다.

널리 전해지는 아버지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굳센 마음을 지닌 훌륭한 오디세우스의 소식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때 어르신 곁에서 싸우며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트로이아인들과 싸웠던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는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만은 알 길조차 없게 만드셨습니다. 육지에서 적들에게 쓰러지셨는지, 암피트리테의 파도가 이는 깊은 바다에서 돌아가셨는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의 무릎 앞에 와서 간청합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직접 보셨든, 그 방랑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으셨든,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겪을 운명이었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거나 동정하여 달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이 목격하신 그대로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간청하오니, 만약 저의 아버지인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당신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었던 트로이아 땅에서 그것을
이행했다면, 부디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의 친구여, 그대가 우리가 그 땅에서 겪었던 슬픔을 내
기억 속에 불러일으켰으니, 우리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감히 두려움 없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을 말해주겠네.

아킬레우스가 이끄는 대로 안개 자욱한 깊은 바다를 떠돌며
전리품을 찾아 헤매던 시절, 배 위에서 겪었던 모든 일과
프리아모스 왕의 거대한 도시 주변에서 벌였던 모든 싸움
말일세.

보게나, 그곳에서 우리의 가장 뛰어난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네. 용맹한 아이아스가 그곳에 누워 있고,
아킬레우스도 그곳에 있으며, 신들과 맞먹는 지혜를 가졌던
파트로클로스도 그곳에 있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힘이 세고 비길 데 없으며 발이
빠르고 전사로서도 탁월했던 안틸로코스도 그곳에 누워
있다네.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 외에도 수많은 다른 재앙을 겪었다. 필멸의 인간 중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만약 네가 이곳에 다섯 해 혹은 여섯 해 동안 머물며, 선량한 아카이아인들이 그곳에서 겪은 모든 고난에 대해 묻는다 해도, 너는 다 듣기도 전에 지쳐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는 아홉 해 동안 온갖 계략을 짜내어 그들을 파멸시키느라 분주했단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께서도 겨우 그 일을 이루어 내셨지.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와 지략을 겨루려 하지 않았다.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온갖 책략에서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바로 네 아버지 이야기다.

너를 보고 있노라니 경이로움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진실로 네 말투가 그의 말투와 같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어찌 그와 이토록 닮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훌륭한 오디세우스와 나는 회의에서나 의논할 때나 결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툰 적이 없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최선이 될지 지혜롭고 영리한 조언으로 아카이아인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드높은 도시를 함락시키고 배를 타고 떠났을 때, 신이 아카이아인들을 흩어놓았다. 그때조차 제우스는 아르고스인들에게 비극적인 귀환이 닥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아르고스인들 모두가 신중하거나 정의롭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무시무시한 운명을 맞이했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강력한 아버지의 딸인 아테나의 무서운 분노 때문이었다. 아테나가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다.

해 질 녘에 이 두 사람은 아카이아인 모두를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으나, 무모하고도 질서가 없었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모여들었다.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이 입을 열어, 왜 군대를 한데 모았는지 그 이유를 알렸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모든 아카이아인에게 넓은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아가멤논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다.

아가멤논은 군대를 붙잡아 두고, 아테나의 두려운 분노를 달래기 위해 거룩하고 성대한 희생제를 올리고 싶어 했다. 어리석게도 그는 아테나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영원히 존재하는 신들의 마음은 쉽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하지만 정강이 가리개를 찬 아카이아인들은 놀라운 소란을 일으키며 일어났고, 두 가지 계획 모두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날 밤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제우스가 우리에게 불행한 운명을 가져오고 있었기에, 양측은 서로를 향한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중 일부는 빛나는 바다 위로 배를 띄웠다. 그리고 배에 짐과 허리에 띠를 낮게 두른 여인들을 태웠다.

군대의 절반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군대의 목자인 아가멤논과 함께 남기로 하고 머물렀다. 하지만 우리 중 나머지 절반은 배에 올라 노를 저어 떠났다.

배들은 빠르게 항해했다. 신이 깊고 넓은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테네도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완고한 제우스는 아직 우리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고, 다시 한번 사악한 다툼을 일으켰다.

이에 어떤 이들은 굽은 배를 돌려 떠나갔다. 지혜롭고 영리한 오디세우스 왕도 그의 일행과 함께 떠났으며, 그는 다시 한번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따르는 배들의 전 부대를 이끌고 계속 나아갔다. 신께서 악한 일을 꾸미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튀데우스의 아들인 디오메데스는 용맹하게 도망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우리 뒤를 늦게 따라왔는데, 우리가 긴 항해를 두고 논의하던 중에 레스보스에서 우리를 따라잡았다.

우리는 거친 키오스 섬을 왼쪽에 두고 프시리아 섬을 향해 바다 쪽으로 항해할지, 아니면 바람 부는 미마스 지역을 지나 키오스 섬의 육지 쪽으로 항해할지를 두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청했고, 신은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은 우리가 고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에우보이아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배들은 생명으로 가득한 바닷길을 따라 빠르게 달려 나갔다. 그리고 밤이 되자 게라이스토스에 정박했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온 것에 감사하며, 그곳 포세이돈의 제단에 황소의 넓적다리 살을 많이 바쳤다.

말을 길들이는 자, 튀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의 무리가 그들의 잘생긴 배들을 멈추고 아르고스에 머문 것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나는 필로스를 향해 계속 나아갔고, 신이 처음 바람을 보내기 시작한 때부터 그 바람은 단 한 번도 잦아들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이처럼 아무런 소식도 없이 돌아왔단다.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죽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우리 집안에 머물며 듣게 된 소식들은 마땅히 너에게 들려주어야 하기에,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주마.

창을 휘두르며 용맹하게 싸우던 미르미돈인들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그들은 마음 넓은 아킬레우스의 명성 높은 아들이 이끌던 이들이었다. 또한 포이아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필록테테스도 무사히 돌아왔다.

이도메네우스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동료들을 모두 크레타로 데려왔다고 한다. 바다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앗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직접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아이기스토스가 그를 위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꾸몄는지 말이다.

그렇지만 아이기스토스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남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 아들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죽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에게 복수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친구여, 그대는 준수하고 키도 큰 사람으로 보이니, 그대 또한 용맹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이 그대를 찬양하게 되기를."

이에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에게 대답했다.

"넬레우스의 아들이자 아카이아인들의 커다란 영광이신 네스토르여, 참으로 그 아들은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아카이아인들은 그 아들의 명성을 널리 퍼뜨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할 것입니다.

아, 신들께서 제게도 그런 힘을 주셔서, 제게 해를 끼치려 제멋대로 악행을 꾸미는 구혼자들에게 그들의 중한 죄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신들께서는 저나 제 아버지를 위해 그런 행복을 짜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에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그대가 이 일을 내 기억 속에 불러일으켜 말하고 있으니 말해주겠네. 듣기로는 그대의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구혼자가 그대의 궁전에서 그대를 해치려 온갖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하더군.

말해보게, 그대는 자진해서 이토록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온 땅의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를 따라 그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오디세우스가 언젠가 돌아와 그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복수를 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그가 혼자서 복수할지, 아니면 아카이아인 군대 전체가 함께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나?

아, 번뜩이는 눈의 아테나가 너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고난을 겪던 트로이아 땅에서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를 지극히 돌보셨던 것처럼 말이다. 팔라스
아테나가 그의 곁에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고 서 계셨을
때만큼, 신이 그토록 분명하게 사랑을 보이는 광경은 본 적이
없다.

여신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봐 주신다면,
구혼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결혼은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이에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저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거창하여 저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설령 신들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번뜩이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네 입술 사이로 참으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구나! 만약 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라도 사람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줄 수 있단다.

그러나 나 자신이라면, 집으로 돌아가 귀환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차라리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견디겠다.
아가멤논이 아이기스토스와 아가멤논 자신의 아내가 꾸민 간계에 빠져 자신의 집 화로 곁에서 살해당한 것처럼, 돌아온 뒤에 죽임을 당하느니 말이다.

하지만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라는 가혹한 운명이 사람을 덮칠 때라면, 신들조차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그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멘토르여,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더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에게 다시는 귀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불멸의 신들께서 그를 위해 죽음과 검은 운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다른 문제에 관해 네스토르에게 묻고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사람들의 세 세대에 걸쳐 왕으로 다스리셨다고 말하며, 제 눈에는 그가 마치 불멸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여, 제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아가멤논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 메넬라오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활한
아이기스토스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왕을 죽였다니, 어떤
죽음을 꾸몄던 것입니까? 메넬라오스가 아카이아의
아르고스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떠돌고 있었기에,
아이기스토스가 마음 놓고 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 말에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 내 아이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주마.
보아라, 만약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트로이아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궁전에서 아이기스토스가
살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너
스스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람들은 죽은 그를 위해 쌓아 올린 흙더미를
만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신 개들과 새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평원에 누워 있는 그를 갈가리 찢어 놓았을
것이며, 아카이아의 여인들 중 누구도 그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꾸민 짓이 워낙 끔찍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로이아에 머물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는 말들을 기르는 아르고스의 한 구석에서 안락하게 지내며, 아가멤논의 아내를 말로 유혹하려 끊임없이 애썼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총명한 마음을 지녔기에 그 부끄러운 행위를 멀리했다. 게다가 그녀 곁에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트로이아 땅으로 떠날 때 자신의 아내를 지켜달라고 엄중히 명령했던 악사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신들이 정한 운명이 그녀를 굴복시키기로 묶어버렸을 때, 아이기스토스는 참으로 그 악사를 외딴 섬으로 데려가 새들의 먹이와 전리품이 되도록 버려두었다.

아이기스토스는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도 원했고, 그녀도 원한 일이었다.

아이기스토스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일을 성취했기에, 신들의 거룩한 제단 위에 수많은 허벅지 고기를 태워 바쳤고, 짠 직물과 황금 같은 수많은 제물을 걸어 놓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나는 트로이아에서 출발하여 온갖 우애를 나누며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테네의 곶인 신성한 수니온에 이르렀을 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부드러운 화살로 공격을 가했다.

그 화살은 메넬라오스의 조타수였던 오네토르의 아들 프론티스를 맞추어 죽게 했다. 프론티스는 폭풍이 강하게 불 때 배를 조종하는 솜씨가 인간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그는 속력을 내며 나아가던 배의 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메넬라오스는 여정을 서둘렀으나, 그곳에 머물며 동료를 매장하고 그를 위해 장례 의식을 치러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항해에 나서 속이 깊은 배를 타고 포도주 빛깔의 검은 바다를 건너가다 말레아의 가파른 절벽에 빠르게 다다랐을 때였다.

그때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제우스가 그를 위해 혐오스러운 길을 계획했다. 제우스는 그에게 날카로운 바람을 쏟아부었고, 파도는 산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그의 배들을 둘로 갈라 놓았다. 제우스는 그중 일부를 크레타로 인도했는데, 그곳에는 키도니아인들이 이아르다노스 강가에 모여 살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깊은 바다, 고르틴의 경계에는 바다를 향해 가파르게 깎아지른 매끄러운 절벽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남서풍이 거대한 파도를 몰아쳐, 왼쪽의 파이스토스 방향으로 향하는 곶에 파도를 부딪치게 했고, 작은 바위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의 배들 중 일부가 그곳에 도달했다. 파도가 암초에 배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큰 소동 끝에 죽음을 면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척의 검은 이물 배들은 바람에 밀려 파도에 휩쓸려 이집트로 떠내려갔다.

그리하여 메넬라오스는 낯선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들을 몰며 방랑했고, 많은 생계 수단과 금을 모았다.

그동안 고향에서는 아이기스토스가 이 비극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다.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죽인 뒤, 금이 풍족한 미케네를 칠 년 동안 통치했으며 백성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여덟 번째 해에 아테네에서 돌아온 용맹한 오레스테스가 그의 파멸로 찾아왔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죽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처단했다.

오레스테스가 그를 죽인 후, 오레스테스는 증오스러운 어머니와 겁쟁이 아이기스토스를 위해 아르고스 사람들을 위한 장례 연회를 베풀었다.

바로 그날, 전쟁터의 함성 소리에 능숙한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찾아왔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배들이 실을 수 있는 모든 짐을 가득 채운 엄청난 보물을 가져왔다.

“그러니 친구여, 재산을 뒤에 두고 그처럼 무례한 자들을 집에 남겨 둔 채, 고향에서 멀리 오래 떠돌지는 마라. 그들이 네 재산을 나누고 모두 먹어 치워 버리면, 네 여정이 헛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메넬라오스에게는 꼭 가 보아라. 그는 얼마 전에야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왔다. 폭풍에 떠밀려 그토록 큰 바다에서 길을 잃고 나면, 거기서 돌아오리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바다는 너무나 넓고 무서워서, 새들조차 한 해 동안 날아도 건너오지 못할 정도다.

이제 그대는 배와 동료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시오. 만약 육로로 가고자 한다면, 여기 그대를 위한 전차와 말들이 준비되어 있소. 또한 여기 내 아들들이 그대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니, 그들이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사는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리고 그대가 직접 그에게 간청하여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시오. 메넬라오스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니,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다.

그때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노인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서 제물의 혀를 잘라내고 포도주를 섞으십시오. 우리가 포세이돈과 다른 불멸의 신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바치고 나면, 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빛이 어둠 아래로 내려갔으니, 신들의 잔치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제우스의 딸이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령들은 사람들의 손에 물을 부어 씻겼고, 젊은이들은 그릇에 마실 것을 가득 채워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먼저 제사에 쓸 포도주를 조금씩 잔에 따랐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짐승의 혀를 불 위에 던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 바쳤다.

제물을 바치고 마음껏 술을 마신 뒤에, 아테나와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는 모두 속이 깊은 배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네스토르는 그들을 붙잡으려 애쓰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께서 이를 막아주시기를, 여러분이 나의 집을 마치 옷가지와 담요가 넉넉지 않아 주인과 손님 모두가 편안히 잠들 수 없는, 아주 빈털터리에 가난한 집인 양 여기며 나의 집에서 그 빠른 배로 떠나버리는 일을 말이다.

아니다, 나의 집에는 옷가지와 좋은 담요들이 있다.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배의 갑판 위에 눕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말이다. 또한 내
뒤를 이어 나의 집에서 찾아오는 그 누구라도 손님을 대접할
아이들이 내 집에 남아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번뜩이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오랜 벗이여,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 텔레마코스도 당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텔레마코스는 당신과 함께 가서 댁에서 잠들게
하고, 저는 검은 배로 가겠습니다.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사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우정으로 함께
온 다른 이들은 모두 젊으며, 마음 넓은 텔레마코스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저는 오늘 밤 속이 깊은 검은 배 곁에서 자고, 아침이면 마음
넓은 카우코네스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오래된 빚이고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텔레마코스는 댁을 찾아온 손님이니, 아드님과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나도록 해 주십시오. 가진 말들 가운데 달리기가 가장 빠르고 힘이 가장 좋은 말들을 내어 주십시오."

눈을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 그렇게 말하고는 바다수리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떠나갔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은 경악했고, 노인 네스토르도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경탄했다.

그러고 나서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친구여, 네가 이토록 젊은데도 신들이 함께하며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 나는 네가 비천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분은 올림포스에 거처를 둔 신들 중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제우스의 딸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처녀인 트리토게네이아다. 그녀는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네 고귀한 아버지를 공경했던 분이기도 하다.

오, 여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와 제 아들들, 그리고 존경하는 제 아내에게 아름다운 명성을 허락해 주소서.

그 보답으로 제가 이마가 넓고 매끄러운, 아직 아무도 멍에를 씌우지 않은 어린 암소를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암소를 제물로 바치며, 그 뿔 위에 황금을 입히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를 올렸고, 팔라스 아테나는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때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아들들과 사위들을 자신의 아름다운 궁전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왕의 영광스러운 궁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의자와 높은 좌석에 줄을 지어 앉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노인은 그들을 위해 달콤한 포도주 한 사발을 섞어 내왔다.

그 포도주는 이제 열한 번째 해를 맞이한 것이었는데, 집안 여인이 뚜껑을 고정하던 끈을 풀자 비로소 열렸다.

노인은 그 포도주로 한 사발을 섞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바치며,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아테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그들이 포도주를 부어 바치고 마음껏 술을 마신 뒤에는, 각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는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울림이 있는
주랑 아래에 있는 밧줄로 짠 침상에서 그곳에 머물며 잠을
자라고 말했다.

그의 곁에는 훌륭한 물푸레나무 창을 든 사람들의 지도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함께 머물렀다. 그는 네스토르의 아들들
가운데 아직 혼인하지 않고 궁전에 남아 있는 아들이었다.

네스토르 자신은 높고 웅장한 집의 가장 안쪽 방에서 잠을
잤으며, 그의 곁에는 침상을 정돈해 놓은 아내가 누워 있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곧 나타나자,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침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높이
솟은 문 앞에 놓인, 기름을 바른 듯 하얗고 반짝이는 매끄러운
돌들 위에 앉았다.

옛날에는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지혜로웠던
넬레우스가 이 돌 위에 앉곤 했다. 하지만 넬레우스는 이미
운명의 타격을 받고 하데스의 집으로 떠난 뒤였다.

이제 아카이아인들의 수호자인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그
자리에 대신 앉았다. 그는 손에 홀을 쥐고 있었다.

각자의 방에서 나온 아들들이 무리를 지어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다. 에케프론과 스트라티오스, 페르세우스와 아레토스, 그리고 신과 같은 트라시메데스가 모였다.

그 뒤를 이어 페이시스트라토스 경이 여섯 번째로 합류했다.

그들은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를 데려와 그들 곁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나의 소원을 들어다오. 신께 올린 풍성한 잔치에서 내 곁에 모습을 드러내셨던 아테나를,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쁘게 해 드리고 싶구나.

자, 한 명은 평원으로 가서 암소 한 마리를 데려오너라. 암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목동이 몰고 오게 하렴.

또 한 명은 마음 넓은 텔레마코스의 검은 배로 가서 그의 동료들을 모두 데려오되, 두 사람만 남겨두고 오너라.

그리고 또 한 명은 금세공사 라에르케스를 이리로 오라고 일러서, 암소의 뿔에 금을 입히게 하거라.

그리고 다른 이들은 여기 함께 머물러라. 안의 하녀들에게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홀 전체에 잔치를 준비하고, 의자들을 가져오며, 제단 양옆에 놓을 장작을 가져오고, 맑은 물을 가져오라고 일러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소는 평원에서 끌려왔고, 마음 넓은 텔레마코스의 동료들도 날렵하고 모양이 잘 빠진 배에서 이곳으로 왔다.

대장장이도 자신의 기술을 부리는 도구인 청동 연장들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는 금을 다루는 데 쓰는 모루와 망치, 그리고 잘 만들어진 집게를 가져왔다.

아테나 여신도 제물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자 전차를 모는 노인 네스토르가 금을 내놓았고, 대장장이가 그 금을 준비하여 암소의 뿔에 입혔다. 이는 여신이 제물을 보았을 때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스트라티오스와 용맹한 에케프론이 암소의 뿔을 잡고 이끌었다.

아레토스는 방에서 나와 꽃무늬가 새겨진 대야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왔고, 다른 한 손에는 바구니에 담긴 보리 알갱이를 들고 왔다.

전투에서 흔들림 없는 트라시메데스는 암소를 잡기 위해 날카로운 도끼를 손에 든 채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피를 받을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러자 전차를 모는 노인 네스토르가 손을 씻고 보리 알갱이를 뿌리는 개시 의식을 시작했다.

네스토르는 암소의 머리에서 털을 잘라 첫 제물로 삼아 불 속에 던져 넣으며, 아테나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보리 알갱이를 뿌리자, 네스토르의 아들이자 용맹한 트라시메데스가 즉시 다가와 일격을 가했다.

도끼가 소의 목 힘줄을 끊어 놓았고, 암소의 기력은 풀려나갔다.

이에 여인들이 신성한 외침을 내질렀다. 딸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클리메노스의 딸들 중 맏이인 네스토르의 존경받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소리를 높였다.

남성들은 넓은 땅 위에서 암소의 머리를 들어 올렸고, 사람들의 지도자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 목을 베었다.

암소의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뼈에서 생명이 빠져나갔을 때, 그들은 즉시 몸을 해체했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벅지 살을 모두 잘라냈고, 그 위에 지방을 두 겹으로 덮은 뒤 생고기를 그 위에 올렸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나무 장작 위에 고기를 올려 구웠고, 그 위에 반짝이는 포도주를 부었다. 노인의 곁에서는 젊은이들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 포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나 송아지의 허벅지 살이 모두 타버리고 내장 부위를 맛본 뒤에, 그들은 남은 고기를 잘라 꼬챙이에 꿰어 구웠다. 그들은 뾰족한 꼬챙이를 손에 들고 고기를 구웠다.

그동안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의 막내딸인 아름다운 폴리카스테가 텔레마코스를 씻겨 주었다.

폴리카스테가 텔레마코스를 씻기고 기름을 듬뿍 발라준 뒤, 아름다운 겉옷과 튜닉을 입혀 주자, 텔레마코스는 불멸의 신들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목욕탕에서 나왔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백성의 목자인 네스토르의 곁으로 가서 앉았다.

그들이 내장을 뺀 고기를 구워 꼬챙이에서 빼낸 뒤, 자리에 앉아 연회를 즐겼다.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시중들며 황금 잔에 포도주를 따랐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들들아, 일어나서 텔레마코스를 위해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마차에 매어라. 그래야 그가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다. 그리고 재빨리 빠른 말들을 수레에 매었다.

그러자 집안 여인이 수레에 빵과 포도주, 그리고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들이 즐겨 먹는 맛있는 음식들을 실었다.

그다음에 텔레마코스가 아름다운 수레에 올라탔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도자인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 옆에 올라타 손에 고삐를 쥐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말들을 출발시키려고 채찍으로 건드리자, 말 두 마리는 주저하지 않고 평원을 향해 달렸고, 가파른 필로스의 성채를 뒤로하고 떠났다.

그리하여 말들은 온종일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흔들며 나아갔다.

태양이 저물자 모든 길은 어둠에 잠겼다.

그들은 페라이에 있는 디오클레스의 집에 도착했다. 디오클레스는 오르틸로코스의 아들이었고, 오르틸로코스는 알페우스의 아들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을 지냈고, 디오클레스는 손님들에게 마땅한 대접을 베풀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말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상감 장식이 된 전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성문과 메아리치는 주랑을 지나 앞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말을 출발시키려고 채찍으로 말들을 건드렸다. 두 마리의 말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속도를 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밀이 자라는 평원에 도착했다. 그 후에는 빠른 말들이 그들을 잘 실어 나른 덕분에 여정의 끝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해가 저물자 모든 길은 어두워졌다.

제4권

스파르타의 소식

그들은 수많은 협곡이 있는 라케다이몬의 움푹 팬 땅에 도착하여,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궁전으로 말을 몰았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메넬라오스는 집 안에서 자신의 고귀한 아들과 딸을 위해 많은 친족을 불러 모아 혼인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딸을 전사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의 아들에게 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트로이아 땅에서 이미 그녀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었으며, 이제 신들이 그 혼인을 성사시키고 있었다.

그는 딸을 말과 전차에 태워 보내어, 그녀의 남편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미르미돈인들의 도시로 향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는 스파르타에서 알렉토르의 딸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그 딸은 노예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가 매우 사랑하는 아들인 강인한 메가펜테스의 신부가 될 아이였다.

헬레네는 처음에 황금빛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랑스러운 아이 헤르미오네를 낳은 이후로는, 신들로부터 더 이상의 자식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이웃들과 친족들은 지붕이 높고 거대한 연회장에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신성한 악사가 리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두 명의 곡예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아래로 빙글빙글 돌며 재주를 부리고 있었다.

왕자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두 마리 말과 함께 궁전 문 앞에 멈춰 섰다.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부지런한 시종 에테오네우스가 나왔다가 그들을 보았다. 그는 백성의 목자인 메넬라오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대청을 지나갔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여기 두 명의 이방인이 왔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제우스의 자손과도 같은 두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의 빠른 말들을 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 다른 주인에게로 이들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몹시 불쾌해하며 에테오네우스에게 말했다.

“보에토스의 아들 에테오네우스여, 예전의 너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거늘, 이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망령된 소리를 하는구나.

제우스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슬픔으로부터의 휴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곳에 오기 전에도, 우리 둘은 다른 이들이 베푸는 환대를 아주 자주 받았었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낯선 이들의 말에서 멍에를 풀어준 뒤,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이는 서둘러 홀을 지나갔고, 자신을 따르도록 다른 분주한 시종들을 불렀다.

시종들은 땀을 흘리는 말들을 멍에에서 풀어 마구간에 묶어 두었다. 그리고 말들에게 스펠트 밀을 뿌려 주고, 거기에 흰 보리를 섞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시종들은 전차를 빛나는 입구 벽 쪽으로 기울여 세워 두고, 사람들을 신성한 궁전 안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의 궁전을 지나가며 경탄했다.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높은 지붕이 있는 집 위로 마치 해나 달이 비치는 듯한 광채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이 닿는 대로 구경하며 눈을 즐겁게 한 뒤에, 매끄럽게 닦인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다.

시녀들이 그들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준 뒤, 보드라운 망토와 튜닉을 입혀주자, 그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의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때 한 하녀가 아름다운 금제 주전자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가져왔다. 하녀는 그들을 위해 은제 대야에 물을 부어주었고, 그들 곁에 매끄럽게 닦인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점잖은 살림 담당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들 앞에 빵과 풍성한 별미들을 가져와 차려 놓았다.

고기 써는 사람이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담긴 접시들을 들어 그들 앞에 놓았고, 그들 곁에는 황금 잔들을 놓아두었다.

이에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말했다.

"음식을 드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뒤에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묻겠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에게서는 조상들의 혈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홀을 든 왕들의 혈통입니다. 비천한 농부들이라면 당신들 같은 아들들을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구운 고기를 손에 들어 그들 앞에 놓아주었다. 그것은 메넬라오스 자신에게 특별한 몫으로 차려 준 기름진 소의 등살이었다.

그들은 눈앞에 준비된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의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텔레마코스는 그에게 머리를 바싹 기울였다.

“네스토르의 아들이여, 내 마음이 아끼는 이여, 울려 퍼지는 전당 곳곳에서 번뜩이는 청동과 금, 일렉트룸, 은, 그리고 상아의 광채를 보라. 내 생각에 이곳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보니, 저 안의 올림포스 제우스의 궁전도 이와 같을 것 같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구나.”

그가 말을 마치자,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의 말을 들었다. 메넬라오스는 날개 돋친 말을 그들에게 건네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제우스와는 진정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겨룰 수 없구나. 제우스의 궁전과 소유물은 영원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재물로 나와 겨룰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다.

참으로 나는 수많은 고난과 광활한 방랑을 겪은 끝에, 여덟 번째 해에 내 배들에 재물을 실어 집으로 가져왔다. 나는 키프로스와 페니키아, 그리고 이집트를 떠돌았고, 에티오피아인들과 시돈인들, 에렘비인들에게까지 갔으며, 어린 양들이 태어날 때부터 뿔이 나 있는 리비아에도 갔었단다.

그곳에서는 암양들이 일 년 동안 세 번이나 새끼를 낳았다. 그곳의 주인이나 목자들은 치즈나 고기, 혹은 달콤한 우유가 부족할 일이 없었다. 양 떼가 일 년 내내 젖을 짜면 언제든 우유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땅들을 떠돌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을 때, 그사이 다른 이가 내 형제의 저주받은 아내가 꾸민 간계로 그를 몰래, 그리고 예기치 않게 죽였다.

그러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이 막대한 재물을 가진 주인으로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수많은 훌륭한 보물로 가득했던 위엄 있는 집을 파멸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내가 이 재물의 삼분의 일만 가지고 내 궁전에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말들이 풀을 뜯는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아의 넓은 땅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에도 나는 종종 내 궁전에 앉아 그들 모두를 위해 울며 슬퍼한다. 울음으로써 마음을 달래기도 하지만, 이내 울음을 그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슬픔을 너무 오래 겪으면 금방 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라기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더 깊이 슬퍼한다. 그를 생각하면 잠과 음식조차 혐오스러워질 정도다.

아카이아인들 중에서 오디세우스만큼이나 고난을 겪으며 견뎌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오직 고통뿐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를 향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픔이 남아 있다. 그가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노인 라에르테스와 변함없는 페넬로페,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집안에 갓 태어난 아이로 남겨두고 떠난 아들 텔레마코스가 그를 애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위해 울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눈꺼풀에서 눈물을 흘려 땅에 떨어뜨렸고, 두 손으로 보랏빛 망토를 들어 눈앞을 가렸다.

메넬라오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텔레마코스가 스스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먼저 그를 심문하여 모든 것을 확인해 볼 것인지 마음속으로 고민했다.

메넬라오스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이, 향기롭고 지붕 높은 방에서 헬레네가 나왔다. 황금 화살을 지닌 아르테미스 같은 모습이었다. 아드라스테도 함께 와서 아름답게 만든 의자를 놓았다. 알키페는 부드러운 양털 깔개를 가져왔고, 필로는 은 바구니를 가져왔다.

그 바구니는 이집트 테베에 사는 폴리보스의 아내 알칸드레가 헬레네에게 준 것이었다. 테베 사람들의 집에는 엄청난 재물이 쌓여 있었다. 폴리보스는 메넬라오스에게 은 욕조 두 개와 세발솥 두 개, 그리고 황금 열 탈란트를 주었다.

이것들 외에도, 그의 아내는 헬레네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었다. 헬레네에게 황금 실감개와 바퀴가 달린 바구니를 주었는데, 그 바구니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테두리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다.

하녀인 필로가 이 바구니를 가져와 헬레네의 곁에 놓았다. 바구니 안에는 가늘게 뽑은 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보랏빛이 도는 어두운 색의 양모를 두른 실감개가 놓여 있었다.

헬레네는 의자에 앉았고, 발 아래에는 발받침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헬레네는 즉시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일을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우리 집에 찾아온 이들이 스스로 누구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 마음은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맹세컨대,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막론하고 이토록 서로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용맹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닮은 것을 보고 있노라니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용맹한 전사가 집에 갓난아이로 남겨 두고 떠난 바로 그 아들 말입니다. 부끄러운 저 때문에 여러분 아카이아인들이 치열한 전쟁을 마음에 품고 트로이아 성벽 아래로 왔을 때 말이에요."

그때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내여, 당신이 닮았다고 말하는 것을 나 또한 지금 느끼고 있소. 그의 발과 손, 눈길, 그리고 머리와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그러했소.

정말로 방금 내가 오디세우스를 언급하며, 나를 위해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소. 이 청년이 보랏빛 망토로 눈을 가린 채, 눈썹 아래로 쓰라린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보냈소.”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군대를 이끄시는 메넬라오스여,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다만 신중한 성품이라, 처음 찾아온 자리에서 주제넘게 말씀드리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저희 둘은 신의 목소리를 듣듯 어르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게레니아의 기마 전사 네스토르께서 저를 이 청년의 길잡이로 보내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어르신을 뵙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해야 할지 가르침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달리 도와줄 이가 없으면, 아들은 집에서 많은 슬픔을 겪습니다. 지금 텔레마코스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떠나 계시고, 백성 중에는 집안의 파멸을 막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보시오, 참으로 사랑받는 이의 아들이 내 집에 찾아왔구려. 그는 나를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오.

만약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 그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분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빠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가 돌아왔을 때 다른 아카이아인들보다 훨씬 더 큰 환대를 베풀 것이라 생각했소.

그리고 나는 아르고스에 그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내어주고, 그를 위한 집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내가 그를 이타카에서 데려올 때, 그의 재물과 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을 함께 데려오면서, 내 주변에 자리 잡고 나의 주권에 복종하는 도시들 중 한 곳의 거주자들을 몰아내어 그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이곳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죽음이라는 검은 구름이 우리를 감쌀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그 불행한 사람에게만 귀환을 허락하지 않으신 신께서 분명 질투를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슬픔의 갈망이 일어났다.

제우스의 딸인 아르고스의 헬레네가 울었고, 텔레마코스도 울었으며,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도 울었다.
네스토르의 아들 또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빛나는 새벽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죽인, 비길 데 없는 안틸로코스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틸로코스를 생각하며, 그는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노인 네스토르께서는 우리가 그의 궁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당신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능하다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저녁 식사 때 우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게다가 곧 이른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운명을 받아들인 필멸자를 위해 우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뺨에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불행한 필멸자들에게 마땅히 치러야 할 예우입니다.

저도 형제를 잃었습니다. 아르고스인들 가운데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어르신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만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틸로코스가 발이 빠르기로도, 전사로서도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나의 친구여,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모두 했구려. 그대보다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울릴 말과 행동이었네. 그대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으니, 그렇기에 이토록 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네.

크로노스의 아들이 결혼할 때와 태어날 때 행운의 실을 자아주는 그 사람의 자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마치 지금 그가 네스토르에게, 평생 은혜를 베풀어 자기 집에서 평안한 노년에 이르게 하고, 그 아들들도 지혜롭고 창을 다루는 데 가장 용맹하게 해 주신 것처럼 말이다.

이제 방금 전까지 하던 울음을 그치자. 다시 저녁 식사를 생각하자.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 손에 물을 부어 달라고 하자.

내일 아침에도 텔레마코스와 내가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을 것이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부지런한 시종인 아스팔리온이 그들의 손에 물을 부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제우스의 딸 헬레네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헬레네는 그들이 마시고 있던 포도주에 모든 고통과 다툼을 가라앉히고 모든 불행을 잊게 만드는 약을 즉시 섞었다.

그 약이 잔에 섞인 채로 이것을 마시는 자는, 그날 동안 결코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을 것이었다.

설령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기 죽어 누워 있거나, 눈앞에서 사람들이 칼로 자신의 형제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었다.

제우스의 딸은 그토록 교묘한 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치유의 약이었는데, 이집트 여인인 톤의 아내 폴리담나가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이집트는 곡물을 주는 대지가 가장 풍부한 약초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의 약초 중에는 섞었을 때 치유가 되는 것도 많았고, 해로운 것도 많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파에온의 후손이었기에,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의사였다.

헬레네가 약을 넣고 포도주를 따르라고 명령한 뒤, 그녀는 다시 대답하며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그리고 여기 모인 고귀한 이들의 아들들이여—제우스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복과 화를 번갈아 내리시지만—이제 진실로 대청에 앉아 연회를 즐기며 이야기 나누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때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하거나, 마음이 굳건한 오디세우스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한 사내가 여러분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었던 트로이아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또 무엇을 견뎌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잔인한 매질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비참한 옷을 어깨에 걸쳤다. 그는 노예의 모습으로 적들의 넓은 길을 가진 도시로 들어갔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즉 거지인 것처럼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그는 아카이아인들의 배가 있는 곳에서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트로이아인들의 도시에 들어갔다. 트로이아인들은 모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만이 이 변장한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보고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교활한 그는 나를 피하려 애썼다.

내가 그를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며 옷을 입혀준 뒤, 그가 빠른 배들과 오두막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트로이아인들에게 그를 오디세우스라고 알리지 않겠다고 강력한 맹세를 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는 아카이아인들의 모든 계획을 내게 말해주었다.

그가 긴 칼로 수많은 트로이아인을 죽인 뒤에, 그는 아르고스인들의 무리로 돌아와 풍성한 소식들을 가져왔다.

다른 트로이아 여인들은 크게 통곡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기뻤다. 내 마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프로디테가 내게 준 눈먼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신음했다. 아프로디테는 나를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 아이와 신방, 그리고 지혜와 아름다움 중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내 남편을 버리게 만들었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래, 정말 그렇소, 아내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옳게 말했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사의 계책과 마음을 알아왔고, 넓은 세상을 여행해 왔소. 하지만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진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은 내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소.

그 위대한 남자가 조각된 목마 안에서 해낸 일과 견뎌낸 일 또한 대단한 일이었지. 우리 아카이아인 지도자들 모두가 그 안에 앉아 트로이아인들에게 죽음과 운명을 가져다주었으니 말이오!

그러고 나서 당신은 그곳으로 왔는데, 트로이아인들에게 영광을 안겨주고자 했던 어떤 신의 부름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신과 같은 데이포보스가 당신의 뒤를 따랐다.

당신은 손으로 만져보며 그 움푹한 매복 장소를 세 번이나 빙 둘러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다나오스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크게 불렀는데, 이는 마치 아카이아인 아내들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나와 튀데우스의 아들, 그리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곳 한가운데 앉아 당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소. 우리 둘은 당장이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거나, 안에서 즉시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만류했다. 그때 다른 모든 아카이아인 아들들은 침묵을 지켰다.

오직 안티클로스만이 당신에게 말하고 대답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강한 손으로 그의 입을 단단히 막아 아카이아인 모두를 구했다. 오디세우스는 팔라스 아테나가 당신을 데리고 떠날 때까지 그렇게 안티클로스를 막아 세웠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자이며 군대를 이끄는 자이신 메넬라오스여, 이 일은 더욱 비통할 뿐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닥칠 비참한 파멸을 조금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의 마음이 강철과 같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어서 우리를 잠자리에 들게 해주십시오. 달콤한 잠에 취해 휴식을 취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카이아인 헬레네는 시녀들에게 명하여 주랑 아래에 침상들을 놓게 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보랏빛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덮개를 펴며, 옷 대신 입을 수 있는 양털 망토들을 놓게 했다.

시녀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홀에서 나가 침상을 정돈했고, 전령은 손님들을 밖으로 인도했다.

그리하여 왕자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궁전 앞쪽의 주랑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높이 솟은 집의 가장 깊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그 곁에는 여인들 가운데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헬레네가 긴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전쟁의 함성을 잘 내지르는 메넬라오스가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는 어깨에 날카로운 칼을 찼고, 빛나는 발에는 아름다운 샌들을 매어 신었다. 그리고 신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방에서 나갔다.

그러고 나서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 곁에 앉아 그에게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 왕자여, 무엇이 필요한 일이기에 넓은 바다를 건너 이 아름다운 라케다이몬까지 왔느냐? 공적인 일이냐, 아니면 네 개인적인 일이냐? 이 일의 진실을 내게 말해다오."

이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자이며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이신 메넬라오스여, 혹시 당신께서 내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 하여 제가 왔습니다.

제 집은 파괴되고 있고 풍요로운 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제 집은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방자하게 굴며, 제 수많은 양 떼와 느릿느릿 걷는 매끄러운 소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 어머니를 구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당신의 발치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그의 비참한 죽음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거나, 혹은 다른 이로부터 그의 방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디 그 사실을 제게 말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겪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가련함이나 동정심 때문에 결코 달콤한 말로 저를 위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어떻게 그를 보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청하건대, 만약 저의 아버지인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당신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었던 트로이아 땅에서 그것을
이행했다면, 부디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몹시 불쾌해하며 말했다.

"고약한 놈들! 겁쟁이들이 용맹한 사내의 침상에 눕고 싶어
하다니! 암사슴이 힘센 사자의 덤불 속 굴에 젖먹이 새끼들을
눕혀 놓고, 먹을 풀을 찾아 산비탈과 풀이 무성한 골짜기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구나.

사자가 제 굴로 돌아와 그 둘에게 참혹한 죽음을 내리듯,
오디세우스도 저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내릴 것이다.

오,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 그리고 아폴론이시여,
오디세우스가 예전에 견고하게 세워진 레스보스에서 일어나
필로멜레이데스와 맞붙어 싸워 그를 힘차게 내던져 모든
아카이아인이 기뻐했던 그때와 같은 힘을 가지고 그가
구혼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구혼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구애가 가져온 빠른
파멸과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내게 물으며 간청한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곁길로 새거나 너를 속이지 않겠다. 언제나 틀림없는 말을 하는 바다의 노인이 내게 알려 준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말해 주마.

"이곳으로 여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집트에서 신들이 나를 붙잡아 두었다. 내가 신들에게 소원 성취를 위한 성대한 희생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들은 언제나 인간이 자신의 명령을 명심하기를 바라신다.

지금 이집트 앞쪽의 요동치는 바다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파로스라고 부른다. 그곳은 날카로운 바람이 배의 뒤편에서 순풍으로 불어올 때, 속이 깊은 배가 하루 종일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섬에는 정박하기 좋은 항구가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검은 물을 길어 올린 뒤, 모양이 잘 만들어진 배들을 바다로 띄워 보낸다.

그곳에서 신들은 스무 날 동안 나를 붙잡아 두었다. 사람들의 배가 넓은 바다 위를 빠르게 가로지르게 하는, 깊은 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신들 중 한 분이 나를 가엽게 여겨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모든 식량과 내 부하들의 기력은 모두 바닥나고 말았을 것이다.

나를 구원한 이는 바로 바다의 노인, 강력한 프로테우스의 딸인 에이도테아였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배고픔에 배가 쓰라려 굽은 낚싯바늘로 섬 여기저기를 떠돌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나는 동료들과 떨어져 홀로 헤매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낯선 이여, 그대는 그렇게 어리석고 생각이 둔한가? 아니면 스스로 나태하게 굴며 고생을 즐기는가? 이렇게 오래 섬에 갇혀 벗어날 기미도 찾지 못하니, 동료들의 기운도 꺾이고 있지 않은가.'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어느 여신이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해서 이곳에 갇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드넓은 하늘을 차지한 불멸의 신들께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신들은 모든 것을 아시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신이 저를 여기에 묶어 길을 막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득한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 돌아갈 수 있는지, 제 귀향길을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이 즉시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여,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겠다. 이곳에는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는 바다의 노인, 이집트의 불멸하는 프로테우스가 오곤 한다. 그는 모든 바다의 깊은 곳을 알고 있으며 포세이돈의 종이다.

사람들은 그가 나를 낳아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만약 그대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매복하여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대가 가야 할 길과 그 여정의 길이를 알려줄 것이며, 그대가 어떻게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를 건너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려줄 것이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떠나 있는 동안 그대 집에서 어떤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있었는지도 말해 줄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여신께서 직접 그 신성한 노인을 숨어 기다릴 방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가 먼저 저를 보고 뜻을 알아차려 피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죽을 운명의 인간이 신을 제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이 즉시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여,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겠어요.

태양이 중천에 다다를 때면, 결코 실수하는 법 없는 바다의 노인은 서풍의 숨결을 타고 검은 물결에 몸을 숨긴 채 짠 바닷물 속에서 밖으로 나오곤 해요.

그가 밖으로 나오면, 그는 깊은 동굴 속에 누워 잠을 자지요. 그러면 바다의 아름다운 딸이 낳은 새끼들인 물개들이 회색빛 바다에서 나와 그를 둘러싸고 무리 지어 잠이 들어요. 그들이 내뿜는 숨결에서는 깊은 바다의 비릿한 냄새가 나지요.

동이 틀 무렵에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너희 모두를 한 줄로 눕혀 놓겠다. 그러니 너의 잘 갖춰진 배들에 타고 있는 동료들 중 가장 뛰어난 자 세 명을 신중하게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 노인의 마법 같은 속임수들을 모두
말해주겠다. 우선 그는 물개들의 수를 세며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물개들을 다섯 마리씩 묶어 다 세고 나서
그것들을 확인하면, 그는 마치 양 떼 사이에 있는 목자처럼
물개들 한가운데에 몸을 뉘어 잠을 잘 것이다.

그가 잠든 모습을 보는 즉시, 여러분의 마음을 힘과 용기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가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칠지라도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그는 온갖 시도를 할 것이며, 땅 위에서 움직이는 온갖 생물의
모습으로, 또 물과 경이롭게 타오르는 불의 모습으로
변신하려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그를 붙잡고, 더욱 세게 그를
움켜쥐십시오.

그러나 영웅이여, 마침내 그 노인이 잠들었을 때 보았던
모습으로 돌아와 스스로의 의지로 당신에게 말을 걸며
질문을 던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힘을 거두고 그 노인을 놓아주어라. 그리고 어떤 신이
당신에게 분노하여 당신의 귀환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지를 그에게
물어라.'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넘실거리는 바다 아래로 뛰어들었다.
나는 모래 위에 세워 둔 나의 배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수없이
떠올랐다.

마침내 내가 배와 바다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불멸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넓은 길을 낸
바다의 해안을 따라 걸으며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모든 모험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료 세 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그동안 그녀는 넓은 바다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깊은 곳에서
네 마리의 물개 가죽을 가져왔다. 그 가죽들은 모두 막 벗겨낸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바닷가 모래에 굴을 파고 앉아서 기다렸다.

우리가 그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우리를 한
줄로 눕게 한 뒤 각자의 몸 위로 가죽을 덮어 주었다.

그랬다면 우리의 매복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바다에서 태어난 물개들의 치명적인 악취가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누가 바다 짐승 옆에 누워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우리를 구해내며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다. 그녀는 아주 향기로운 암브로시아를 가져와 각 사람의 코밑에 놓아줌으로써 짐승의 악취를 없애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침 내내 굳건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물개들은 바다로부터 무리 지어 나타났다.

물개들은 바닷가를 따라 줄지어 누웠다. 정오가 되자 그 노인은 바다에서 나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물개들을 찾아냈다. 그는 물개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 수를 세었다.

그는 그 생물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세었다. 노인은 그 속에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노인도 그 자리에 누웠다.

그 순간 우리는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 노인을 팔로 껴안았다. 하지만 그 노인도 자신의 교활한 술책을 잊지는 않았다.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는 수염 난 사자로 변했고, 그다음에는 뱀과 표범, 그리고 거대한 멧돼지로 변했다. 그러고는 흐르는 물로, 다시 잎이 무성하고 높은 나무로 변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마침내 마법술에 능한 그 노인이 지쳐갔을 때, 그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어떤 신이 너와 의논하여 나를 기다리게 하고, 내 의지에 반하여 나를 붙잡게 하였느냐? 네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어르신은 이미 아십니다. 왜 그런 질문으로 답을 피하십니까? 제가 이 섬에 갇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벗어날 기미도 찾지 못해 속으로 얼마나 낙담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들은 모든 것을 아시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불멸의 신이 저를 여기에 묶어 길을 막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득한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 돌아갈 수 있는지, 제 귀향길을 알려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곧 대답했다.

‘배를 타기 전에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 훌륭한 제물을 바쳤어야 했다. 그래야 포도주 빛 어두운 바다를 건너 고향에 가장 빨리 닿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물을 받는 아이깁토스강으로 가서, 드넓은 하늘을 차지한 불멸의 신들께 거룩하고 성대한 희생제를 올려야 한다.

그전에는 벗들을 만나고 견고한 집과 고향에 닿는 것이 네 운명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때에야 신들이 네가 바라는 여정을 허락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가 나에게 멀고도 고된 길인 이집트의 안개 낀 바다를 다시 건너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대답하며 말했다.

“‘어르신이 이르신 대로 모두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트로이아를 떠나며 네스토르와 제가 남겨 두고 온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배를 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실타래를 다 감은 뒤에, 배 위에서나 벗들의 품 안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은 이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하며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것을 묻느냐? 네가 이런 사실을 알거나 내 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결코 네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내 생각에, 네가 이 모든 사실을 제대로 듣게 된다면, 너는 머지않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죽었고, 많은 이가 살아남았다. 하지만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 지도자들 중 오직 두 명만이 귀향길에 목숨을 잃었다. 전투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그곳에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생각에 한 명은 아직 살아있으나, 넓은 바다에 붙잡혀 있구나.

“‘아이아스는 정말로 긴 노를 저은 배들 사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세이돈이 그를 기라이의 거대한 바위로 몰아넣었으나, 바다로부터는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비록 아테나의 미움을 받고 있었을지라도, 만약 아이아스가 마음이 크게 어두워진 상태에서 오만한 말을 내뱉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아스는 자신이 바다의 거대한 심연을 벗어난 것이 신들을 거스른 덕분이라고 큰 오만을 떨며 말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 오만한 말을 듣고는, 즉시 강력한 손으로 자신의 삼지창을 잡아 기라이의 바위를 내리쳤고 바위를 두 갈래로 쪼개 버렸습니다.

바위의 한 부분은 제자리에 남았으나, 갈라진 나머지 부분은 바다로 떨어졌다.

그 바위는 아이아스가 마음이 크게 어두워졌을 때 처음에 앉아 있던 바위였으며, 바다는 그 바위와 함께 아이아스를 끝없는 요동치는 심해로 끌고 내려갔다.

그리하여 아이아스는 그곳에서 짠 바닷물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네 형제는 왕비 같은 헤라가 구해 주어, 속이 깊은 배들을 타고 죽음의 운명을 피했다. 그가 말레아의 가파른 고지에 닿으려 할 때 폭풍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깊이 신음하며 생명으로 가득한 바다를 가로질러 떠밀려갔다.

예전에 튀에스테스가 살았고 지금은 그의 아들 아이기스토스가 사는 땅의 가장자리까지 밀려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안전한 귀환의 길이 그에게 보였고, 신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순풍이 불게 하자, 그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다.

아가멤논은 참으로 기뻐하며 고국 땅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의 땅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고향을 보는 것이 그토록 반가웠기에,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다.

마침 망을 보던 파수꾼이 그를 발견했다. 교활한 아이기스토스가 황금 두 탈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워 둔 사람이었다. 그는 아가멤논이 몰래 지나가 사나운 힘을 떨치지 못하도록 일 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파수꾼은 백성의 목자 아이기스토스에게 소식을 전하러 궁전으로 갔다. 아이기스토스는 곧 간악한 계책을 꾸몄다. 그 땅에서 가장 뛰어난 스무 명을 골라 매복시키고, 대청 저편에는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그는 비열한 일을 꾸미며 전차와 말들을 몰아 백성의 목자인 아가멤논을 불러내기 위해 갔다.

그는 아가멤논이 자신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하게 데려왔고, 아가멤논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에는 마치 외양간에서 황소를 잡듯 그를 죽였다.

그를 따랐던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동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아이기스토스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궁전 안에서 살해당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도, 태양 빛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울며 몸부림치기를 실컷 하고 난 뒤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바다의 노인이 나에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제 그토록 오래 울음을 계속하지 마라. 울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힘닿는 대로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이기스토스를 살아 있는 채로 만날 수도 있고, 오레스테스가 먼저 그를 죽여 장례 잔치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슬픔 속에서도 내 가슴은 다시 위로를 얻어 따뜻해졌다.

나는 말을 이어가며, 날개 돋친 말을 그에게 건넸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아직 살아서 넓은 바다에 붙잡혀 있다는 그 사람 말이오. 혹시 그도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오. 내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간절히 듣고 싶소.’

“그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하며 말했다.

‘그는 라에르테스의 아들이며, 고향은 이타카에 있다네. 나는 그를 어느 섬에서 보았는데, 그는 님프 칼립소의 궁전에서 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칼립소가 그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 있어서,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네.

그에게는 노를 저어 갈 배도 없고, 넓은 바다를 건너 그를 보내줄 동료도 곁에 없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당신은 말들이 풀을 뜯는 아르고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운명을 다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신들은 당신을 엘리시온 평원과 세상의 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은 금발의 라다만토스가 살고 있으며, 인간이 살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다.

그곳에는 눈도, 거센 폭풍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 오직 대양만이 인간들에게 시원함을 주기 위해 날카롭게 부는 서풍을 끊임없이 보내줄 뿐이다.

당신은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신들은 당신을 제우스의 딸의 남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요동치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신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나의 배들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내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배와 바다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불멸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배들을 밝은 바다로 끌어내렸다.

우리는 모양이 잘 잡힌 배들에 돛대와 돛을 세웠다. 사람들도 배에 올라타 노를 젓는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앉아 노로 회색 바다를 내리쳤다. 그리하여 나는 하늘의 물을 받는 아이깁토스강을 향해 다시 항해했다.

나는 그곳에 배를 묶어 두고, 소원 성취를 위한 성대한 희생제를 올렸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신들의 분노를 잠재운 뒤에, 아가멤논의 명성이 꺼지지 않도록 그를 위한 무덤을 쌓아 올렸다.

그 일을 마친 뒤에 나는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불멸의 신들이 나에게 순풍을 보내주어, 나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빠르게 데려다주었다.

자, 이제 내 궁전에 머물며 열한 번째나 열두 번째 날이 올 때까지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떠나보내며 화려한 선물들을 주겠다. 말 세 마리와 잘 닦인 전차를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불멸의 신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바치며 나를 평생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잔도 하나 주겠다."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시여, 저를 이곳에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진실로 저는 당신의 집에서 일 년 동안이나 앉아 있어도 만족할 것이며, 고향이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게는 경이로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동료들은 신성한 필로스에서 초조해하고 있는데, 당신은 저를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든, 그것은
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들은 이타카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즐길 수 있도록 이곳에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은 넓은 평원의 주인이며, 그곳에는 로토스와
갈링게일풀, 밀과 스펠트 밀, 그리고 이삭이 넓은 흰 보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타카에는 말이 달릴 넓은 공간도 없고 초원도
없습니다. 이타카는 염소들을 기르는 목초지이며, 말을
기르는 땅보다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바다에 기대어 있는 섬들 중 그 어디도 말을 몰기에
적합하거나 초원이 풍요롭지 않으며, 이타카는 그중에서도
가장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전장의 함성 소리에 능숙한
메넬라오스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이토록 말하니 너는 참으로 고귀한
혈통이로구나. 그러니 내가 이 선물들을 바꾸어 주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내 집에 보물로 쌓여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을 네게 주겠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혼합용 대접을 네게 주마.

그것은 온통 은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작품이란다. 시돈인들의 왕인 전사 파이디모스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의 집에서 나를 대접하며 내게 준 것이니, 이제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 연회객들이 신성한 왕의 궁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양들을 몰아왔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들의 아내들은 아름다운 베일을 쓰고 그들에게 빵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궁전 안에서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궁전 앞에서 구혼자들은 평소처럼 오만한 마음으로 평평한 곳에서 원반 던지기와 투창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구혼자들의 우두머리인 안티노오스와 신과 같은 위엄을 지닌 에우리마코스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용맹함에 있어서 구혼자들 중 단연 최고였다.

그때 프로니오스의 아들 노에몬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노에몬은 안티노오스에게 질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티노오스, 텔레마코스가 모래 섞인 필로스에서 언제 돌아올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나, 아니면 전혀 알 수 없겠나? 그는 내 배 한 척을 가지고 떠났네. 그 배가 있어야 내가 넓은 엘리스로 건너갈 수 있다네.

그곳에는 열두 마리의 새끼를 낳은 암말들과, 아직 젖을 먹고 길들여지지 않은 튼튼한 노새들이 있네. 나는 그중 한 마리를 몰고 가서 길들이고 싶다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경탄했다. 그들은 텔레마코스가 넬레우스의 필로스로 떠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텔레마코스가 그저 자기 영지 어딘가에서 양 떼를 돌보거나 돼지치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만 여겼다.

그러자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에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그는 언제 떠났으며 어떤 청년들이 함께 갔소? 이타카에서 뽑은 청년들이었소, 아니면 자기 품꾼과 노예들이었소? 그 아이는 그런 일까지 해낼 수 있는 모양이오. 이것도 분명히 알려 주시오. 그가 당신 뜻을 거슬러 검은 배를 억지로 가져갔소?

아니면 간청을 받고 당신 뜻대로 기꺼이 내어 주었소?”

이에 프로니오스의 아들 노에몬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직접 그에게 배를 기꺼이 주었다. 그처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간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선물을 거절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다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청년들이 그와 함께 떠났다. 나는 그들 중 멘토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혹은 모든 면에서 멘토르와 꼭 닮은 어떤 신이 그와 함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점이 놀랍다. 나는 어제 이른 새벽에 이곳에서 훌륭한 멘토르를 보았는데, 그는 그때 이미 필로스로 떠나기 위해 배에 올랐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오만한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다.

구혼자들은 즉시 자리에 앉아 놀이를 멈추도록 명령받았다. 그들 사이에서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안티노오스의 검은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으며,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빌어먹을, 텔레마코스가 정말 오만방자한 짓을 저질렀구나. 이번 여정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다. 우리는 그가 이 일을 결코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저 아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무시하고, 더 지체하지도 않은 채 배를 띄우고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골라 떠나버렸다.

그는 곧 우리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우스께서 저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의 힘을 꺾어버려, 스스로 파멸하게 하시기를!

그렇지만 이보게, 나에게 빠른 배 한 척과 스무 명의 사람을 주게. 그러면 그가 이타카와 험준한 사모스 사이의 해협을 지나갈 때 매복하여 그를 지켜보겠네.

그리하여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그의 항해를 비참한 결말로 끝내버리겠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에 찬성하며 행동에 옮기라고 권했다.

이에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향했다.

페넬로페도 구혼자들이 마음속 깊이 꾸미는 계획을 곧 알게 되었다. 전령 메돈이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메돈은 구혼자들이 안에서 음모를 짜는 동안, 그들의 회의를 밖에서 듣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홀을 가로질러 갔다.

메돈이 문턱을 넘어 들어갈 때, 페넬로페가 그에게 말을 건네며 말했다.

"전령이여, 귀한 신분의 구혼자들이 왜 너를 보냈느냐?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하녀들에게 일을 멈추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라고 시키려느냐?

다시는 구혼하지도 말고, 다른 곳에서 모여 다니지도 말아라. 이제 이곳에서 그들의 마지막이자 최후의 잔치를 즐기도록 해라.

현명한 텔레마코스의 재산을 낭비하며 이곳에 늘 몰려들어 사는 너희 구혼자들 말이다.

너희는 옛날에 어린아이였을 때, 너희 아버지가 오디세우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주었을 때 분명히 전혀 듣지 않았구나. 오디세우스는 그 땅의 어떤 사람에게도 행동이나 말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단다.

한 사람은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신성한 왕들의 관습이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지.

하지만 너희의 마음과 품위 없는 행동은 눈에 뻔히 보인다. 너희에게는 이전에 베풀어진 선행에 대한 고마움이란 조금도 없구나."

지혜로운 메돈이 대답했다.

"왕비님,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훨씬 크고 참혹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결코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그들은 텔레마코스가 돌아오는 길에 날카로운 칼로 죽이려 합니다. 아드님은 아버지의 소식을 찾으러 신성한 필로스와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앉아 있던 그녀의 무릎에 힘이 풀리며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다.

"전령이여, 내 아들은 왜 떠났는가? 그는 바다의 말처럼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빠른 배에 올라타 넓은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었다. 그가 인간들 사이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나?"

마음이 지혜로운 메돈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어떤 신이 그를 재촉했는지, 아니면 그가 아버지의 귀환 소식이나 아버지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셨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 필로스로 가기로 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메돈은 그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의 집을 지나 나갔다.

페넬로페에게는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슬픔의 구름이 몰려왔다. 그녀는 방 안에 놓인 수많은 의자 중 어느 것에도 앉아 있을 기운이 없었다.

페넬로페는 아름답게 꾸며진 방의 문턱에 주저앉아 비통하게 신음했다. 집 안에 있던 젊은 하녀와 나이 든 하녀를 포함한 모든 시녀가 그녀의 주변에서 울부짖었다.

이들 사이에서 페넬로페가 흐느끼며 탄식하며 말했다.

“내 말을 들어다오, 나의 친구들이여. 올림포스의 신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태어나 자란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을 주셨구나.

오래전에 나는 사자 같은 심장을 지닌 고귀한 남편을 잃었다. 그는 다나오스인들 사이에서 온갖 덕목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그의 명성은 헬라스와 아르고스 깊숙한 곳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나의 고귀한 남편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마저 폭풍우가 우리 궁전에서 휩쓸어 가 버렸구나. 아들이 떠날 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출발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 너희는 참으로 잔인하구나!

너희 중 그 누구도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도록 마음을 쓰지 않았구나. 그가 속이 깊은 검은 배에 올라탈 때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만약 그가 이 여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가 떠나기를 아무리 간절히 원했더라도 분명 이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 집안에 내 시신을 남겨 두고서야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서둘러 나의 종인 노인 돌리오스를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는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이며, 수많은 나무가 있는 나의 정원을 돌보고 있다.

돌리오스가 즉시 가서 라에르테스의 곁에 앉아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혹시라도 라에르테스가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라에르테스가 밖으로 나가, 울면서 사람들에게 간청할 수 있게 하라. 그 사람들은 라에르테스의 가문과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가문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선량한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귀하신 여인이시여, 당신은 무자비한 칼로 저를 죽이실 수도 있고, 혹은 저를 이 집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당신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빵과 달콤한 포도주를 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열두 번째 날이 올 때까지, 혹은 당신이 직접 그를 찾다가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제게 엄중히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눈물로 그 아름다운 살결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그러고 나서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가,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아테나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테나가 그를 죽음에서조차 구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노인을 더는 괴롭히지 마세요. 아르케시오스의 아들의 가문이 복된 신들에게 완전히 미움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저 멀리 높은 지붕의 궁전과 풍요로운 들판을 지켜낼 자가 여전히 한 명은 남아 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렇게 말하며 에우리클레이아는 페넬로페의 슬픔을
달래주었고, 페넬로페가 눈물을 그치게 했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페넬로페는 바구니에 보리알을 담아 놓고 아테나에게
기도했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자녀시여, 지치지 않는 여신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약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에서 당신을 위해 암소나 암양의 기름진 다리
고기를 구워 바친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제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디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주시고, 사악하고 오만한
구혼자들로부터 아들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신성한 부르짖음을 올렸고, 여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지만 구혼자들은 어스름한 홀 전체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오만한 청년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 참으로 여왕은 수많은 구혼자에게 구애를 받으며 우리의 혼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들 중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다.

안티노오스가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며 말했다.

“좋은 분들이여, 모든 종류의 오만한 말을 삼가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집 안에서까지 전할지도 모릅니다.

자, 어서 이리 오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제 조용히 일어납시다.”

안티노오스는 그렇게 말하고, 가장 뛰어난 남자 스무 명을 골랐다. 그들은 빠른 배가 있는 바닷가로 길을 떠났다.

그들은 먼저 검은 배를 깊은 물가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돛대와 돛을 세우고, 가죽 노걸이에 노를 차례대로 잘 맞추어 끼운 뒤 흰 돛을 펼쳤다.

자랑스러운 젊은 시종들이 그들에게 무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들은 바다 멀리 떨어진 정박지에 배를 묶어 두고, 자신들은 배에서 내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위층 방에 누워 음식은 물론 고기나 마실 것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는 비할 데 없는 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례한 구혼자들에게 살해당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마치 사자가 사람들이 교묘하게 포위망을 좁혀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이, 페넬로페도 그런 심정으로 고민하다가 달콤한 잠이 찾아왔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며 잠에 빠져들었고, 온몸의 관절이 이완되었다.

그때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른 계책을 세웠다. 아테나는 환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마음 넓은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에우멜로스가 아내로 맞이한, 페라이에 사는 이프티메라는 여인과 닮게 만들었다.

아테나는 그 환영을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보냈다.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는 페넬로페에게 가서,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눈물 섞인 애도를 멈추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환영은 빗장 끈이 지나는 틈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환영은 페넬로페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페넬로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잠들었느냐? 편안히
사시는 신들은 네가 울며 괴로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네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신들이 보시기에 그는
결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꿈의 문턱에서 아주 달콤하게 잠든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내 자매여, 어찌 이곳에 왔나요? 멀리 사는 당신은 전에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제 마음을 괴롭히는
슬픔과 수많은 고통을 그치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오래전에 사자 같은 마음의 고귀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다나오스인들 가운데 온갖 덕목에서 뛰어났고, 헬라스와
아르고스 깊숙한 곳까지 명성이 퍼진 제 훌륭한 남편을
말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속이 깊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고난도 사람들의 모임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보다도 그 아이 때문에 더 슬프고 떨립니다. 찾아간
나라에서든 바다 위에서든 아이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렵습니다. 많은 적이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요."

이에 희미한 환영이 대답했다.

"용기를 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에 누구나 곁에 있어 달라고 간청하는 분이 그와
함께 길을 가신다. 바로 팔라스 아테나다. 여신은 슬퍼하는
너를 가엾게 여기신다.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도
여신이시다."

그러자 현명한 페넬로페가 다시 그 유령에게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신이고,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제발
저 불행한 이의 소식도 말해 주십시오. 그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햇빛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하데스의
집에 가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 말에 희미한 유령이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니오, 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허망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 유령은 문틈 사이로 바람의 숨결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이카리오스의 딸 페넬로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밤의 어둠 속에서 이토록 선명한 환영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위안으로 따뜻해졌다.

하지만 구혼자들은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텔레마코스를 완전히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타카와 험준한 사모스 섬 사이, 바다 한가운데에는 아스테리스라는 바위섬이 있었다. 그 섬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양옆으로 입구가 있어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이 머물며 텔레마코스를 기다리며 매복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제5권

칼립소의 섬을 떠나다

이제 새벽이 위엄 있는 티토노스의 곁에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 불멸의 신들과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주었다.

신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 앉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는, 권능이 지고한 제우스도 있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가 겪은 수많은 재앙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디세우스가 님프의 거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아테나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우스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다른 복된 신들이여. 이제부터는 결코 홀을 든 왕이 마음을 너그럽고 온화하게 가지거나, 마음속으로 정의를 살피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언제나 가혹하게 행동하고 불의를 저지르게 하소서. 그가 다스리던 백성들 중 누구도 신성한 오디세우스를 기억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참으로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섬에 있는 님프 칼립소의 집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칼립소가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를 저어 갈 배도, 넓은 바다를 건너 보내 줄 동료도 없어서 제 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마저 귀향길에 죽이려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신성한 필로스와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으로 갔습니다."

그 말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내 딸아, 네 입술 사이로 어찌 그런 말이 흘러나왔느냐!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네가 직접 세우지 않았더냐?

그렇지만 텔레마코스에 관해서는, 네 지혜로 그를 인도해 다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아무런 상처 없이 고향 땅에 닿을 수 있게 도와라. 그리하여 구혼자들이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린 채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하거라."

그는 말을 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헤르메스야, 너는 평소에 우리의 전령 역할을 하니, 이제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님프에게 우리의 확고한 결심을 전해주렴.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굳건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것이란다.

그가 신들이나 인간들의 인도 없이 돌아오게 하거라. 대신 그가 튼튼하게 묶은 뗏목을 타고 고난을 겪으며, 스무 날째 되는 날에 신들과 친족 관계인 파이아케스인들의 땅, 흙이 깊은 스케리아에 도착하게 해다오.

파이아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마치 신을 대하듯 진심으로 예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청동과 금, 그리고 의복을 듬뿍 줄 것이다. 이는 오디세우스가 전리품을 제 몫까지 챙겨 무사히 돌아왔다 하더라도 트로이아에서 스스로 얻었을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리하여 파이아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배에 태워 그의 그리운 고향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오디세우스가 친구들을 만나고, 지붕이 높은 자신의 집과 고향 땅에 닿게 될 그의 운명이다.”

그렇게 제우스가 말하자, 아르고스를 죽인 자인 전령 헤르메스는 그 말을 빠짐없이 경청했다.

헤르메스는 즉시 발에 아름다운 신발을 매어 신었다. 그 신발은 불멸의 황금 신발로, 평소에 바람처럼 빠르게 바다 위와 끝없는 대지 위를 가로질러 달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그 지팡이는 원하는 사람의 눈을 잠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든 사람을 깨울 수도 있는 것이었다. 아르고스를 죽인 강인한 헤르메스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날아갔다.

헤르메스는 높은 하늘에서 피에리아로 내려와 바다를 향해 급강하했다. 그러고는 마치 물고기를 찾아 쉬지 않고 출렁이는 무시무시한 만을 가로지르며, 짠 바닷물에 두꺼운 깃털을 적시는 가마우지처럼 파도 위를 날아갔다.

헤르메스는 그와 같이 수많은 파도 위를 달렸다.

멀리 떨어진 섬에 도착했을 때, 헤르메스는 보랏빛 바다를 헤치고 육지로 올라왔다. 그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님프가 살고 있는 커다란 동굴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나아갔고, 마침내 동굴 안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화로에는 커다란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멀리 섬 너머로 쪼갠 삼나무와 주니퍼 나무가 타는 향기가 풍겨왔다. 하지만 동굴 안의 칼립소는 베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황금 북으로 옷감을 짜고 있었다.

동굴 주변에는 오리나무와 미루나무, 그리고 향기로운 사이프러스 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에는 날개가 긴 새들이 둥지를 틀곤 했다. 부엉이와 매, 그리고 바다에서 활동하며 재잘거리는 소리를 내는 바다까마귀들이 그곳에 살았다.

그 움푹한 동굴 주변에는 한창때의 기개를 뽐내며 포도 덩굴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덩굴에는 포도 송이들이 풍성하게 매달려 있었다.

네 개의 샘물이 한 줄로 늘어서서 서로 가까이 붙어 흐르고 있었는데, 샘물들은 저마다 이쪽저쪽으로 방향을 틀며 맑은 물을 뿜어냈다.

그 주변으로는 제비꽃과 파슬리가 핀 부드러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우연히 그곳에 온 불멸의 존재라면 누구라도 그 광경을 바라보며 경탄하고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르고스를 죽인 자인 전령 헤르메스가 그곳에 서서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하지만 헤르메스가 마음속으로 그 모든 것을 경탄하며 바라본 뒤, 곧장 넓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 역시 헤르메스를 직접 마주했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신들은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살지라도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르메스는 그곳에서 마음이 넓은 오디세우스를 찾지 못했다. 오디세우스는 평소 그러했듯이 해안가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는 눈물과 신음과 슬픔으로 영혼을 괴롭히며, 눈물을 흘린 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는 헤르메스를 빛나고 번쩍이는 의자에 앉힌 뒤, 그에게 물었다.

"황금 지팡이를 든 헤르메스여,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귀하고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전에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지요. 마음에 품은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음식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여신은 그에게 암브로시아가 가득 차려진 상을 내놓고 붉은 넥타르를 섞었다.

아르고스를 죽인 자인 전령 헤르메스는 그렇게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음식을 먹고 음식으로 영혼을 만족시킨 뒤에야, 헤르메스는 대답하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여신이여, 신인 나에게 내가 온 것에 대해 묻는구나. 네가 내게 말하라 하니,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이곳에 오라고 명령한 분은 바로 제우스였다. 그 누가 제 발로 이토록 넓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금 바다를 가로질러 달려오겠느냐?

또한 신들에게 제물과 훌륭하고 성대한 희생제를 바치는 필멸자들의 도시도 이곳 근처에는 없다. 하지만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뜻을 피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신은 그 어떤 신도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는 이곳에 당신과 함께 있는 한 남자가, 프리아모스의 도시 주변에서 아홉 해 동안 싸우고 열 번째 해에 그 도시를 함락시킨 뒤 고향으로 떠났던 모든 전사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아테나에게 죄를 지었고, 아테나는 그들에게 사악한 바람과 거센 파도를 보냈다.

그곳에서 그의 용맹한 동료들은 모두 죽었으나,
오디세우스만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제우스께서 너에게 명령하셨으니, 그가 가는 길에 지체
없이 보내주어라. 그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채
죽을 운명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지붕이 높은 자신의 집과
고향 땅에 도달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가 몸을 떨며, 날개
돋친 말을 그에게 건넸다.

"신들이여, 당신들은 잔인하고 누구보다 질투가 심하군요.
여신이 죽을 운명의 남자를 사랑하는 잠자리의 짝으로
삼으면, 그와 드러내 놓고 함께 사는 것을 시기하니까요.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오리온을 짝으로 삼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편안히 사는 신들이여, 당신들은 그녀를
시기했습니다. 마침내 오르티기아에서 황금 왕좌의 순결한
아르테미스가 부드러운 화살로 그를 쏘아 죽일 때까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데메테르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세 번이나 갈아엎은 휴경지에서
이아시온과 사랑을 나누었을 때도 그러했다. 제우스는
머지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밝은 번개로
이아시온을 내리쳐 죽였다.

신들이여, 당신들도 지금 나에게 똑같이 시기심을 품고
있구나. 한 명의 필멸자가 나와 함께 머무는 것을 말이다.

제우스가 그의 빠른 배를 밝은 번개로 내리쳐 포도주 빛깔의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냈을 때, 나는 배의 용골 위에
홀로 앉아 있던 그를 구해냈다.

그곳에서 그의 용맹한 동료들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만은 바람과 파도에 실려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다.

나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음식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평생토록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의지를 피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만약 제우스가 이토록
명령하고 지시하신다면, 오디세우스가 요동치는 바다를 건너
자신의 길을 가게 두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그를 배웅할 수는 없다. 나에게는 노를 젓는 배도 없고, 넓은 바다를 건너 그를 보내줄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가 아무런 상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리라."

아르고스를 죽인 전령 헤르메스가 그녀에게 다시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제우스의 분노를 경계하시오. 혹시라도 제우스께서 노여워하시어 나중에 당신에게 화를 내리실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렇게 말하고는 아르고스를 죽인 강인한 헤르메스가 떠나갔다. 여왕처럼 위엄 있는 님프는 제우스의 전갈을 듣고 마음이 넓은 오디세우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해변에 앉아 있는 오디세우스를 발견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슬프게 갈망하느라 그의 달콤한 생명력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에게 더 이상 님프는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깊숙한 동굴 안에서 칼립소의 곁에 누워 잠을 청했다. 님프는 그를 원했지만, 오디세우스는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는 바위와 모래 위에 앉아 눈물과 신음과 슬픔으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아름다운 여신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불행한 사람이여, 이제 더는 이곳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속절없이 시들어 가게 두지도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떠나보내 줄 테니까요.

자, 어서 도끼로 긴 들보를 깎아 넓은 뗏목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위에 높은 갑판이 되도록 판자들을 가로질러 고정하여, 안개 자욱한 깊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세요.

내가 그 안에 빵과 물과 붉은 포도주를 넣어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 주겠습니다.

옷도 입혀 드리고 뒤에서 순풍도 불어 보내겠습니다. 드넓은 하늘을 차지한 신들이 허락하신다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분들은 뜻을 세우고 이루는 힘이 저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인내심 강하고 용모가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몸을 떨었다.

오디세우스는 날개 돋친 말을 그녀에게 건넸다. “여신이여, 당신은 나를 보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뗏목을 타고 거대한 바다의 심연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며, 제우스의 바람을 타고 즐겁게 항해하는 모양새 좋고 빠른 배들조차 지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신이여, 당신이 나에게 새로운 해를 끼칠 음모를 꾸미지 않겠다고 강력한 맹세를 하지 않는 한, 당신 뜻을 거스르더라도 저는 뗏목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그를 쓰다듬고 말했다.

“참 영악하군요. 그런 말을 떠올리다니, 결코 생각이 모자란 분은 아니에요. 자, 대지와 위의 드넓은 하늘, 그리고 아래로 흐르는 스틱스의 물이 증인이 되게 하겠어요. 복된 신들에게 가장 크고 두려운 맹세를 걸고 약속합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지 않겠어요.

도리어 저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면 세웠을 생각과 조언을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가슴속 심장은 쇠로 된 것이 아니라 연민을 느끼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아름다운 여신은 앞장서서 빠르게 걸어갔고, 오디세우스는 여신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여신과 남자는 마침내 깊숙한 동굴에 도착했다.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가 일어났던 그 의자에 앉았다.

님프 칼립소는 오디세우스 앞에 필멸의 인간들이 먹는 것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음식과 마실 것을 차려 놓았다.

칼립소 자신은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앞에는 시녀들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차려 놓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앞에 준비된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음식과 음료를 배불리 먹고 난 뒤,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정말 지금 곧 사랑하는 고향으로 가시겠어요? 그렇다면 잘 가세요. 하지만 고향에 닿기 전에 겪도록 정해진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날마다 그리는 아내가 보고 싶어도 이곳에 남아 저와 집을 지키며 죽지 않는 삶을 택하실 거예요.

모습으로도 키로도 저는 그분보다 못하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죽을 운명의 여인이 모습이나 아름다움에서 불멸의 존재와 겨루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까요.”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위대한 여신이여, 이 일로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페넬로페가 당신보다 아름다움과 체구에 있어 못하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페넬로페는 필멸의 존재이지만, 당신은 불멸하며 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같이 고향에 닿기를 바라고 그리워하며, 돌아가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신이 다시 한번 저를 포도주 빛 어두운 바다 위에서 내리친다 해도, 저는 고난을 견뎌내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인내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파도 속에서도 전쟁에서도 숱한 고난과 노고를
겪었습니다. 이번 고통도 거기에 더해진다고 여기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깊숙한 동굴의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오디세우스는 즉시 망토와 튜닉을 입었다.

님프 칼립소는 곱게 짜인 아름답고 긴 흰 옷을 입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금띠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베일을 썼다.

그러고 나서 칼립소는 용맹한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의 손에 잘 맞는 커다란 청동 도끼를
그에게 주었다. 그 도끼는 양날이 날카롭게 갈려 있었고,
단단히 고정된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 자루가 달려 있었다.

그 후 칼립소는 그에게 매끄럽게 다듬은 자귀도 주었다.

그때 칼립소는 키가 큰 나무들이 서 있는 섬의 가장자리로 오디세우스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오리나무와 미루나무, 전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들은 오래되어 잘 말라 있었기에 그가 배를 만들 때 가볍게 떠오를 것이었다.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는 그 키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을 보여준 뒤 집으로 돌아갔다.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일은 빠르게 진척되었다.

그는 모두 스무 그루의 나무를 베어 도끼로 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교묘한 솜씨로 나무들을 모두 매끄럽게 깎아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는 그에게 송곳을 가져다주었다. 오디세우스는 송곳으로 모든 목재에 구멍을 뚫어 서로 맞물리게 했고, 나무 못과 홈을 파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망치로 두드려 결합했다.

목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폭넓은 화물선의 선체 윤곽을 그릴 때만큼,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넓게 만들었다.

그는 갑판 보를 촘촘히 박힌 늑골에 못으로 고정하며 계속해서 작업했다. 그리고 긴 난간을 만들어 뗏목을 완성했다.

그는 뗏목에 돛대와 그에 맞는 가로대를 세웠으며, 나아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노도 만들었다.

그는 파도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뱃머리부터 뱃꼬리까지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위에 많은 덤불을 깔았다.

그동안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는 그가 돛을 만들 수 있도록 천을 가져다주었고, 오디세우스는 그것 또한 능숙하게 만들어냈다.

오디세우스는 뗏목에 가로대를 조절하는 줄과 돛을 올리는 줄, 그리고 돛을 조절하는 줄들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러고 나서 지렛대로 뗏목을 빛나는 바다 위로 밀어 내렸다.

마침내 넷째 날이 되어 그의 모든 작업이 끝났다.

다섯째 날이 되자, 아름다운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향기로운 옷을 입힌 뒤 그를 섬에서 떠나보냈다.

여신은 뗏목 위에 진한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하나와, 물을 담은 커다란 부대 하나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양식도 챙겨주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달래줄 풍성한
별미들을 담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여신은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 보내주었다.

그러자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기쁜 마음으로 산들바람에 돛을
펼쳤다. 그는 앉아서 노련하게 키를 저으며 뗏목을 몰았다.

그는 눈꺼풀에 잠이 내려앉지 않도록 경계하며 별들을
지켜보았다.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늦게 지는 목동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수레라고도 부르는 큰곰자리를 지켜보았다.
큰곰자리는 언제나 제자리를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지만,
오직 그 별만이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는 그에게 바다를 항해할 때 이 별을
왼편에 두고 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열이레 동안 바다를 항해했다.

열여드레째 되는 날,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파이아케스인들의 땅, 그 그림자 같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산들은 안개 낀 깊은 바다 위에서 마치 방패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대지를 뒤흔드는 신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인들로부터 돌아오던 길에, 솔리모이족의
산들에서 멀리 오디세우스를 보았다.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포세이돈은 마음속으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젠장! 내가 에티오피아인들 사이에 있는 동안, 신들이
오디세우스에 대한 결정을 분명히 바꾸어 버렸구나.
보아하니 그는 파이아케스인들의 땅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곳은 그에게 닥친 거대한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운명인
곳이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는 여전히 그에게 넘쳐흐를 만큼의
재앙을 몰아붙이게 될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며 포세이돈은 구름을 모았다. 그는 손에
삼지창을 쥐고 바다를 뒤흔들었으며, 온갖 종류의 모든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구름으로 육지와 바다를 모두
가려버렸다. 그러자 하늘에서 밤이 몰려 내려왔다.

동풍과 남풍이 함께 몰아쳤고, 사납게 부는 서풍과 빛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북풍도 그와 함께 몰아치며 거대한 파도를
그 앞에 굴렸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무릎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강인한 영혼을 향해 말했다.

“아, 가련한 내 신세로다! 마지막에 내게 닥칠 일은 무엇인가? 여신이 말했던 모든 것이 참으로 사실이었을까 봐 두렵구나. 내가 고향 땅에 닿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내게 정해진 고난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될 것이라 선언했을 때 말이다. 보라, 이제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제우스께서 이처럼 넓은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으시고 바다를 뒤흔드셨으며, 온갖 종류의 바람들이 나를 휩쓸고 있으니, 이제 나의 완전한 파멸은 확실하구나.

옛날 트로이아의 넓은 땅에서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며 죽어간 다나오스인들은 세 번이나 복을 받았고, 아니, 네 번이나 복을 받았다.

죽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시신을 두고 싸우던 그때,
트로이아인들의 무리가 나에게 청동 촉을 단 창들을
퍼부었을 때 내가 죽어 운명을 맞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나는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이고,
아카이아인들이 나의 명성을 널리 퍼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운명이
정해졌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거대한 파도가 위에서 그를
내리쳤다. 파도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들었고,
뗏목을 빙글빙글 돌려 놓았다.

오디세우스는 뗏목에서 멀리 떨어져 추락하며 손에 쥐고
있던 조종 노를 놓치고 말았다.

그때 몰아친 격렬한 바람 때문에 뗏목의 돛대는 중간이
부러졌고, 돛과 가로대도 바다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기세 때문에 그는 즉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었다. 아름다운 칼립소가 그에게 준 옷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는 머리에서
줄기처럼 흘러내리는 쓴 바닷물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음에도 자신의 뗏목을 잊지 않았다. 그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뗏목을 붙잡았고,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자 뗏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파도는 끊임없이 그를 이리저리 휩쓸고 다녔다. 가을에 북풍이 평원 위로 엉겅퀴 씨앗들을 실어 나르며 그것들이 서로 밀착되게 만드는 것처럼, 바람들도 바다 위에서 뗏목을 이리저리 몰아댔다.

남풍은 뗏목을 북풍에게 던져주어 북풍이 몰아치게 했고, 다시 동풍은 뗏목을 서풍에게 넘겨주어 서풍이 몰아치게 했다.

그러나 카드모스의 딸이자 고운 발목을 가진 이노, 즉 옛날에는 인간의 말을 하는 필멸자였으나 이제는 바다 깊은 곳에서 신들로부터 영광을 나누어 받은 레우코테아가 그를 보았다.

오디세우스가 방황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그녀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날개 짓하는 바다갈매기처럼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리고 튼튼하게 묶인 뗏목 위에 앉아 이렇게 말하며 입을 열었다.

“불행한 사람이여,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어찌하여 당신에게 이토록 격렬한 분노를 품고, 당신에게 수많은 재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진실로 그는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부어서라도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옷들을 벗어 던지고, 뗏목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대신 당신은 손을 저어 헤엄치며, 당신이 운명적으로 탈출하게 될 파이아케스인들의 땅에 닿으려 애쓰십시오.

자, 이 베일을 받아서 당신의 가슴 아래에 펼쳐 두십시오.

이것은 불멸의 것이니, 해를 입거나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손으로 육지를 붙잡게 되면 몸에서 풀어내세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포도주 빛 어두운 바다로 던지고, 당신은 몸을 돌리세요.”

그렇게 말한 뒤, 여신은 오디세우스에게 베일을 건네주고는 바다 갈매기처럼 요동치는 깊은 바다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그러자 검은 파도가 여신을 가려버렸다.

그러고 나서 인내심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진 채 자신의 강인한 정신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아, 비극이로다! 뗏목을 떠나라는 이 말이, 불멸의 신이 다시 나를 빠뜨리려고 짜는 함정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아니, 나는 결코 아직은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저 멀리 내가 탈출할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땅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최선인 듯하니, 뗏목의 목재들이 결속된 채로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곳에 머물며 고난을 견뎌낼 것이다.

그러나 파도가 뗏목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면, 그때는 헤엄쳐 가겠다. 그보다 더 나은 방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가 마음과 심령으로 이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대지를 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대한 파도를 위에서부터 휘감아 오르게 하여 그에게 몰아쳤다.

강한 바람이 마른 짚더미를 뒤흔들어 여기저기로 흩뿌리는 것처럼, 파도는 뗏목의 긴 목재들을 사방으로 흩어놓았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마치 말을 타는 것처럼 판자 하나에 걸터앉았으며, 아름다운 칼립소가 그에게 주었던 옷들을 벗어 던졌다.

오디세우스는 즉시 가슴 아래에 베일을 펼쳐 두르고, 수영할 준비를 마친 채 양손을 뻗어 바다로 머리부터 뛰어들었다.

그때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 신이 그를 보았다.
포세이돈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사이로 갈 때까지 깊은 바다 위를 떠돌며 나아가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겪은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채찍질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궁전이 있는 아이가에 도착했다.

하지만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아테나는 다른 바람들의 길을 막아 세우고, 그들 모두에게 바람을 멈추고 잠잠히 쉬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아테나는 빠른 북풍을 깨워 그 앞의 파도를 부수게 했다.

이는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가 죽음과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인들 사이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틀 밤낮 동안 그는 불어난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고, 그의 마음은 수없이 죽음의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새벽이 세 번째 날을 데려오자, 바람이 멎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때 거대한 파도가 그를 들어 올렸고, 그는 앞을 재빨리 훑어보며 가까이 있는 해안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병들어 모진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쇠약해지는 집의 자식들은, 잔인한 신이 괴롭히던 아버지를 다른 신들이 고통에서 풀어 주어 살아나게 하면 더없이 기뻐한다. 그와 같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육지와 숲이 반가웠다. 그는 땅에 발을 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헤엄쳤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사람의 외침이 닿을 만큼의 거리까지 해안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암초에 부딪히는 바다의 굉음을 들었다. 거대한 파도가 마른 땅을 향해 천둥처럼 몰아치며 무시무시한 기세로 거품을 토해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바다의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그곳에는 배가 머물 수 있는 항구나 정박할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 오직 돌출된 곶과 암초, 그리고 절벽들뿐이었다.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무릎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강인한 정신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아, 슬프도다. 기대조차 하지 못했는데 제우스께서 마침내 육지를 보게 해 주셨다. 이 깊은 바다를 헤치고 건너오는 데 성공했건만, 회색 바다를 벗어날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구나.

밖으로는 날카로운 암초들이 있고, 그 주위로는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며 포효하고 있으며, 바위는 가파르게 솟아 있고, 해안 가까이의 물은 너무도 깊구나. 그러니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서 파멸을 피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도다.

혹시라도 내가 상륙하려 애쓴다면,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쳐 울퉁불퉁한 바위 위로 내동댕이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완만하게 경사진 해변과 항구를 찾겠다는 희망을 품고 더 멀리 헤엄쳐 나간다면, 폭풍이 다시 나를 낚아채어, 깊이 신음하는 나를 생명으로 가득한 바다 너머로 실어 나를까 두렵다.

혹은 어떤 신이 바다로부터 거대한 괴물을 나에게 보내버릴지도 모르겠다. 영광스러운 암피트리테는 그런 괴물들을 많이 낳는다. 영광스러운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가 마음과 가슴속으로 이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거대한 파도가 그를 거친 해안가로 밀어붙였다.

만약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떠올려 주지 않았더라면, 오디세우스의 살가죽은 벗겨지고 뼈는 부서졌을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앞으로 돌진하여 두 손으로 바위를 붙잡았고, 거대한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신음하며 바위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이렇게 파도를 피했으나, 물러가는 파도가 다시 그를 덮쳐 쳤고, 그를 바다 멀리 내던져 버렸다.

마치 구멍에서 끌려 나오는 갑오징어의 빨판에 수많은 자갈이 달라붙는 것처럼, 오디세우스의 강한 손에서는 바위에 쓸려 피부 조각들이 벗겨져 나갔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다.

만약 눈을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불행한 오디세우스는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 죽고 말았을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해안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밖으로 헤엄쳐 나갔다. 그는 완만하게 경사진 해변과 바다의 항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육지를 바라보았다.

헤엄쳐 가다가 아름답게 흐르는 강의 어귀에 이르자, 그곳이 가장 좋은 자리로 보였다. 돌이 없는 매끄러운 곳이었고 바람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밖으로 흘러 나오는 강물을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그 강의 신에게 기도했다.

“왕이시여, 당신이 누구이든 제 말을 들어주소서. 저는 포세이돈의 위협으로부터 바다를 벗어나고자, 간절히 그리워하는 이에게 다가가는 심정으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은 뒤, 지금 제가 당신의 강물과 당신의 무릎 앞으로 찾아온 것처럼, 방랑자로 찾아온 이는 불멸의 신들조차 경외하는 법입니다.

왕이시여, 저를 가엽게 여겨 주소서. 제가 당신에게 간청하는 자임을 밝히나이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신은 즉시 강물의 흐름을 멈추고 파도를 잠재웠다. 신은 오디세우스 앞에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 그를 강 어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었다.

오디세우스는 두 무릎을 굽히고 강한 두 손을 아래로 떨구었다. 바다 때문에 그의 정신이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이었다.

그의 온몸은 부어올랐고, 입과 콧구멍에서는 바닷물이 줄기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으며, 몸을 움직일 힘조차 거의 없었다. 끔찍한 피로가 그를 덮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슴 속으로 생기가 돌아왔을 때, 그는 몸에 두르고 있던 여신의 베일을 풀어 바다 쪽으로 속삭이듯 흐르는 강물에 떨어뜨렸다.

거대한 파도가 그 베일을 강물을 따라 다시 바다로 실어 갔고, 이노가 즉시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냈다.

오디세우스는 강에서 물러나 갈대 사이에 주저앉아 곡물을 주는 대지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깊은 감동에 젖은 채 자신의 강인한 정신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아, 슬프도다! 내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마지막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약 내가 이 강바닥에서 고단한 밤을 지새우며 깨어 있다면, 기력이 다해 숨이 넘어갈 때 차가운 서리와 신선한 이슬이 한꺼번에 나를 덮칠까 두렵구나. 강에서 불어오는 새벽녘의 미풍이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저 그늘진 숲의 언덕으로 올라가 무성한 덤불 속에 누워 쉬면서, 추위와 피로가 나를 떠나기를 바란다면, 만약 달콤한 잠이 나를 덮칠 때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버릴까 두렵구나."

오디세우스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 방법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숲으로 향했고, 물가 근처의 탁 트인 공간을 찾아냈다.

그는 한 자리에서 자라난 두 관목 아래로 몸을 숨겼는데, 하나는 가시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올리브나무였다.

두 나무는 서로 빽빽하게 뒤엉켜 자라고 있어서, 젖은 바람의 기세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도 없었고, 밝은 태양 빛이 내리쬐지도 못했으며, 빗줄기조차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덤불 아래로 기어 들어가 곧바로 손을 써서 넓은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곳에는 낙엽이 아주 풍성하게 쌓여 있었다. 날씨가 아무리 매서운 겨울이라 해도 두세 명의 사람이 몸을 피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 잠자리를 보고 기뻐했다. 그는 낙엽 더미 한가운데에 누워 자신의 몸 위로 낙엽을 수북이 쌓아 올렸다.

마치 이웃이 없는 외딴 농가에서 불씨를 보존하려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올 필요가 없도록 어두운 숯불 아래에 불덩이를 숨겨두는 것처럼, 오디세우스도 낙엽으로 자신의 몸을 덮었다.

그리고 아테나가 그의 눈 위에 잠을 내려주어, 잠이 그의 눈꺼풀을 감싸고 그를 고된 피로로부터 빠르게 해방해 주게 했다.

제6권

나우시카와의 만남

그리하여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는 잠과 피로에 짓눌려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러나 아테나는 파이아케스인들의 땅과 도시로 향했다.

옛날에 파이아케스인들은 키클롭스들 근처의 넓은 히페레이아에 살고 있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키클롭스들은 파이아케스인들보다 강했고, 그들을 끊임없이 약탈했다.

신과 같은 존재인 나우시토스가 그들을 그곳에서 옮겨왔다. 그는 파이아케스인들을 이끌어,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케리아에 정착시켰다.

그는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았고, 집들을 지었으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고 경작지들을 나누어 놓았다.

그런데 나우시토스는 이미 운명의 타격을 받아 하데스의 집으로 떠났고, 이제는 알키노오스가 왕이 되어 신들로부터 지혜로운 조언을 얻고 있었다.

회색 눈의 아테나가 대담한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도모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아테나는 화려하게 꾸며진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용맹한 알키노오스의 딸 나우시카가 자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과 아름다움은 불멸의 여신들과도 같았다.

문설주 양옆에는 은총의 여신들이 아름다움을 선사한 두 명의 하녀가 잠들어 있었고, 빛나는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여신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소녀의 침상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아테나는 소녀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때 아테나는 나우시카와 나이가 비슷하고 그녀가 마음 깊이 아끼는, 배들로 유명한 디마스의 딸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회색 눈의 아테나는 그 친구와 닮은 모습으로 변한 채 이렇게 말했다.

“나우시카, 네 어머니는 어찌하여 너를 이토록 부주의하게 키우셨느냐? 네 빛나는 옷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놓여 있구나. 하지만 네 혼사가 머지않았으니, 너는 반드시 스스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너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옷들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너도 알다시피,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이 자자해지는 법이며, 아버지와 존경받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란다.

자, 어서 가자. 동이 틀 무렵에 가서 옷들을 빨자꾸나. 내가 너를 도와주러 함께 갈 테니, 너는 서둘러 채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너도 이제 곧 처녀로 남아 있지는 않을 테니까.

너는 지금 이 땅에 구혼자들을 두고 있구나. 그들은 모두 파이아케스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자들이며, 너의 혈통 또한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 오늘 이른 아침에 너의 고귀한 아버지를 깨워 드려라. 아버지가 너를 위해 노새들과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허리띠와 옷가지들, 그리고 빛나는 덮개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너 자신도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품위 있어 보일 것이다. 세탁하는 곳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말한 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는 올림포스로 떠났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영원히 굳건히 서 있는 신들의 거처였다.

그곳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비에 젖지도 않으며, 눈이 내리지도 않는다. 오직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공기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는 찬란한 백색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복된 신들은 그곳에서 매일 기쁘게 지낸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는 소녀에게 할 말을 모두 마친 뒤 그곳으로 향했다.

곧이어 아름다운 왕좌를 가진 새벽이 찾아와, 고운 옷을 입은 나우시카를 깨웠다. 나우시카는 즉시 자신이 꾼 꿈에 경탄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 위해 집안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는 두 부모가 모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화로가에 시녀들과 앉아 보랏빛으로 물들인 실을 잣고 있었다. 아버지는 위엄 있는 파이아케스인들이 그를 부르는 회의 장소로 영광스러운 왕들과 합류하기 위해 나가는 길에 만났다.

나우시카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기 더러워진 채 놓여 있는 저의 고운 옷들을 강가에 가져가 빨 수 있도록, 바퀴가 높고 튼튼한 수레를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버님께서도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실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이 품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버님의 궁전에는 함께 사는 다섯 아들이 있잖아요. 둘은 결혼했고 세 명은 건장한 총각들인데, 이들은 춤을 추러 갈 때마다 항상 갓 세탁한 옷을 입고 싶어 한답니다.

이 모든 일을 제가 신경 써야 해요."

나우시카는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즐거운 혼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속뜻을 모두 이해하고 대답했다.

"내 아이야, 내가 너에게 노새들을 아까워하겠느냐?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어서 가거라. 종들이 너를 위해 바퀴가 높고 튼튼하며, 위에 상자가 달린 마차를 준비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마친 그는 노예들을 불렀고, 노예들은 그 부름에 응했다.

노예들은 궁전 밖에서 가볍게 달릴 수 있는 노새 수레를 준비했다. 그리고 노새들을 끌고 와 멍에를 씌워 수레에 매었다.

소녀는 자신의 방에서 빛나는 옷들을 가져와 윤이 나는 수레 위에 올려두었다. 그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온갖 종류의 음식을 상자에 담았다.

어머니는 상자 안에 맛있는 음식들을 넣고, 염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워 넣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수레에 올라탔다.

어머니는 소녀와 그녀의 시녀들이 목욕할 때 쓸 수 있도록 금병에 담긴 부드러운 올리브 기름도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나우시카는 채찍과 빛나는 고삐를 잡고 노새들을 몰아 출발했다. 노새들은 소녀와 옷가지를 싣고 힘껏 달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우시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시녀들도 함께 길을 나섰다.

그들이 강가의 아름다운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세탁용 수조들이 끊임없이 물을 내뿜고 있었다.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맑고 풍부한 물이 바닥에서 솟구쳐 올라 흘러넘쳤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우시카와 그녀의 시녀들은 수레에 매인 노새들의 멍에를 풀어 주었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따라 노새들을 몰아 꿀처럼 달콤한 물풀을 뜯어 먹게 했다.

그동안 나우시카와 시녀들은 수레에서 옷가지들을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옷들을 어두운 물속으로 가져가, 서로 바쁘게 경쟁하듯 물웅덩이 속에서 옷을 밟아 빨았다.

그들이 옷가지들을 다 빨고 모든 얼룩을 깨끗이 지운 뒤에는,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며 자갈을 가장 깨끗하게 씻어내는 바닷가에 옷들을 줄지어 펼쳐 놓았다.

나우시카와 그녀의 시녀들은 몸을 씻고 기름을 듬뿍 발라 몸을 가꾼 뒤, 강가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밝은 햇살 아래서 옷들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식사를 즐겁게 마친 뒤, 나우시카와 시녀들은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던지고 공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하얀 팔을 가진 나우시카가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이끌었다.

활을 쏘는 아르테미스가 높은 타이게토스나 에리만토스의 능선을 따라 산을 누비며 멧돼지와 빠른 사슴을 쫓을 때면,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들인 숲의 님프들이 곁에서 함께 뛰놀고 레토는 마음으로 기뻐한다. 모두 아름답지만 아르테미스의 머리와 이마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처럼 혼인하지 않은 나우시카도 시녀들 가운데서 빛났다.

하지만 나우시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새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고운 옷가지들을 접어 두려 했을 때, 눈부신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른 계획을 세웠다.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나, 그를 파이아케스인들의 도시로 인도할 얼굴이 아름다운 처녀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공주는 자신의 시녀 중 한 명에게 공을 던졌다. 공은 시녀에게 닿지 않고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고, 그 바람에 모두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마음과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고민했다.

"아, 비참하구나! 내가 지금 도달한 이곳은 어떤 인간들이 사는 땅인가? 그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불의한 자들인가? 아니면 낯선 이를 환대하고 마음속으로 신들을 경외하는 자들인가?

방금 내 귀에는 산의 높은 봉우리와 강물을 먹여 살리는 샘물, 그리고 풀이 무성한 초원을 떠도는 님프들과 처녀들의 외침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이들 근처에 와 있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시험하여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한 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덤불 아래에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튼튼한 손으로 빽빽한 나무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 하나를 꺾었다.

그는 산에서 자란 사자처럼 당당하게 나아갔다. 그 사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으며,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두 눈을 번뜩이며 나아갔다. 사자는 소 떼나 양 떼 사이로 들어가거나, 혹은 야생 사슴의 뒤를 쫓기도 했다. 또한 배가 고프면 양 떼를 공격하기 위해 촘촘하게 지어진 우리 안까지도 거침없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처녀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비록 몸은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소금물로 온몸이 더러워진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처녀들에게 매우 무시무시해 보였다. 처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툭 튀어나온 모래톱을 따라 여기저기로 흩어져 물러났다.

오직 알키노오스의 딸 나우시카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아테나가 나우시카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녀의 몸에서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오디세우스는 얼굴이 아름다운 그 소녀의 무릎을 붙잡고
간청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떨어져 서서 그녀가
자신에게 도시를 안내하고 옷을 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로
빌어야 할지 고민했다.

오디세우스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자신이 소녀의 무릎을
붙잡는다면 소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차라리 떨어져 서서 부드러운 말로
간청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즉시 부드러우면서도 교묘한 말을
건넸다.

"여왕이시여,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은 여신입니까, 아니면
필멸의 인간입니까? 만약 당신이 드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여신 중 한 분이라면, 저는 당신의 아름다움과 키, 그리고
자태가 위대한 제우스의 딸인 아르테미스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당신이 땅 위에 사는 필멸의 인간 중 한 분이라면,
당신의 아버지와 존경받는 어머니는 세 배로 복되실 것이며,
당신의 형제들도 세 배로 복될 것입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꽃 같은 여인이 춤판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당신으로 인해 언제나 기쁨으로 따스하게 달궈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은 혼인 예물로 당신의 마음을 얻어 자기 집으로 모셔 갈 분일 것입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실은 델로스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폴론 제단 곁에 어린 종려나무 순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었고 많은 사람이 저를 따랐지요. 그 여정에는 큰 고통이 제 몫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저는 오래도록 경탄했습니다.

땅에서 그런 나무가 자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분이여, 저는 당신을 보며 그처럼 경탄하고 놀랍니다. 무릎에 손을 대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큰 고통이 닥쳤습니다.

어제, 스무 날째에야 저는 포도주 빛 어두운 바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오기기아섬에서부터 파도와 거센 바람에 떠밀려 왔습니다. 이제 운명이 저를 이 해안에 던져 놓았으니, 여기서도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전에 신들은 많은 고통을 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분이여, 저를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숱한 고난 끝에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도시와 땅의 다른 주민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도시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만약 이곳에 오실 때 옷을 덮을 만한 것이 있었다면 제 몸에 걸칠 누더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는 신들이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남편과 가정을 주시고, 마음의 일치라는 훌륭한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으로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부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 말에 하얀 팔의 나우시카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당신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 듯 보입니다.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제우스 자신의 뜻에 따라 행복한 운명을 내려주시니, 제 생각에 신께서 당신에게도 이러한 운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이 운명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도시와 땅에 왔으니, 길을 가다 고난을 겪은 간청하는 자에게 마땅히 필요한 옷이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시를 보여주고, 이 땅 사람들의 이름도 알려주겠습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이 이 도시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이아케스인의 위력과 권세가 의지하는, 마음 넓은 알키노오스의 딸입니다.”

나우시카는 말을 마치고, 머리칼이 아름다운 시녀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멈추거라. 사내를 보고 어디로 도망치려 하느냐? 설마 저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는 불사신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존재이니,
파이아케스인들의 땅에 적군으로 발을 들일 필멸자는
살아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넘실거리는 바다 멀리,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먼
곳에 살고 있어서, 다른 필멸자들은 우리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아니다, 이분은 그저 이곳에 흘러 들어온 불운한
방랑자일 뿐이다.

이제 우리가 그를 돌보아야 한다. 모든 나그네와 거지는
제우스로부터 온 것이니, 비록 작은 선물일지라도 환영받는
법이다.

자, 나의 처녀들아, 나그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주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그를 강물에 씻겨 주어라."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불렀다.

그들은 마음 넓은 알키노오스의 딸 나우시카가 명한 대로,
오디세우스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시녀들은 오디세우스 곁에 입을 옷으로 쓸 망토와 튜닉을 놓아주었고, 금병에 담긴 부드러운 올리브 기름을 건네며 강가에서 몸을 씻으라고 일렀다.

이에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시녀들에게 말했다. "소녀들이여, 저쪽으로 떨어져 서 있거라. 그래야 내가 혼자 어깨에 묻은 소금기를 씻어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를 수 있지 않겠느냐. 참으로 기름이 내 피부에 닿은 지도 오래되었구나.

그러나 그대들 앞에서는 씻지 않겠다. 머릿결 아름다운 처녀들 가운데서 벌거벗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 공주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렇지만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는 강물을 가져와 자신의 등과 넓은 어깨를 덮고 있던 소금기를 씻어냈고, 머리에 엉겨 붙은 거친 바다의 찌꺼기도 닦아냈다.

오디세우스가 온몸을 씻고 기름을 발라 몸을 가꾼 뒤, 미혼의 처녀가 준 옷을 입었을 때였다.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그를 더욱 크고 강인해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히아신스 꽃처럼 곱게 말려 흐르도록 해주었다.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나가 온갖 기술을 가르친 교묘한 기술자가 은 위에 금을 입히는 것처럼,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 우아함으로 가득한 것처럼, 여신 또한 오디세우스의 머리와 어깨에 우아함을 내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빛나며 바닷가로 걸어가 앉았다.

그를 본 처녀는 경탄하며, 머리칼이 아름다운 그녀의 시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어라, 하얀 팔을 가진 처녀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모든 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신과 같은 파이아케스인들 사이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전에는 이 사람이 내게 거칠고 낯설게 보였으나, 이제는 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처럼 보이는구나.

이런 사람이 이곳에 머물며 나의 남편이라 불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 나의 처녀들아. 이 이방인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어라."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오디세우스 앞에 음식과 음료를 차려 놓았다.

그러자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는 정말로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마셨다. 오랫동안 음식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얀 팔의 나우시카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나우시카는 옷가지들을 걷어 아름다운 마차에 실었다.
그리고 튼튼한 발굽을 가진 노새들에게 멍에를 씌운 뒤,
나우시카 자신이 직접 마차에 올라탔다.

그러고 나서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를 불러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방인이여, 이제 일어나 도시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파이아케스인들 중 가장 고귀한 이들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만 해주세요. 당신은 분명 사리 분별이 있는 분일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경작하는 들판을 지날 때는 당신이 하녀들을 따라 노새와 마차 뒤에서 빠르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할게요.

그러나 높은 성벽이 둘러쳐진 도시로 들어설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도시 양옆에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입구는 좁거든요. 길을 따라서는 곡선형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배를 세워둘 자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포세이돈 신전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도 있어요. 큰 돌들을 땅에 깊이 박아 만든 곳이지요. 남자들은 그곳에서 검은 배의 장비와 밧줄, 돛을 손질하고 얇은 노 날을 깎느라 바쁩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활이나 화살통보다 배의 돛대와 노, 그리고 잘 만들어진 배에 마음을 둡니다.

그 배를 타고 기쁘게 회색 바다를 건너다니지요.

내가 그들의 무례한 말을 피하는 이유는, 훗날 어떤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땅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천박한 자가 우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우시카를 따라가는 저 낯선 이는 누구인가? 잘생기고 키도 큰 사내로다. 그녀는 저 남자를 어디서 찾아낸 것인가? 저 자는 틀림없이 그녀의 남편이 될 것이다.

혹시 그녀가 멀리 사는 민족의 방랑자를 그의 배에서 데려온 것이라면—우리 근처에는 아무도 없으니—혹은 그녀가 오래 기도해 온 어떤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그녀는 평생 그를 남편으로 삼을 것이다.

설령 그녀가 직접 밖으로 나가 다른 민족 중에서 남편을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그 편이 낫다. 그녀는 구혼자가 많고 귀한 이들이 있는 이 땅의 파이아케스인들을 진정으로 경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저도 다른 처녀가 그런 일을 하면 탓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그 뜻을 거스르며, 정식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남자들과 어울린다면 말이에요.

아니요, 이방인이여, 내 말을 빨리 들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내 아버지로부터 고향까지 바래다줄 도움을 신속히 얻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가 근처에서 아테나의 아름다운 숲을 발견할 텐데, 그곳은 미루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입니다. 그 숲 안에는 샘물이 솟아나고 주변은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내 아버지의 공원과 열매가 풍성한 포도밭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앉아서 우리가 도시에 도착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집에 도착했을 것 같으면 파이아케스인들의 도시로 들어와, 제 아버지인 마음 넓은 알키노오스의 집을 물어보세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아케스인들의 다른 집들은 알키노오스 왕의 궁전과는 전혀 다르게 지어졌으니까요.

집과 안뜰 안으로 들어오시면 큰 대청을 재빨리 지나 어머니에게 가세요. 어머니는 불빛이 비치는 화로가에서 기둥에 기대어 보랏빛 실을 잣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경탄할 만한 모습이지요. 시녀들은 뒤에 앉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기둥에 아버지의 왕좌도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앉아 불멸의 신처럼 포도주를 드십니다.

아버지는 지나치고 어머니의 무릎을 두 손으로 붙잡으세요. 아무리 먼 곳에서 오셨어도, 고향에 돌아갈 기쁜 날을 빨리 맞이하시려면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에 드신다면, 벗들을 만나고 잘 지어진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빛나는 채찍으로 노새들을 내리쳤고, 노새들은 빠르게 강물을 떠나갔다.

노새들은 아주 잘 달렸고, 가볍게 발을 놀리며 나아갔다. 그녀는 처녀들과 오디세우스가 걸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몰았으며, 신중하게 채찍을 휘둘렀다.

해가 저물자, 그들은 아테나에게 봉헌된 영광스러운 숲에 도착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곧바로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기도했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자녀시여, 지치지 않는 분이시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전에 영광스러운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나를 내리쳤을 때 당신은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셨나이다.

내가 파이아케스인들에게 환영받고 가련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는 기도를 올리며 그렇게 말했다. 팔라스 아테나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하지만 아테나는 아직 그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테나는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형제, 즉 포세이돈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에게 분노하며 격렬하게 날뛰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자신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포세이돈의 분노는 계속되었다.

제7권

알키노오스의 궁전

두 마리의 힘센 노새가 처녀를 도시로 실어 나르는 동안,
인내심 강하고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

나우시카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깥쪽 성문에서 노새들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신들처럼 위엄 있는 그녀의 오라버니들이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오라버니들은 노새들을 수레에서 풀어주고 의복을 안으로
옮겼으며, 나우시카 자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페이레 출신의 노부인인 시녀 에우리메두사가
그녀를 위해 불을 피워 놓았다.

오래전, 굽은 배들이 그녀를 아페이레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전리품 중에서 골라 알키노오스에게 바치는
영광스러운 선물로 삼았다. 알키노오스는 모든
파이아케스인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백성들은 그를 마치
신처럼 받들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바로 궁전에서 하얀 팔의 나우시카를 키워낸 사람이었다. 또한 그 여인이 나우시카를 위해 불을 지피고, 그녀의 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차리고 도시로 향했다. 아테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디세우스의 주변에 짙은 안개를 드리웠다. 용맹한 파이아케스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마주쳤을 때, 그를 조롱하거나 그가 누구인지 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디세우스가 아름다운 도시에 막 들어서려 할 때,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물동이를 든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앞에 섰다. 그러자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얘야, 이곳 사람들의 주인인 알키노오스라 불리는 이의 집으로 나를 안내해 줄 수 없겠느냐? 나는 멀리 떨어진 먼 나라에서 온, 모진 시련을 겪은 이방인이란다. 그래서 이 도시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당신이 요청하신 대로 알키노오스의 궁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궁전은 나의 고귀한 아버님의 집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질문을 던지지는 마십시오. 이곳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견디지 못하며, 다른 땅에서 온 이들을 친절하게 환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빠른 배의 속도를 믿고 이 넓고 깊은 바다를 건너다닙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신이 허락하신 일이니까요. 그들의 배는 날아가는 새처럼, 또는 마음속 생각처럼 빠릅니다.”

그렇게 말한 뒤, 팔라스 아테나가 앞장서서 빠르게 나아갔고, 그는 여신이 걷는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가 파이아케스인들 사이로 도시를 지나갈 때, 배로 유명한 파이아케스인들은 그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려운 여신인 머릿결이 아름다운 아테나가 그를 가엽게 여겨, 그를 감싸는 경이로운 안개를 드리워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항구와 위엄 있는 배들, 그리고 영웅들이 직접 모이는 모임 장소들을 보며 감탄했다. 또한 길고 높으며 울타리가 둘러쳐진 성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웠다.

하지만 그들이 왕의 영광스러운 궁전에 도착했을 때,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낯선 이여, 여기 당신이 내게 보여달라고 청했던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들이 연회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다른 땅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낫기 때문입니다.

궁전 안에서는 먼저 여왕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아레테이며, 알키노오스 왕과 같은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나우시토스는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과, 여인 중 가장 아름다운 페리보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리보이아는 마음 넓은 에우리메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오만한 거인들을 다스렸으나, 제멋대로인 백성들에게 파멸을 불러오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포세이돈은 페리보이아와 동침하여 마음 넓은 나우시토스를 낳았고, 그가 파이아케스인들을 다스렸습니다. 나우시토스는 렉세노르와 알키노오스를 낳았습니다. 렉세노르는 아직 아들이 없는 신혼의 몸일 때, 은활의 아폴론에게 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자식은 딸 아레테 하나뿐이었습니다.

알키노오스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고, 오늘날 남편에게 복종하며 가정을 이끄는 모든 여인 중 그 어떤 여인보다도 그녀를 귀하게 대접했다.

아레테는 자녀들과 알키노오스 자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그러했다. 백성들은 그녀를 마치 여신처럼 우러러보았고, 그녀가 도시를 지나갈 때면 모두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레테 스스로가 지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여인들을 위해, 그들의 남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조차도 종결시켜 주었다.

그분의 눈에 들어 호의를 얻으신다면, 벗들을 다시 만나고 지붕이 높이 솟은 집과 고향 땅으로 돌아가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는 쉼 없이
움직이는 바다를 건너 떠나 아름다운 스케리아를 뒤로했다.

아테나는 마라톤과 길이 넓은 아테네에 도착하여
에렉테우스의 잘 지어진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오스의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향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 섰다. 그는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청동 문턱에 다다랐다. 마음이 넓은 알키노오스의 지붕
높은 집 위로 태양이나 달 같은 빛이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턱에서 가장 안쪽 방까지 이어진 벽들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짙은 청색 장식띠가 둘러져 있었다.

잘 지어진 그 집의 문들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청동
문턱에는 은으로 된 문설주가 세워져 있었다.

문 위쪽의 인방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문 양옆에는 금과 은으로 된 개들이 서 있었다.
헤파이스토스가 마음 넓은 알키노오스의 궁전을 지키도록
교묘한 기술로 빚어낸 것이었다. 그 개들은 불멸의
존재였으며, 영원토록 늙지 않았다.

안쪽에는 문턱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방까지 양옆 벽을 따라 좌석들이 놓여 있었다. 그 좌석들 위에는 여인들이 정교하게 짠 부드러운 옷감의 의복들이 걸쳐져 있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좌석에 앉아 먹고 마시곤 했다. 그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청년상들이 잘 만들어진 받침대 위에 서서, 밤에 연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빛을 밝혀주기 위해 손에 불을 밝힌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쉰 명의 여종이 있었다. 그중 몇몇은 맷돌로 노란 곡식을 갈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베를 짜거나 앉아서 실을 잣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키 큰 미루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촘촘하게 짜인 리넨 천 위로는 부드러운 올리브 기름이 흘러내렸다.

파이아케스 남성들이 바다 위에서 빠른 배를 몰고 나가는 일에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것처럼, 파이아케스 여성들도 베를 짜는 일에 매우 능숙했다. 아테나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수공예 기술과 명석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바로 옆, 안뜰 밖에는 네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과수원이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배나무와 석류나무, 밝은 빛깔의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달콤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무성한 올리브나무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 과일들은 겨울이나 여름에도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고 일년 내내 열매를 맺었다. 서풍이 불어올 때마다 어떤 과일은 생기를 얻고, 어떤 과일은 익어갔다.

배는 배대로 익어가고,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 송이는
송이대로,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계속해서 익어갔다.

그곳에는 또한 결실이 풍성한 포도밭도 조성되어 있었다.
평평한 땅 위 햇볕이 잘 드는 한 구역에서는 포도를 햇볕에 말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포도를 따고
있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포도를 밟아 즙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앞쪽에는 아직 꽃을 떨구고 있는 덜 익은 포도들과, 이제 막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포도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포도 덩굴의 마지막 줄 옆으로 온갖 종류의 깔끔한 화단들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화단들은 일 년 내내 꽃을 피웠다.

그곳에는 두 개의 샘이 있었는데, 한 샘은 정원 전체로 물을 보내고 있었고, 다른 샘은 그 맞은편에서 마당의 문턱 아래를 지나 높은 저택을 향해 흘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이것들이 바로 알키노오스의 궁전에 있는 신들의 영광스러운 선물이었다.

그곳에서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가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경탄하며 바라본 뒤, 서둘러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고문들이 잔에 담긴 술을 눈 밝은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에게 제물로 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그에게 포도주를 붓곤 했다.

그러나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는 아테나가 자신을 감싸기 위해 뿌려준 짙은 안개에 싸인 채 홀을 지나갔다. 그는 아레테와 왕 알키노오스에게로 다가갔다.

오디세우스가 아레테의 무릎에 손을 얹자, 그를 감싸고 있던 경이로운 안개가 즉시 녹아 사라졌다.

그 남자를 본 방 안의 모든 이들은 침묵에 빠졌고, 그를 바라보며 경탄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기도를 올렸다.

"신과 같은 렉세노르의 딸 아레테여, 나는 수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무릎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들께서 이 연회석의 손님들에게 삶의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이들 각자가 집안의 재산과 백성에게 받은 명예로운 권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고향 땅으로, 그것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오디세우스는 화로 옆 재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마침내 파이아케스인들 중 어른이었던 노주인 에케네우스가 입을 열었다. 그는 말솜씨가 뛰어났으며 옛 지혜를 모두 통달한 이였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알키노오스에게 말했다. “알키노오스여, 보십시오. 이방인이 화로 옆 재 위에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은 좋은 방법도 아니요, 품위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소서, 이 이방인을 일으켜 세워 은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전령들에게 술을 섞으라고 명하여, 번개를 내리치는 제우스께도 포도주를 부어 바치게 합시다. 그분은 경건한 간청자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분이니까요.

또한 집안 여인은 집에 있는 저장 식량으로 이 이방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하십시오.”

강하고 힘센 알키노오스는 이 말을 듣자, 지혜롭고 꾀 많은 오디세우스의 손을 잡아 화로가에서 일으켰다. 그는 곁에 앉아 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정한 라오다마스를 일어나게 하고, 그 빛나는 의자에 오디세우스를 앉혔다.

하녀가 아름다운 황금 주전자에 손 씻을 물을 가져와 은 대야에 부어 주고, 그의 곁으로 잘 닦인 탁자를 끌어다 놓았다.

그리고 품위 있는 집안 여인은 자신의 창고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빵과 함께 풍성한 별미를 가져와 오디세우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리하여 인내심 강하고 용모가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이에 위엄 있는 알키노오스가 전령에게 말을 건넸다.

"폰토노스여, 술그릇에 포도주를 섞고 이 전당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번개를 내리치는 제우스께도 포도주를 부어 바칠 수 있도록 말이다. 제우스께서는 경건한 간청자들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분이니라."

그가 말을 마치자, 폰토노스가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었다. 폰토노스는 잔에 먼저 제사에 쓸 포도주를 조금씩 따르고는, 모든 이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부어 바치고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고 나자, 알키노오스가 모인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의논가들이여,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연회를 마쳤으니, 여러분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원로를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전에서 이 이방인을 대접하고 신들에게 훌륭한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난 뒤에는 이 이방인을 돌려보내는 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 이방인이 아무리 먼 곳에서 왔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 고통이나 슬픔 없이 기쁨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땅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발을 내디딜 때까지, 그는 그동안 어떤 악이나 해로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던 순간, 운명과 두려운 실을 잣는 여신들이 그를 위해 실로 짜놓은 운명에 따라 무엇이든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멸의 신들 중 하나라면, 그것은 신들이 꾸미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성대한 희생제를 올릴 때면 언제나 명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앉는 곳에 함께 앉아 우리와
함께 연회를 즐기곤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중 누군가가 홀로 길을 가다 그들을 만나더라도,
신들은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키클롭스들이나 거인족의 야만 부족들처럼 신들과 가까운
친척 관계이기 때문이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키노오스여, 그런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키나
모습에서 드넓은 하늘을 차지한 불멸의 신들과 닮지
않았습니다. 죽을 운명의 인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 가장 무거운 고통을 짊어진 이가 있다면, 제
슬픔은 그와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뜻에 따라 제가 겪은 재앙은 그보다 훨씬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 관해서라면, 제 슬픔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먹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슬픔에 짓눌려 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돌보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배보다 더 파렴치한 것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배는 언제나 저에게 먹고 마시라고 재촉합니다. 배는 제가 겪은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들며, 배불리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부디 동이 틀 무렵에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은 이 불행한 자를, 나의 고향 땅에 발을 딛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재산과 노예들, 그리고 지붕이 높은 나의 커다란 집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그때는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이 적절했다며 칭찬했고, 이 이방인을 길을 떠나게 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포도주를 부어 바치고 마음껏 술을 마신 뒤에는, 각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겨졌고, 그의 곁에는 아레테와 신과 같은 알키노오스가 앉아 있었다. 시녀들은 잔치의 그릇들을 치웠다.

그때 하얀 팔을 가진 아레테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아레테는 오디세우스가 입은 아름다운 의복, 즉 자신이 시녀들과 함께 직접 손으로 만든 망토와 튜닉을 알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아레테는 날개 돋친 말을 그에게 건넸다.

"낯선 이여, 내가 먼저 그대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노라.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그대에게 이 옷을 주었는가? 그대는 바다를 헤매다 이곳에 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 말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여왕이시여, 제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끝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의 신들께서 제게 내리신 시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묻고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멀리 떨어진 곳에 오기기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틀라스의 딸, 머릿결 아름다운 칼립소가 삽니다. 꾀 많고 두려운 여신이지요. 신이든 인간이든 그녀와 어울리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비참한 저를 홀로 그 여신의 화로가로 데려갔습니다.

제우스께서 빛나는 번개로 제 빠른 배를 쳐, 포도주 빛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충직한 동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굽은 배의 용골을 팔로 껴안고 아홉 날 동안 표류했습니다. 열 번째 어두운 밤에 신들이 저를 오기기아섬으로 데려갔습니다. 두려운 여신, 머릿결 아름다운 칼립소가 사는 곳입니다.

그녀는 저를 친절히 맞아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고, 평생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칠 년 내내 머물렀고, 칼립소가 준 불멸의 옷을 늘 눈물로 적셨습니다. 세월이 돌아 여덟 번째 해가 되자 여신은 제게 떠날 채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우스의 전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여신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녀는 튼튼히 묶은 뗏목으로 저를 보내며 빵과 달콤한
포도주를 넉넉히 주었습니다. 불멸의 옷을 입혀 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도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열이레 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열여드레째에
여러분 땅의 어스름한 산들이 나타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불운한 저는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보내는 큰
고난을 아직 겪어야 했습니다.

신은 바람을 일으켜 제 길을 막고 바다를 무섭게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신음하는 동안, 파도는
뗏목에 실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뗏목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헤엄쳐 그 깊은
바다를 헤쳤고, 마침내 바람과 파도가 저를 여러분의
해안으로 실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륙하려 했다면
파도가 저를 해안으로 던져, 거대한 바위와 험한 곳에
부딪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나 다시 헤엄쳐 강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바위가 없어 매끄러웠고 바람도 피할 수 있어서, 제 눈에는
가장 좋은 자리로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물 밖으로 나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고,
불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의 물을 받는
강가를 떠나, 덤불 속에 낙엽을 모아 몸에 두르고
잠들었습니다. 한 신이 제게 끝없는 잠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채 낙엽 속에서 밤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 해가 저무는 쪽으로 기운 뒤에야
달콤한 잠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놀고 있는
따님의 시녀들을 보았고, 여신 같은 따님도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따님은 젊은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사려 깊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대개
경솔한 법인데도 말입니다.

따님은 빵과 빛나는 포도주를 넉넉히 주고, 강에서 몸을 씻게
해 주셨으며 이 옷도 주셨습니다. 온갖 슬픔 속에서도 이
일만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이번에는 알키노오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낯선 이여, 진실로 내 딸이 너를 시녀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네가 가장 먼저 기도를 올린 대상은 바로 내 딸이었다."

그러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당신의 허물없는 딸을 이 일로 꾸짖지 마십시오. 그녀는 분명 나에게 시녀들과 함께 따라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이 분노로 어두워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인간 부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알키노오스가 다시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낯선 이여, 내 마음은 이유 없이 분노로 가득 차는 그런 마음이 아니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도가 있는 법이지.

오, 제우스 신이시여, 그리고 아테나와 아폴론이시여. 이토록 훌륭하고 나와 뜻이 맞는 이 남자가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내 아들이라 불리며 이곳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그가 이곳에 남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그에게 집과 재산을 줄 것이네. 하지만 그 누구도 파이아케스인으로서 자네의 의지에 반하여 자네를 붙잡아 두지는 않을 것이네. 아버지 제우스의 뜻이 그러하지 않기를 바라네.

너를 보내는 일은 분명히 알도록 날짜를 정해 주마. 바로 내일이다. 너는 잠에 취해 누워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잔잔한 바다를 노 저어 네 고향과 집, 또는 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줄 것이다. 에우보이아보다 훨씬 멀어도 그렇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금발의 라다만토스를 태우고 가이아의 아들 티티오스를 찾아가느라 에우보이아를 본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곳이 땅끝이라고 말한다. 그 먼 곳까지 힘들이지 않고 갔다가 바로 그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 또한 나의 배들이 얼마나 최고인지, 그리고 나의 젊은이들이 노날로 바닷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오디세우스는 기도를 올리며 말했다. "제우스 신이시여, 알키노오스가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러면 알키노오스의 명성은 곡식을 내주는 온 땅 위에서 꺼지지 않을 것이며, 저 또한 고향 땅에 닿을 수 있으리이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말을 나누었다. 그러자 하얀 팔의 아레테는 시녀들에게 명하여 주랑의 지붕 아래에 침상을 놓게 했다.

또한 그 침상 위에 아름다운 보랏빛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덮개를 펴며,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입을 옷으로 쓸 양털 망토를 놓으라고 명령했다.

시녀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홀에서 나갔다. 시녀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침상을 부지런히 펴 놓은 뒤,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가 그를 불러 말했다.

"낯선 이여, 이제 일어나 휴식을 취하십시오. 침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시녀들이 그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척이나 반가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는 울림이 있는 주랑 아래 놓인 밧줄로 엮은 침상 위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알키노오스는 높고 웅장한 집의 가장 안쪽 방에 누웠다. 그의 곁에는 침상을 정성껏 꾸며 놓은 그의 아내인 여인이 누워 있었다.

제8권

파이아케스인의 잔치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강인하고 위엄 있는 알키노오스가 침상에서 일어났다. 도시를 함락시키는 자,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인하고 위엄 있는 알키노오스는 파이아케스인들의 집회 장소로 앞장서 갔다. 그곳은 그들의 배들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여 매끄럽게 닦인 돌 위에 서로 가까이 앉았다. 한편, 팔라스 아테나는 현명한 알키노오스의 전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돌아갈 길을 마련했다.

아테나는 각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말을 건넸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고문들이여, 이제 이곳 집회 장소로 오시오. 바다를 떠돌다 현명한 알키노오스의 궁전에 새로이 도착한 이 이방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말이오. 그는 그 모습이 불멸의 신들과 꼭 닮아 있소."

그렇게 말하며 아테나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일깨웠다. 그러자 곧 모임 장소와 좌석은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많은 이들이 라에르테스의 지혜로운 아들을 보고 경탄했다. 아테나가 그의 머리와 어깨에 내려준 은총이 참으로 경이로웠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모든 파이아케스인이 그를 환영하고, 그가 경외와 존경을 받으며, 파이아케스인들이 오디세우스를 시험하는 그 많은 과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보기에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시작하자, 알키노오스가 회의석상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의원들이여, 내 가슴 속에서 명령하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방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방랑 중에 동쪽에서 왔는지 아니면 서쪽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보내달라고 간청하며, 확답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늘 해왔던 것처럼, 그를 신속히 보내주는 일을 돕도록 합시다. 진실로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제때 보내주지 않아 슬픔 속에 이곳에 오래 머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서 검은 배를 밝은 바다로 끌어내려 첫 항해를 시작하자.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뛰어났던 청년 쉰둘을 뽑도록 하자.

너희가 모두 노를 노걸치에 제대로 묶었다면, 해안으로 올라와서 곧장 나의 집으로 오너라. 그리고 서둘러 잔치를 준비해 두어라. 내가 모두를 위해 풍성하게 대접하겠다.

청년들이여,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하지만 홀을 가진 왕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아름다운 궁전으로 오시오. 우리가 저 이방인을 대접할 수 있도록 말이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오.

또한 신성한 악사 데모도코스를 이곳으로 불러오시오. 신께서 그에게 무엇보다도 뛰어난 노래 실력을 주셨으니, 그의 마음이 이끄는 어떤 방식이든 노래하여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말한 뒤, 알키노오스가 앞장섰고 홀을 든 왕들이 그를 뒤따랐다. 그사이 전령은 신성한 가객 데모도코스를 데려오기 위해 떠났다.

알키노오스가 명령한 대로, 선발된 쉰두 명의 젊은이들이 쉬지 않고 몰아치는 바다의 해안으로 향했다.

젊은이들이 배와 바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검은 배를 깊은 물가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검은 배에 돛대와 돛을 설치하고, 가죽 노받침에 노를 차례대로 잘 맞추어 끼운 뒤, 하얀 돛을 펼쳤다.

그들은 배를 항구 바깥쪽 먼 곳에 닻을 내려 묶어 두었다. 그러고 나서 지혜로운 알키노오스의 거대한 궁전으로 향했다.

궁전의 주랑과 뜰, 그리고 방들은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었다.

알키노오스는 그들을 위해 양 열두 마리와 흰 엄니를 가진 멧돼지 여덟 마리, 그리고 느릿느릿 걷는 소 두 마리를 잡았다. 그들은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하여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

그때 전령이 뮤사가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사랑하는 선량한 악사 데모도코스를 데리고 다가왔다. 뮤사는 그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주었다. 뮤사는 그의 시력을 앗아가는 대신, 달콤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

전령 폰토노스는 연회객들 한가운데에 은으로 장식된 의자를 놓아주었다. 그는 그 의자를 높은 기둥에 기대어 놓았다.

또한 폰토노스는 악사의 머리 바로 위 못에 맑은 소리가 나는 리라를 걸어주었고, 악사가 손을 뻗어 리라에 닿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악사의 곁에 바구니와 아름다운 탁자, 그리고 마음이 내킬 때 마실 수 있는 포도주 잔을 놓아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앞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를 가라앉혔을 때, 뮤사는 악사에게 전사들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노래하도록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업적들의 명성은 이미 드넓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다.

그 노래는 바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가 다툰 이야기였다. 한때 신들의 풍성한 잔치에서 그들이 얼마나 격렬한 말로 다투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이 다투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다. 왜냐하면 포이보스 아폴론이 신탁을 전하며, 아가멤논이 신탁을 묻기 위해 돌 문턱을 넘을 때 거룩한 피토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제우스의 뜻에 따라, 트로이아인들과 다나오스인들에게 비극의 시작이 닥쳐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가객은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튼튼한 손으로 자신의 커다란 자줏빛 망토를 움켜쥐고는, 그것을 머리 위로 끌어내려 아름다운 얼굴을 숨겼다. 눈썹 아래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파이아케스인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렇다, 신성한 가객이 노래를 멈출 때마다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닦아내고 머리에서 망토를 벗었다. 그러고는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잔을 들어 신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바쳤다.

그러나 노래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파이아케스 귀족들이 그의 노래를 즐거워하며 다시 노래해 달라고 청할 때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머리를 가리고 신음했다.

오디세우스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숨겼다. 하지만 알키노오스만은 그를 주목하며 주의 깊게 살폈다. 알키노오스는 오디세우스의 곁에 앉아 그가 무겁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알키노오스는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 사람들 사이에서 즉시 말을 꺼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의논가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는 이미 골고루 나눈 잔치 음식과 풍성한 잔치의 동반자인 리라를 통해 충분히 즐거움을 누렸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온갖 종류의 경기들을 치러 봅시다. 그리하여 저 이방인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권투와 레슬링과 멀리뛰기, 그리고 달리기 속도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합시다."

알키노오스가 그렇게 말하며 앞장서자,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다.

전령은 못에 맑은 소리가 나는 리라를 걸어 두었다. 그리고 데모도코스의 손을 잡고, 파이아케스의 귀족들이 경기를 구경하러 갔던 것과 똑같은 길로 그를 인도하며 연회장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집회 장소로 향했고, 셀 수 없이 많은 거대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 그곳에서 많은 귀족 청년이 일어났다.

아크로네우스, 오키알로스, 엘라트레우스, 나우테우스, 프림네우스, 안키알로스, 에레트메우스, 폰테우스, 프로레우스, 토온, 아나베시네우스가 일어났다. 테크톤의 아들 폴리네우스가 낳은 암피알로스도 일어났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레스와 맞먹는 나우볼로스의 아들 에우리알로스도 나섰다. 그는 파이아케스인 중에서 비할 데 없는 라오다마스 다음으로 용모와 체격이 뛰어났다. 고귀한 알키노오스의 세 아들, 라오다마스와 할리오스, 신과 같은 클리토네우스도 일어났다. 이들은 먼저 달리기로 겨루었다.

돌아가는 표지점에서부터 달릴 길을 정하자, 모두 평원의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달렸다. 그중 고귀한 클리토네우스가 단연 뛰어났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을 뒤에 두고 훨씬 앞서 사람들 무리가 있는 곳에 닿았다. 그 차이는 노새 한 쌍이 밭을 갈며 나아가는 거리만큼이었다.

이어 힘겨운 씨름 경기가 열렸고, 이번에는 에우리알로스가 모든 귀족 청년보다 뛰어났다.

도약 경기에서는 암피알로스가 모두를 통틀어 가장 뛰어났다. 원반 던지기에서는 다시 엘라트레우스가 모두를 통틀어 단연 최고였고, 권투에서는 알키노오스의 선한 아들인 라오다마스가 가장 뛰어났다.

모든 이가 경기를 즐기며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알키노오스의 아들 라오다마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자, 친구들이여, 저 이방인에게 경기들을 알고 있는지, 혹은 익혔는지 물어보자. 체격만 보아도 그는 분명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그 위의 두 팔과 굵은 목,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을 보라. 그는 젊은이의 힘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나, 수많은 고난에 의해 꺾여버린 것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바다보다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더 나쁜 것은 없다고 본다."

에우리알로스가 차례로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라오다마스, 그대의 말은 참으로 적절하오. 이제 그대가 직접 가서 저 이방인에게 도전하라 하고, 그대의 말을 전하시오.”

알키노오스의 훌륭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가운데로 나와서서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손님, 익숙한 경기가 있다면 함께 겨루어 보시지요. 분명 아시는 경기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자기 손과 발로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니까요. 자, 한번 겨루며 마음의 근심을 잊으십시오. 귀향길이 오래 늦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배를 띄웠고 선원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라오다마스여, 왜 그런 도전으로 나를 조롱하는가? 내 마음속에는 경기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왔다. 나는 지금 당신들의 모임 한가운데 앉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왕과 모든 백성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때 다시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하며 오디세우스의 면전에서 그를 조롱했다.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여. 나는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 흔히 있는 경기 기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상인인 선원들을 거느리는 선장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화물을 신경 쓰고, 집으로 가져갈 짐과 자신의 탐욕스러운 이득을 챙기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운동선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그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군. 그대는 어리석음에 눈이 먼 사람과 같네. 신들이 모든 이에게 외모나 정신, 혹은 웅변술 같은 은총을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네.

어떤 사람은 외모는 뒤떨어질지라도, 신이 그 사람의 말에 아름다움의 면류관을 씌워 주기도 하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기쁨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는 달콤한 겸손함을 갖추어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가며,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된다네.

또한 그가 도시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그를 마치 신처럼 바라보게 되지.

또 어떤 이는 불멸의 신들처럼 아름답지만, 그의 말에는 은총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지 않다. 너의 경우를 보자면, 너의 외모는 탁월하여 신조차도 그것을 고칠 수 없겠으나, 정신은 비루하구나.

너는 그렇게 무례하게 말함으로써 내 가슴 속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네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내가 운동 경기에 서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젊음과 나의 힘을 믿고 있었던 한, 그 분야에서 으뜸가는 자들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나는 고난과 고통에 얽매여 있다. 나는 인간들의 전쟁과 거친 파도를 헤쳐 오며 너무나 많은 일을 견뎌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경기에는 참여하여 실력을 시험해 보겠다. 네 말이 내 심장을 찔렀고, 네 말투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입고 있던 망토를 그대로 두른 채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더 크고 두꺼우며, 파이아케스인들이 서로 겨루며 쓰던 것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반을 움켜쥐었다.

그는 튼튼한 손으로 원반을 회전시키며 던졌고, 돌이 날아갈 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배로 유명한 긴 노를 젓는 파이아케스인들은 날아오는 돌의 기세에 눌려 땅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원반은 오디세우스의 손에서 가볍게 날아가 모든 표식을 지나쳐 날아갔다.

그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테나가 그 표식을 정했다. 그리고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낯선 이여, 눈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더듬어가며 이 표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오. 이 표식은 다른 것들과 전혀 뒤섞여 있지 않고, 다른 표식들보다 훨씬 앞에 떨어져 있으니 말이오.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기운을 내시오. 파이아케스인들 중 그 누구도 이 표식에 도달하거나, 이 표식을 넘겨 던지지는 못할 것이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인내심이 강하고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그는 경기장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에 즐거워했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파이아케스인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젊은이들아, 이제 저 표식까지 던져 보아라. 나는 곧 원반 하나를 더 던져, 그만큼 멀리 보내거나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경기에서도 마음과 용기가 내킨다면 누구든 나와라. 너희가 나를 몹시 화나게 했으니, 권투든 씨름이든 달리기든 상관없다.

파이아케스인 가운데 라오다마스 한 사람만 빼고 누구든 오라. 그는 나를 대접하는 주인이다. 누가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과 다투겠는가?

낯선 땅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주인에게 대결을 신청하는 자는 어리석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망칠 뿐이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이들이라면 나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직접 맞붙어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을 뿐이다.

모든 일에 있어,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경기에서도 나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잘 닦인 활을 다루는 법을 아주 잘 안다. 수많은 전우가 내 곁에 서서 적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을 때라도, 나는 언제나 가장 먼저 활을 쏘아 적의 무리 속에 있는 적을 쓰러뜨릴 것이다.

우리가 아카이아인으로서 활을 쏘았던 트로이아 땅에서는, 오직 필록테테스만이 활 솜씨로 나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빵을 먹고 사는 모든 필멸자 중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가 단연코 최고라고 나는 단언한다.

그렇지만 나는 옛날의 영웅들과 겨루려 하지는 않겠다. 활쏘기 실력으로 불멸의 신들과도 겨루었던 헤라클레스나 오이칼리아의 에우리토스와는 말이다.

위대한 에우리토스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서 노년을 맞이하지 못했다. 아폴론이 그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였기 때문인데, 에우리토스가 아폴론에게 활쏘기 시합을 하자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나는 창을 던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는 것보다 더 멀리 던질 수 있다.

오직 달리기에서만 파이아케스인 중 누군가가 나를 앞지를까 두렵다. 내 배에는 비축해 둔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나는 수많은 파도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사지는 힘이 풀려 버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알키노오스만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이방인이여, 그대가 우리 가운데서 이토록 품위 있게 말하며, 저 남자가 경기장에 다가와 그대의 기량을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조롱한 것에 분노하여, 그대가 지닌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려 마음먹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로다.
마음속으로 적절하게 말할 줄 아는 자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네.

자, 이제 내 말을 경청하게나. 그리하여 그대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때, 다른 영웅에게 우리의 기술을 전해주게나. 제우스께서 우리 조상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업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말일세.

우리는 권투나 레슬링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달리기 경주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고, 항해술에 있어서는 최고다.

또한 우리는 연회와 리라 연주, 춤과 옷을 갈아입는 것, 따뜻한 목욕, 그리고 침상에서의 휴식을 언제나 즐겁게 여긴다.

자, 이제 파이아케스인들 중 춤을 가장 잘 추는 이들이여, 모두 나와서 즐겁게 춤을 추어라. 그래야 저 이방인이 집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항해술과 달리기, 그리고 춤과 노래에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즉시 가서 우리 궁전 어딘가에 놓여 있는 데모도코스를 위한 맑은 소리의 리라를 가져오너라."

신과 같은 알키노오스가 그렇게 말하자, 전령은 왕의 궁전에서 속이 빈 리라를 가져오기 위해 일어났다.

그러자 백성들 중에서 선출되어 모임 때마다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곤 하는 아홉 명의 경기 진행자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춤을 출 자리를 평평하게 다지고, 아름답고 넓은 원을 그렸다.

전령은 데모도코스를 위한 맑은 소리의 리라를 들고 다가왔다. 데모도코스가 중앙으로 이동하자, 춤에 능숙하고 한창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서 아름다운 무대를 발로 두드렸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발이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경탄했다.

그런데 가수는 감미로운 노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을 퉁겼다. 그리고 그는 아레스와 아름다운 왕관을 쓴 아프로디테의 사랑에 대해 노래했다. 그들이 헤파이스토스의 집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몰래 함께 누웠는지 노래했다.

아레스는 그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주인인 헤파이스토스의 침상을 욕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한 존재가 그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 바로 그들이 사랑을 나누며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한 헬리오스였다.

헤파이스토스가 그 비통한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 깊이 악한 계획을 품은 채 자신의 대장간으로 향했다.

그는 모루 받침대 위에 커다란 모루를 올려놓고, 결코 끊어지거나 풀리지 않을 결박을 만들어냈다.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꼼짝 못 하고 묶여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가 아레스에 대한 분노를 담아 그 덫을 다 만든 후에는, 자신의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갔다. 그는 침대 기둥 사방에 그 결박들을 펼쳐 놓았다.

또한 위쪽의 지붕 들보에서도 수많은 결박을 늘어뜨렸는데, 그것들은 거미줄처럼 가늘어서 복된 신들 중 그 누구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침대 주위에 덫을 모두 펼쳐 놓은 뒤, 헤파이스토스는 마치 레므노스로 떠나려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곳은 헤파이스토스의 눈에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잘 지어진 요새였다.

손재주로 이름난 헤파이스토스가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황금 고삐의 아레스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레스는 아름다운 왕관을 쓴 키테레아의 사랑을 갈구하며, 유명한 헤파이스토스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위대한 아들인 아버지의 곁을 막 떠나 자리에 앉아 있던 참이었다.

아레스는 집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이리 오시오. 함께 누워 기쁨을 나눕시다.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이 땅에 없소. 내 생각건대, 그는 거친 말을 쓰는 신티아인들을 만나러 레므노스로 떠난 듯하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아프로디테에게는 그와 함께 눕는 것이 즐거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침상으로 가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

그때 지혜로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교묘한 결박이 그들 주위를 휘감았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두 팔이 강건한 것으로 유명한 헤파이스토스 신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헤파이스토스는 레므노스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발길을 돌려 돌아온 것이었다. 헬리오스가 그를 위해 망을 보고 있다가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소리를 지르며 모든 신을 향해 외쳤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다른 복된 신들이시여, 이리로 오셔서 우스꽝스럽고도 괴상한 광경을 보소서.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경멸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사지가 튼튼한 파괴적인 아레스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틀린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부모님을 탓해야 할 일입니다. 차라리 두 분이 저를 낳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여러분은 저 두 사람이 제 침상에 올라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그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해도 더는 이렇게 누워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순간도 말이다.

머지않아 두 사람 모두 잠자리에 들고 싶은 욕망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올가미와 결박이 그들을 붙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수치심도 모르는 자기 딸을 위해 내가 바쳤던 그 모든 구혼의 선물들을 나에게 다시 돌려줄 때까지 말이다. 그의 딸은 아름답기는 하나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모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놋바닥이 깔린 집으로 신들이 모여들었다.

대지를 감싸는 포세이돈이 왔고, 조력자인 헤르메스도 왔으며, 궁수 신인 아폴론도 왔다.

여신들은 부끄러움에 각자의 집에서 머물렀으나, 좋은 것을 베푸는 신들은 문간에 모여 섰다.

복된 신들은 지혜로운 헤파이스토스의 꾀를 보고 멈추지 않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옆 사람을 힐끗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악한 행위는 번창하지 못하는 법이다. 느린 자가 빠른 자를 잡기도 하는 법이지. 지금 헤파이스토스가 비록 느리지만, 올림포스를 차지한 신들 중 가장 빠른 아레스보다 앞서 나간 것처럼 말이다.

헤파이스토스는 다리를 절면서도 불구하고 꾀를 써서
아레스를 붙잡았으니, 이로 인해 아레스는 간통한 자로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들은 서로 그렇게 말했다. 그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헤르메스에게 말을 건넸다.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이며, 좋은 것을 선사하는
헤르메스여, 너는 진정 강한 결박에 묶이더라도 황금빛
아프로디테의 곁에서 침상에 누울 용의가 있느냐?"

아르고스를 죽인 전령 헤르메스가 대답했다.

"활을 쏘는 아폴론 신이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풀 수 없는 사슬이 세 배나 많이 저를 묶고, 남신들과 모든
여신이 지켜보더라도 황금빛 아프로디테 곁에서 잘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포세이돈만은 웃지 않았다. 포세이돈은 유명한
장인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레스의 몸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했다.

포세이돈은 말을 건네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호소했다.

"그를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명하신 대로, 그가
불멸의 신들 앞에서 당신에게 마땅히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직접 지불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두 팔이 강건하기로 유명한 신이 그에게 대답했다.

"대지를 감싸 안는 자여, 포세이돈이여,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마시오. 비열한 악당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오.

만약 아레스가 빚도 갚지 않고 결박도 벗어던진 채
떠나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불멸의 신들 앞에서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소?"

그 말에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다시 그에게 대답했다.

"헤파이스토스여, 설령 아레스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칠지라도, 내가 직접 당신에게 이것을 갚아 주겠소."

그러자 두 팔이 강건하기로 유명한 신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그대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품위 있는 일이 아닐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힘센 헤파이스토스가 결박을 풀었다. 그토록
강한 결박에서 풀려나자 두 신은 즉시 몸을 일으켰다.

아레스는 트라키아로 떠났고, 웃음을 사랑하는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의 파포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영토이자 향기로운 제단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은총의 여신들이 아프로디테를 씻기고 영원한 신들에게서나 빛나는 불멸의 기름으로 그녀에게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기에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운 의복을 그녀에게 입혀주었다.

유명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다.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긴 노를 저으며 배로 유명한 파이아케스인들도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기뻐했다.

그때 알키노오스는 할리오스와 라오다마스에게 단독으로 춤을 추라고 명령했다. 그 누구도 그들과 겨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청년이 지혜로운 폴리보스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아름다운 보랏빛 공을 손에 쥐었을 때, 한 명은 몸을 뒤로 젖히며 어둑한 구름을 향해 공을 던졌고, 다른 한 명은 땅에서 솟구쳐 올라 발이 다시 땅에 닿기 전에 능숙하게 공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공을 똑바로 위로 던지며 솜씨를 겨룬 뒤에는, 두 청년은 풍요로운 땅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을 이리저리 계속해서 주고받았다.

다른 청년들은 경기장 주변에 서서 박자를 맞췄고, 그 소리로 인해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다.

그때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오스에게 말했다.

"알키노오스 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명성 높은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무용수들이 최고라고 자랑하셨는데,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따름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강하고 위대한 알키노오스는 기뻐했다. 그리고 곧바로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인들 사이에서 그가 말을 이어갔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고문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이방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서 그에게 우정의 선물을 줍시다. 우리 땅에는 열두 명의 영광스러운 왕들이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으며, 나 또한 열세 번째 왕이오.

이제 열두 명의 왕들 각자는 새로 세탁한 겉옷과 튜닉, 그리고 귀한 금 한 탈란트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즉시 그것들을 모두 모읍시다. 그리하여 이 이방인이 우리의 선물을 손에 들고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갈 수 있게 합시다.

그리고 에우리알로스가 말과 선물로 그 이방인에게 직접 사죄하게 하라. 그가 내뱉은 말은 결코 품위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찬양하며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선물을 가져오도록 전령을 보냈다.

이어 에우리알로스가 대답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명성 높은 알키노오스 님,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이 이방인에게 사죄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으로 장식된 자루가 달린 청동 검을 줄 것이며, 그 검에는 새로 벤 상아로 만든 칼집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검은 그에게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에우리알로스는 은으로 장식된 칼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건네고, 날개 돋친 말을 했다.

"평안하시기를, 손님. 제 말 가운데 거친 것이 있었다면
폭풍이 곧 낚아채 멀리 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벗들과 떨어져 고통받으셨으니, 신들이 아내를 만나고 고향
땅에 닿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벗이여, 그대도 평안하기를. 신들이 행복을 주시고,
부드러운 말로 사과하며 내게 준 이 칼을 훗날 아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그는 말을 마쳤고, 은으로 장식된 칼을 어깨에 멨다.

해가 저물자 영광스러운 선물들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위엄
있는 전령들이 이 선물들을 알키노오스의 궁전으로
운반했다.

비길 데 없이 훌륭한 알키노오스의 아들들은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아서, 존경받는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다.

강인하고 위대한 알키노오스가 앞장섰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높은 좌석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위대한 알키노오스가 아레테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궤짝을 가져와, 직접 갓 빤 겉옷과 튜닉을 넣어 주시오. 그리고 이 손님을 위해 불에 솥을 올려 목욕물을 데우게 하시오. 손님이 목욕하고, 고귀한 파이아케스인들이 가져온 선물을 모두 잘 챙겨 둔 것을 확인한 뒤, 잔치와 노랫가락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오.

나는 황금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잔을 주겠소. 손님이 자기 집에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 포도주를 부어 바칠 때마다 평생 나를 기억하도록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레테는 시녀들에게 서둘러 커다란 가마솥을 불 위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시녀들은 목욕물을 채울 가마솥을 타오르는 불 위에 올리고 물을 부은 뒤, 나무 장작을 가져와 가마솥 아래에서 불을 지폈다.

불길이 가마솥의 배 부분을 감싸며 타올랐고 물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아레테는 보물 창고에서 아름다운 상자를 꺼내와, 파이아케스인들이 준 의복과 황금 같은 귀한 선물들을 그 안에 담았다.

그리고 아레테는 그 안에 망토와 아름다운 튜닉을 직접 넣었다. 그러고 나서 아레테는 날개 돋친 말을 오디세우스에게 건넸다.

"이제 직접 뚜껑을 잘 닫고 서둘러 끈을 매어 두어라. 나중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네 물건을 훔쳐 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검은 배를 타고 가며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밧줄을 빠르게 던져 묶었다. 그것은 여왕처럼 위엄 있는 키르케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묘한 매듭이었다.

이에 집안 여인이 그에게 목욕하러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일렀다. 오디세우스는 따뜻한 목욕물을 보고 마음이 기뻤다.

머릿결 아름다운 칼립소의 집을 떠난 이후로 그는 그런 보살핌을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립소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신처럼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아왔었다.

시녀들이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기름을 발라준 뒤, 아름다운 겉옷과 튜닉을 입혀주었다. 오디세우스는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술을 마시는 남자들에게 합류했다.

신들로부터 아름다움을 선물 받은 나우시카는 잘 지어진 전당의 문설주 옆에 서 있었다.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를 바라보며 그를 보고 경탄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입을 열어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이방인이여. 앞으로 당신의 고향 땅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한 대가를 나에게 가장 먼저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나우시카여, 마음 넓은 알키노오스의 딸이여. 우렁차게 천둥치시는 헤라의 남편 제우스께서, 내가 고향에 도착하여 돌아온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녀여, 나는 그곳에서도 매일같이 당신을 신처럼 받들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말을 마치고 알키노오스 왕의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때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섞고 있었다.

전령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량한 가객 데모도코스를 데리고 다가왔다. 전령은 데모도코스를 연회객들 한가운데에 앉히고, 그의 의자를 높은 기둥에 기대어 주었다.

그때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전령에게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흰 엄니를 가진 멧돼지의 등살에서 고기 한 점을 떼어냈다. 그 고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양옆에는 풍부한 지방이 붙어 있었다.

"전령이여, 이 음식을 가져다가 데모도코스에게 주어 그가 먹게 하라. 나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환영하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객들은 명예와 존경을 얻는다. 뮤사가 그들에게 노래의 길을 가르쳐 주었으며, 뮤사가 가객들의 무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전령은 그 고기 조각을 가져가 데모도코스의 손에 놓아주었다. 데모도코스는 그것을 받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즐거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데모도코스에게 말했다.

“데모도코스여, 진실로 나는 필멸의 인간 중 그대를 누구보다 찬양한다. 제우스의 딸인 뮤사가 그대에게 가르쳤든, 아니면 아폴론이 가르쳤든 말이다.

그대는 아카이아인들의 운명과 그들이 행한 모든 일과 겪은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견뎌낸 모든 고난을 마치 그대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혹은 다른 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주 잘 그리고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노래의 주제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테나의 도움으로 에페이오스가 만든 나무 말에 대해 노래해 주십시오. 오디세우스가 일리오스를 함락시킨 병사들로 그 안을 가득 채운 뒤, 속임수의 도구로 삼아 성채 안으로 끌고 올라갔던 바로 그 말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로 나에게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들려준다면, 나는 모든 인류에게 신께서 당신에게 기쁜 마음으로 신성한 노래의 재능을 내려주셨다고 선언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신에게 감동을 받은 가수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노래는 아카이아인들이 자신들의 오두막에 불을 지른 뒤, 노를 젓는 배를 타고 떠나던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다른 이들은 나무 말 안에 숨어 트로이아인들의 집회 장소에 앉아 있었다. 트로이아인들이 직접 그 말을 성채로 끌고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말은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 주위에 둘러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방안이 떠올랐다. 무자비한 청동으로 그 속이 빈 목재를 쪼개버리거나, 그것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바위 아래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결국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신들을 달래기 위한 거대한 제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도시가 거대한 나무 말을 받아들이게 될 때 멸망하는 것이었다. 그 나무 말 안에는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이 타고 앉아 트로이아인들에게 죽음과 파멸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그는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말의 몸체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그리고 그 빈 함정을 떠나 도시를 약탈했는지 노래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드높은 도시를 파괴했는지 노래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 대해서는, 그가 신과 같은 위엄을 지닌 메넬라오스와 함께 데이포보스의 집으로 아레스처럼 달려갔다고 노래했다.

오디세우스가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싸움에 맞서 용맹을 떨쳤으며, 결국 마음이 넓은 아테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그는 노래했다.

유명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때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흘러 그의 뺨을 적셨다.

도시와 자식들에게 닥칠 무자비한 날을 막으려던 남편이 성과 백성 앞에서 쓰러지면, 아내는 통곡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끌어안는다. 그가 죽어 가며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매달려 비명을 지르는데, 등 뒤의 적들은 창으로 그녀의 등과 어깨를 치며 포로로 끌고 간다.

고역과 슬픔을 겪게 될 여인의 뺨은 가련한 비탄으로 수척해진다. 오디세우스도 그 여인처럼 눈썹 아래로 가련한 눈물을 흘렸다.

오디세우스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숨겼다. 하지만 오직 알키노오스만이 그를 눈여겨보며 주의를 기울였다. 알키노오스는 오디세우스의 곁에 앉아 그가 무겁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알키노오스는 노를 젓는 것을 좋아하는 파이아케스인들에게 즉시 말을 건넸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의논가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데모도코스는 그의 맑은 소리가 나는 리라 연주를 멈추게 합시다. 그의 노래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신성한 악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 이방인은 슬픈 통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분명 슬픔이 그의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악사는 노래를 멈추게 합시다. 손님과 주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보라, 존경받는 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 그를 보내기 위한 준비와 우리가 사랑을 담아 건네는 우정의 선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과 간청하는 자는 형제처럼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내가 그대에게 묻는 것들을 더는 교묘한 생각으로 숨기지 마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그대의 고향에서, 그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즉 그대의 마을 사람들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대를 부르던 이름을 내게 말해주오.

사람이 태어나면 비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다네. 부모는 아이를 낳을 때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이라오.

그리고 그대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대의 도시도 내게 말해주오. 그러면 우리 배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길을 찾아내어, 그대를 그곳까지 데려다줄 것이오.

파이아케스인들에게는 항해사도 없고, 다른 배들이 가진 것과 같은 키잡이용 노도 없다. 대신 그들의 배는 스스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며, 모든 민족의 도시와 풍요로운 들판을 알고 있다.

그 배들은 안개와 구름에 싸인 채 넓고 깊은 바다를 가장 빠르게 가로지르며, 해를 입거나 파멸할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나의 아버지 나우시토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해 주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는 언젠가, 안개 낀 깊은 바다에서 호송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파이아케스인의 잘 만들어진 배를 포세이돈이 내리쳐 부수고, 우리 도시 주변으로 거대한 산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 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남겨질 수도 있었다.

자, 이제 나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진실하게 밝혀다오. 그대는
어디를 떠돌았으며 어떤 사람들의 나라에 이르렀는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신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는 마을과 잘 지어진 도시들에 대해 내게
말해주어라.

또한 아카이아 다나오스인들과 트로이아의 파멸을 들으며
그대가 왜 마음속으로 울며 통곡하는지도 말해주어라.

신들은 이 일을 행하셨고, 장차 태어날 이들을 위한 노래가
남을 수 있도록 인간들을 향한 파멸의 실타래를 짜셨다.

그대의 친족 중 누군가가 일리오스 앞에서 쓰러졌는가?
그대가 아끼는 선하고 참된 사람, 즉 그대의 사위나 장인처럼,
친족과 혈육 다음으로 가까운 이가 말이다.

아니면 혹시 그대의 마음이 깊이 애착을 가진 동료 중 선하고
참된 사람이 쓰러졌는가? 마음이 통하는 동료는 형제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9권

키클롭스의 동굴

이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명성이 드높은 알키노오스 님, 목소리가 신들과도 같은 이런 가객의 노래를 듣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기쁨이 온 백성에게 가득할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연회장에서 손님들이 질서 있게 앉아 가객의 노래를 듣고, 그들 앞의 탁자에는 빵과 고기가 가득 차 있으며, 술을 따르는 이가 큰 술그릇에서 포도주를 떠서 돌며 잔에 채워줄 때의 즐거움 말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제가 더욱 울고 신음하게 될 그 모진 고난을 물으시려 합니다. 무엇부터, 또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늘의 신들이 제게 내린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름을 아시고, 훗날 제가 무자비한 파멸의 날을 벗어난다면, 멀리 살더라도 여러분을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제 명성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는 이타카에 삽니다.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으로 덮여 멀리서도 눈에 띄는 네리톤산이 있습니다.

이타카 주위에는 둘리키온과 사메,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등 여러 섬이 서로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이타카는 본토 가까이, 어둠이 드는 쪽으로 가장 멀리 있고, 다른 섬들은 따로 떨어져 새벽과 해가 뜨는 쪽에 있습니다. 이타카는 험한 섬이지만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길러 내는 땅입니다. 제게는 자기 고향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는 내가 자신의 남편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 깊숙한 동굴에 나를 붙잡아 두려 했다.

마찬가지로 아이아이아의 교활한 여인 키르케 또한 내가 자신의 남편이 되기를 갈망하며, 자신의 궁전에서 나를 붙잡아 두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 가슴 속의 마음을 결코 설득할 수 없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타국에서 비록 부유한 집안에
머물지라도, 자신의 고향 땅과 부모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는 말은 참으로 진실이다.

자, 이제 내가 트로이아에서 올 때 제우스께서 내게 내리신 그
비참한 귀향의 이야기도 당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나를 일리오스에서 실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도시
이스마로스로 데려갔다. 나는 그곳에서 도시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는 도시에서 여인들과 막대한 보물을 빼앗아 우리끼리
나누어 가졌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누구도 공평한 몫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누었다.

그때 나는 재빨리 발을 움직여 도망치자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커다란 어리석음에 빠져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잔뜩 마셔댔고, 해안가에서는
수많은 양과 느릿느릿 걷는 매끄러운 몸집의 소들을 죽여
잡아먹었다.

그사이 키코네스인들은 이웃에 사는 다른 키코네스인들을 불러 모았다. 새로 모여든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수가 많았고 더 용맹했다. 그들은 내륙에 거주하며 전차를 타고 적과 싸우는 데 능숙했고, 필요하다면 보병으로도 싸울 줄 아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봄철에 잎사귀나 꽃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빽빽하게 몰려와 아침에 들이닥쳤다. 그때 제우스가 내린 불행한 운명이 우리 불운한 사람들을 덮쳤고,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전투 대열을 갖추고 빠른 배들 옆에서 싸웠다. 양측은 청동 촉을 단 창을 서로에게 퍼부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신성한 날이 무르익는 동안, 우리는 적들의 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해가 기울어 소들의 멍에를 벗길 시간이 되었을 때, 키코네스인들이 승기를 잡고 아카이아인들을 패퇴시켰다.

그 과정에서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춰 찬 내 전우들 중 각 배마다 여섯 명씩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죽음과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우리는 마음속에 슬픔을 안은 채 계속 항해했다.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었으나 죽음에서 벗어난 것만은
다행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는 키코네스인들에게 베여
평원에서 죽어간 불행한 동료들을 한 명씩 세 번씩 부르기
전까지는, 나의 굽은 배들을 그냥 지나치게 두지 않았다.

그런데 구름을 모으는 자인 제우스께서 우리 배들을 향해
놀라운 폭풍과 함께 북풍을 일으키셨다. 제우스께서는
구름으로 육지와 바다를 모두 가려버리셨고, 하늘에서는
밤이 몰려왔다.

그러자 배들은 앞을 가리지 못하고 거칠게 몰아쳐 갔으며,
배의 돛들은 거센 바람의 위력에 갈가리 찢겨 나갔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돛을 내리고 배 안에 갈무리한 뒤,
서둘러 육지를 향해 배를 저어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틀 밤과 이틀 낮 동안 계속 머물렀다.
우리는 피로와 슬픔으로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했다.

그런데 머리칼이 아름다운 새벽이 찾아와 셋째 날을
데려왔을 때, 우리는 돛대를 세우고 하얀 돛을 올렸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니, 바람과 키잡이들이 배를 몰아 나아갔다.

이제 나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고향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레아를 돌아서던 중 파도와 조류, 그리고 북풍이 나를 뒤로 밀어냈고, 키테라를 지나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몰아붙였다.

"그곳에서 아홉 날 동안 나는 무시무시한 바람에 휩쓸려 생명력이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 위를 떠돌았다. 하지만 열 번째 날에 우리는 꽃 같은 음식을 먹는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땅에 발을 디뎠다.

우리는 해안으로 올라가 물을 길어 올렸고, 내 동료들은 곧장 빠른 배 옆에서 식사를 했다. 우리가 음식과 마실 것을 맛보았을 때, 나는 동료들 중 몇 명을 보내 이곳에서 땅 위에서 빵을 먹고 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했다.

나는 두 명을 뽑았고, 그들을 안내할 전령으로 세 번째 사람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곧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울렸다. 그곳 사람들은 내 동료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저 로토스를 맛보게 해 주었다. 하지만 꿀처럼 달콤한 로토스 열매를 먹은 동료들은 소식을 전하거나 돌아오려는 마음을 잃었다. 그곳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로토스를 먹으며 귀향길을 잊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억지로 배로 끌고 돌아왔다. 나는 그들을 배 안의 좌석 아래로 끌어다 놓고 속이 깊은 배 안에 단단히 묶어 두었다.

그리고 나의 신뢰하는 나머지 동료들에게는 서둘러 빠른 배에 올라타라고 명령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로토스를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동료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좌석에 앉았다. 그들은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앉아 노로 회색 바다를 내리쳤다.

“그곳에서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했고, 오만하고 법도 없는 민족인 키클롭스들의 땅에 도착했다.

그들은 불멸의 신들을 믿기에,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심거나 밭을 갈지 않았다. 하지만 밀과 보리, 그리고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 같은 것들이 심거나 갈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났으며, 제우스가 내리는 비가 그것들을 자라게 했다.

그들은 의논을 위한 회의도 하지 않고 정해진 법도 없었다. 그들은 높은 산봉우리의 깊은 동굴에 살았으며, 각자가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자였고, 서로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항구 밖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는 평평한 섬이 하나 있다. 그 섬은 키클롭스들의 땅 해안에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숲이 우거진 섬이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야생 염소들이 살고 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염소들을 놀라 달아나게 할 일이 없고, 산봉우리를 누비며 숲속의 고난을 견뎌내는 사냥꾼들도 그곳에는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섬에는 가축 떼도 없고 경작하는 땅도 없다. 그 섬은 매일같이 씨를 뿌리지도, 땅을 갈지도 않은 채, 울음소리를 내는 염소들에게 먹이를 주며 사람의 손길을 전혀 모른 채 지내고 있다.

왜냐하면 키클롭스들에게는 선홍빛 뺨을 가진 배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배를 잘 만들어 줄 조선공들도 없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서로를 방문하듯,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좌석이 잘 갖춰진 배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조선공들을 갖지 못했다.

만약 그런 장인들이 있었다면 이 섬 또한 아름다운 정착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 섬은 결코 가난한 곳이 아니며, 계절에 맞춰 모든 것을 길러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섬에는 회색 바다의 해안을 따라 초원이 펼쳐져 있다. 그 초원은 물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결코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곳에는 평평한 경작지도 있는데, 땅속의 흙이 매우 비옥하여 계절마다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 섬에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항구도 있다. 그곳에서는 닻돌을 던지거나 배 뒷부분의 밧줄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배를 해안에 대고, 선원들이 다시 출발하자고 마음먹고 순풍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항구의 안쪽 끝에는 동굴 아래로부터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미루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배를 몰아 들어갔다. 어떤 신이 어두운 밤을 뚫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앞을 볼 수 있는 빛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배들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져 하늘에서 아무런 빛도 비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만들어진 배를 해변으로 몰아붙이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눈도 그 섬을 보지 못했고 해변으로 밀려드는 긴 파도 또한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배를 해변에 대자, 우리는 모든 돛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바닷가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이 들었고, 빛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경이로워했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들인 님프들이 산염소들을 깨웠다. 내 동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즉시 배에서 굽은 활과 긴 투창을 가져왔다. 그리고 세 무리로 나뉘어 사냥을 시작했다.

신께서는 곧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사냥감을 주셨다.

나를 따르던 배는 열두 척이었다. 제비뽑기를 통해 각 배마다 아홉 마리의 염소가 배정되었으나, 오직 나에게만 열 마리가 배정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풍성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

우리 배에는 아직 붉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키코네스인들의 신성한 성채를 점령했을 때, 우리는 각 선원들을 위해 항아리에 가득 담아온 풍족한 저장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까이에 거주하는 키클롭스들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양과 염소들의 소리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우리는 바닷가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의 여명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내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이여, 나머지 너희는 모두 여기 머물러라. 나는 내 배와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저 사람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들이 누구인지, 잔인하고 거칠며 불의한 자들인지, 아니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신들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알아내겠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배에 올라타 동료들에게 직접 배에 타라고 말하며 선미의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노를 젓는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회색빛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바다 바로 옆 육지 끝자락에서 높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그 동굴은 월계수 잎으로 지붕이 덮여 있었고, 그곳에는 양과 염소로 이루어진 수많은 떼가 잠을 자곤 했다.

그 주변에는 땅속 깊이 돌을 박아 세운 높은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키 큰 소나무와 꼭대기가 높은 참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곳에는 한 괴물 같은 남자가 홀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 떼를 치며 잠을 자곤 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살았으며, 마음은 늘 법도를 어기는 일에 가 있었다.

그는 경이로운 괴물로 만들어졌기에, 빵을 먹고 사는 인간과는 달랐다. 그는 마치 다른 봉우리들과 떨어져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높고 험준한 산의 나무 덮인 봉우리와도 같았다.

"그때 나는 신뢰하는 나머지 동료들에게는 배 옆에 머물며 배를 지키라고 명했다. 그리고 나는 동료들 중 가장 뛰어난 열두 명을 골라 함께 길을 떠났다.

나는 에우안테스의 아들이자 이스마로스를 보살피던 신, 아폴론의 사제인 마로가 내게 준 검고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염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내게 그것을 준 이유는 우리가 경의를 담아 그와 그의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포이보스 아폴론의 나무가 우거진 숲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화려한 선물들을 주었다. 잘 만들어진 금 일곱 탈란트를 주었고, 은으로 만든 혼합 그릇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달콤하고 물을 섞지 않은 신성한 음료인 포도주를 총 열두 항아리에 가득 채워 주었다.

그의 노예들이나 궁전의 시녀들은 그 포도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오직 그 자신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단 한 명의 하녀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 꿀처럼 달콤한 붉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는 잔 하나를 채워 물 스무 계량분에 부었다. 그러면 혼합 그릇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 향기를 맡으면 참으로 누구라도 마시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이 포도주를 커다란 가죽 부대에 가득 채워 가져갔고, 주머니에는 양식도 챙겼다. 내 자부심 강한 영혼에는 곧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자였으며, 정의나 법을 전혀 모르는 야만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동굴로 갔지만, 그를 그 안에서 찾지는 못했다. 그는 들판에서 살찐 양 떼를 먹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 그곳의 모든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상자들은 치즈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에는 어린 양들과 새끼 염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종류별로 따로 우리에 갇혀 있었는데, 첫 새끼들은 따로, 나중에 태어난 양들은 따로, 그리고 젖을 막 뗀 녀석들은 또 따로 모여 있었다.

잘 만들어진 그릇들, 즉 우유통과 젖을 짤 때 쓰는 사발들은 모두 유청으로 가득 차 넘실거렸다.

동료들은 우선 치즈를 챙겨 떠나고, 우리에서 새끼 염소와 어린 양들을 서둘러 빠른 배로 몰아가 바다로 나서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다. 그 말대로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손님에게 줄 선물을 내놓을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나타난 일은 동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우리도 치즈를 가져다 먹으며, 그가 양 떼를 몰고 돌아올 때까지 동굴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저녁 식사 때 쓸 마른 나무를 한 더미 가득 짊어지고 오더니, 동굴 안으로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겁에 질린 우리는 동굴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자신이 젖을 짠 살찐 양 떼를 넓은 동굴 안으로 몰고 들어왔다. 하지만 숫양과 염소 같은 수컷들은 깊은 마당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대한 바위인 커다란 문돌을 높이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았다. 그 바위는 너무나 거대한 덩어리여서, 튼튼한 네 바퀴 달린 수레 스물두 대가 달려들어도 땅에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 거대한 바위를 문 입구에 놓았다.

그 후 그는 자리에 앉아 암양들과 매애 하고 우는 염소들의 젖을 차례대로 짰고, 각 어미 아래에 그 새끼를 놓아 젖을 먹게 했다.

곧이어 그는 하얀 우유의 절반을 엉기게 하여 치즈로 굳힌 뒤, 그것을 버들 바구니에 담아 따로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우유는 나중에 가져가서 마시거나 저녁 식사 때 쓸 수 있도록 그릇에 담아 두었다.

그렇지만 그가 분주히 자신의 일을 모두 마쳤을 때, 그는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다 우리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낯선 자들아,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바닷길을 따라 왔느냐? 무슨 볼일이 있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떠돌며 다른 땅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해적들처럼 바다를 정처 없이 헤매느냐?’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깊은 목소리와 괴물 같은 모습에 겁을 먹은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트로이아에서 온 아카이아인들입니다. 온갖 바람에 밀려 거대한 바다의 심연 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찾아 다른 길로, 다른 경로를 통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우스께서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우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부하들입니다. 아가멤논은 지금 하늘 아래에서 가장 명성이 드높은 자로, 거대한 도시를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온 이로서, 당신이 우리를 대접해 주거나 혹은 나그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예우로서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라며 당신의 무릎 앞에 엎드린 간청자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시여, 부디 신들을 경외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간청하는 자들입니다. 제우스는 간청하는 자와 나그네의 복수자이시며, 나그네의 신이시자, 경건한 나그네들을 언제나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즉시 대답했다.

'이방인이여, 그대는 어리석거나 혹은 멀리서 온 모양이군. 나에게 신들을 두려워하라거나 신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하다니 말이다.

우리 키클롭스들은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도, 복된 신들도 안중에도 없다. 진실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제우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나 그대의 동료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말해 보아라. 그대는 이곳에 올 때 그 잘 만들어진 배를 어디에 정박시켰는가?

이 땅의 먼 곳에 대었느냐, 아니면 가까운 곳에 대었느냐? 알고 싶구나.'

"그는 나를 유혹하려 그렇게 말했지만, 나의 뛰어난 지략 때문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교묘한 말로 다시 대답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께서 제 배를 당신네 땅 끝의 바위에 던져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신이 배를 곶 가까이 몰고 오셨고 바람이 바다에서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있는 이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말했지만, 그는 무자비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벌떡 일어나 내 동료들에게 손을 뻗었다.

그는 동료들 중 두 명을 단번에 낚아채 강아지처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러자 그들의 뇌가 땅 위로 흘러나와 흙을 적셨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의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산에서 자란 사자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먹어 치웠다. 내장과 살점, 그리고 골수가 든 뼈까지 모두 먹어 버렸다.

우리는 그의 잔혹한 행위를 목격하며 울부짖으며 제우스에게 두 손을 들어 빌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키클롭스가 사람의 살점을 먹어 거대한 입을 채우고, 그 뒤에 순수한 우유를 마신 뒤에는 동굴 안에 누워 양들 사이에 몸을 뻗고 잠들었다.

나는 내 커다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허벅지 옆에 찬 날카로운 칼을 뽑아, 손으로 위치를 더듬어가며 횡격막이 간을 감싼 그의 가슴 부분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망설여졌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역시 처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곳에 놓아둔 거대한 돌을 우리는 손으로 밀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울부짖으며, 빛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키클롭스는 다시 불을 지피고 그의 훌륭한 가축들의 젖을 차례로 짰다. 그리고 어미마다 그 아래에 새끼를 놓아 주었다.

그가 분주하게 일과를 마쳤을 때, 그는 다시 두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붙잡아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마친 키클롭스는 커다란 문 돌을 쉽게 치워버리고, 그의 살찐 양 떼를 동굴 밖으로 몰아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화살통의 뚜껑을 덮듯이 그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키클롭스는 커다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자신의 살찐 양 떼를 산 쪽으로 몰았다.

나는 그곳에 남겨졌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든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테나가 나에게 영광을 내려줄 수 있을지 궁리하며 악한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내 마음에는 최선의 계획으로 보였다.

양 우리 옆에는 키클롭스의 거대한 몽둥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말려서 들고 다니려고 베어 둔, 아직 마르지 않은 올리브나무 지팡이였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거대한 만을 건너는 폭이 넓은 스무 개의 노를 가진 검은 상선의 돛대만큼이나 커 보였다. 그 길이는 물론 너비 또한 보기에 매우 거대했다.

나는 그 몽둥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길 정도의 길이를 잘라내어 동료들에게 건네며, 그것을 다듬으라고 명령했다.

동료들이 몽둥이를 매끄럽게 다듬는 동안, 나는 옆에 서서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았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것을 집어 들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넣어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나는 동굴 곳곳에 거대한 더미로 쌓여 있는 배설물 아래에 그 몽둥이를 조심스럽게 숨겨 두었다.

그리고 나는 동료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다. 달콤한 잠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용기를 내어 그 말뚝을 들어 올려 키클롭스의 눈에 박아 넣을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였다.

제비뽑기는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직접 선택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네 명이었고, 나도 다섯 번째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 무렵 저녁이 되자, 키클롭스가 양털이 탐스러운 양 떼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혹은 신이 그렇게 명령했는지, 살찐 양 떼를 하나도 빠짐없이 넓은 동굴 안으로 몰아넣었다. 깊은 마당에 남겨진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문돌을 높이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암양들의 젖을 짜고 울어대는 염소들의 젖도 차례로 짰으며, 어미 양의 품 아래에는 새끼들을 각각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는 맡은 일을 분주히 마친 뒤, 다시 한꺼번에 두 명의 사람을 붙잡아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때 내가 다가가 손에 검은 포도주가 담긴 담쟁이덩굴 그릇을 들고 키클롭스에게 말을 건넸다.

"'키클롭스여, 사람 고기로 식사했으니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 보시오. 우리 배에 어떤 술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오. 그대가 가엾게 여겨 나를 집으로 보내 줄까 하여, 그대에게 바칠 술로 가져온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날뛰고 있소.

잔인한 사람이여, 이런 무법한 짓을 했으니 수많은 사람 중 누가 앞으로 다시 그대를 찾아오겠소?'

"나는 그렇게 말했고, 키클롭스는 잔을 받아 그것을 단숨에 비웠다. 그는 그 달콤한 음료를 마시며 무척이나 기뻐하더니, 나에게 두 번째로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내게 다시 주시오. 그리고 즉시 그대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그대가 기뻐할 만한 이방인의 선물을 내가 줄 수 있소.

키클롭스들 사이에서는 곡물을 주는 대지에서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열리고, 제우스의 비가 그것들을 자라게 하지만, 이것은 암브로시아와 넥타르가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다시 그에게 불타는 듯한 포도주를 건네주었다.

나는 세 번이나 포도주를 가져다주었고, 키클롭스는 어리석게도 세 번이나 그것을 남김없이 마셔버렸다.

포도주가 키클롭스의 정신을 흐려놓았을 때, 나는 그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을 건넸다.

"'키클롭스, 내 이름을 물었으니 알려 주겠다. 그대도 약속한 대로 손님에게 줄 선물을 내놓아라. 내 이름은 아무도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동료들 모두도 나를 아무도라고 부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곧 무자비하게 대답했다.

‘아무도는 동료들 가운데 맨 나중에 먹겠다. 다른 놈들을 먼저 먹고 말이다. 이것이 네게 줄 선물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는 굵은 목을 옆으로 꺾은 채 그곳에 누웠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잠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목구멍으로부터 포도주와 사람의 살점 조각들을 토해냈다.

나는 그 즉시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깊은 재 아래로 말뚝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내 동료들 중 누구도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나는 격려하는 말로 그들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렇지만 곧 그 올리브 나무 말뚝이, 비록 생나무였음에도 불이 붙으려 하며 무시무시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로 불에서 말뚝을 꺼내 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나의 동료들은 내 주위에 둘러섰고, 신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들은 끝이 뾰족한 올리브나무 말뚝을 가져와 그의 눈에 박아 넣었다. 나는 위에서 몸의 무게를 실어 그 말뚝을 회전시켰다. 마치 어떤 사람이 배의 목재에 구멍을 뚫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죽끈 양끝을 잡고 계속 돌려 구멍을 뚫는 송곳처럼 말뚝을 돌렸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 불에 달궈진 끝이 뾰족한 말뚝을 가져와 그의 눈 속에서 회전시켰다. 그러자 뜨거워진 말뚝 주변으로 피가 흘러나왔다.

안구가 타오르자 불길은 그의 눈꺼풀 전체와 눈썹 주위를 그을렸고, 눈의 뿌리 부분은 불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대장장이가 커다란 도끼나 자귀를 차가운 물에 담가서, 쉿 하는 큰 소리를 내며 강도를 높일 때—철의 강도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마치 그와 같이, 그의 눈은 올리브 나무 말뚝 주위에서 쉿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그때 그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크게 울부짖었고, 그 소리에 주변의 바위들이 울렸다.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는 뒤로 물러났다.

그 사이 그는 피로 범벅이 된 말뚝을 눈에서 뽑아내어, 양팔을 거칠게 휘두르며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자 폴리페모스는 바람 부는 높은 곳의 동굴들에
사방으로 흩어져 살던 키클롭스들을 향해 크게 소리쳐
불렀다.

키클롭스들은 그의 외침을 듣고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왔다. 그들은 동굴 주위에 서서 폴리페모스에게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물었다.

"'폴리페모스, 무엇이 그리 괴로워 이 불멸의 밤에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못 자게 하느냐? 어떤 인간이 네 뜻을 거슬러
양 떼를 몰아가느냐? 아니면 꾀나 힘으로 너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힘센 폴리페모스가 동굴 안에서 대답했다.

'친구들아, 나를 죽이는 건 아무도야. 힘이 아니라 꾀로
말이다.'

"그들이 날개 돋친 말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너를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위대한 제우스에게서 온 병이라면 피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
포세이돈께 기도해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길을 떠났다. 내 이름과 교묘한 계책이 그토록 그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속으로 웃음이 났다.

그렇지만 키클롭스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몸부림쳤다. 그는 손을 더듬거려 문에서 돌을 치워냈고, 양들과 함께 나가려는 자를 붙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문가에 앉아 팔을 길게 뻗었다.

그는 내가 그처럼 어리석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료들과 나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탈출시킬 방법을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 수 있을지 궁리했다.

나는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사람이 그러하듯, 온갖 종류의 계략과 방책을 짜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계획이라고 내 마음은 생각했다. 양떼 중에는 잘 먹어서 털이 두툼하고, 제비꽃처럼 어두운 색의 털을 가진 훌륭하고 커다란 숫양들이 있었다.

나는 법도를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괴물인 키클롭스가 잠잘 때 사용하는 꼬인 덩굴로 이 양들을 소리 없이 서로 묶었다. 한 번에 세 마리씩 묶었다.

매번 세 마리의 양 중 가운데에 있는 양이 한 명의 사람을 태웠고, 나머지 두 마리는 양옆에 나란히 서서 내 동료를 가려 지켜 주었다. 그렇게 해서 양 세 마리마다 사람 한 명을 실어 나른 셈이었다.

그렇지만 나에 관해서라면, 양 떼 중에서 단연 최고인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나는 그 숫양의 등을 붙잡고 털이 덥수룩한 배 아래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양털을 두 손으로 꽉 붙잡은 채, 굳건한 마음으로 얼굴을 위로 향하고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울부짖으며, 빛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양 떼의 수컷들은 목초지로 서둘러 나갔다. 암컷들은 젖이 가득 차 유방이 터질 듯했기에 젖을 짜 주지 않아 우리 둘레에서 울어댔다.

양들의 주인은 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양의 등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내 부하들이 양들의 털이 복슬복슬한 가슴 아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양 떼 중 가장 마지막으로 숫양 한 마리가 나아갔다. 그 숫양은 자신의 털 무게와 나의 교묘한 몸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강력한 폴리페모스가 숫양의 등을 더듬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착한 숫양아, 대체 왜 오늘은 양 떼 중 맨 마지막으로 동굴을 지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냐? 전에는 다른 양들보다 뒤처지는 법이 없었다. 긴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 부드럽게 돋아난 풀을 늘 맨 먼저 뜯고, 강물에도 맨 먼저 닿았으며, 저녁에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로 돌아오고 싶어 했지.

그런데 지금은 모두의 맨 뒤에 있구나.

주인의 눈이 멀어 슬픈 것이겠지. 고약한 사내가 포도주로 내 정신을 흐린 다음 그 못된 동료들과 함께 내 눈을 멀게 했다. 바로 아무도다. 말해 두지만 그놈은 아직 파멸을 피하지 못했다.

네가 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놈이 내 분노를 피해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그놈을 쳐서 뇌를 동굴 여기저기 땅바닥에 흩어 버릴 텐데. 쓸모없는 아무도가 안긴 고통도 내 마음에서 덜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숫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우리가 동굴과 마당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나는 먼저 숫양의 밑에서 몸을 빼내어 내 동료들을 풀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다리가 긴 양들을 재빨리 몰았다. 우리는 배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동료들은 죽음을 피한 우리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다른 동료들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엄한 표정으로 각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명령했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털이 좋은 수많은 양을 재빨리 배에 실으라고 명령한 뒤, 짠 바닷물을 건너 항해하라고 일렀다.

그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노 젓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질서 있게 앉아서 노로 회색빛 바다를 저어 나갔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외침이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졌을 때, 나는 조롱하는 말로 키클롭스에게 말을 걸었다.

“‘키클롭스, 그대가 깊은 동굴에서 사나운 힘으로 잡아먹은 동료들의 주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잔인한 놈아, 제 집에서 손님을 잡아먹기를 서슴지 않았으니 악행이 네 머리 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키클롭스는 마음속으로 더욱 분노했다. 그는 높은 산의 봉우리를 꺾어 우리에게 던졌고, 뱃머리가 검은 배의 앞머리 쪽으로 그것을 내던졌다.

돌이 떨어질 때 그 아래에서 바다가 요동쳤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홍수처럼 거센 역류가 배를 육지 쪽으로 빠르게 몰아붙였고, 배를 해안가로 밀어 올렸다.

그러나 나는 긴 장대를 손에 쥐고 배를 밀어 해안을 따라 나아갔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동료들을 깨우며, 이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를 저으라고 명령했다.

동료들은 노를 젓기 위해 몸을 굽혔고 노를 저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며 처음 거리의 두 배만큼 멀어졌을 때, 나는 키클롭스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내 주변의 동료들은 한 명씩 차례로 부드러운 말로 나를 만류했다.

“‘무모한 자여, 왜 야만적인 사람을 노하게 하려 하는가? 그는 방금 전까지도 자신의 투척물을 깊은 바다로 던져 우리 배를 육지로 밀어냈고, 우리는 진정 그곳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다.

만약 그가 우리 중 누군가가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더라면, 그는 거친 바위를 던져 우리의 머리와 배의 목재를 으스러뜨렸을 것이다. 그가 던지는 힘이 그토록 강력하니 말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의 용맹한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으로 키클롭스에게 다시 대답했다.

“‘키클롭스, 누군가 네 눈이 수치스럽게 멀게 된 일을 물으면, 도시를 함락시키는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해라. 이타카에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신음하며 대답했다.

‘보아라, 오래전에 내려진 예언이 이제 참으로 내게 닥쳤구나. 예전에 이곳에 예언자이자 선량하고 키가 큰 사람이 살았으니, 에우리모스의 아들 텔레모스였다. 그는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키클롭스들 사이에서 예언자로 늙어갔다.

그는 나에게 이 모든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오디세우스의 손에 의해 내가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렇지만 나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두른, 키가 크고 잘생긴
사내가 이곳에 오기를 줄곧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제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약한 자가, 포도주로 나를 제압한 뒤에
내 눈을 멀게 했다.

오디세우스여, 차라리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선물을 차려 줄 테니, 영광스러운 대지를 흔드는 자가 네
앞길을 열어주어 네가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께서도 스스로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신다. 만약 그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분께서 직접 나를
고쳐 주시겠지만, 복된 신들이나 필멸의 인간들 중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대지를 뒤흔드는 신조차 네 눈을 고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듯, 나도 네 영혼과 목숨을 빼앗아 하데스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나는 말했고,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주 포세이돈에게 기도했다.

‘대지를 감싸는 자, 검은 머리의 신이시여, 포세이돈이시여, 만약 내가 진정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스스로를 나의 아버지라 선언하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시를 파괴하는 자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집이 있는 라에르테스의 아들이 결코 자신의 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만약 그가 동료들을 만나고, 잘 지어진 집과 고향 땅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면, 그가 아주 늦게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동료를 잃은 뒤에 타인의 배를 타고 불행한 처지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집에서 고난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올리자, 검은 머리의 신 포세이돈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키클롭스는 훨씬 더 거대한 돌을 다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실어 돌을 휘둘러 던졌다.

그는 검은 앞머리를 가진 배의 약간 뒤쪽으로 돌을 던졌고, 돌은 조타용 노의 끝부분을 겨우 비껴갔다. 돌이 떨어질 때 그 아래에서 바다가 요동쳤고, 파도는 배를 앞으로 밀어붙여 해안가로 몰아갔다.

“우리가 다른 배들이 모두 모여 있는 섬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던 동료들은 그 배들 주위에 둘러앉아 울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모래사장에 배를 대고, 우리 자신도 바닷가로 걸어 나갔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속이 깊은 배 안에서 키클롭스의 양 떼를 꺼내어 나누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누구도 공평한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양 떼를 나눌 때, 정강이 보호대를 잘 갖춰 찬 내 동료들은 나에게만 특별한 선물이라며 숫양 한 마리를 따로 주었다.

나는 해안가에서 검은 구름의 신이자 만물의 주재자이신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그 숫양을 제물로 바치고, 허벅지 살을 태워 드렸다.

그럼에도 제우스께서는 나의 제사를 돌보지 않으셨다. 대신 제우스께서는 나의 배들 모두와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 멸망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계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풍성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우리는 바닷가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이른 새벽,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동료들을 깨웠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직접 배에 올라타 선미의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다.

동료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노를 젓는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은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노로 회색빛 바다를 내리쳤다.

"그 후 우리는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항해를 계속했다. 비록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었으나,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나아갔다.

제10권

바람의 섬과 키르케

“그다음에 우리는 아이올로스가 사는 아이올로스의 섬에 도착했다. 히포타스의 아들인 아이올로스는 불멸의 신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으며, 그는 떠다니는 섬에 살고 있었다. 그 섬의 사방은 부서지지 않는 청동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절벽은 가파르게 솟아 있었다.

그의 궁전 안에는 열두 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다. 여섯 명의 딸과 여섯 명의 건장한 아들이었다. 아이올로스는 자신의 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주었다.

이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선량한 어머니 곁에서 끊임없이 잔치를 벌였으며, 그들 앞에는 끝없는 즐거움이 펼쳐져 있었다.

그 집은 잔치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낮 동안에는 바깥뜰까지 온통 잔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이 되면 그들은 정결한 아내들과 함께 담요와 밧줄로 엮은 침상 위에서 잠을 잤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도시와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다. 아이올로스는 한 달 동안 내게 환대를 베풀며, 일리오스에 관한 일과 아르고스인들의 배, 그리고 아카이아인들의 귀환에 대해 하나하나 물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떠나게 해달라고 그에게 요청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청했을 때, 아이올로스 역시 나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아홉 살 된 황소의 가죽을 벗겨 만든 주머니를 내게 주었다. 그는 그 주머니 안에 휘몰아치는 바람들의 길을 묶어 두었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에게 바람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바람을 잠재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속이 깊은 나의 배에 그 주머니를 빛나는 은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아주 미세한 바람 한 줄기라도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나의 여정을 돕기 위해 서풍의 숨결을 불어넣어, 배와 사람들을 그들의 길로 실어 나르게 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홉 날 동안 항해했다. 그리고 열째 되는 날, 마침내 우리의 고향 땅이 시야에 들어왔다. 보라, 우리는 봉화 불을 돌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나는 피로 속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고향 땅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나는 배의 돛줄을 줄곧 붙잡고 있었으며 다른 동료들에게는 결코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사이 내 동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히포타스의 용맹한 아들인 아이올로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금과 은을 나 혼자만 차지하려고 집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옆 사람을 힐끗 쳐다보며 이렇게 수군거렸다.

"'저 사람 좀 봐, 그가 어느 도시나 땅에 가든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가! 그는 트로이아 땅에서 전리품을 챙겨 아주 많은 훌륭한 보물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반면에 그와 똑같은 여정을 마친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제는 아이올로스마저 그에게 사랑을 담아 이 선물들을 아낌없이 주었구나. 자, 어서 가서 저 주머니 안에 금과 은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자.'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내 동료들의 사악한 뜻이 결국 관철되었다. 그들이 주머니를 풀자 모든 바람이 튀어나왔고, 폭풍우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 울부짖는 그들을 고향 땅에서 멀리 바다로 몰아냈다.

하지만 나는 잠에서 깨어나, 내 선한 마음으로 고민했다.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하며 견디며 살아남을 것인지를 말이다.

결국 나는 견디며 머물렀고, 머리를 감싼 채 배 안에 누웠다.

그러나 배들은 사악한 돌풍에 휩쓸려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나의 동료들은 신음하며 탄식했다.

"우리는 그곳에 상륙하여 물을 길었고, 동료들은 곧 빠른 배들 곁에서 식사를 했다. 음식과 마실 것을 맛본 뒤, 나는 전령 한 명과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아이올로스의 훌륭한 궁전으로 갔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 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설주 곁의 문턱에 앉았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놀라 우리에게 물었다.

"'오디세우스여, 어쩌다 이곳으로 돌아왔는가? 어떤 잔인한 신이 그대를 덮쳤는가? 우리는 그대가 고향 땅과 집, 그대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닿을 수 있도록 정성껏 배웅했거늘.'

"그들이 그렇게 묻자, 나는 슬픈 마음으로 그들 사이에서 대답했다. '못된 동료들과 저주스러운 잠이 저를 파멸로 몰았습니다. 친구들이여, 이 재앙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대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을 건넸으나,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아버지가 대답하며 말했다.

"'살아 있는 자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여, 어서 우리 섬에서 떠나라. 복된 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를 나는 도울 수도, 귀향길에 보내 줄 수도 없다. 떠나라. 불멸의 신들에게 미움을 받기에 네가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고, 나는 깊이 탄식했다. 우리는 슬픔을 안고 그곳을 떠나 항해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는 배를 밀어 줄 바람 한 줄기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된 노질에 사내들의 기운은 지쳐 갔다.

우리는 밤낮으로 엿새를 항해했고, 일곱째 날 라무스의 높은 성채, 라이스트뤼고네스인들의 텔레필로스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가축 떼를 몰고 들어오는 목자가 부르면, 떼를 몰고 나가는 다른 목자가 대답한다.

그곳은 밤과 낮의 경계가 맞닿아 있어서, 잠을 전혀 자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를 치는 일과 흰 양을 기르는 일로 두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양옆으로 가파른 절벽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입구에는 서로 마주 보는 곶들이 돌출되어 있었으며, 입구는 좁았다.

이에 다른 이들은 모두 그들의 굽은 배들을 몰아 안으로 들어갔고, 배들은 오목한 항구 안에 서로 가깝게 묶였다. 그 항구 안에는 크든 작든 파도가 전혀 일지 않았고, 사방이 밝고 잔잔했다.

하지만 나만은 나의 검은 배를 육지의 경계인 바깥쪽에 묶어 두었고, 밧줄을 바위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험준한 높은 곳인 전망대에 올라가 그곳에 섰다. 그곳에서는 소나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 땅 위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내 동료들 중 몇 명을 보냈다. 나는 두 명의 남자를 골랐고, 전령으로 세 번째 사람을 함께 보냈다.

그들이 해안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높은 산에서 도시로 나무를 실어 나르는 수레들이 다니곤 하는 매끄러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들은 도시 앞에서 물을 긷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라이스트뤼고네스인 안티파테스의 선량한 딸로, 마을로 물을 길어 오던 아름답게 흐르는 아르타키아 샘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들이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이 백성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들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지붕이 높게 솟은 아버지의 집을 가리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산봉우리만큼이나 거대한 안티파테스의 아내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습에 경악했다.

그녀는 즉시 집회 장소에서 남편인 영광스러운 안티파테스를 불렀고, 안티파테스는 그들에게 비참한 파멸을 계획했다.

안티파테스는 곧바로 내 동료 중 한 명을 붙잡아 식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은 벌떡 일어나 배를 향해 도망쳤다.

그때 안티파테스는 도시 전체에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거대한 라이스트뤼고네스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였으며, 인간이라기보다는 거인들 같았다.

그들은 사람이 들 수 있는 만큼 거대한 바위들을 절벽 위에서 우리에게 던졌다. 그러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과 부서지는 배들의 소리가 뒤섞여, 모든 배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소음이 즉시 일어났다.

그들은 마치 물고기를 잡듯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집으로 가져갔으니,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식사였다.

라이스트뤼고네스인들이 깊은 항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내 허벅지 옆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그 칼로 이물이 검은 내 배의 밧줄들을 끊었다.

나는 동료들을 급히 불러 모아 노를 저으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이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노를 저어 바다를 거세게 휘저었다.

그러나 나의 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멀어져 바다를 향해 기쁘게 나아갔다.

그곳에서 다른 모든 배는 한꺼번에 침몰하고 말았다.

“그 후 우리는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계속 항해했다.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었으나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나아갔다.

우리는 아이아이에 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키르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말을 하는 무시무시한 여신이었으며, 해로운 마음을 품은 아이에테스의 친누이였다.

이 두 남매는 인간들에게 빛을 주는 헬리오스와, 오케아노스가 낳은 어머니 페르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떤 신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로 조용히 배를 몰아 해안에 들어섰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 그곳에서 이틀 밤낮을 머물렀다. 우리는 피로와 슬픔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지냈다.

하지만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새벽이 세 번째 날을 데리고 오자, 나는 창과 날카로운 칼을 챙겼다.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배에서 내려 전망이 탁 트인 곳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나는 전망이 좋은 험준한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 그곳에 섰다. 그러자 키르케의 거처인 넓은 땅 위로, 무성한 덤불과 숲을 뚫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타오르는 연기를 본 나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민했다. 가서 수색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

생각을 거듭하던 중, 먼저 빠른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가서 동료들에게 음식을 먹인 뒤, 그들을 보내 수색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처럼 느껴졌다.

내가 길을 가다 굽은 모양의 배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신이 나의 외로움을 가엽게 여겨 커다란 뿔을 가진 거대한 수사슴 한 마리를 내 앞길로 보내주었다.

태양의 열기가 그를 억눌렀기에, 그 사슴은 물을 마시러 숲속의 목초지에서 강가로 내려오고 있었다.

사슴이 나타나자 나는 사슴의 등 한가운데, 척추를 향해 창을 내질렀다. 청동 창은 사슴의 몸을 그대로 관통했다.

사슴은 신음하며 먼지 속으로 쓰러졌고, 그 영혼은 몸을 떠나 날아갔다. 나는 사슴의 몸 위에 발을 올린 뒤, 상처에서 청동 창을 뽑아내어 그 자리에 땅 위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잔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왔다. 나는 그것들을 엮어 한 길쯤 되는 밧줄을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단히 꼬았다.

나는 그 밧줄로 괴물 같은 짐승의 발들을 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등에 지고 창에 의지한 채 검은 배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 짐승이 워낙 거대하고 힘이 셌기에, 한 손으로는 도저히 어깨에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 앞에 그 짐승을 내던졌다. 그러고는 동료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씩 차례로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며 그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다.

"'친구들이여, 아무리 슬프더라도 운명의 날이 닥치기 전에는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자, 빠른 배에 음식과 마실 것이 아직 남아 있으니 식사부터 생각하자. 굶주림에 시들어 가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내 말에 즉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얼굴 위로 덮고 있던 망토를 걷어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물결치는 바닷가의 사슴을 보고 경탄했다. 그 사슴은 매우 강력한 짐승이었다.

사람들은 사슴을 바라보며 눈을 만족시킨 뒤에, 손을 씻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준비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풍성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며 잔치를 즐겼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우리는 바닷가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료들이여, 처지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말을 들어라. 친구들이여, 우리는 어둠이 어느 쪽이고 새벽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 인간들에게 빛을 주는 태양이 어디로 땅 밑에 들어가고 어디서 떠오르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방도가 남아 있는지 곧 생각해 보자. 내 생각으로는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험준한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끝없는 깊은 바다가 왕관처럼 이 섬을 에워싸고 있었다.

섬 자체는 낮은 땅이었다. 그 한가운데 우거진 덤불과 숲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동료들은 라이스트뤼고네스인 안티파테스의 행위와 사람을 잡아먹는 용맹한 키클롭스의 폭력을 떠올리며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크게 통곡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

“그때 나는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춰 찬 동료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각 무리의 지도자를 정했다.

나는 한 무리를 맡았고, 신과 같은 에우리로코스가 다른 한 무리를 맡았다.

우리는 곧바로 놋 투구 안에서 제비뽑기를 했고, 용맹한 에우리로코스의 제비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는 길을 떠났다. 스물두 명의 동료가 울면서 그와 함께 나아갔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슬퍼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숲속 빈터에서 그들은 키르케의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탁 트인 전망이 보이는 곳에 매끄러운 돌로 지어져 있었다. 그 집 주변에는 산늑대들과 사자들이 있었는데, 키르케가 직접 사악한 약물을 먹여 마법을 걸어 놓은 짐승들이었다.

하지만 이 짐승들은 내 부하들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긴 꼬리를 흔들며 부하들 주변을 아양 떨듯 뛰어다녔다.

마치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향해 사냥개들이 아양을 떠는 것과 같았다. 주인은 늘 사냥개의 기분을 달래줄 먹이를 가져오곤 했기에, 튼튼한 발톱을 가진 늑대들과 사자들도 그들 주변에서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아카이아인들은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여신 키르케의 집 입구에 멈춰 섰다.

그 안에서는 키르케가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여신들의 솜씨로 정교하게 짜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대한 썩지 않는 베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때 나의 동료들 중 가장 소중하고 믿음직한 지도자였던 폴리테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친구들이여, 안에서 누군가 커다란 베 앞을 오가며
달콤하게 노래한다. 온 바닥에 노랫소리가 울리는구나.
여신이거나 여인일 것이다. 자, 어서 불러 보자.’

“그가 그렇게 말하자, 동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그녀를
불렀다. 그러자 키르케는 즉시 밖으로 나와 빛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어리석음에 빠진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오직 에우리로코스만이 뒤에 남았는데, 그는 그곳에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키르케는 그들을 안으로 데려가 의자와 좌석에 앉혔다.
그리고 치즈와 보리 가루, 노란 꿀을 프람니아식 포도주에
섞은 약을 그들을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키르케는 그 음식에
해로운 약물을 섞어, 그들이 고향 땅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들에게 약을 먹이고 그들이 그것을 다 마시자,
곧바로 지팡이로 그들을 내리쳐 돼지우리 안에 가두었다.

그들은 머리와 목소리, 뻣뻣한 털과 몸의 형태는 돼지와
같아졌으나, 정신만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곳에 갇혀 울고 있었다. 키르케는 그들 앞에 너도밤나무 열매와 도토리, 그리고 층층나무류의 열매를 던져주었는데, 이는 뒹굴며 먹고사는 돼지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이었다.

"하지만 에우리로코스는 동료들의 소식과 그들이 맞이한 수치스러운 운명을 전하기 위해 곧장 검고 빠른 배로 돌아왔다.

에우리로코스는 너무나 큰 고통에 가슴이 저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며, 마음은 통곡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단 한 마디 말도 내뱉을 수 없었다.

우리가 경악하며 그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제야 에우리로코스는 그의 동료들인 다른 이들이 겪은 운명을 이야기해주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여, 명하신 대로 우리는 덤불을 헤치고 갔습니다. 숲속 빈터, 전망이 넓게 트인 곳에서 매끄러운 돌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여신인지 여인인지 모를 이가 큰 베 앞을 오가며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크게 외쳐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곧 나와 빛나는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동료들은 어리석게도 모두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정이 있으리라 의심하여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앉아서 지켜보았으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은으로 장식된 커다란 청동 검을
어깨에 메고 활을 몸에 둘렀다. 그리고 그에게 아까 갔던 바로
그 길로 나를 다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두 손으로 나를 껴안고 내 무릎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날개 돋친 말로 내게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분이여, 원하지 않는 저를 억지로
그곳에 데려가지 말고 여기 남겨 두십시오. 당신도 돌아오지
못하고 동료들 가운데 누구도 데려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차라리 여기 있는 이들과 함께 서둘러
도망칩시다. 아직은 재앙의 날을 피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에우리로코스, 너는
여기 머물러 속이 깊고 검은 배 곁에서 먹고 마셔라. 하지만
나는 가겠다. 나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까닭이 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배와 바다를 떠나 위로 올라갔다.

내가 신성한 숲길을 지나 마법사 키르케의 거대한 저택에 다다르려 할 때였다. 황금 지팡이를 든 헤르메스가 저택을 향해 가는 나를 맞이했다.

헤르메스는 입술에 솜털이 막 돋아나 청춘의 매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행한 사람이여, 이 고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혼자 언덕들을 넘어 어디로 가느냐? 보아라, 저기 키르케의 집에서 네 동료들은 돼지처럼 빗장이 단단히 걸린 우리에 갇혔다. 그들을 풀어 주러 왔느냐? 내가 말하건대, 너도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그곳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해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해 주겠다. 자, 이 효험 있는 약초를 받아 키르케의 집으로 가거라. 이것이 네 머리 위로 닥칠 재앙의 날을 막아 줄 것이다. 키르케의 해로운 술책도 모두 알려 주겠다.

그녀는 너를 위해 약을 섞고 음식에 약물을 던져 넣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녀는 너를 마법으로 홀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강력한 약초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키르케가 그녀의 긴 지팡이로 너를 내리칠 때, 너는 허벅지 옆에 찬 날카로운 칼을 뽑아라. 그리고 마치 그녀를 죽이려는 것처럼 키르케에게 달려들어라.

그러면 키르케는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며, 너에게 자신과 함께 누워 달라고 청할 것이다.

그러니 그 후에는 여신의 침소를 거절하지 마라. 그래야 여신이 네 동료들을 풀어주고 너를 대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신에게 복된 신들을 걸고 큰 맹세를 하라고 요구해라. 너를 해칠 새로운 계략은 꾸미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해라. 네 옷을 벗긴 뒤 너를 무력하게 만들고 남자의 힘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렇게 말하며, 아르고스를 죽인 자는 땅에서 약초를 뽑아 내게 주었고, 그 약초의 성질을 보여주었다. 뿌리는 검은색이었으나 꽃은 우유처럼 하얬다.

신들은 그것을 몰리라고 부르는데, 필멸의 인간들이 그것을 캐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신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헤르메스는 숲이 우거진 섬을 지나 높은 올림포스로 떠났고, 나는 키르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는 동안 내 마음은 많은 일로 어둡게 뒤숭숭했다.

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여신의 문 앞에 섰다. 나는 그곳에 서서 여신을 불렀고, 여신은 내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즉시 밖으로 나와 빛나는 문을 열고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채로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안으로 데려가 은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혔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의자였으며, 아래에는 발을 올려두는 발받침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황금 잔에 약을 준비했다. 그녀는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품고 그 약에 약물을 넣었다.

그녀가 준 것을 내가 다 마셨지만 마법에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지팡이로 나를 치며 말했다. '이제 우리로 가서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누워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허벅지 옆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키르케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키르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낮춰 달려들며 내 무릎을 붙잡았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내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그대는 인간들 중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대의 도시는 어디이며,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대가 이 마법의 약을 마시고도 전혀 홀리지 않았으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이 약을 한 번 마시고 치아를 통과하게 되면,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이 마법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대의 가슴 속 마음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대는 분명 기지가 뛰어난 오디세우스임이 틀림없다. 황금 지팡이를 든 아르고스를 죽인 자가, 트로이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내게 늘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자, 이제 그대의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런 다음 우리 둘이 내 침상에 오르자. 함께 누워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되도록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키르케여, 당신의 궁전에서 내 동료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교활한 목적으로 나에게 당신의 방으로 가서 침상에 오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을 때,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남성성을 잃게 하려는 속셈이 아닙니까?

아니요, 진실로 당신이 여신으로서 나에게 새로운 해를 끼칠 음모를 꾸미지 않겠다고 강력한 맹세를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당신의 침상으로 기쁘게 올라갈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키르케는 내가 명령한 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즉시 맹세했다.

키르케가 맹세를 마치자, 나는 키르케의 아름다운 침대로 올라갔다.

“그동안 그녀의 하녀들이 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키르케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네 명의 처녀들이었다.

그들은 샘과 숲,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신성한 강들의 자식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의자 위에 아름다운 보랏빛 양탄자를 깔고, 그 양탄자 밑에는 아마포를 깔았다.

또 다른 한 명은 의자 앞에 은으로 만든 탁자들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황금 바구니들을 올려두었다.

세 번째 시녀는 은으로 만든 그릇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어 준비하고, 황금 잔들을 내놓았다.

네 번째 시녀는 물을 가져오고 커다란 솥 아래에 큰 불을 지폈으며, 물은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렇지만 빛나는 청동 솥 안의 물이 끓어오르자, 하녀는 나를 욕조에 앉혔다. 그녀는 커다란 솥에서 물을 떠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섞은 뒤, 내 머리와 어깨에 부어주었다. 그렇게 하여 그녀는 내 사지에서 뼈를 깎는 듯한 피로를 씻어내 주었다.

하녀가 나를 씻기고 기름을 듬뿍 발라준 뒤, 아름다운 겉옷과 튜닉을 입혀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홀로 데려가 은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혔다. 그 의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의자였고, 그 아래에는 발을 올려놓는 발받침이 있었다.

한 하녀가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주전자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왔다. 하녀는 내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은 대야에 그 물을 부었고, 내 곁에는 윤이 나는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살림을 맡은 점잖은 여인이 내 앞에 빵과 함께,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풍성한 고기 요리들을 가져와 차려 주었다.

그 여인은 내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내 마음은 음식에 가닿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다른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고, 내 정신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키르케는 내가 그렇게 앉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괴로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오, 오디세우스여, 어찌하여 마치 말 못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서 속만 태우며 음식이나 음료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이냐? 혹시 다른 계략이라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너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이미 강력한 맹세를 하였으니 말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키르케여, 동료들을 풀어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그들을 보기 전까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음식과 마실 것을 입에 댈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제게 먹고 마시라고 권한다면 그들을 풀어 주십시오. 제 눈으로 믿음직한 동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했고, 키르케는 손에 지팡이를 든 채 홀을 가로질러 나갔다. 키르케는 돼지우리 문을 열고, 아홉 살 된 돼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던 그들을 밖으로 몰아냈다.

그들이 그녀 앞에 서 있자, 키르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또 다른 마법으로 각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때 여왕처럼 위엄 있는 키르케가 이전에 그들에게 준 해로운 약 때문에 몸에 돋아났던 뻣뻣한 털들이 그들의 사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젊어졌고, 보기에 훨씬 더 아름다워졌으며 키도 더 커졌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는 한 사람씩 내 손에 매달렸다.

그들 모두에게 격정적인 흐느낌이 밀려왔고, 그들을 둘러싼 집 안은 경이로운 울림으로 가득 찼다.

여신 자신도 그들을 보고 가련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아름다운 여신이 다가와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이제 빠른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가라. 먼저 배를 뭍으로 끌어올리고 물건과 모든 배의 장비를 동굴에 보관해라. 그런 다음 네가 돌아오면서 믿음직한 동료들을 데려오너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의 자부심 강한 마음도 그 말에 동의했다.

나는 빠른 배가 있는 곳과 바닷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빠른 배 곁에 있는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커다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치 목장에서 풀을 배불리 먹고 돌아온 소 떼 사이로 송아지들이 뛰노는 것과 같았다. 송아지들은 모두 함께 앞장서서 팔딱팔딱 뛰놀았고, 우리에 갇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어미를 따라 뛰어다녔다.

그 남자들도 나를 보자마자 울면서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험준한 이타카의 도시, 그 고향 땅에 도착한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울부짖으며 내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은 당신이 돌아오니, 우리는 마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온 것처럼 기쁩니다. 하지만 어서 다른 동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나는 부드러운 말로 대답했다. ‘우선 배를 뭍으로 끌어올리고 물건과 모든 장비를 동굴에 보관하자. 그런 다음 모두 서둘러 나와 함께 가자. 키르케의 신성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동료들을 볼 것이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말했고, 동료들은 내 말을 즉시 경청했다.

오직 에우리로코스만이 모든 동료를 붙잡아 두려 했다. 에우리로코스는 날개 돋친 말로 동료들에게 말을 건넸다.

“‘아, 비참한 사람들이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토록 고난에 매료되어 키르케의 집으로 내려가려 하는가? 그 여자는 우리 모두를 돼지나 늑대, 혹은 사자로 변하게 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거대한 집을 지키게 만들 것이 아닌가?

키클롭스도 그랬다. 우리 동료들이 그의 우리로 갔을 때, 무모한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 또한 이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나.’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튼튼한 허벅지 옆에 찬 긴 칼을 뽑아 들어, 비록 그는 나의 인척이었으나 그의 머리를 베어 땅에 떨어뜨릴 것인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나의 동료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부드러운 말로 나를 만류했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분이여, 명하신다면 이 사람은 여기 배 곁에 남아 배를 지키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키르케의 신성한 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 그들은 배와 바다로부터 올라갔다.

에우리로코스 또한 속이 깊은 배 곁에 남겨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무서운 꾸짖음을 두려워했기에 우리와 함께 갔다.

“그동안 키르케는 자신의 궁전에서 나의 나머지 동료들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씻겨 주었다. 키르케는 그들에게 기름을 듬뿍 발라 주었고, 보드라운 망토와 튜닉을 입혀 주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모두 궁전에서 풍성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알아본 순간, 그들은 울부짖으며 통곡했고 집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에 아름다운 여신 키르케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더는 그렇게 크게 통곡하지 마라. 생명이 가득한 바다에서 너희가 겪은 온갖 고난과, 육지에서 잔인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나는 알고 있다. 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처음 험준한 고향 이타카를 떠났을 때처럼 가슴속에 기운이 다시 생길 때까지 말이다.

지금 너희는 시들고 기운이 없다. 고된 방랑만 줄곧 생각하며 마음에 기쁨을 품지 못한다.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의 자부심 넘치는 마음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풍성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며, 그곳에서 꼬박 일 년 동안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달이 저물고 긴 낮이 차례대로 지나가자,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이 나를 불러내어 이렇게 말했다.

"'이 답답한 분이여, 만약 당신이 살아남아 지붕이 높은 당신의 집과 고향 땅에 도달할 운명이라면, 이제는 마침내 당신의 고향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나의 자부심 강한 마음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풍성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며 연회를 즐겼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동료들은 어스름한 전당 곳곳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키르케의 아름다운 침대로 올라가 그녀의 무릎을 붙잡고 간청했다. 여신은 나의 목소리를 들었고, 나는 입을 열어 날개 돋친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키르케여, 저를 고향으로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은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동료들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마다 그들은 제 주위에 앉아 슬퍼하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은 즉시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후손이며, 수많은 계책을 가진 오디세우스여, 이제 더는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내 집에 머물지 마시오. 당신은 먼저 또 다른 여정을 마쳐야 하오.

눈먼 예언자이자 정신이 확고한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에게 점괘를 구하러, 하데스와 두려운 페르세포네의 집으로 가야 하오. 페르세포네는 오직 그만이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죽어서도 그에게 이성을 허락하셨소. 다른 이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떠돌 뿐이라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살아가며 태양 빛을 보고 싶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내가 실컷 울며 몸부림치고 난 뒤에야,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을 건넸다.

“‘오, 키르케여, 누가 이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검은 배를 타고 하데스에 간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은 곧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배를 이끌 길잡이 걱정은 마음에서 떨쳐라.
돛대를 세워 흰 돛을 펼치고 앉아 있기만 해라. 북풍의 숨결이
배를 앞으로 실어 나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배를 타고 오케아노스의 물줄기를 건너
평탄한 해안과 페르세포네의 숲에 다다랐을 때, 즉 키 큰
미루나무와 열매를 떨어뜨리는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면, 깊게 소용돌이치는 오케아노스 곁에 배를 대어라.

그러고 나서 그대는 하데스의 축축한 집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는 페리프레게톤과 코키토스가 아케론 강으로
흘러든다. 코키토스는 스틱스 강의 물줄기 중 하나다.
그곳에는 바위가 하나 있으며, 포효하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지도자여, 내가 이른 대로 그곳에 다가가 가로세로 한 규빗의
구덩이를 파라. 그 둘레에 모든 죽은 이를 위해 부어 바치는
제사를 올려라. 먼저 우유와 꿀, 다음은 달콤한 포도주, 세
번째로는 물을 붓고 그 위에 흰 보릿가루를 뿌려라.

그리고 죽은 자들의 힘없는 머리들에게 간절히 빌어라.
이타카로 돌아가게 되면, 네 궁전에서 네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새끼를 낳지 못한 암소를 제물로 바치고 제단에 풍성한 예물을 가득 채우겠노라고 맹세하라.

또한 테이레시아스에게만은 네 양 떼 중 가장 훌륭한, 온통 검은 숫양 한 마리를 따로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하라.

네가 기도로서 영광스러운 죽은 자들의 무리에게 간청을 마쳤을 때, 숫양 한 마리와 검은 암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라. 그때 양들의 머리는 에레보스 쪽을 향하게 하고, 너 자신은 뒤로 돌아서서 강물 쪽을 향해 얼굴을 두어라.

그러면 죽은 수많은 사람의 망령이 나타날 것이다.

그다음에 너는 동료들을 불러, 무자비한 청동 칼에 맞아 죽어 그곳에 놓인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태우라고 명령하라.
그리고 강력한 하데스와 두려운 페르세포네, 이 두 신에게 기도를 올려라.

너는 네 허벅지 옆에 찬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그곳에 앉아 있어라.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의 힘없는 머리들이 피에 가까이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의 지도자여, 그 예언자가 곧 네게 올 것이다. 그는 가야 할 길과 그 길의 거리, 그리고 네 귀향에 대해 말해 줄 것이다. 생명이 가득한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알려 줄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황금 왕좌에 앉은 새벽이 곧바로 찾아왔다.

키르케는 내 몸에 망토와 튜닉을 의복으로 둘러주었다.
그리고 님프는 곱게 짜인 아름답고 긴 흰 옷을 몸에 걸쳤다.

님프는 허리에 아름다운 금띠를 둘렀고, 머리에는 베일을 썼다.

그렇지만 나는 복도를 지나가며 부드러운 말로 내 부하들을 깨웠고, 한 사람씩 차례로 다가갔다.

"'이제 더는 잠들거나 달콤한 잠에 취해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가자. 보아라! 여왕처럼 위엄 있는 키르케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내가 말하자, 그들의 당당한 마음도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조차 내 사람들을 아무런 상처 없이 이끌 수는 없었다.

그들 중에는 엘페노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모두 중 가장 나이가 어렸고 전쟁에서 용맹하지도 않았으며 판단력도 뛰어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기에, 시원한 공기를 찾아 키르케의 신성한 집 안에서 동료들과 떨어진 곳에 몸을 뉘어 놓고 있었다.

엘페노르는 움직이는 동료들의 소리와 소란을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내려가려면 긴 사다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지붕에서 머리부터 떨어졌다. 목이 척추에서 꺾였고, 그의 영혼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내 부하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내가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키르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여정을 가리켰다. 그것은 바로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하데스의 집과 두려운 페르세포네에게로 가는 길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렇게 말하자, 동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곡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슬퍼하며 굵은 눈물을 흘리고 빠른 배가 있는 바닷가로 가는 동안, 키르케는 앞서 가 검은 배 곁에 숫양 한 마리와 검은 암양 한 마리를 묶어 두었다. 그녀는 우리를 쉽게 지나쳐 갔던 것이다. 신이 원하지 않는데, 오가시는 신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11권

죽은 자들의 나라

“하지만 우리가 배와 바다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검은 배를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검은 배에 돛대와 돛을 세웠고, 양들을 데려와 배에 실었다. 우리 자신도 슬퍼하며 커다란 눈물을 흘리며 배에 올라탔다.

그때 이물이 검은 우리 배의 뒤편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돛을 가득 채워줄 좋은 동료와 같은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인간의 말을 하는 두려운 여신 키르케가 보내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배의 모든 장비를 단단히 고정했을 때,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바람이 불고 키잡이가 배의 항로를 곧게 잡았다.

배가 바다 위를 질주하는 동안, 온종일 돛이 팽팽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다 해가 저물자 모든 곳이 어둠에 잠겼다.

“배는 대지를 둘러싸고 깊게 흐르는 오케아노스에 닿았다. 그곳에는 안개와 구름에 싸인 킴메리아인들의 땅과 도시가 있다. 빛나는 태양은 별 많은 하늘로 올라갈 때도,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돌아설 때도 그들에게 빛줄기를 내려보내지 않는다. 불행한 인간들 위에는 해로운 밤이 펼쳐져 있다.

우리는 그곳에 닿아 배를 해변에 대고 양들을 내렸다. 그리고 키르케가 일러 준 곳에 이를 때까지 오케아노스의 물줄기를 따라 걸었다.

“이곳에서 페리메데스와 에우리로코스가 제물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허벅지 옆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았다.

그리고 가로세로 한 규빗의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 주위에 모든 죽은 이를 위해 제사 음료를 부어 바쳤다.

먼저 우유와 꿀을 부었고, 그다음에는 달콤한 포도주를 부었으며, 세 번째로는 물을 부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보리 가루를 뿌렸다.

나는 힘없는 죽은 자들의 머리에게 간절히 빌었다. 이타카로 돌아가면 내 궁전에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새끼를 낳지 못한 암소를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맹세했다.

또한 제단에 훌륭한 예물들을 쌓아 올리고,
테이레시아스에게만은 내 양 떼 중 가장 훌륭한, 온통 검은
숫양 한 마리를 따로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맹세했다.

내가 서약과 기도로 죽은 자들의 무리에게 간청을 마쳤을 때,
나는 양들을 가져다가 구덩이 위에서 그들의 목을 베었다.
그러자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에레보스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모여들었다. 신부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고된 노동에 지친 노인들, 그리고 아직
슬픔이 낯선 연약한 처녀들이 모여들었다.

또한 청동 창끝에 상처를 입은 수많은 이들도 모여들었다.
전투 중에 죽임을 당해 피 묻은 갑옷을 입고 있는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경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사방에서
구덩이 주위로 무리 지어 몰려들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창백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동료들을 불러, 무자비한 청동에 죽임을 당해 거기 놓여 있는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태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위대한
하데스와 두려운 페르세포네, 이 두 신에게 기도를 올리라고
일렀다.

나는 내 허벅지 옆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그곳에 앉았다.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의 힘없는 영혼들이 피 근처로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내 동료 엘페노르의 영혼이었다. 그는 아직 넓은 대지 아래 묻히지도 못한 상태였다. 다른 급한 일이 우리를 재촉했기에, 우리는 그의 시신을 키르케의 홀에 눈물도 없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남겨두고 떠나왔기 때문이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마음은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네며 날개 돋친 말로 그를 불렀다.

"'엘페노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 어둑한 어둠 속으로 내려왔는가? 걸어서 온 그대가 나의 검은 배보다 더 빨리 나를 앞질러 왔구나.'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신음하며 내게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여. 어떤 신의 사악한 운명과 끝없는 술이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노라.

내가 키르케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다시 내려오기 위해 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지붕에서 머리부터 떨어졌고, 목뼈가 척추에서 부러지면서 내 영혼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노라.

이제 우리가 뒤에 남겨 두고 와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이들을 걸고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어린 당신을 길러 준 아버지와, 궁전에 외아들로 남겨 두고 온 텔레마코스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데스의 집을 떠나면 잘 만든 배로 아이아이에 섬에 들르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도자여, 그곳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떠날 때 저를 애도도 장례도 없이 버려두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칫 제가 당신에게 신들의 분노를 불러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갑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함께 태워 주십시오. 불행한 사람을 기억하고 훗날 사람들도 저를 알도록 잿빛 바닷가에 무덤을 쌓아 주십시오. 이 청을 들어주시고, 살아서 동료들과 함께 노를 저을 때 쓰던 제 노를 무덤 위에 세워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하며 말했다. ‘불행한 사람이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고 실천하겠노라.’

“그렇게 우리 둘은 앉아서 서로 슬픈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한쪽에서 칼을 들어 피를 가로막으며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동료의 망령이 말을 길게 이어갔다.

“그러자 내가 신성한 일리오스로 떠날 때 살아있는 채로 두고 왔던, 마음 넓은 아우톨리코스의 딸인 죽은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녀를 보자 나는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으로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큰 슬픔에 잠겨 있었을지라도 어머니가 피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는 손에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나를 알아보고 내게 말을 건넸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제우스의 후손이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불행한 사람이여, 이제 어찌 된 일인가? 어찌하여 태양의 빛을 떠나 죽은 자들을 보고 기쁨이 없는 이곳까지 왔는가? 아니, 저 구덩이에서 물러나고 날카로운 칼을 거두어라. 내가 피를 마시고 네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자리를 비켜주고 은으로 장식된 나의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가 검붉은 피를 마신 뒤에, 허물없는 예언자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너는 꿀처럼 달콤한 귀향을 묻지만 신이 그 길을 괴롭게 만들 것이다. 네가 대지를 뒤흔드는 신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멀게 한 너에게 그가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네가 너 자신과 네 동료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너희는 고난 속에서도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랏빛 바다를 벗어나 너희의 잘 만들어진 배를 트리나키아 섬으로 가져가는 즉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는 헬리오스의 소들과 아름다운 양 떼가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전념한다면, 비록 고난을 겪을지언정 진실로 이타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만약 네가 그 가축들을 해친다면, 나는 네 배와 네 동료들에게 닥칠 파멸을 예견한다. 설령 네가 살아남는다 해도, 너는 모든 동료를 잃고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뒤늦게, 그것도 불행한 처지로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집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네 생계를 축내며 네 신성한 아내를 구혼하고, 구혼자들의 선물을 바치는 오만한 자들 말이다.

그런데 네가 돌아왔을 때, 너는 분명 그들의 폭거에 대해 복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궁전에서 구혼자들을 죽이게 된다면, 그것이 속임수를 써서이든 날카로운 칼로 정면으로 맞서서이든, 그 후에 너는 모양이 잘 잡힌 노를 들고 길을 떠나야 한다.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소금이 섞인 음식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라. 또한 그들은 보랏빛 뺨을 가진 배나, 배의 날개와 같은 모양이 잘 잡힌 노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주 분명한 징조를 말해주겠다. 너는 그 징조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길에서 만난 다른 나그네가 네 튼튼한 어깨에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메고 있다고 말하면, 그때 잘 깎은 노를 땅에
꽂아라. 포세이돈 신께 숫양 한 마리와 황소 한 마리,
암퇘지와 짝짓는 수퇘지 한 마리를 훌륭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넓은 하늘을 차지한 불멸의 신들께
차례차례 성대한 희생제를 올려라. 너에게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 죽음은 아주 평온하여, 기름진 노년이 너를 감쌀 때 네
몸을 눕힐 것이다. 네 주위에서는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며 살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네게 진실하게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하며 말했다.
'테이레시아스여, 이 모든 일은 신들이 직접 실을 자아 만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리 오셔서 이것만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진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여기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피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시며, 친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꺼리고 계십니다.
존귀한 분이여, 어머니께서 제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하며 말했다.

‘내가 네 마음속에 심어줄 말은 쉬운 것이다. 죽어서 떠나간 이들 중 네가 피를 마시도록 허락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존귀한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은 예언을 선포한 뒤 하데스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어머니가 올라와 검은 피를 마실 때까지 그곳에 꿋꿋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즉시 나를 알아보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날개 돋친 말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아직 살아 있는 네가 어찌 이 어두컴컴한 곳으로 내려왔느냐? 산 사람이 이곳을 보기는 어렵다. 사이에 큰 강들과 무서운 물줄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케아노스가 있는데, 걸어서는 결코 건널 수 없고 잘 만든 배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다.

너는 배와 동료들과 함께 오랫동안 떠돈 끝에 이제 트로이아에서 여기 온 것이냐? 아직 이타카에도 닿지 못하고 집에서 아내도 보지 못한 것이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에게 예언을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아카이아 해안에 가까이 가지도, 제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했습니다.

훌륭한 아가멤논과 함께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러 말로 유명한 일리오스로 떠난 날부터, 줄곧 고통을 짊어지고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괴로운 죽음의 운명이 어머니를 덮쳤습니까?

오랜 병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활을 쏘는 아르테미스가 부드러운 화살로 어머니를 치고 목숨을 거두었습니까? 제가 남겨 두고 온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누리던 명예가 아직 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차지했으며 사람들은 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합니까?

제 아내의 뜻과 마음도 알려 주십시오. 아들과 함께 머물며 모든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누군가가 벌써 아내와 결혼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묻자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곧 대답하셨다.
‘그래, 네 아내는 굳건한 마음으로 네 집에 머물고 있다. 울며 슬퍼하는 동안 밤낮이 흘러간다. 네가 누리던 훌륭한 명예는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았다. 텔레마코스는 방해받지 않고 네 영지를 다스리며, 모두에게 고루 몫이 돌아가는 잔치에 참석한다.

재판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참석할 잔치들이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초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경작지에 머물며 도시로 나오지 않는다. 침대도 망토도 빛나는 이불도 잠자리로 쓰지 않는다.
겨울에는 종들이 자는 집 안, 불가의 재 위에서 잠들고 몸에는 초라한 옷을 걸친다. 여름과 풍성한 가을이 오면 포도밭 비탈 곳곳에 낙엽으로 낮은 잠자리를 마련한다.

그곳에 누워 슬퍼하며 네가 돌아오기를 그리워하고 가슴속에 큰 비탄을 품는다. 무거운 늙음도 그에게 닥쳤구나.

나도 그렇게 죽어 운명을 맞았단다. 눈 밝은 궁수 여신이 집에 있는 나를 부드러운 화살로 쏘아 죽인 것도 아니고, 흔히 몸을 괴롭게 쇠약하게 하여 목숨을 앗아 가는 병이 닥친 것도 아니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너를 그리워하고 네 지혜로운 말과 다정한 마음을 그리워한 것이 내 꿀처럼 달콤한 목숨을 앗아 갔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꼭 껴안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세 번이나 달려들었다. 내 마음은 그녀를 품에 안으라고 재촉했지만, 어머니는 그림자나 꿈처럼 세 번이나 내 품을 빠져나갔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고통은 더욱 날카롭게 커져만 갔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날개 돋친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왜 저를 위해 머물러 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데스의 집에서조차 우리 둘이 서로 팔을 두르고, 차가운 슬픔에 젖어 마음껏 통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엄 있는 페르세포네가 제가 더 많이 슬퍼하고 신음하도록 저에게 환영을 보내신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곧 대답하셨다. '아아, 누구보다 불운한 내 아이야. 제우스의 딸 페르세포네가 너를 속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죽으면 겪도록 정해진 일이다. 힘줄은 더 이상 살과 뼈를 붙들지 못한다.

생명이 흰 뼈를 떠나면 타오르는 불의 강한 힘이 그것들을 없애 버린다. 영혼은 꿈처럼 날아가 이리저리 떠돈다.

하지만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빛의 세계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나중에 네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위엄 있는 페르세포네가 여인들을 보내어, 추장들의 아내와 딸이었던 이들이 모두 찾아왔다.

그 여인들은 검은 피 주위로 무리 지어 몰려들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 각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생각했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튼튼한 허벅지 옆에 차고 있던 긴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한꺼번에 검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여인들은 한 명씩 차례로 다가와 자신의 태생을 밝히며 말했고, 나는 그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본 이는 고귀한 태생인 튀로였다. 그녀는 자신이 고결한 살모네우스의 딸이라고 말했고, 아이올로스의 아들인 크레테우스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튀로는 대지에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강들 중에서 단연 가장 아름다운 신성한 에니페오스 강에 마음을 빼앗겼고, 에니페오스의 아름다운 물가로 자주 찾아가곤 했다.

그러나 대지를 감싸 안고 흔드는 자가 그 강의 신의 모습을 취하여, 소용돌이치는 강 어귀에서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검은 파도가 산처럼 솟구쳐 올라 그들을 둘러싸고는, 신과 필멸의 여인을 가려버렸다.

포세이돈은 그녀의 처녀용 허리띠를 풀어주고, 그녀에게 잠을 내려주었다.

신이 사랑의 일을 마친 뒤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여,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라. 한 해가 흘러가는 동안 너는 빛나는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신의 포옹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을 돌보고 길러라. 이제 집으로 가서 잠자코 있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내가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임을 알아 두어라.'

"그렇게 말한 뒤, 포세이돈은 요동치는 바다 아래로 잠겨 들어갔다.

하지만 여인은 아이를 가졌고 펠리아스와 넬레우스를 낳았다. 두 아들 모두 위대한 제우스의 강력한 종이 되었다.

펠리아스는 넓은 이올코스에 살며 양 떼를 풍족하게 거느렸고, 넬레우스는 모래가 많은 필로스에 살았다.

여인들 중 여왕처럼 위엄 있는 그녀는 크레테우스와의 사이에서 다른 자식들도 낳았다. 그들은 아이손과 페레스, 그리고 전차를 타고 싸웠던 아미타온이었다.

"그리고 그녀 다음으로 나는 아소포스의 딸 안티오페를 보았다. 그녀는 제우스의 품 안에서 잠들기까지 했다고 자랑했는데, 그녀는 암피온과 제토스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두 아들은 일곱 성문을 가진 테베의 터전을 처음으로 세웠고, 그곳에 성벽을 쌓았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성벽이 없는 넓은 테베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 다음으로 나는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를 보았다. 그녀는 위대한 제우스의 품에 안겨, 싸움에 용맹하고 사자의 심장을 가진 헤라클레스를 낳았다.

그리고 나는 크레온의 딸, 마음이 고결한 메가라를 보았다. 힘이 매우 강하고 완고했던 암피트리온의 아들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나는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아름다운 에피카스테를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오이디푸스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뒤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자 신들은 즉시 이 사실을 사람들 사이에 알렸다.

그럼에도 오이디푸스는 신들의 불길한 계략으로 인해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테베의 카드메이아인들의 군주로 머물렀다. 하지만 에피카스테는 강력한 파수꾼인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

슬픔에 짓눌린 그녀는 높은 들보에 목맬 올가미를 매달았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을 남겼다. 어머니의 복수를 맡은 여신들이 불러오는 모든 고통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클로리스를 보았다. 넬레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수많은 구혼의 선물을 가져다주며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한때 미니아인들의 오르코메노스를 강력하게
통치했던 이아소스의 아들, 암피온의 막내딸이었다.

그녀는 필로스의 여왕이 되어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자식들을
낳아주었다. 네스토르와 크로미오스, 그리고 위엄 있는
페리클리메노스가 그들이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주는 고귀한 페로를 낳았다.

그녀의 주변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넬레우스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그녀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직 이마가 넓고 매끄러운, 위대한 이피클레스의 소들을
필라케에서 몰아내는 자에게만 그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들을 몰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오직 흠 없는 예언자만이 그 소들을 몰아내는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신들이 내린 가혹한 운명이 그를 옭아매었다.
그것은 바로 고된 속박과 들판의 목동들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달과 날들이 채워지고, 해가 바뀌며 계절이
찾아왔을 때, 위대한 이피클레스는 모든 신탁을 전해 들은
뒤에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하여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다.

“나는 튄다레오스의 아내 레다도 보았다. 그녀는
튄다레오스에게 마음 굳센 두 아들, 말을 길들이는
카스토르와 권투에 능한 폴뤼데우케스를 낳아 주었다.
생명을 주는 대지는 살아 있는 이 두 사람을 덮고 있으며,
그들은 저승에서도 제우스에게 영예를 받는다.

하루는 살아 있고 하루는 죽어 있는 일을 번갈아 겪으며,
신들과 같은 영예를 얻었다.

“그녀 다음으로 나는 알로에우스의 아내 이피메데이아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포세이돈과 동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으나, 신과 같은 오토스와 명성 높은
에피알테스는 수명이 짧았다. 곡물을 주는 대지는 그들을
유명한 오리온 다음으로 가장 키가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으로 길러냈다.

그들은 아홉 살에 몸의 너비가 아홉 규빗이고 키가 아홉 길에
이르렀다. 게다가 그들은 올림포스의 불멸하는 신들을
상대로 맹렬한 전쟁의 소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하늘에 오르기 위해 오사 산을 올림포스에 쌓고, 숲이
넘실거리는 펠리온 산을 오사 산 위에 쌓으려 했다.

만약 그들이 성인에 이를 만큼 충분히 자랐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완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발의 레토가 낳은 제우스의 아들이 그들 둘을 모두 죽였다. 그들의 관자놀이에 솜털이 피어나고 턱에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페드라와 프로크리스도 보았고, 아름다운 아리아드네도 보았네. 그녀는 해로운 마음을 품은 미노스의 딸이었지. 테세우스는 한때 그녀를 크레타에서 신성한 아테네의 언덕으로 데려가려 했네.

그렇지만 테세우스는 그녀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네. 디오니소스의 증언 때문에, 아르테미스가 바다로 둘러싸인 디아 섬에서 그녀를 죽여버렸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마이라와 클리메네도 보았고, 자신의 남편의 목숨을 대가로 값비싼 황금을 챙겼던 가증스러운 에리퓔레도 보았네. 하지만 불멸의 밤이 저물기 전까지 내가 보았던 영웅들의 아내와 딸들을 모두 말하거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네.

아니네, 이제는 잠들어야 할 시간이군. 내가 빠른 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선원들과 함께 잠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잠들어야겠네. 내가 떠나는 것은 신들의 뜻과 자네의 뜻에 달려 있네."

그가 말을 마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어둑한 궁전 안은 마법에 걸린 듯 정적이 흘렀다.

그때 하얀 팔을 가진 아레테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파이아케스인들이여, 이 남자의 용모와 체격, 그리고 그 내면의 평온한 정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게다가 그는 나의 손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도 이 환대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서둘러 돌려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토록 절실한 처지에 놓인 이에게 줄 선물을 아끼지도 마십시오. 신들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궁전에는 수많은 보물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파이아케스인들 중 어른인 늙은 군주 에케네오스도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지혜로운 우리 여왕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며 틀림이 없다. 그러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지만 행동과 말은 여기 있는 알키노오스에게 달려 있다.”

알키노오스가 다시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인들의 군주로서 내가 살아있는 한, 여왕의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하지만 우리의 손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내가 모든 선물을 완벽히 준비할 때까지 내일까지는 이곳에 머물며 견뎌주었으면 좋겠소.

그를 떠나보내는 일은 모든 이의 몫이겠지만, 무엇보다 나의 결정에 달려 있소. 이 땅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오.”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명성이 드높은 알키노오스 님, 만약 당신께서 저에게 이곳에 일 년이라도 머물라고 명하시고, 저를 보내는 일을 도와주시며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손에 더 많은 것을 지니고 돌아가는 데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타카로 돌아갔을 때 저를 보게 될 모든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알키노오스가 다시 대답하며 말했다.

"오디세우스여, 우리가 그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보건대, 그대를 속임수를 쓰고 겉과 속이 다른 자로 여기지는 않노라. 어두운 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낳은 수많은 자들처럼,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짓을 꾸며내는 그런 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대에게는 말의 품격이 있고, 그대 안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 그대는 마치 가객처럼, 아르고스인 모두의 비통한 고난과 그대 자신의 고난을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하였노라.

자, 이것을 내게 말해주시오. 진실하게 밝혀주시오. 당신과 함께 일리오스로 가서 운명을 맞이했던, 신과 같은 당신의 동료들 중 누군가를 본 적이 있는지 말이오.

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소. 길고, 참으로 길고도 경이로울 만큼 긴 밤이오. 하지만 아직 대청에서 잠들 시간은 아니오.

부디 청하건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주시오. 만약 당신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대청에서 계속 들려주려 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밝은 새벽이
올 때까지도 머물 수 있소."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명성이 드높은 알키노오스 왕이시여,
많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잠을 자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께서 여전히 듣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다른 일들을 당신에게 들려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동료들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트로이아인들의 무시무시한 함성으로부터는 도망쳤으나,
사악한 여인의 뜻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스러운 페르세포네가 여인들의 영혼을 이리저리
흩어놓았을 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영혼이
슬퍼하며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기스토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운명을 맞이한 모든 이들의 영혼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아가멤논은 검은 피를 마시자마자 즉시 나를 알아보고는,
크게 울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나에게 닿으려는 듯
간절하게 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예전의 유연한 사지에서 느껴지던 힘이나 기력은
이제 그에게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마음은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물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시며 인간들의 왕이신
아가멤논이여, 어떤 비극적인 죽음의 운명이 당신을
덮쳤나이까? 포세이돈이 잔인한 바람을 거세게 일으켜
당신의 배 위에서 당신을 쳤나이까?

아니면 당신이 적들의 소와 아름다운 양 떼를 빼앗아 몰고
가거나, 그들의 도시와 여인들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육지에서 적들이 당신에게 해를 입혔나이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하며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혈통이며, 수많은 계책을
가진 오디세우스여. 포세이돈이 잔인한 바람을 거세게
일으켜 내 배 위에서 나를 친 것도 아니었고, 적들이 땅
위에서 나를 해친 것도 아니었다.

아이기스토스가 나에게 죽음과 운명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마치 외양간에서 황소를 잡듯 저주받은 나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 나를 죽였다.

그리하여 나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내 주변에서는 나의 동료들이 끊임없이 죽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흰 송곳니를 가진 돼지들이 도살당하는 것과 같았다. 위대한 힘을 가진 부유한 집의 혼례 잔치나, 함께 나누는 식사, 혹은 풍성한 술자리에서 도살되는 돼지들처럼 말이다.

그대는 일대일의 싸움이나 뒤엉킨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이미 보았을 것이다. 그래도 그 광경을 보았다면 무엇보다 깊이 가엾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는 홀 안의 혼주 그릇과 음식 가득한 탁자 둘레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은 온통 피로 넘쳤다.

내가 들은 가장 처참한 비명은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의 것이었다. 교활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내 곁에서 그녀를 죽였다. 나는 칼에 꿰뚫려 죽어 가면서도 손을 들어 그 살인자를 내리치려 했다.

그런데 수치심도 없는 그녀는 나를 외면했다. 내가 하데스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 눈꺼풀을 내려주지도 않았고 내 입을 닫아주지도 않았다.

마음속에 그런 악행을 품은 여인보다 더 두렵고 파렴치한 존재는 없다는 말이 참으로 옳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죽일 음모를 꾸미며,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나는 진정으로 내 아이들과 노예들에게 환영받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온통 악한 마음을 품은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여성들, 심지어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까지 수치를 안겨주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하며 말했다. '아, 참으로 멀리까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우스께서, 여인들의 계략 때문에 처음부터 아트레우스의 가문에 경이로운 증오를 내리셨나이다.

헬레네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가 죽었으며, 당신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덫을 놓았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하며 말했다. ‘그러니 오디세우스여, 그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결코 너그러워지지 마시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모두 아내에게 털어놓지 말고, 일부는 말하되 일부는 숨겨 두시오. 하지만 오디세우스여, 아내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일은 없을 것이오.

이카리오스의 딸인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매우 신중하고 이해심이 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오.

우리가 전쟁터로 떠날 때, 우리는 그녀를 갓 결혼한 신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때 그녀의 품에는 젖먹이 아기가 있었다.

내 생각에 그 아이는 이제 장성하여 사내들의 대열에 앉아 있을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마땅히 그래야 하듯 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내 아내는 내가 내 아들의 모습이라도 눈에 담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 그 전에 그녀가 남편인 나를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테니, 너는 이를 마음 깊이 새겨들어라. 네 사랑하는 고향의 해안에 배를 대되,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가져오너라. 이제 여인들에게는 더 이상 신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내게 말해주고 진실하게 밝혀다오. 혹시 내 아들이 아직 오르코메노스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모래 찬 필로스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넓은 스파르타에 있는 메넬라오스와 함께 있는지 말이다. 용맹한 오레스테스가 아직 이 땅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하며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것을 묻는가? 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바람처럼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네.'

"우리 둘은 그렇게 서서 굵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영혼과 파트로클로스, 비길 데 없는 안틸로코스, 아이아스의 영혼이 나타났다. 아이아스는 용모와 체격에서 비길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다음으로 모든 다나오스인 가운데 가장 훌륭했다.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후손, 아킬레우스의 영혼이 나를 알아보고 울며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무모한 사람이여! 이제 이보다 더 큰 무슨 일을
마음속으로 꾸미려는가? 감각 없는 죽은 이들, 지쳐 사라진
인간들의 망령이 사는 하데스의 집으로 어떻게 감히
내려왔는가?’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아카이아인 중 단연 가장 강한 분이여.
테이레시아스가 혹시 험준한 이타카로 갈 방도를 알려 줄까
하여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카이아 땅에 가까이 가거나
제 고향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줄곧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여, 당신보다 복된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아르고스인들은 신처럼
당신을 공경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죽은 이들 사이에서 큰
힘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죽었다고
조금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하며 말했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죽음에 대해 감미로운 말로 나를
달래려 하지 마라.

나는 죽은 자들 모두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지상에서 살아가며 생계가 겨우 유지될 정도로 가난한 어떤 이의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택하겠다.

하지만 어서 내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려다오. 그 위엄 있는 청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전쟁터로 따라 나갔는지 아닌지를 말해다오.

그리고 만약 네가 들은 것이 있다면, 고귀한 펠레우스에 대해서도 말해다오. 노쇠함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탓에, 그가 여전히 미르미돈 군대 사이에서 명예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헬라스와 피티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있는지 말이다.

내가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카이아인들을 수호하며 군대의 가장 뛰어난 자들을 죽였을 때 가졌던 그 힘을,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태양 빛 아래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다.

그런 힘을 지니고 단 한 시간만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고 명예를 빼앗는 많은 자에게 내 힘과 꺾이지 않는 두 손을 두려워하며 후회할 일을 안겨 주리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하며 말했다. ‘진실로 고귀한 펠레우스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전혀 없으나, 당신이 명하신 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 대해서는 모든 진실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나의 아름답고 속이 깊은 배에 태워 스키로스 섬에서 데려온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춰 찬 아카이아인들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진실로, 우리가 트로이아 성을 둘러싸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말을 꺼냈으며, 한 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신과 같은 네스토르와 저만이 그를 능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트로이아 평원에서 청동 무기를 들고 싸울 때마다, 그는 군중이나 사람들의 무리 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대열의 맨 앞쪽까지 멀리 달려 나갔으며, 그 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무시무시한 전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아르고스인들을 지키며 그가 죽인 군대 전체를 내가 다 말하거나 이름을 일일이 대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그가 칼로 죽인 텔레포스의 아들, 에우리필로스 왕자는 참으로 대단한 전사였다! 또한 한 여인이 갈망한 선물들 때문에, 그의 전우들인 케테이아인들 중 많은 이도 그의 곁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는 참으로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잘생긴 사내였으며, 용모가 수려한 멤논 다음가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르고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우리가 에페이오스가 만든 목마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튼튼하게 만들어진 매복용 목마의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지휘권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때 다나오스인들의 다른 지도자들과 조언자들은 눈에서 눈물을 닦아냈고,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떨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잘생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도, 그가 뺨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을 목마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내게 간곡히 애원했다. 그는 계속해서 칼자루와 청동으로 무겁게 장식된 창을 만지작거리며, 트로이아인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드높은 성읍을 함락시킨 후,
그는 자신에게 돌아온 전리품의 몫과 훌륭한 특별 상을 챙겨
자신의 배에 올라탔다.

그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상태였다. 전쟁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날카로운 창에 맞거나 근접전에서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아레스가 혼란스럽게 날뛰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내가 말하자, 아이아코스의 후손인 아킬레우스의
영혼은 아스포델 들판 위를 성큼성큼 걸어 떠나갔다. 내가
그의 아들이 탁월한 인물이라고 말해준 것에 기뻐하며
떠나갔다.

"그리고 죽어 사라진 이들의 다른 영혼들은 슬퍼하며 서
있었고, 저마다 자신에게 소중했던 이들에 대해 물었다.

그들 가운데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영혼만이 홀로
떨어져 서 있었다.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상으로
걸고 배 옆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내가 거둔 승리에 대해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무기를 상으로 내놓은 것은 아킬레우스의 존경받는
어머니였으며, 심판은 트로이아인들의 아들들과 팔라스
아테나가 맡았다.

그토록 고귀한 자를 잃게 만든 상을 두고 벌인 경기에서 내가 결코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무기들 때문에 대지는 그토록 고귀한 머리 위로 닫히고 말았다.

그 무기 때문에, 용모와 전쟁에서의 공적 모두가 펠레우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모든 아카이아인들 중에서 으뜸이었던 아이아스 위로 대지가 닫힌 것이다.

나는 아이아스를 달래기 위해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비길 데 없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여, 그대는 죽어서도 그 저주받은 무기들 때문에 나에게 품은 분노를 잊지 못하는 것인가? 신들께서 분명 그 무기들을 아카이아인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정해두셨음이 틀림없다. 그 무기들 때문에 그대라는 강력한 성벽을 아카이아인들이 잃었으니 말이다.

우리 아카이아인들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목숨을 잃고 슬퍼하듯, 죽은 그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다나오스 군대의 창병들에게 무서운 증오를 품고 그대에게 파멸을 가져다준 제우스 외에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구나.

자, 존귀한 이여,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과 이야기를 들어 다오. 분노와 드높은 마음을 가라앉혀 다오.'

“그렇게 내가 말했으나, 그는 나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죽어 사라진 다른 영혼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에레보스로 길을 떠났다.

그가 나에게 품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와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그에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죽은 다른 영혼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제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미노스를 보았다. 그는 황금 홀을 손에 쥐고 자신의 자리에서 죽은 자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죽은 자들은 하데스의 넓은 문이 있는 집 안에서 왕의 주위에 앉거나 서서, 미노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거대한 오리온을 보았다. 오리온은 자신이 외로운 언덕에서 직접 죽인 야생 동물들을 아스포델 들판으로 몰아 모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청동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러운 가이아의 아들 티티오스가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홉 루드의 땅을 차지할 만큼 거대했고, 양옆에는 독수리 두 마리가 앉아 그의 간을 쪼아 먹고 있었다. 독수리들은 그의 내장 속으로 부리를 박아 넣었으나, 티티오스는 손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그는 제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내 레토가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파노페오스를 지나 피토로 가던 길에,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었다.

“또 탄탈로스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물이 턱 가까이 차오르는 못에 서 있었다. 목마른 듯했지만 물을 떠 마실 수 없었다. 노인이 마시려고 몸을 굽힐 때마다 물이 삼켜지듯 사라지고 발밑에 검은 땅이 드러났다. 어떤 신이 모두 말려 버렸기 때문이다.

높고 잎 무성한 나무들은 그의 머리 위로 열매를 늘어뜨렸다. 배와 석류, 빛나는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 달콤한 무화과와 무성한 올리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손을 뻗어 그것들을 움켜쥐려 할 때마다,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어두운 구름 속으로 날려 버렸다.

“그래, 그리고 나는 시시포스가 양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려 애쓰며 격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그는 손과 발에 힘을 주어 바위를 언덕 꼭대기로 밀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바위를 정상 너머로 넘기려는 찰나마다, 바위의 무게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았고, 무자비한 바위는 다시 평지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힘을 내어 바위를 밀어 올렸고, 그의 사지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으며 머리에서는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뒤로 나는 강력한 헤라클레스의 망령을 보았다. 헤라클레스 자신은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연회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발목이 아름다운 헤베를 아내로 맞이했다. 헤베는 위대한 제우스와 황금 샌들을 신은 헤라의 딸이다.

그의 주변에서는 죽은 자들이 마치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소란을 피웠다. 헤라클레스는 마치 화살을 쏘려는 사람처럼, 활을 드러내고 시위에 화살을 먹인 채 어두운 밤과 같이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주위를 노려보았다.

그의 가슴에 두른 띠는 무시무시했다. 금으로 만든 어깨띠에는 놀라운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다. 곰과 멧돼지, 눈을 번뜩이는 사자, 다툼과 전투,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이었다. 그 띠의 도안을 솜씨로 구현한 장인이, 전에도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다시 만들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 역시 나를 보자 알아보고 울며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아, 가련한 사람이여. 그대도 내가 태양 빛 아래에서 겪었던 것 같은 고된 운명을 이어 가는가? 나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었지만 한없는 고난을 겪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종속되었고, 그는 내게 힘겨운 과업들을 맡겼다.

한 번은 하데스의 개를 데려오라고 나를 여기로 보냈다. 나를 위해 이보다 더 큰 과업을 생각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개를 붙잡아 하데스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헤르메스와 눈을 번뜩이는 아테나가 내 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다시 하데스의 집으로 길을 떠났다.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꿋꿋이 머물렀다. 옛날에 죽은 용맹한 영웅들 중에서 혹시라도 다른 이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은 채였다.

보고 싶었던 옛사람들, 신들의 빛나는 자손인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도 더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죽은 이들의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기이한 외침과 함께 몰려왔다. 창백한 공포가 나를 붙잡았다.

위엄 있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의 집에서 그 무시무시한 괴물 고르곤의 머리를 보내 나를 덮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배로 가서 동료들에게 직접 배에 올라타라고 말하고, 선미의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다.

동료들은 재빨리 배에 올라타 노를 젓는 자리에 앉았다.

배는 불어나는 물결을 타고 오케아노스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갔다. 처음에는 우리가 노를 저어 나아갔고, 그 뒤에는 순풍이 불어주었다.

제12권

세이렌과 바다의 괴물들

“우리의 배가 오케아노스 강의 물줄기를 떠나 넓은 바다의 파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이른 새벽의 여신이 거주하며 그녀의 춤추는 잔디밭과 해가 떠오르는 곳이 있는 아이아이에 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래사장에 배를 대고 해안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이 들어 빛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죽은 엘페노르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 동료들을 키르케의 집으로 보냈다.

우리는 즉시 나무토막을 잘라, 곶이 바다 쪽으로 가장 멀리 뻗어 나간 곳에서 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그의 장례를 치렀다.

죽은 이의 몸과 갑옷을 불태운 뒤, 우리는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기둥을 끌어다 세웠다.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에 그의 모양이 잘 잡힌 노를 꽂아 두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키르케는 우리가 하데스의 집에서 돌아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단장하고 나타났고, 그녀의 시녀들은 풍성한 빵과 고기, 그리고 불타는 듯 붉은 포도주를 가져왔다.

아름다운 여신은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단 한 번 죽음을 맞이하지만, 너희는 살아있는 채로 하데스의 집까지 내려가 죽음을 두 번 맞이할 무모한 자들이로구나.

그러니 이리 오너라, 오늘 하루 종일 이곳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하지만 새벽이 오면 너희는 돛을 올려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길을 가리켜 주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차례대로 알려주마. 그리하여 너희가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어리석은 계획 때문에 고통과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의 자부심 넘치는 마음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풍성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동료들은 배의 선미 밧줄 옆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그때 키르케가 내 손을 잡고는, 나의 친밀한 동료들로부터 나를 따로 데리고 나갔다. 키르케는 나를 앉히고는 자신도 바로 곁에 누워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일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여왕처럼 위엄 있는 키르케가 나에게 말했다.

"'그 일들은 이렇게 끝났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신이 직접 네 마음에 되새겨 줄 것이다. 너는 먼저 세이렌들에게 닿을 것이다. 그들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홀린다. 모르고 가까이 가서 세이렌의 목소리를 들은 이는 다시는 돌아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곁에 서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세이렌들은 초원에 앉아 맑은 노래로 그를 홀린다. 둘레에는 썩어 가는 사람들의 뼈가 큰 더미로 쌓여 있고, 뼈에 붙은 피부가 말라 쪼그라든다.

그러나 그들을 지나쳐 노를 저어 가되, 동료들의 귀에는 네가 반죽해 온 달콤한 밀랍을 발라주어라. 다른 이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말이다.

만약 네 스스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동료들이 너를 빠른 배의 돛대 발치에 손발이 묶인 채 똑바로 세워 두게 하여라. 그리고 밧줄의 끝을 돛대에 단단히 고정하게 하여라. 그래야 네가 두 세이렌의 목소리를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네가 동료들에게 너를 풀어 달라고 애원하거나 명령하더라도, 동료들은 너를 더욱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한다.

하지만 네 동료들이 이곳을 노 저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네 항로가 어느 쪽으로 놓여야 할지 내가 온전히 말해주지는 않겠다. 대신 네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깊이 숙고해야 한다. 나는 두 가지 길에 대해 모두 말해주겠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솟아 있고, 그 절벽을 향해 눈이 검은 암피트리테의 거대한 파도가 포효하며 몰아친다. 복된 신들은 이 곳을 플랑크타이라고 부른다.

그곳은 날개 달린 존재들조차 지나갈 수 없는 곳이다. 제우스 아버지에게 암브로시아를 나르는 겁 많은 비둘기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매끄러운 바위는 비둘기 중 한 마리를 끊임없이 낚아채 가며, 제우스 아버지는 그 수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비둘기를 보낸다.

그곳을 지나온 인간의 배 중 그 어느 것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적이 없었다. 배의 판자들과 사람의 몸뚱이들은 바다의 파도와 해로운 불길에 휩쓸려 어지럽게 뒤섞였다.

오직 단 한 척의 항해하는 배만이 그곳을 통과했으니, 아이에테스로부터 항해하던 그 유명한 아르고호였다. 헤라가 그 배를 통과하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배조차도 파도에 밀려 거대한 암벽에 곧바로 부딪혔을 것이다. 헤라는 이아손을 아꼈기 때문이다.

"'다른 길에는 절벽 둘이 있다. 하나는 뾰족한 봉우리가 넓은 하늘에 닿고 검은 구름이 에워싼다. 그 구름은 결코 걷히지 않는다. 여름에도 수확철에도 그 봉우리 둘레의 하늘이 맑아지는 법은 없다. 어떤 인간도 그곳을 기어올라 꼭대기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손발이 스무 개라 해도 그렇다.

바위가 닦아 놓은 듯 매끄럽기 때문이다. 절벽 한가운데에는 서쪽, 에레보스를 향한 어두운 동굴이 있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너는 바로 그쪽으로 속이 깊은 배를 몰아야 한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속이 깊은 배를 타고 그 둥근 천장 모양의 동굴 안까지 화살을 쏘아 맞힐 수는 없었다.

그곳에는 스킬라가 끔찍하게 짖어대며 살고 있었다. 스킬라의 목소리는 사실 갓 태어난 강아지의 목소리와 같았으나, 스킬라 자신은 사악한 괴물이었다.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스킬라를 마주한다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스킬라는 열두 개의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발들은 모두 기형적이었다.

스킬라는 여섯 개의 목을 가졌는데, 그 목들은 지나치게 길었고, 목마다 끔찍한 머리가 달려 있었다. 그 머리들 안에는 굵고 촘촘하며 검은 죽음으로 가득 찬 세 줄의 이빨이 있었다.

스킬라는 허리 부분까지는 깊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으나, 머리만은 그 공포스러운 틈새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스킬라는 그곳에서 낚시를 하며, 돌 주변을 열렬히 뒤져 돌고래나 바다사자, 혹은 혹시라도 잡을 수 있을 법한 더 큰 짐승을 찾아 헤맸다.

그 짐승들이란, 깊은 신음 소리를 내는 암피트리테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길러내는 생물들이었다.

그녀 때문에 아직까지 배를 타고 상처 하나 없이 도망쳤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선원은 아무도 없다. 스킬라는 머리 하나당 사람을 한 명씩 낚아채어, 이물이 검은 배 위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여, 다른 절벽은 더 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둘은 화살이 건너갈 만큼 가깝다. 그 위에는 잎 무성한 큰 무화과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는 신성한 카리브디스가 검은 물을 빨아들인다. 하루에 세 번 토해 내고 세 번 무섭게 삼킨다. 삼킬 때 그곳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는 대지를 뒤흔드는 신조차 너를 파멸에서 구할 수 없다.

차라리 스킬라의 절벽에 바짝 붙어서 배를 빠르게 몰고 지나가라. 배의 동료 여섯을 잃고 애도하는 편이 모두를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여신이여, 부디 이것을 사실대로 알려 주십시오. 무서운 카리브디스를 벗어나면서, 다른 괴물이 제 동료들을 해칠 때 그 괴물까지 막아 낼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름다운 여신이 대답하며 말했다. ‘경솔한 사람이여, 보아라, 네 마음이 다시금 전쟁의 행위와 고난을 향하고 있구나. 너는 불멸의 신들에게조차 굴복하지 않겠느냐?

그녀는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재앙이자 공포이며, 무시무시하고 사나워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존재다. 그녀를 막아낼 방책은 없으니, 그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다.

만약 네가 절벽가에서 무장을 하느라 지체한다면, 그녀가 다시 튀어나와 이전처럼 여러 개의 머리로 너를 공격하고 그만큼의 사람들을 낚아챌까 두렵구나.

아니,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지나가거라. 그리고 스킬라를 낳아 인간들에게 재앙이 되게 한 그녀의 어머니, 크라타이스에게 기도하거라. 그러면 크라타이스가 스킬라가 다시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너는 트리나키아 섬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헬리오스의 소들과 아름다운 양 떼가 아주 많이 풀을 뜯고 있다. 소 일곱 무리와 그만큼 많은 양 무리가 있는데, 각 무리마다 쉰 마리씩 있다.

이 짐승들은 새끼를 낳지도 않고 결코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머리칼이 아름다운 님프들인 파에투사와 람페티에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돌보고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네아이라가 헬리오스 히페리온에게 낳아준 딸들이다.

그들의 존경받는 어머니 네아이라는, 딸들을 낳아 기른 뒤에 그들을 멀리 떨어진 트리나키아 섬으로 보내어, 아버지의 양 떼와 털이 윤기 나는 소들을 돌보게 했다.

그 가축들을 해치지 않고 귀향길에 마음을 쓴다면 너희는 고난 속에서도 이타카에 닿을 수 있다. 하지만 해친다면 네 배와 동료들에게 파멸이 닥치리라 예언한다. 너 혼자 살아남더라도 모든 동료를 잃고 뒤늦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곧 황금 옥좌에 앉은 새벽이 찾아왔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신은 섬 위쪽으로 떠나갔고, 나는 배로 가서 동료들을 직접 깨워 배에 올라타 선미의 밧줄을 풀라고 재촉했다.

동료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노를 젓는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앉아 회색빛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다.

이물이 검은 우리 배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줄 바람이 불어왔다. 돛을 가득 채운 그 바람은 훌륭한 동료와 같았다. 인간의 말을 하는 두려운 여신, 머릿결이 아름다운 키르케가 그 바람을 보내준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즉시 배 전체의 모든 장비를 단단히 고정하고 자리에 앉았다. 바람과 키잡이가 배를 인도했다.

"나는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동료들 사이에서 진실하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름다운 여신 키르케가 내게 말해준 신탁을 한두 사람만 아는 것은 옳지 않으니, 내가 모두에게 말해주겠노라.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죽음과 운명을 피하여 살아남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녀는 우리에게 경이로운 세이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꽃이 만발한 초원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오직 나에게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고통스러운 밧줄로 단단히 묶어라. 내가 돛대 옆에 똑바로 서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말이다.

밧줄의 끝을 돛대 자체에 단단히 고정해라. 만약 내가
너희에게 나를 풀어달라고 간청하거나 명령하더라도, 그때는
나를 더욱 많은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나는 이 모든 일을 되풀이하며 나의 동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사이 잘 만들어진 배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두
세이렌이 사는 섬에 빠르게 다가갔다.

그러다 곧 바람이 멎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가 찾아왔으며,
한 신이 파도를 잠재워 잠들게 했다.

그러나 나의 동료들은 일어나서 돛을 접어 속이 깊은 배 안에
갈무리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노를 잡고 앉아, 잘 닦인
전나무 노로 바닷물을 하얗게 일으키며 나아갔다.

그런데 나는 날카로운 칼로 커다란 둥근 밀랍 덩어리를 잘게
잘랐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밀랍을 주물렀다. 강한 압력과
주신 헬리오스 히페리온의 빛줄기 때문에 밀랍은 곧
따뜻해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 밀랍을 내 동료들의 귀에 차례대로
발라주었다. 동료들은 나를 배의 돛대 받침대에 똑바로 세운
채 손과 발을 묶었다. 그리고 밧줄의 양 끝을 돛대 자체에
단단히 고정했다.

동료들은 스스로 자리에 앉아 노를 저으며 회색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빠르게 길을 재촉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소리를 질러 상대에게 들릴 수 있는 거리만큼 가까워지자,
세이렌들은 다가오는 빠른 배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렸다.

그리고 세이렌들은 맑은 음색의 노래를 높이 불렀다.

"'이리 오라, 길을 가는 명성 높은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들의 큰 영광이여. 우리 둘의 목소리를 듣도록
배를 멈추어라. 우리 입에서 흐르는 달콤한 소리를 듣지 않은
채 검은 배로 이 섬을 지나간 사람은 아직 없다. 듣는 이는
즐거워하며 더 지혜로워져 길을 떠난다.

우리는 넓은 트로이아에서 겪은 모든 고난을 알고 있다.

신들의 뜻에 따라 아르고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이 견딘
고난을 말이다. 풍요로운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는 안다.'

"그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뿜으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눈썹을
까딱이며 동료들에게 나를 풀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동료들은 노를 저으며 계속 나아갔다.

곧 페리메데스와 에우리로코스가 일어나 나를 더 많은 밧줄로 묶고는 그 결박을 더욱 단단히 조였다.

우리가 세이렌들을 지나쳐 그들의 목소리나 노래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자,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은 즉시 내가 그들의 귀에 발라주었던 밀랍을 닦아내고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섬을 떠났을 때, 나는 곧 연기와 거대한 파도를 보았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겁에 질린 부하들의 손에서 노가 날아갔고, 노들이 하나같이 소용돌이 속으로 철벅 떨어졌다. 부하들이 가늘고 긴 노를 더 이상 손으로 젓지 않게 되자, 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나는 배 안을 돌아다니며 부드러운 말로 부하들을 격려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로 다가갔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껏 고난을 모르고 살지 않았다. 지금 우리를 에워싼 재앙은 키클롭스 때보다 결코 크지 않다.

그는 난폭한 힘으로 우리를 깊은 동굴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내 용기와 지략과 기지로 빠져나왔다. 지금의 위험도 언젠가 돌아보게 되리라 생각한다. 자, 이제 모두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자. 각자 노 젓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노로 깊은 바다 물결을 쳐라.

제우스가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이 죽음을 피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자. 키잡이여, 너에게는 이 명령을 내리니 마음에 새겨라. 속이 깊은 배의 키 노를 잡고 있는 이는 너다.

저 연기와 파도에서 배를 멀리 떼어 놓고 절벽에 바짝 붙여라. 자칫 모르는 사이에 배가 반대쪽으로 틀어져 네가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나는 말했고, 동료들은 내 말에 즉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스킬라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치유할 수 없는 재앙이었기에, 혹시라도 내 동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노 젓기를 멈추고 배 밑바닥에 모여 떨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나는 키르케가 내게 내린 엄중한 명령을 정말로 잊고 말았다. 그녀는 내게 절대로 무장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영광스러운 갑옷을 입고 두 자루의 긴 창을 손에 쥐었다.

나는 배의 앞쪽 갑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라면 내 동료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바위의 스킬라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서도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안개 낀 바위 쪽을 이리저리 살피며 바라보느라 내 눈은 피로해졌다.

"우리는 울부짖으며 좁은 해협을 따라 계속 항해했다. 한쪽에는 스킬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신성한 카리브디스가 바닷물을 무시무시하게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리브디스가 바닷물을 다시 내뿜을 때마다, 마치 커다란 불 위에 올려놓은 가마솥처럼 물은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높은 머리 위로는 물보라가 양쪽 절벽 꼭대기에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카리브디스가 바닷물을 빨아들일 때마다, 그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 바위 주변에서는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바닥의 흙은 모래와 섞여 검게 보였다. 나의 부하들은 창백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카리브디스를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 사이 스킬라는 속이 깊은 배 안에서 힘과 용맹이 가장 뛰어난 나의 동료 여섯 명을 낚아챘다.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배와 내 부하들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때 나는 내 머리 위로 그들의 손과 발이 허공으로 높이 치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마치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았다. 그는 긴 장대로 소의 뿔을 바다로 내려보낸 뒤, 물고기를 잡으면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해안으로 내던진다. 그들 역시 몸부림치며 절벽 위로 끌려 올라갔다.

스킬라는 동굴 입구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들은 끔찍한 죽음의 몸부림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내가 바다의 길을 탐험하며 겪은 그 모든 일 중에서, 내 눈이 목격한 그 광경은 가장 가련하고도 비참했다.

"우리가 바위들을 피하고, 무시무시한 카리브디스와
스킬라를 벗어났을 때, 곧 신의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마가 넓고 아름다운 소들과, 헬리오스
히페리온의 수많은 훌륭한 양 떼가 있었다.

내가 검은 배를 타고 여전히 바다 위에 있을 때, 우리로
들어가는 소들의 울음소리와 양들의 매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눈먼 예언자, 테베의 테이레시아스와 아이아이에의
키르케가 했던 말들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는 헬리오스의 섬을 반드시 피하라고
내게 엄중히 경고했었다.

나는 마음속에 슬픔을 가득 안은 채, 동료들 사이에서 참으로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이여, 아무리 괴로워도 내 말을 들어라.
테이레시아스와 아이아이에의 키르케가 내린 신탁을 알려
주겠다. 키르케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헬리오스의 섬을
엄중히 피하라고 했다. 그곳에 우리의 가장 끔찍한 재앙이
있다고 했다. 자, 검은 배를 저어 섬을 지나쳐 가자.'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었다.

그러자 곧바로 에우리로코스가 나에게 증오 섞인 말로 대답했다.

"'오디세우스, 그대는 참으로 강인하구나. 힘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사지는 지치지도 않는다. 고된 일과 졸음에 지친 동료들이 뭍에 발을 디디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니, 온몸이 철로 만들어졌구나. 바다에 싸인 이 섬에서 다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대는 지친 그대로 섬에서 몰려나 안개 낀 바다를 떠돌며 빠르게 다가오는 밤을 헤쳐 가라고 명한다. 배를 깨뜨리는 사나운 바람은 밤에서 생겨난다.

다스리시는 신들의 뜻에도 아랑곳없이 배를 자주 깨뜨리는 남풍이나 거세게 몰아치는 서풍이 갑자기 불어오면, 대체 누가 완전한 파멸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번만큼은 검은 밤에 양보하고 빠른 배 곁에 머물러 저녁을 마련하자. 아침이 되면 배에 올라 넓은 바다로 나가자.'

"에우리로코스가 그렇게 말하자, 나의 나머지 동료들도 동의했다.

그때 나는 어떤 신이 분명히 불행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에우리로코스, 너희가 홀로 선 나를 강요하는구나. 하지만 이제 모두 내게 굳은 맹세를 해라. 혹시 소 떼나 큰 양 떼를 보더라도 그 누구도 맹목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불멸의 키르케가 준 음식을 먹는 데 만족하겠다고 맹세해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동료들은 내가 명한 대로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즉시 맹세했다.

동료들이 맹세를 마치자, 우리는 잘 만들어진 배를 단물이 솟아나는 샘 근처의 움푹한 항구에 닻을 내렸다. 그리고 내 동료들은 배에서 내려 능숙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동료들이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욕구를 떨쳐냈을 때,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스킬라가 움푹한 배 안에서 낚아채 삼켜버린 사랑하는 동료들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울면서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밤의 세 번째 파수 때가 되어 별들이 궤도를 옮겼을 때,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경이로운 폭풍과 함께 우리를 향해 사나운 바람을 일으켰다. 제우스는 구름으로 육지와 바다를 모두 가렸고, 하늘에서는 밤이 몰아쳤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배를 끌어다가 님프들의 아름다운 무도장과 좌석이 있는 깊은 동굴 안에 단단히 묶어 두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부하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빠른 배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저 소들에게 손대지 말자. 이 소들과 훌륭한 양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두려운 신 헬리오스의 가축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의 자부심 강한 마음도 동의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남풍이 끊임없이 불어왔다. 동풍과 남풍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바람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부하들이 곡물과 붉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목숨을 구하고자 했기에 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배에 있던 모든 저장물이 다 떨어지자, 부하들은 사냥감과 물고기, 그리고 새를 비롯하여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헤매야만 했다. 배고픔이 그들의 배를 쥐어짜고 있었기에, 그들은 굽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며 돌아다녀야 했다.

그때 나는 신들 중 누군가가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신들에게 기도하기 위해 섬 위쪽으로 홀로 떨어져 나갔다.

내가 섬을 가로질러 동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 나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올림포스를 지배하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신들은 나의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을 내려주었을 뿐이었다.

그사이 에우리로코스는 내 동료들에게 나쁜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이여, 아무리 괴로운 처지라도 내 말을 들어라. 불행한 인간에게 어떤 죽음이든 싫지만, 굶어 운명을 맞는 죽음은 가장 비참하다. 자, 헬리오스의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몰아와 넓은 하늘을 차지한 불멸의 신들께 제사를 올리자.

언젠가 고향 이타카에 닿으면 헬리오스 히페리온께 곧 화려한 신전을 세우고 많은 훌륭한 봉헌물을 바치자.

곧은 뿔의 소들 때문에 그가 노하여 우리 배를 부수려 하고 다른 신들도 동의한다면, 나는 무인도에서 천천히 쇠약해져 죽느니 차라리 파도를 한번 들이마시고 단번에 목숨을 잃겠다.'

"그렇게 에우리로코스가 말하자, 나의 나머지 동료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즉시 근처에서 헬리오스의 소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몰아왔다. 이물이 검은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마가 넓고 털이 매끄러우며 아름다운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들 주위에 둘러서서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수관이 높은 참나무에서 부드러운 잎사귀들을 꺾어 제물로 썼다. 벤치가 잘 놓인 그 배에는 흰 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를 마친 뒤 소들의 목을 베고 가죽을 벗겼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허벅지 살을 잘라내어 두 겹의 지방으로 덮고 그 위에 생고기를 얹었다.

타오르는 제물 위에 부을 포도주는 없었으나, 그들은 물을 부어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모든 내장을 불 위에 올려 구웠다.

허벅지 살이 완전히 타버리고 내장 부위를 맛본 뒤에, 그들은 나머지 고기를 잘라 꼬챙이에 꿰었다.

그때 달콤한 잠이 내 눈꺼풀에서 달아났고, 나는 빠른 배가 있는 바닷가로 향했다.

내가 걸어가며 굽은 모양의 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정말로 기름진 고기의 뜨거운 향기가 내 주변으로 풍겨왔다. 나는 신음하며 불멸의 신들을 향해 크게 소리쳐 부르짖었다.

"'아버지 제우스와 영원히 계시는 다른 복된 신들이여, 저를 파멸시키려고 무자비한 잠으로 달래 재우셨군요. 그동안 뒤에 남은 제 동료들이 끔찍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자 긴 옷을 입은 람페티에가 재빨리 헬리오스 히페리온에게 달려가, 우리가 그의 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헬리오스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즉시 신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우스와 영원히 계시는 다른 복된 신들이여, 이제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제 소들을 오만하게 죽였습니다. 별 많은 하늘에 오를 때도 하늘에서 땅으로 돌아설 때도 저는 늘 그 소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소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데스로 내려가 죽은 이들 사이를 비추겠습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헬리오스여, 너는 계속 불멸의 신들 사이와, 곡식을 주는 대지 위의 인간들 사이에서 빛나라. 저 사내들의 빠른 배는 내가 곧 빛나는 번개로 쳐서 포도주 빛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수겠다.’

“나는 금발의 칼립소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전령 헤르메스로부터 이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배와 바다로 내려갔을 때, 나는 부하들에게 꾸짖음을 퍼부었다. 나는 한 사람씩 차례로 다가가 그들을 나무랐으나, 우리는 아무런 방책도 찾을 수 없었다. 소들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들은 내 부하들에게 즉시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었다. 가죽은 꿈틀거렸고, 구운 것이나 날것이나 육질은 꼬챙이 위에서 울부짖었으며, 마치 소들이 내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엿새 동안,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은 그들이 몰고 온 헬리오스의 소들 중 가장 좋은 고기로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가져왔을 때,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멎었다.

우리는 즉시 배에 올라탔다. 돛대를 세우고 하얀 돛을 올린 뒤, 우리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섬을 떠나고 하늘과 바다 외에는 그 어떤 땅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크로노스의 아들이 속이 깊은 배 위로 검은 구름을 드리우셨고, 그 아래의 바다는 어둡게 변했다.

배는 그리 오래 나아가지 못했다. 곧바로 비명을 지르는 서풍이 몰아치며 맹렬한 폭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바람의 돌풍이 돛대의 앞쪽 버팀줄 두 가닥을 모두 끊어버렸고, 그 바람 때문에 돛대는 뒤로 넘어갔으며 모든 돛줄은 배 밑바닥에 흩어졌다.

배의 선미에서 돛대가 조타수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그의 두개골에 있는 모든 뼈를 으스러뜨렸다. 조타수는 마치 잠수부처럼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졌고, 그의 기백 넘치던 영혼은 육신을 떠났다.

제우스가 천둥을 치며 배 위로 번개를 내던졌다. 제우스의 번개에 맞은 배는 선수부터 선미까지 파르르 떨렸고, 유황 연기가 가득 찼다. 나의 동료들은 배 밖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바다 까마귀들처럼 검은 배 주변의 파도 위로 휩쓸려 갔다. 신은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런데 파도가 배의 옆면을 용골에서 찢어낼 때까지 나는 배 위를 계속해서 서성였다.

파도는 배의 부서진 잔해를 실어 날랐고, 돛대는 용골 부분에서 꺾여 나갔다.

다만 소가죽으로 만든 뒷돛줄이 돛대 위로 던져져 있었다. 나는 이것으로 용골과 돛대를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채로 무시무시한 바람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러자 정말로 서풍의 거센 폭풍이 멎었고, 남풍이 빠르게 불어왔다. 그 바람은 내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재앙을 부르는 카리브디스로 가는 길을 다시 가야 했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나는 파도에 실려 떠돌았다. 해가 뜰 무렵, 나는
스킬라의 절벽과 두려운 카리브디스에게 다다랐다.
카리브디스는 정말로 바다의 짠물을 빨아들였다.

나는 키 큰 무화과나무 위로 뛰어올라 나무를 붙잡았고,
박쥐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발을 단단히 디딜 수도, 나무 위에 오를 수도 없었다. 뿌리는
한참 아래로 뻗었고, 길고 큰 가지들은 손이 닿지 않는 위쪽에
뻗어 카리브디스를 가리고 있었다. 나는 돛대와 용골을 다시
토해 낼 때까지 굳게 매달려 있었다. 마침내 그것들이 나타나
나는 기뻤다.

재판을 구하는 젊은이들의 많은 다툼을 판결하던 이가
저녁을 먹으러 집회에서 일어날 시각, 바로 그때 그 긴
목재들이 카리브디스에서 떠올랐다.

나는 위에서 손발을 놓고 긴 목재 바깥쪽의 물로 뛰어내렸다.
그 위에 앉아 두 손으로 물을 저어 나아갔다.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는 스킬라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완전한 파멸을 결코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아흐레 동안 표류하다가, 열째 되는 날 밤에 신들이 나를 오기기아 섬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칼립소가 살고 있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경외스러운 여신인 그녀는 나를 환대하며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가? 불과 어제 당신의 궁전에서 당신과 당신의 고귀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던가. 이미 명확하게 다 말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내 생각에 참으로 지루한 일이다.”

제13권

이타카로 돌아오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고 어스름한 홀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고요해졌다.

알키노오스가 다시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오디세우스여, 그대가 놋쇠 바닥을 깐 나의 지붕 높은 집으로 왔으니,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뜻이 꺾여 되쫓겨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나의 궁전에서 어른들이 마시는 불타는 듯한 포도주를 마시고 가수를 듣는 데 익숙한 그대들 모두에게 내가 말하며, 이 명령을 내리노라.

낯선 이를 위한 의복은 이미 윤이 나는 궤짝 안에 보관되어 있네. 그 궤짝 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과 파이아케스인들의 의원들이 이곳으로 가져온 다른 모든 선물들이 들어 있네.

자, 이제 우리 각자가 그에게 커다란 세발솥 하나와 가마솥 하나를 주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차례로 백성들에게 그 비용을 거두어들여,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보답도 없이 혼자서 선뜻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알키노오스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 후 사람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서둘러 배로 가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청동을 가져왔다.

강력하고 위엄 있는 알키노오스는 직접 배 전체를 돌며, 선원들이 바쁘게 노를 저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물들을 좌석 아래에 정성스럽게 실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알키노오스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준비했다.

강하고 위엄 있는 알키노오스는 그들을 위해 만물의 주인이자 검은 구름의 신인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허벅지 살을 태워 바친 뒤,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며 즐겁게 축제를 즐겼다. 그들 사이에서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신성한 가객 데모도코스가 리라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타오르는 태양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끊임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진심으로 고향에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온종일 포도주 빛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조립한 쟁기를 끌어 휴경지를 가는 동안, 농부는 저녁 식사를 기다린다. 저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가 지면 그는 기뻐하며 지친 무릎으로 걸어간다. 그처럼 오디세우스도 해가 지는 것을 반겼다. 그는 곧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인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 알키노오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들 가운데 명성이 자자한 알키노오스 님, 이제 포도주를 부어 신들께 바치시고 저를 평안히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도 작별을 고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갈망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귀향을 도울 호송과 우정의 선물들이 준비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이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갔을 때, 제 집에서 비할 데 없는 아내와 사랑하는 이들이 아무런 상처 없이 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 아내와 자녀들을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신들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번영을 내려 주시고, 여러분의 백성에게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이 적절했다며 칭찬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방인을 길을 떠나보내자고 말했다.

그러자 위대한 알키노오스가 전령에게 말하며 명령했다. "폰토노스여, 술그릇에 술을 섞어라. 그리고 우리가 제우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이방인을 그의 고향 땅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이 전당에 있는 모든 이에게 술을 나누어 주어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폰토노스는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어 한 사람씩 차례로 다가가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넓은 하늘을 차지한 복된 신들께 포도주를 부어 바치며 기도를 올렸다.

그때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가 일어나서, 두 손잡이가 달린 잔을 아레테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리고 그는 날개 돋친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여왕이시여, 노년과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필멸자들의 운명인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해 동안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떠나지만, 여왕께서는 이 집에서 자녀들과 백성들, 그리고 왕인 알키노오스와 함께 기쁨을 누리소서."

그리하여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말을 마치고 문턱을 넘어 나갔다.

위엄 있는 알키노오스는 오디세우스를 빠른 배와 바닷가로 안내하도록 전령을 보냈다.

아레테는 오디세우스를 위해 여종들을 함께 보냈다. 한 여종은 방금 세탁한 겉옷과 튜닉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여종은 튼튼한 궤를 운반하도록 아레테의 명을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은 빵과 붉은 포도주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배와 바다로 내려가자마자, 그를 호위하던 귀족 청년들이 곧바로 이 물건들을 가져갔다. 청년들은 음식과 음료를 모두 움푹 파인 배 안에 실었다.

그다음 청년들은 오디세우스가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배의 선미 쪽 갑판 위에 깔개와 아마포를 깔아주었다.

오디세우스도 배에 올라타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은 각자 차례대로 벤치에 앉았고, 구멍 뚫린 돌에 묶여 있던 밧줄을 풀었다.

그들이 몸을 뒤로 젖히며 노날로 바닷물을 튀기자마자, 달콤한 잠이 오디세우스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다. 그것은 깨어날 수 없는 잠이었으며, 가장 달콤하고도 죽음과 가장 닮은 잠이었다.

채찍질을 받으면 네 마리의 멍에를 멘 말들이 평원에서 일제히 앞으로 달려 나가, 높이 뛰어오르며 빠르게 길을 가듯, 그 배의 선미도 높이 솟구쳐 올랐다.

소리가 요란한 바다의 검은 파도가 배가 지나간 자리에 거세게 거품을 일으켰고, 배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길을 나아갔다. 날개 달린 것들 중 가장 빠른 빙빙 도는 매조차 그 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배는 빠르게 나아가며 바다의 파도를 가르고 나아갔다. 배에는 지혜에 있어서 신들에게 필적하는 한 남자가 타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인간들의 전쟁과 고통스러운 파도를 지나오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슬픔을 겪었던 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은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른 새벽의 빛을 알리러 오는 별들 중 가장 밝은 별이 떠오를 때, 항해 중이던 배는 섬에 가까워졌다.

이타카 땅에는 바다의 노인 포르키스가 소유한 어느 항구가 있다. 항구 입구에는 바다 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두 개의 곶이 돌출되어 있으나, 항구 쪽으로는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이 곶들은 바깥쪽의 거센 바람이 일으키는 커다란 파도를 막아준다. 항구 안쪽에는 배들이 정박 지점에 도달하면 밧줄을 풀고 놓여 있다.

항구 안쪽 끝에는 잎이 긴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근처에는 나이아데스라고 불리는 님프들에게 신성한, 그늘지고 쾌적한 동굴이 있다.

그 동굴 안에는 돌로 만든 혼합용 그릇과 항아리들이 있으며, 벌들이 꿀을 저장해 두는 곳이기도 하다.

그 동굴 안에는 돌로 만든 커다란 베틀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님프들은 보기에 경이로운 보랏빛 염색 천을 짜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도 있었다.

동굴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풍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고, 남풍 쪽 문은 신성하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곳은 불멸의 신들이 다니는
길이었다.

그들은 그곳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노를
저어 들어갔다. 노를 젓는 이들의 팔이 만들어낸 빠른 속도
때문에, 배는 항해하던 기세 그대로 배의 절반가량이
해안가에 닿을 정도로 밀려 올라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노를 젓는 배에서 육지로 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먼저 오디세우스를 배에서 들어 올렸다. 그는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기에, 그들은 몸 아래의 아마포와 빛나는
깔개째 들어 오디세우스를 모래 위에 눕혔다.

이어 그들은 위엄 있는 파이아케스인들이 그에게 준
물건들을 들어 올렸다. 이 물건들은 마음 넓은 아테나의
보살핌 덕분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떠날 때 받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이 물건들을 모두 올리브 나무 줄기 옆, 길에서 벗어난
곳에 두었다. 혹시라도 오디세우스가 깨어나기 전에 어떤
나그네가 이곳에 와서 물건들을 약탈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지를 흔드는 자, 포세이돈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에게 처음에 했던 위협을 잊지 않았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아버지 제우스여, 필멸자들이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니, 저조차도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파이아케스인들조차 제 혈통인데 말입니다.

내가 방금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당신이 이미 약속하고 고개를 끄덕여 확정하신 그의 귀환을 내가 완전히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에 그를 빠른 배에 태워 바다 너머로 실어 날랐고, 그를 이타카에 내려놓았다.

또한 그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주었다. 청동과 금, 그리고 짜인 옷감들을 주었는데, 이는 오디세우스가 전리품을 제 몫만큼 챙겨서 아무 탈 없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트로이아에서 스스로 얻었을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다. “아아, 널리 다스리는 대지를 뒤흔드는 신이여, 무슨 말을 하는가! 신들은 그대를 모욕하지 않는다. 우리 중 가장 연장자이며 훌륭한 이를 모욕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들 가운데 제 힘과 기세를 믿고 조금이라도 그대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나중에라도 언제든 벌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하라.”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대답했다. “검은 구름의 신이여, 말씀하신 대로 곧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피합니다. 이제는 안개 낀 바다에서 그를 호송하고 돌아오는 파이아케스인들의 아름다운 배를 치려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호송하는 일을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시 둘레에도 큰 산을 던지려 합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게으른 자여,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라. 사람들이 모두 도시에서 밖을 내다보며 빠르게 나아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는 그 배를 육지 근처에서 단단한 돌로 바꾸어라. 모든 사람이 경탄할 수 있도록 빠른 배의 형상을 한 돌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도시 주위에 거대한 산을 던져 버려라.”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은 이 말을 듣고
파이아케스인들이 사는 스케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렸다.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는 빠르게 나아가며 해안 가까이
다가왔다.

그때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배 근처로 다가와 배를
돌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배는 해안 아래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듯
고정되었고, 포세이돈은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배로 명성 높은, 긴 노를 젓는 파이아케스인들은
서로에게 날개 돋친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이웃을 힐끗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아, 슬프도다! 집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던 우리의 빠른 배를,
대체 누가 바다에 묶어버렸단 말인가? 보라, 배가 분명
눈앞에 보였거늘!”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곤 했으나,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그러자 알키노오스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며 말했다.

“보라, 참으로 오래전에 아버지가 하신 신탁이 내게 닥쳤구나.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해 주기 때문에 포세이돈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언젠가 파이아케스인들의 아름다운 배가 안개 낀 깊은 바다를 건너 호송을 마치고 돌아올 때, 포세이돈께서 그 배를 치시고 우리 마을에 거대한 산을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이제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모두 오라, 내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 순종하자.

누가 우리 도시에 오더라도 이제 인간들을 호송하는 일을 그치자. 포세이돈께 좋은 황소 열두 마리를 바치자. 그가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도시 둘레에 높은 산을 던지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소들을 준비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고문들은 제단 주위에 서서 바다의 주신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고향 땅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긴 부재를 겪은 오디세우스는 그곳을 알아보지 못했다. 제우스의 딸인 팔라스 아테나가 그를 다른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모든 일을 알려 주려고 둘레에 안개를 드리웠기 때문이었다.

아테나는 구혼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 온전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오디세우스의 아내도, 마을 사람들도, 친구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때문에 주인인 오디세우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길게 뻗은 길들도, 안전한 정박지를 제공하는 후미들도, 가파른 절벽도, 무성한 나무들도 모두 생경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벌떡 일어나 서서 자신의 고향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신음하며 양손 바닥으로 자신의 양 허벅지를 내리쳤다.

이어 그는 슬프게 말을 시작했다.

“아, 슬프도다, 내가 지금 필멸자들의 어떤 땅에 도착했단 말인가? 이 땅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불의한 자들인가, 아니면 나그네를 환대하고 마음속으로 신들을 경외하는 자들인가?

이 모든 재물을 어디로 가져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은 어디로 떠돌아야 하는가?

차라리 내가 파이아케스인들 사이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나를 대접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다른 강력한 왕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재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곳에 그냥 두고 갈 수도 없다.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보며 이 물건들이 다른 이들의 전리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기랄, 나를 낯선 땅으로 데려온 파이아케스인들의 지도자들과 고문들은 결코 현명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그들은 분명 나를 눈에 선한 이타카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인간을 지켜보시며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시는, 간청하는 자의 신 제우스께서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를.

자, 물건을 세어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 저 사람들이 속이 깊은 배에 내 물건을 싣고 가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닌지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름다운 세발솥들과 솥들, 황금, 그리고 곱게 짜인 의복들을 세기 시작했다. 그 물건들 중 빠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향 땅을 슬프게 그리워하며, 소리가 요란한 바다의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수없이 많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때 아테나가 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주들의 아들들처럼 매우 품위 있는 양치기였다.

아테나는 어깨에 잘 만든 망토를 두 겹으로 두르고 있었고, 빛나는 발에는 샌들을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마중 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날개 돋친 말로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

“친구여, 당신은 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니, 당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부디 나를 악한 마음 없이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보물들을 지켜주시고, 저 또한 지켜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신처럼 받들며 당신의 소중한 무릎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실도 진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곳은 어떤 땅이며,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이곳은 눈에 잘 보이는 섬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에 놓여 있는, 흙이 깊은 대륙의 해안입니까?”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방인이여, 그대가 정말로 이 땅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그대는 어리석거나 혹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로구나. 이 땅은 결코 이름 없는 곳이 아니다. 동쪽의 새벽과 태양을 향해 사는 이들도, 서쪽의 어둑한 어둠을 향해 사는 이들도 모두 이 땅을 잘 알고 있다.

이곳은 험준한 섬이라 말을 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비록 폭은 좁을지언정 아주 가난한 곳은 아니다. 그곳에는 곡식이 넘쳐나게 자라고 포도도 자라며, 비와 풍성한 이슬도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곳은 염소와 소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일 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웅덩이들도 있다.

그러니 이방인이여, 이타카라는 이름은 트로이아 땅에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트로이아는 이 아카이아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인내심이 강하고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그는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의 말을 듣고, 조상들의 땅인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오디세우스도 입을 열어 그녀에게 날개 돋친 말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입 밖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말을 아꼈으며, 가슴 속으로는 끊임없이 거대한 책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바다 너머 멀리 있는 넓은 크레타에서도 나는 이타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물건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구려.

내가 그 땅을 떠날 때, 내 아이들에게는 이만큼의 재물을 또 남겨두었소. 나는 넓은 크레타에서 발이 빠른 이도메네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오르실로코스를 죽인 뒤에 그곳을 탈출했었소. 오르실로코스는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보다도 발이 빨랐던 자였소.

그는 내가 트로이아에서 가져온 그 모든 전리품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인간들의 전쟁과 고통스러운 파도를 헤치며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해 마음속 깊이 슬픔을 견뎌왔다.

나는 그의 아버지를 도와 트로이아 땅에서 그의 종이 되어 섬기려 하지 않았고, 대신 내 부하들을 지휘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전리품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부하 한 명과 함께 길가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청동 촉을 단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어두운 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기에 아무도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내가 날카로운 청동 무기로 그를 죽인 뒤, 나는 곧장 배 한 척으로 향했다. 그리고 위엄 있는 페니키아인들에게 전리품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기도를 올렸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배에 태워 필로스나, 에페이오스인들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엘리스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바람의 힘이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밀어냈고, 그들은 원치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갔다. 그들이 나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바람에 떠밀려 방황하다가 밤중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둘러 노를 저어 항구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가 몹시 간절했음에도 우리는 저녁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자 피로에 지친 나에게 달콤한 잠이 찾아왔다.

그동안 사람들은 깊숙한 배 안에서 내 물건들을 꺼내어 내가 모래 위에 누워 있는 곳으로 옮겨다 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배에 올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돈 땅을 향해 떠나갔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채로 이곳에 홀로 남겨졌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눈을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 미소 지으며 손으로 그를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아름답고 키가 크며 영광스러운 수공예에 능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아테나가 입을 열어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온갖 계략에서 너를 앞서려면 상대도 교활하고 꾀가 많아야 하겠구나. 너와 마주한 이가 신이라 해도 그렇다. 대담하고 책략에 능하며 속임수에 싫증을 모르는 사람이여! 마음 깊이 사랑하는 거짓 이야기와 계략을 네 고향에서도 그치지 않는구나. 하지만 우리 둘 다 꾀에 능하니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너는 사람들 중 계획과 말솜씨에서 단연 뛰어나고, 나는 모든 신 가운데 지혜와 꾀로 명성이 높다.

하지만 너는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언제나 네 곁에 서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온 나를 말이다.

또한 나는 네가 파이아케스인 모두에게 사랑받도록 만들었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네가 집으로 떠날 때 나의 조언과 의지에 따라 위엄 있는 파이아케스인들이 너에게 준 그 모든 보물을 숨겨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네가 잘 지어놓은 집에서 네 운명이 마주하게 될 그 모든 고난의 크기를 너에게 말해주려 한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너는 그것을 견뎌야 한다. 방랑에서 돌아왔음을 그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도 알리지 마라. 침묵 속에서 많은 고통을 참으며 사람들의 폭력을 견뎌라."

그러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여신이여, 필멸의 인간이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트로이아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당신은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드높은 도시를 함락시키고 배를 타고 떠난 뒤, 신이 아카이아인들을 흩어놓은 그 이후로 제우스의 딸인 당신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 배에 올라타 나의 슬픔을 막아주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계속해서 방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신들이 나를 재앙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마침내 풍요로운 파이아케스 땅에서 당신이 나에게 다정한 말로 위로를 건네고, 당신이 직접 나를 그들의 도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걸고 간청합니다. 나는 내가 눈부시게 밝은 이타카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떠돌고 있는 곳은 다른 땅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속이려고 조롱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도착한 것인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렇기에 내가 그대의 슬픔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말솜씨가 부드럽고, 지혜가 날카로우며,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방랑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른 남자라면 자신의 집에서 자녀와 아내를 보기 위해 서둘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아직 무엇인가를 알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구나. 예전과 다름없이 집에서 지내며, 눈물 흘리며 슬프게 밤낮을 보내고 있는 아내를 먼저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결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동료들을 모두 잃은 뒤에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신도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형제인 포세이돈에게 맞서 싸울 마음이 없었다. 포세이돈은 당신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눈멀게 한 것에 분노하여, 당신을 향한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자,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타카 땅을 보여줄 테니, 당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곳은 바다의 노인 포르키스의 항구다. 항구 안쪽 끝에는 잎이 긴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근처에는 나이아데스라고 불리는 님프들에게 신성한, 그늘지고 쾌적한 동굴이 있다.

너는 이곳이 바로 예전에 네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님프들에게 성대한 희생제를 자주 올리곤 했던, 천장이 둥근 동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저 멀리 숲으로 뒤덮인 네리톤 산이 보인다."

여신이 그렇게 말하며 안개를 걷어내자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땅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곡물을 길러내는 대지인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님프들에게 즉시 기도를 올렸다.

"나이아데스 님프들이여, 제우스의 딸들이여,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을 담은 기도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예전처럼 여러분께 예물도 바치겠습니다. 만약 전리품을 앗아가는 제우스의 딸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성인으로 자라게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눈을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다.

"기운을 내세요. 이런 일들로 마음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곧 그 물건들을 경이로운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어 당신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이 가장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말한 뒤, 여신은 어둑한 동굴로 들어가 숨겨진 곳들을 찾아보았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스인들이 그에게 준 금과 단단한 청동,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의복 등 모든 보물을 그곳으로 가져왔다. 오디세우스는 이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치워 두었다.

그때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팔라스 아테나가 동굴 문에 돌을 놓아 막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신성한 올리브 나무 줄기 옆에 앉아, 무례한 구혼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여, 이제 어떻게 하면 수치도 모르는 구혼자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을지 생각하라. 그들은 지난 삼 년 동안 네 궁전에서 안하무인으로 굴며, 네 신성한 아내에게 구애하고 구혼자의 예물을 바쳐왔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네가 오기를 슬프게 기다리며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고, 각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약속을 건네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구나.”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여신이여. 만약 당신이 내게 모든 것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불행한 운명처럼 내 집 안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도 내 곁에 서서, 우리가 트로이아의 빛나는 왕관을 빼앗았을 때처럼 나에게 굴하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눈부신 눈을 가진 여신이여,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내 곁에 서 주신다면, 위대한 여신이여, 당신이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삼백 명의 사내와도 맞서 싸울 수 있겠나이다.”

그러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 참으로 그러하다.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동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잊지 않으마. 네 재산을 축내는 구혼자들 중 많은 이가 자신의 피와 뇌수를 거대한 땅에 뿌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자, 이제 내가 너를 모든 필멸자에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마. 네 유연한 사지의 아름다운 피부를 쪼글쪼글하게 만들고, 네 머리 위의 금빛 머리카락도 없애 버리겠다. 그리고 너에게 누더기 옷을 입혀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이라면 누구라도 몸서리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너의 두 눈을 흐릿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구혼자들과 네 아내, 그리고 네가 궁전에 남겨두고 온 아들의 눈에 초라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보다 먼저, 너의 돼지들을 돌보며 너에게 친절한 마음을 품고 있고, 너의 아들과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를 사랑하는 돼지치기에게로 가거라.

너는 그를 돼지 곁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돼지들은 코락스 바위와 아레투사 샘가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돼지들은 도토리를 마음껏 먹고 검은 물을 마시는데, 이것들은 돼지의 풍부한 살을 살찌게 하는 것들이다.

너는 그곳에 머물며 그의 곁에 앉아 모든 것을 물어보아라.
그동안 나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땅인 스파르타로 가겠다.
그곳에서 네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불러오겠다.
오디세우스여, 네 아들은 네가 아직 살아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찾기 위해 메넬라오스의 집이 있는 드넓은
라케다이몬으로 떠났다."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을 지니신 당신께서, 어찌하여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 또한 쉬지 않고
요동치는 바다를 떠돌며 고난을 겪게 하려 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의 재산을 다 써버리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까?"

눈을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대답했다. "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가서 좋은 명성을 얻도록 이끈 것은
나였다. 그는 고난을 겪지 않고 아트레우스의 아들 궁전에서
편히 지내며 끝없는 대접을 받고 있다. 젊은이들이 검은
배에서 매복하여 그가 고향에 닿기 전에 죽이려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 전에 네 재산을 축내는 구혼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땅에 묻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아테나는 지팡이로 오디세우스를 건드렸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유연한 사지에 붙은 아름다운 살결을 시들게 했고, 머리칼인 아마색 머리카락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 늙은 노인의 피부를 씌웠다.

또한 아테나는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오디세우스의 두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옷을 입혔는데, 그것은 비천하고 누더기가 된 망토와 튜닉이었으며,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데다 불결한 연기로 때가 탄 옷이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몸에 털을 다 뽑아낸 빠른 암사슴의 커다란 가죽을 덮어씌웠다.

그리고 아테나는 그에게 지팡이 하나와, 꼬아 만든 끈으로 매단 구멍이 숭숭 뚫린 비참한 주머니를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의논을 마친 뒤에 헤어졌다. 그러자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으로 향했다.

제14권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항구를 떠나 숲 위로 난 거친 길을 따라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는 아테나가 가르쳐 준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는 선량한 돼지치기가 있을 것이었다.

그 돼지치기는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얻은 다른 모든 노예들보다도,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돌보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였다.

오디세우스는 그 돼지치기를 만났다. 돼지치기는 집의 앞쪽 현관에 앉아 있었다. 그곳의 마당은 넓은 전망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주변에 빈 공간이 있는 크고 훌륭한 마당이었다.

돼지치기는 주인 부인이 알지도 못하고 노인 라에르테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떠나버린 주인의 돼지들을 위해 이 마당을 직접 만들었다.

그는 거대한 돌들로 마당을 쌓아 올렸고, 그 위에는 가시나무로 덮개를 씌웠다.

그는 참나무를 검은 속살이 드러나도록 쪼개어 만든 거대한 말뚝들을 이리저리 촘촘하게 박아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는 울타리 안에 돼지들을 위한 잠자리로 서로 맞닿은 열두 개의 돼지우리들을 만들었다. 각 우리에는 번식용 암퇘지 쉰 마리씩을 가두어 두었다.

그렇지만 수퇘지들은 울타리 밖에서 잠을 잤다. 수퇘지들의 수는 훨씬 적었는데, 신과 같은 구혼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며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돼지치기가 살찐 돼지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었기에 수퇘지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살찐 돼지들의 총수는 삼백예순 마리였다.

그 곁에서는 사람들의 지도자인 돼지치기가 기른 개 네 마리가 늘 잠을 잤다. 야수처럼 사나운 개들이었다. 돼지치기는 빛깔 좋은 소가죽을 잘라 제 발에 맞는 신을 만들고 있었다. 다른 돼지치기 셋은 돼지 떼와 함께 각자 여기저기로 나갔다.

넷째에게는 수퇘지 한 마리를 몰고 도시의 오만한 구혼자들에게 가도록 시켰다. 그들이 잡아먹고 고기로 배를 채우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었다.

이에 갑자기 짖어대는 사냥개들이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고는, 요란하게 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다.

그대로 두었다면 그는 자신의 농장 안에서조차 잔인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때 돼지치기가 빠른 발걸음으로 개들을 뒤쫓아 울타리 문을 급히 지나왔고, 그의 손에서 가죽이 떨어졌다.

돼지치기는 개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고, 돌을 뿌려가며 개들을 이리저리 쫓아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노인장, 정말이지 개들이 갑자기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나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신들께서는 내게 다른 슬픔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며 다른 사람들이 먹을 살찐 돼지들을 키우는 동안, 신과 같은 주인님을 생각하면 나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만약 주인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고 햇빛을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주인님은 먹을 것을 찾아 낯선 말을 쓰는 사람들의 땅과 도시를 헤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인장, 나와 함께 갑시다. 오두막으로 가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 마음을 달래고 나면, 노인장도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선량한 돼지치기는 오디세우스를 오두막으로
인도했다. 돼지치기는 오디세우스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두꺼운 나뭇가지들을 깔고 그 위에 자신이 평소 잠을 잘 때
쓰는 크고 털이 많은 거친 야생 염소 가죽을 펴서 그를 앉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가 자신을 이토록 환대해 준 것에
기뻐하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낯선 이여, 당신이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환대해 주었으니,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께서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니오, 이방인이여. 설령 당신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방인을 홀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이방인과 거지는 제우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선물일지라도, 우리 같은 이들이 주는 것이라면 환영받을 것입니다. 주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가운데 늘 두려움 속에 사는 노예들에게는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젊은 주인들처럼 말입니다.

신들은 저를 온정으로 사랑해 주셨을 그분의 귀향을 막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소유의 집과 작은 땅, 많은 이가 구혼하는 아내도 주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많이 일한 종, 신이 그 노동을 번성하게 해 주는 종에게 자상한 주인이 베푸는 선물들 말입니다. 제가 돌보는 이 일도 그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의 주인이 이곳 집에서 늙어 가셨더라면, 나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돌아가셨다.

헬레네가 수많은 전사의 무릎을 힘없이 꺾어 놓았기에, 헬레네의 모든 친족이 완전히 파멸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의 주인 또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기 위해, 아가멤논을 위해 보상을 받아 내려고 말로 유명한 일리오스로 나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에우마이오스는 재빨리 허리띠로 튜닉을 동여매고 돼지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 우리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돼지 두 마리를 골라 안으로 데려와 둘 다 잡았다. 그리고 털을 태우고, 고기를 자르고, 꼬챙이에 꿰었다.

고기를 모두 다 굽자, 그는 꼬챙이에 꽂힌 채 뜨거운 고기를 오디세우스 앞으로 가져와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보리 가루를 뿌렸다.

이어 그는 담쟁이덩굴 나무로 만든 그릇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었다. 그러고는 오디세우스의 맞은편에 직접 앉아 그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다.

"나그네여, 노예들이 대접할 수 있는 어린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살찐 돼지들은 구혼자들이 먹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분노를 마음에 두지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복된 신들은 무모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고 정의와 인간의 바른 행동을 존중합니다.

남의 땅을 침략한 잔인한 적들이 제우스가 준 전리품으로 배를 채워 고향에 돌아갈 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신들의 분노를 향한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제 주인님의 비참한 죽음에 관해 신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올바르게 구애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일하게 우리 재산을 오만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제우스로부터 오는 매일 낮과 밤마다, 이들은 한두 마리에 그치지 않는 가축들을 잡아 바치고, 술도 길어 와 오만하게 낭비할 뿐입니다.

참으로 그의 재산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다. 어두운 대륙이나 이타카 자체 그 어디에서도 그만한 재산을 가진 영주는 없었다. 아니, 스무 명의 사람을 다 합쳐도 그만큼의 부를 가진 이는 없었다.

보라, 내가 그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대륙에 열두 떼의 소 떼를 가지고 있다. 양 떼도 그만큼 있으며, 돼지 떼도 그만큼 있다. 또한 이방인과 그의 백성인 목자들이 기르는 염소 떼도 그만큼 많다.

그리고 이곳 섬의 경계에도 염소 떼가 돌아다니며 풀을 뜯고 있는데, 모두 열한 떼이며 충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자는 구혼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자기 염소 떼 중 한 마리씩을 몰아온다. 그중에서도 자신이 보기에 가장 살이 잘 오른 염소 한 마리를 골라온다.

그러나 저는 이 돼지들을 지키고 돌보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수퇘지들을 골라 정성껏 보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오디세우스는 침묵 속에서 고기를 탐욕스럽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갈구하며 식사를 이어갔다. 그는 구혼자들을 위해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음식으로 영혼을 채운 뒤에야, 돼지치기는 자신이 평소에 마시던 그 그릇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그에게 건넸다.

오디세우스는 그 그릇을 받아 들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친구여,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토록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로 당신을 샀단 말입니까?

그가 아가멤논을 위한 보상을 받으려다 죽었다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알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보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멀리 떠돌아다녔으니까요."

사람들을 이끄는 돼지치기가 대답했다. "노인장, 그분의 소식을 가져온 어떤 방랑자도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믿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접이 필요한 떠돌이들은 진실을 말할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거짓말을 꾸밉니다. 떠돌다가 이타카에 온 사람은 누구나 안주인께 가서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안주인은 그를 친절히 맞아 대접하며 모든 것을 묻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남편이 멀리서 죽었을 때 여인이 그러하듯 울고 계십니다.

노인여, 당신 또한 누군가 당신에게 입을 망토와 튜닉을 준다면 기꺼이 이야기를 꾸며내려 하겠군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라면, 이미 개들과 날랜 새들이 그의 뼈에서 살점을 뜯어갔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다 물고기들이 그를 먹어치웠고, 그의 뼈는 깊은 모래에 덮인 채 해변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저 멀리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친구들에게 닥칠 슬픔뿐입니다. 모든 이에게 슬픔이 닥치겠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떠돈다 해도, 다시는 그토록 친절한 주인을 만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태어나 부모님이 직접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그토록 슬퍼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님을 내 눈으로 직접 뵙고 고향 땅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그분들 때문만은 아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은 떠나버린 오디세우스를 향한 그리움이다.

낯선 이여, 그는 비록 여기 없으나 나는 경외심을 담아 그의 이름을 말하노라.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기 때문이라. 비록 그가 여기 없어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나의 주군이라 부르노라."

그 말에 인내심이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당신은 오디세우스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부정하고, 마음속에 늘 불신만을 품고 있군요.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와 함께 말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는 즉시, 좋은 소식을 전한 대가로
내게 보상을 주십시오. 내게 겉옷과 튜닉, 그리고 좋은 의복을
입혀 주십시오.

그러나 그전에, 나의 궁핍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가난의 압박에 굴복하여 거짓
이야기를 늘어놓는 자는 내 눈에 하데스의 문만큼이나
가증스럽기 때문이다.

모든 신들 중에서 으뜸이신 제우스여, 그리고 이 환대의
식탁과 내가 찾아온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화로를 나의
증인으로 삼아주소서. 내가 말한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해 주소서.

오디세우스는 바로 오늘, 낡은 달이 기울고 새로운 달이
떠오를 때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돌아올 것이며, 이곳에서 그의 아내와
영광스러운 아들을 모욕하는 모든 자에게 복수할 것이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노인장이여, 내 생각에 나는 당신이 가져온 기쁜 소식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저 평온하게 술을 마십시다. 다른 일들에 마음을 돌립시다. 제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상기시키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의 선한 주인을 언급할 때마다 내 가슴은 참으로 슬픔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맹세는 그대로 둡시다. 다만 나 자신과 페넬로페, 그리고 노인 라에르테스와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오디세우스가 정말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오디세우스가 낳은 아들, 텔레마코스 때문에 끊임없이 슬퍼하고 있다.

신들이 그를 어린 나무처럼 쑥쑥 자라게 하셨을 때, 나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외모와 아름다움을 갖추어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멸의 신들 중 누군가가, 혹은 혹시 어떤 인간이 그의 내면에 깃든 지혜로운 정신을 망가뜨렸는지, 그는 아버지의 소식을 구하러 성스러운 필로스로 떠나버렸다.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위엄 있는 구혼자들이 매복하고 있다. 신과 같은 아르케시오스의 혈통이 이타카에서 멸절되어, 그 이름조차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는 붙잡힐 수도 있고, 혹은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크로노스의 아들이 손을 뻗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자, 이제 노인이여, 당신의 슬픔에 대해 내게 말해 주시오.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당신은 인간들 중에서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당신의 도시는 어디이며,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배를 타고 왔으며, 선원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타카로 데려왔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밝혔소? 내 생각에 당신은 결코 이곳에 걸어서 온 것은 아닌 듯하오."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하게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겠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대의 오두막 안에서 평온하게 음식을 먹고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일 수 있다면 좋겠구려. 다른 이들이 각자 할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말이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신들의 뜻에 따라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난, 즉 내 영혼이 겪은 비극의 이야기를 결코 다 끝내지는 못할 것이오.

"나는 혈통을 따라 넓은 크레타에서 왔다고 밝히겠소. 나는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오. 그의 저택에서는 정식 아내에게서 난 참된 아들들이 그 외에도 많이 태어나 자랐소.

그런데 나를 낳은 어머니는 돈을 주고 데려온 첩이었소. 그럼에도 내가 그 혈통에서 나왔다고 밝히는 힐락스의 아들 카스토르는, 나를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귀하게 대우해 주었소.

그 당시에 카스토르는 풍족한 재산과 부,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들들 덕분에 크레타 땅에서 신처럼 존경받는 이였소.

그렇지만 죽음의 운명이 그를 하데스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의 당당했던 아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나에게 아주 적은 몫을 주고 거처 하나를 할당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용맹함으로 넓은 재산을 가진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나는 약한 자도 아니었고, 싸움에서 겁쟁이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모든 힘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렇게 남은 그루터기를 보고 있다면, 그 알곡이 무엇이었을지 당신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온갖 고난이 나를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때 아레스와 아테나가 나에게 용기와, 인간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었다.

내가 적에게 재앙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매복할 최정예 전사들을 선발할 때마다, 나의 당당한 마음은 죽음을 예감하며 떨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어내렸고, 도망치며 내 앞에서 무너지는 적이라면 누구든 나의 창으로 죽였다.

나는 전쟁터에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들판에서 노동하는 일은 결코 내 취향이 아니었다. 훌륭한 자식들을 길러내는 가사 노동 또한 마찬가지였다.

노를 저어 배를 모는 일과 전쟁, 그리고 잘 닦인 창과 화살은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보통 몸서리치는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소중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이 내 마음에 심어준 것이었다. 사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트로이아 땅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나는 아홉 번이나 전사들과 빠르게 항해하는 배들을 이끌고 이민족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막대한 전리품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그 전리품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고, 그 후에는 추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하여 나의 집안은 즉시 부유해졌으며, 그 뒤로 나는 크레타인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멀리까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우스께서, 수많은 전사의 무릎을 힘없이 꺾어버린 그 가증스러운 여정을 계획하셨을 때, 사람들은 나와 영광스러운 이도메네우스에게 배들을 이끌고 일리오스로 가라고 명령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기에 거절할 방법은 없었다.

그곳에서 우리 아카이아인들은 아홉 해 동안 전쟁을 치렀고, 열 번째 해에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함락시킨 뒤 배를 타고 고향을 향해 떠났다. 그때 한 신이 아카이아인들을 흩어놓았다.

그렇지만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에게는, 조언자이신 제우스께서 악한 계획을 세우셨다.

나는 단 한 달 동안만 머물렀다. 그동안 나는 내 아이들과 결혼한 아내, 그리고 나의 재산에서 기쁨을 얻었다.

그 후 나는 배들을 정성껏 준비한 뒤, 신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집트로 항해하라는 마음의 이끌림을 따랐다.

나는 아홉 척의 배를 준비했고, 군대는 빠르게 모였다.

그 후 여섯 날 동안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은 잔치를 벌였다. 나는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희생물을 주었다.

일곱째 날에 우리는 북풍이 신선하고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운데, 넓은 크레타에서 배를 타고 출항했다. 배는 마치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순조롭게 나아갔다.

내 배들 중 어느 것에도 해가 생기지는 않았다. 우리는 상처도 입지 않았고 질병도 앓지 않은 채 앉아 있었으며, 바람과 키잡이가 배들을 인도했다.

“다섯째 날에 우리는 아름답게 흐르는 아이귑토스 강에 도착했다. 나는 아이귑토스 강에 나의 굽은 배들을 정박시켰다.

그러고 나서 나는 믿음직한 동료들에게 배 곁에 머물며 배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정찰병들을 보내 전망이 좋은 곳들을 살피게 했다.

그러나 나의 동료들은 방탕함에 굴복하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날뛰었다. 그들은 즉시 이집트 사람들의 아름다운 들판을 황폐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잡아갔고 남자들은 죽였다. 그 소동의 비명은 곧 도시까지 빠르게 전달되었다.

그때 함성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새벽녘에 밖으로 나왔다. 평원 전체가 보병들과 전차들, 그리고 번뜩이는 청동의 빛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벼락을 던지는 제우스께서 내 동료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내리셨다. 그 누구도 자리를 지키며 적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적들은 날카로운 청동 무기로 우리 중 많은 이를 죽였고, 다른 이들은 살려 잡아 그들의 도시로 끌고 가 강제로 노역을 시켰다.

제우스께서 바로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넣어 주셨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집트에서 죽어 운명을 다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뒤로도 슬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 잘 만든 투구와 어깨의 방패를 벗고 손에서 창을 놓은 다음 왕의 전차 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의 무릎을 붙잡고 입을 맞추자, 그는 저를 가엾게 여겨 구해 주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전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이들이 물푸레나무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그들은 몹시 분노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막아 세웠다. 그는 낯선 이의 신이자, 그 무엇보다 악행에 분노하시는 제우스의 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일곱 해를 머물렀고, 이집트인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기에 그들 사이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여덟 번째 해가 돌아왔을 때, 교활함에 능하고 탐욕스러운 악당인 페니키아인이 찾아왔다.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였다.

그는 교묘한 수법으로 나를 설득했고, 그의 집과 재산이 있는 페니키아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꼬박 일 년을 머물렀다.

그러나 마침내 달과 날들이 채워지고, 해가 돌고 계절이 바뀌어 갈 무렵, 그 남자는 나를 리비아로 향하는 항해용 배에 태웠다.

그는 내가 자신과 함께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려고 거짓된 조언을 했으나, 사실은 그곳에서 나를 팔아 막대한 돈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그의 교활함을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배에 올랐다.

배는 신선하고 기분 좋게 불어오는 북풍을 타고 크레타섬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 해역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 사람들에게 파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크레타를 떠나고, 하늘과 바다 외에는 그 어떤 땅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크로노스의 아들이 속이 깊은 배 위에 검은 구름을 드리웠다. 그러자 배 아래의 바다는 어둡게 변했다.

이어 제우스가 천둥을 치며 배 위로 번개를 내던졌다. 제우스의 번개에 맞은 배는 선수부터 선미까지 파르르 떨렸고, 유황 연기가 가득 찼다. 그 바람에 선원들은 모두 배 밖으로 떨어졌다.

선원들은 바다의 까마귀들처럼 검은 배 주변의 파도 위로 휩쓸려 다녔다. 신은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하지만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 제우스께서 친히 나에게 이물이 검은 배의 흔들리는 돛대를 쥐여 주셨다.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 돛대에 매달렸고, 무시무시한 바람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아홉 날 동안 그렇게 떠돌았으나, 열 번째 검은 밤이 되었을 때 거대한 파도가 나를 테스프로티아인의 땅으로 데려다주었다.

그곳에서 테스프로티아인들의 왕인 페이돈 주군이 나를 받아주었다. 그는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추위와 피로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아버지의 궁전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옷으로 입을 망토와 튜닉을 주어 입혔다.

"그곳에서 나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왕이 그를 대접했고, 그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환대해 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왕은 오디세우스가 수고를 들여 모은 청동과 금, 그리고 철로 된 모든 보물을 내게 보여주었다. 왕의 궁전에 쌓여 있는 그 재산이 어찌나 막대한지, 오디세우스가 죽은 뒤에도 그의 자손 열 대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왕의 말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도도나로 떠났다고 했다. 그곳 신의 수관 높은 참나무를 통해 제우스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땅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토록 오래 떠나 있다가 공개적으로 돌아가야 할지, 남몰래 돌아가야 할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집에서 제사 술을 부으며 제 앞에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사랑하는 고향으로 실어 갈 배가 이미 물에 내려졌고 사람들도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마침 테스프로티아인들의 배가 밀이 풍부한 둘리키온으로 출항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저를 그곳의 아카스토스 왕에게 정성껏 데려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 사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나자, 그들은 곧바로 나를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내 옷과 망토, 튜닉을 모두 벗겨내고는 다른 옷을 입혔다. 그것은 바로 네 눈앞에 보이는, 너덜너덜하고 비천한 망토와 튜닉이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눈에 잘 보이는 이타카의 경작된 들판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꼰 밧줄로 나를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 안에 단단히 묶어둔 채, 그들은 육지로 올라가 바닷가에서 서둘러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신들께서 나의 결박을 아주 쉽게 풀어 주셨다. 나는 누더기 망토를 머리에 뒤집어쓰고는 매끄러운 화물용 판자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가슴을 바다에 밀착시킨 뒤 양손으로 물을 저으며 헤엄쳐 나갔고, 머지않아 물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잎이 무성한 숲이 우거진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하지만 더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들은 다시 속이 깊은 그들의 배로 돌아갔다.

그리고 신들께서 친히 나를 쉽게 숨겨 주시고 인도하여, 한 지혜로운 이의 농가로 데려다주셨다. 어쩌면 여전히 나에게는 살아갈 운명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 불쌍한 이방인이여, 당신이 겪은 고난과 방랑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니 참으로 내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며, 그 이야기로 나를 설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처지에 놓인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오, 내 주인께서 돌아오시는 일에 관해서라면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신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전쟁의 실타래를 다 풀었을 때, 신들이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나 혹은 친구들의 품 안에서 주인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죽으셨다면 아카이아인 군대 전체가 주인님의 무덤을 세워 드렸을 것이고, 주인님께서는 훗날 아들에게도 커다란 영광을 안겨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의 영들이 주인님을 휩쓸어 가 버렸고, 아무런 소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돼지들과 함께 떨어져 지내고 있다. 현명한 페넬로페가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부르지 않는 한,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찾아온 이의 주위에 둘러앉는다. 오랫동안 떠나 있는 주인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이들과,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며 즐거워하는 이들이 모두 그를 꼼꼼히 심문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묻거나 조사하고 싶지 않다. 아이톨리아 사람이 나를 속였던 그날 이후로 말이다.

그는 사람을 죽인 뒤 넓은 세상을 떠돌다 우리 집까지 흘러 들어온 자였고, 나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크레타인들의 이도메네우스 집에서 오디세우스를 보았다고 말했다. 폭풍에 부서진 배들을 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름이나 수확기쯤에는 신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수많은 슬픔을 겪은 노인이여, 당신 또한 신이 나에게 당신을 데려다주었으니, 거짓말로 내 환심을 사려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를 구슬리려 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존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오. 오직 낯선 이를 돌보는 신인 제우스를 두려워함과,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오."

이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참으로 당신은 믿음이 더딘 마음을 품고 있구려. 내가 맹세까지 하며 말했음에도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고 믿게 만들지도 못했으니 말이오.

이제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신들이 앞으로 우리 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오. 만약 당신의 주인이 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나에게 옷과 튜닉을 입혀 의복을 갖추어 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둘리키온으로 나를 보내 주시오.

다만 만약 당신의 주인이 내가 말한 대로 오지 않는다면, 노예들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나를 거대한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거지가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선량한 돼지치기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여. 만약 당신을 내 오두막으로 데려와 대접해 놓고서, 나중에 당신을 죽여 그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다면, 저야말로 지금과 앞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참으로 훌륭한 명성과 번영을 얻게 되겠군요.

그런 뒤에야 참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저녁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제 동료들이 곧 이곳에 도착하여, 우리가 이 오두막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누었고, 돼지들과 돼지치기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은 암돼지들을 평소처럼 잠을 자는 우리에 가두었다.
돼지들이 우리에 갇히자 놀라운 소음이 일어났다.

그때 선량한 돼지치기가 동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가장 좋은 수퇘지를 가져오너라. 멀리서 온 이 이방인을
위해 그놈을 잡으리라. 그러면 다른 이들이 우리의 노고를
대가도 없이 가로채 먹는 동안, 흰 엄니를 가진 돼지들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과 고통을 견뎌온 우리도 이 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무자비한 청동 도끼로 나무를 쪼갰다.
다른 이들은 다섯 살 된 살찐 수퇘지를 끌어와 화롯가에
세웠다. 분별 있는 마음을 지닌 돼지치기는 불멸의 신들을
잊지 않았다. 먼저 흰 엄니 수퇘지의 머리털을 불에 던지고,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오도록 모든 신께
기도했다.

그런 뒤 몸을 일으켜, 장작을 쪼개다 남겨 놓은 참나무
토막으로 수퇘지를 쳤다. 수퇘지의 목숨이 끊어졌다.

다른 이들은 수퇘지의 목을 따고 털을 그슬린 뒤 재빨리 토막 냈다. 돼지치기는 각 부위에서 생고기 조각을 조금씩 떼어 첫 제물로 삼고 넉넉한 기름덩이에 얹었다. 보릿가루를 뿌린 뒤 불 속에 던져 바쳤다. 나머지 고기는 잘라 꼬챙이에 꿰어 조심스럽게 굽고, 모두 꼬챙이에서 빼내 접시들에 수북이 쌓았다.

그 후 돼지치기는 고기를 베어내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아는 마음을 가졌기에, 고기를 잘게 썰어 일곱 부분으로 나누었다.

돼지치기는 그중 한 부분을 기도를 올리며 님프들과 마이아의 아들 헤르메스를 위해 따로 떼어 두었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흰 엄니를 가진 수퇘지의 긴 등뼈 부위로 오디세우스를 대접하여 그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러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에우마이오스여,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나 그대가 내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예우를 갖추어 주니, 그대가 나에게 그러하듯 아버지 제우스에게도 그토록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불행한 이방인이여, 먹게나. 그리고 여기 차려진 음식을 즐기게나. 신이란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네. 그분은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네."

그는 말을 마치고 첫 몫의 고기를 영원한 신들께 바쳤다. 타오르는 듯한 포도주를 부어 제사를 올린 뒤 도시를 함락시키는 오디세우스의 손에 잔을 주고 제 몫 곁에 앉았다. 메사울리오스가 그들에게 빵을 내놓았다. 그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돼지치기가 혼자 마련한 종이었다.

안주인과 노인 라에르테스도 모르게 자기 재산으로 타포스인들에게서 사들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앞에 마련된 풍성한 음식에 손을 내밀었다.

먹고 마시려는 욕구가 채워지자 메사울리오스가 음식을 치웠다. 빵과 고기로 배가 부른 그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어 쉬고 싶어 했다.

마침내 달도 뜨지 않은 불길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제우스가 밤새도록 비를 뿌렸고, 늘 비를 몰고 다니는 서풍도 강하게 불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그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있으니, 그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오디세우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료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킬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그대의 부하들인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내 말을 들어다오. 내 마음속 소망을 담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 한다. 포도주가 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포도주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포도주를 마시면 나지막이
노래하고 웃게 만들며, 일어서서 춤을 추게 하고, 심지어는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말까지 내뱉게 만든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 젊어져서, 우리가 매복을 준비하고 트로이아의
성벽 아래로 이끌었던 그때처럼 기운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지휘관은 오디세우스와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였고, 제가 세 번째로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시와 높은 성벽에 닿자, 우리는 성 둘레의 갈대와 늪지 사이 우거진 덤불 속에서 무기 아래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북풍이 잦아든 뒤 험악하고 서리 내리는 밤이 왔습니다.

위에서 눈이 내려 차가운 서리처럼 우리를 덮었고, 방패 위에는 얼음이 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망토와 튜닉을 갖추고 있었고, 방패로 어깨를 덮은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출발할 때 망토를 동료들에게 남겨두고 왔다. 설령 이런 상황이 닥쳐도 춥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방패와 빛나는 킬트 하나만을 걸치고 온 것이었다.

밤의 세 번째 경비 시간이 되어 별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나는 내 곁에 있던 오디세우스에게 팔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며 말을 걸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즉시 귀를 기울였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이제 저는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망토가 없어서 추위가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저를 홀려 튜닉만 입게 했으니, 이제 더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방도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는 계획에도 싸움에도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카이아인이 듣지 않도록 이제 조용히 하게.’

“그는 팔꿈치로 버티고 머리를 일으켜 말했다. ‘친구들이여, 들어라. 잠결에 신들이 보낸 꿈이 왔다. 우리는 배에서 아주 멀리 와 있다. 군대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소식을 전할 이가 있으면 좋겠다. 배에서 병사들을 더 오게 명령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안드라에몬의 아들 토아스가 재빨리 일어났다. 토아스는 자신의 보랏빛 망토를 벗어 던지고는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옷 위에 누웠고, 황금빛 왕좌에 앉은 새벽이 나타났다.

아, 그때처럼 내가 젊고 기력이 굳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농장의 돼지치기 중 한 명이 친절함과 용맹한 전사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내게 망토를 내어주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기에, 그들은 나를 경멸할 뿐이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대답했다.

"노인장이여,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틀린 말도,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고난을 겪은 간청자가 누려야 할 옷가지나 그 외의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그 누더기를 다시 몸에 걸쳐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입을 만한 망토나 갈아입을 튜닉이 많지 않고, 남자마다 단 하나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게 되면, 그가 직접 너에게 입을 옷으로 망토와 튜닉을 줄 것이며, 네 마음과 정신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너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에우마이오스는 벌떡 일어나 불가에 오디세우스를 위한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 위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깔았다.

오디세우스가 그곳에 누웠고,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의 위에 크고 두툼한 망토를 덮어주었다. 에우마이오스는 끔찍한 폭풍이 몰아칠 때 갈아입을 옷으로 쓰기 위해 그 망토를 항상 곁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었고, 그 곁에서 젊은이들도 잠을 잤다.

하지만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수퇘지들과 떨어진 곳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에우마이오스가 주인의 재산을 이토록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먼저 에우마이오스는 날카로운 칼을 튼튼한 어깨 위로 던져 메고, 바람을 막기 위해 매우 두꺼운 망토를 몸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커다란 염소의 가죽을 집어 들었다. 또한 개나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날카로운 투창을 챙겼다.

그는 북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자, 흰 엄니를 가진 수퇘지들이 움푹 팬 바위 아래에서 잠을 자는 곳으로 잠을 자러 나갔다.

제15권

텔레마코스의 귀환

하지만 팔라스 아테나는 마음이 넓은 오디세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들에게 귀향을 상기시키고 그의 도착을
재촉하기 위해 드넓은 라케다이몬으로 갔다.

아테나는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궁전 앞쪽 현관에서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고귀한 아들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스토르의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달콤한 잠도 텔레마코스를 붙잡아 두지는 못했다.
불멸의 밤 내내 아버지를 향한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그를
깨어 있게 만들었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네 재산과 무례한 자들을 집에 남겨 둔 채
집에서 멀리 떠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들이 네
모든 소유를 나누어 가로채고 먹어 치우게 된다면, 너는 결실
없는 여정을 보낸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전장의 함성 소리에 능숙한 메넬라오스를 깨워라. 그가 너를 길을 떠나보내 주어야 네가 고귀한 어머니가 아직 집에 계실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페넬로페에게 에우리마코스와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에우리마코스는 다른 모든 구혼자들보다 예물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오며, 구혼을 위한 선물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네 뜻에 반하여 네 궁전에서 보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여인은 자신과 결혼하는 남자의 가문을 번창시키고 싶어 하지만, 일단 옛 남편이 죽고 그들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면, 예전 남편의 자식들과 그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어서 가거라. 신들이 너에게 고귀한 신부를 보여줄 때까지, 네가 보기에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하녀에게 네 모든 재산을 맡겨 두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테니, 이를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구혼자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이타카와 험준한 사모스 사이의 해협에서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매복하고 있다. 그들은 네가 고향 땅에 도착하기 전에 너를 살해하려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재산을 탕진하는 구혼자들 중 많은 이가 먼저 땅에 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배를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두어라. 그리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항해를 계속해라. 그러면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불멸의 신들 중 한 분이 네 뒤로 순풍을 보내 주실 것이다.

네가 이타카의 가장 가까운 해안에 다다랐을 때, 배와 모든 동료를 도시로 보내라. 하지만 너 자신은 무엇보다 먼저, 네 돼지들을 돌보며 너에게 친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돼지치기에게로 가라.

그곳에서 밤을 지내며, 그에게 도시로 가서 지혜로운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해라. 네가 무사하며 필로스에서 왔다고 전하라고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높은 올림포스로 떠났다.

그렇지만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의 아들을 달콤한 잠에서 깨웠다. 텔레마코스는 발꿈치로 그를 툭 건드려 깨우며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어나라,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여. 불타는 발굽을 가진 말들을 끌고 와서 수레에 메어라. 우리가 어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말이다."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대답하며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서두르고 싶다 한들, 칠흑 같은 밤을 뚫고 나아갈 수는 없네. 곧 새벽이 밝아올 것이네.

그러니 창술로 유명한 아트레우스의 아들, 전사 메넬라오스가 예물을 가져와 전차에 싣고, 다정한 작별 인사를 건네며 우리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세.

손님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주인에게 평생토록 감사하는 법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자, 곧 황금빛 왕좌를 가진 새벽이 찾아왔다.

그때 전장의 함성 소리에 능숙한 메넬라오스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헬레네의 곁에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인 왕자가 메넬라오스를 보자,
그는 서둘러 밝은 튜닉을 몸에 걸치고 강인한 어깨 위로
커다란 망토를 던지듯 두른 뒤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가
메넬라오스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자이며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이신 메넬라오스여, 이제 마침내 저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전쟁의 함성을 잘 내지르는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텔레마코스여, 네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너를
이곳에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으마. 오히려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으로서 너무 과하게 환대하거나 너무 과하게 미워하는
자를 나는 꾸짖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도가 있는
법이다.

떠나기를 꺼리는 손님을 재촉하는 것이나,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손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나 똑같이 잘못된 일이다.
주인은 지금 와 있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며, 떠나고자
하는 손님은 기꺼이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와 네 마차에 실어 줄 테니, 네 눈으로 직접 그것들을 확인하거라. 그리고 내가 여인들에게 명하여, 안에 넉넉히 저장된 음식으로 홀에 식사를 차리게 하겠다.

여행자가 넓고 끝없는 대지를 가로질러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은, 명예와 영광뿐만 아니라 이득까지 가져다주는 두 배의 은혜다.

만약 네가 헬라스와 아르고스 중부를 여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이다. 내가 너를 위해 말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너를 인간들의 도시로 인도하겠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며, 적어도 우리가 가져갈 만한 물건 하나는 줄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청동 세발솥이든, 솥이든, 노새 한 쌍이든, 아니면 황금 잔이든 말이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자이며 군대를 이끄는 자이신 메넬라오스여, 저는 차라리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떠날 때 제 재산을 지켜볼 사람을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과 같은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죽거나, 제 궁전의 귀한 보물들이 사라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투에 능한 메넬라오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와 시녀들에게 안에 넉넉히 저장된 음식으로 홀에 식사를 차리라고 즉시 명령했다.

그때 보에토스의 아들 에테오네우스가 그에게 다가왔다. 에테오네우스는 메넬라오스의 거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에,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참이었다.

전투 함성을 잘 내지르는 메넬라오스는 에테오네우스에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라고 명령했다. 에테오네우스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리고 메넬라오스 자신도 둥근 천장이 있는 보물 창고로 내려갔다. 메넬라오스는 혼자 가지 않았으며, 헬레네와 메가펜테스가 그와 함께 내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보물이 보관된 곳에 이르렀을 때,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는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잔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아들 메가펜테스에게 은으로 된 혼합용 그릇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헬레네는 자신이 직접 수놓은 화려한 옷들이 들어 있는 궤짝들 앞으로 다가갔다.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그중에서 자수가 가장 아름답고 폭이 가장 넓은 옷 하나를 들어 올려 가져갔다. 그 옷은 별처럼 빛났으며, 다른 모든 옷의 맨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집 안을 지나 텔레마코스에게로 갔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크게 천둥을 울리시는 헤라의 남편 제우스께서 그대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의 귀환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내 집에 보물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나는 그대에게 잘 만들어진 혼합용 그릇을 주겠소. 그것은 온통 은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는 헤파이스토스의 솜씨로 금을 입혔다오. 시돈인들의 왕인 전사 파이디모스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의 집에서 나를 대접하며 내게 준 것이니, 이제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소."

그렇게 말하며,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전사는 두 손잡이가 달린 잔을 그의 손에 놓아주었다.

이에 힘센 메가펜테스가 빛나는 은제 혼합용 그릇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뺨이 고운 헬레네가 손에 옷을 들고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건넸다.

"보아라, 사랑하는 아이야, 나 또한 네게 이 선물을 주마. 이것은 네가 그토록 기다려온 결혼식 날, 네 신부가 몸에 걸칠 수 있도록 헬레네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 줄 물건이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네 사랑하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네 궁전에 두도록 하거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는, 네가 튼튼하게 지어진 집과 고향 땅에 기쁨 속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것을 그의 손에 놓아주었고, 그는 기쁘게 그것을 받았다.

왕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 선물들을 가져다가 전차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 선물들을 바라보았다.

이에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그들을 집으로 인도했다. 두 사람은 의자와 높은 좌석에 앉았다.

여종이 아름다운 황금 주전자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왔고, 은대야에 물을 부어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종은 그들 곁에 윤이 나는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살림을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와 그들 앞에 놓았고, 자신의 비축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고기와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냈다.

보에토스의 아들이 고기를 썰어 몫을 나누어 주었고,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아들은 포도주를 따랐다.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를 모두 채운 뒤에, 텔레마코스와 영광스러운 네스토르의 아들은 말들에게 마구를 채우고 상감장식된 전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들은 대문과 메아리치는 현관을 지나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들 뒤를 이어 아트레우스의 아들, 금발의 메넬라오스가 뒤따라왔다. 메넬라오스는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 포도주를 부어 신들께 바칠 수 있도록, 오른손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황금 잔을 들고 있었다.

메넬라오스는 말들 앞에 서서 청년들을 위해 축배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잘 가거라. 그리고 군대를 돌보는 목자인 네스토르에게 안부를 전해주렴.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트로이아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는 참으로 나에게 아버지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단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예, 왕이시여,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으시는 분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분께 이 모든 일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타카로 돌아갔을 때, 오디세우스를 그의 집에서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나기 전 당신의 손길을 통해 얼마나 큰 친절을 입었는지 그에게 말해주고, 수많은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독수리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그 독수리는 발톱에 마당에서 기르는 길들여진 새인 크고 하얀 거위 한 마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남녀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들 앞쪽의 오른쪽으로 휙 날아갔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으며, 모두의 가슴 속에는 활기가 돋았다.

그들 중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자여, 군대를 이끄는 자여, 메넬라오스여. 신께서 보여주신 이 징조가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렇게 말하자,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는 이 징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명철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

그런데 긴 옷을 입은 헬레네가 그를 대신해 말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불멸의 신들이 내 마음에 넣어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대로 예언하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친족들이 있고 태어난 곳인 산에서 내려와, 집에서 자란 거위 한 마리를 낚아챈 것처럼, 오디세우스도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방랑을 거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복수를 할 것입니다.

혹은 그가 이미 집에 돌아와서, 모든 구혼자들에게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다시 그녀에게 대답했다.

"크게 천둥을 울리시는 헤라의 남편 제우스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그곳에서 당신을 신처럼 받들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말을 하며 두 마리의 말에게 채찍질을 하자, 말들은 도시를 지나 평원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갔다.

그들은 하루 종일 목에 멍에를 멘 채 힘차게 달렸다. 해가 저물자 모든 길은 어둠에 잠겼다.

그들은 알페우스가 낳은 오르틸로코스의 아들, 디오클레스의 집이 있는 페라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을 지냈고, 디오클레스는 그들에게 나그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대접을 했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말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상감 장식이 된 전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성문과 메아리치는 현관을 지나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말을 출발시키려고 채찍으로 말들을 건드렸다. 두 마리의 말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파른 필로스의 성채에 도착했다.

그때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의 아들에게 말을 건넸다.

"네스토르의 아들이여, 내가 명한 대로 지금 나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느냐?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의 우정 때문에 스스로를 옛 친구라 부르며, 게다가 우리는 나이도 같다. 이번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이여, 나를 내 배가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데려가지 말고 그곳에 내려다오. 그 노인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하여, 내가 반드시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에 반해 나를 자기 집에 붙잡아 두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게 말하자, 네스토르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약속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말들을 돌려 빠른 배와 바닷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메넬라오스가 텔레마코스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들과 의복, 그리고 황금을 꺼내어 배의 선미에 실었다.

그는 텔레마코스를 재촉하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제 어서 배에 올라타거라. 내가 집에 도착해서 그 노인에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네 모든 동료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일러두어라.

나는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다. 그 노인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너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직접 이곳으로 와서 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건대, 그는 너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몰아 필로스인들의 도시로 돌아갔고, 빠르게 궁전에 도착했다.

그때 텔레마코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사람들아, 검은 배의 모든 장비를 정돈해라. 우리도 어서 배에 올라타서 길을 서둘러 떠나자."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다.

그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좌석에 앉았다.

그는 참으로 이와 같이 분주히 움직이며, 배의 선미에서 아테나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온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사람을 죽였기에 아르고스를 탈출하여 도망치던 중이었다.

그 남자는 예언자였다.

그는 옛날에 양 떼의 어머니라 불리는 필로스에 살았던 멜람포스의 혈통이었다. 멜람포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필로스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풍족한 집안을 일구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낯선 이들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과, 살아있는 사람들 중 가장 위엄 있는 군주였던 마음 굳센 넬레우스로부터 도망쳐야 했다.

넬레우스는 일 년 내내 무력을 사용하여 멜람포스로부터 많은 재산을 빼앗아 두었다.

한편 멜람포스는 필라코스의 궁전에서 쓰라린 결박에 묶인 채 누워 있었다. 그는 넬레우스의 딸 때문에 겪는 고통과,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는 여신 에리니스가 자신에게 내린 끔찍한 마음의 눈멂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에서 벗어났다. 멜람포스는 필라케에서 필로스까지 깊은 울음소리를 내는 소 떼를 몰고 갔으며, 신과 같은 넬레우스가 저지른 잔인한 행위에 대해 복수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자신의 형제의 아내로 삼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다.

그 후 멜람포스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인,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로 떠났다. 그곳에서 많은 아르고스인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맞이하여 지붕이 높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건장한 두 아들, 안티파테스와 만티오스를 낳았다.

안티파테스는 마음이 넓은 오이클레스를 낳았고, 오이클레스는 군대를 불러 모으는 자인 암피아라오스를 낳았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와 아폴론은 암피아라오스를 온갖 종류의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아꼈다.

하지만 암피아라오스는 노년의 문턱에 이르지 못하고, 한 여인이 받은 선물들 때문에 테베에서 죽었다. 그에게는 알크마에온과 암필로코스라는 아들들이 태어났다.

한편 만티오스는 폴리페이데스와 클레이토스를 낳았다.

금빛 왕좌를 가진 새벽은 클레이토스가 불멸의 신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를 앗아갔다.

그러나 마음이 드높은 폴리페이데스에 대해서는, 암피아라오스가 죽은 뒤에 아폴론이 그를 필멸자들 중 단연 최고인 예언자로 만들었다.

폴리페이데스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하이페레시아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 머물며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했다.

그의 아들인 테오클리메노스가 지금 나타나 텔레마코스의 곁에 섰다.

테오클리메노스는 텔레마코스가 그의 빠르고 검은 배 곁에서 포도주를 부어 신들께 바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테오클리메노스는 입을 열어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친구여, 그대가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대의 제물과 신을 걸고, 또한 그대 자신과 그대를
따르는 동료들의 목숨을 걸고 간청하노라. 내가 묻는 것을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주게. 그대는 인간들 중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대의 도시는 어디이며,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타카 태생이며, 나의
아버지는 오디세우스입니다. 정녕 한때 그런 분이 계셨건만,
지금은 비참한 운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동료들을 데리고 검은 배를 타고,
오랫동안 떠나 계신 아버지의 소식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에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저 또한 제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제 친족 중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르고스의 말
목초지에 사는 수많은 형제와 친척들이 있으며, 그들은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검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고자 도망치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들 사이를 떠도는 것이 저의 운명인 듯합니다.

그러니 저를 당신의 배에 태워 주십시오. 도망치는 길에 그들이 저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저를 뒤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당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니, 내가 결코 당신을 이 아름다운 배에서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텔레마코스는 테오클리메노스로부터 청동 창을 건네받아 굽은 배의 갑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텔레마코스 자신도 항해하는 배에 올라탔다.

텔레마코스는 배의 선미에 앉았고, 테오클리메노스에게도 그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의 부하들이 선미의 밧줄을 풀었다.

텔레마코스는 부하들을 불러 장비를 잡으라고 명령했고, 부하들은 즉시 그 명령에 따랐다. 부하들은 전나무 돛대를 들어 올려 오목한 받침대에 끼워 넣고 앞쪽 지지줄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소가죽을 꼬아 만든 줄을 사용하여 하얀 돛을 끌어 올렸다.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들에게 유리한 바람을 보내주었다. 아테나가 하늘을 통해 강하게 바람을 불게 하자, 배는 빠르게 속력을 내며 바다의 짠물을 가로질러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크로니를 지나,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는 칼키스를 지나갔다.

이제 해가 저물고 모든 길이 어두워졌다.

배는 제우스가 보내준 바람을 타고 속도를 내어 페아이에 가까워졌고, 에페이오스인들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엘리스를 지나쳐 갔다.

그곳으로부터 그는 다시 뾰족한 섬들을 향해 키를 잡았다.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붙잡히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오디세우스와 선량한 돼지치기는 오두막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오디세우스는 그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돼지치기가 여전히 자신을 친절하게 돌보며 농장에 머물라고 권할지, 아니면 자신을 도시로 보내버릴지 시험해 보기 위해 말을 건넸다.

"이제 잘 들어라,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아. 내가 너와 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내일 아침에는 구걸하러 도시로 나갈 생각이다.

그러니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다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길잡이를 보내주어라. 하지만 도시 안에서는 나 혼자 헤매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물 한 잔과 빵 한 덩이라도 줄 수 있을지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다.

그래, 그리고 나는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가서 지혜로운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구나. 만약 그 무례한 구혼자들이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준다면, 그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싶다. 그들은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해 보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즉시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도우며 훌륭한 시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할 테니, 너는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전령으로서 모든 사람의 일에 은총과 영광을 빌려주는 헤르메스의 은총을 입어, 불을 잘 피우고, 마른 땔감을 쪼개고, 고기를 썰고 굽고, 포도주를 따르는 일 등, 비천한 사람들이 귀한 분들을 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는 마음이 크게 동하여 그에게 말했다.

"아, 이방인이여,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 구혼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려 하신다면, 당신은 참으로 그곳에서 완전히 죽기를 자처하는 셈입니다. 그들의 방탕함과 폭력은 쇠로 된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그들을 섬기는 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이들은 망토와 튜닉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이며, 그들의 머리와 빛나는 얼굴은 언제나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또한 잘 닦인 탁자에는 빵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아니, 여기 머물러라. 네가 여기 있다고 해서 괴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그렇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오면, 그가 직접 너에게 망토와 튜닉을 입혀 의복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과 정신이 가라고 이끄는 곳 어디로든 너를 보내 줄 것이다."

인내심 강하고 선량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여, 그대가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아버지 제우스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네. 그대가 나를 방랑과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니 말이네.

방랑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악한 것은 없다네. 하지만 인간은 저주받은 배를 채우기 위해, 방랑과 슬픔과 고통이 닥쳐와도 온갖 악한 재앙을 견뎌내곤 하지.

이제 그대가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며 주인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자, 내게 말해주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노년의 문턱에 남겨두고 떠나온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일세.

혹시 그분들이 아직 태양 빛 아래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죽어서 하데스의 집으로 가셨나요?”

사람들을 이끄는 돼지치기가 대답했다. “나그네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에르테스는 아직 살아 계시지만 집
안에서 목숨이 사지를 떠나기를 늘 제우스께 기도하십니다.
떠난 아들과 지혜로운 아내를 생각하며 한없이
슬퍼하십니다. 아내의 죽음이 그분을 가장 괴롭게 하여 때
이르게 늙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빛나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사는 제 친구나 저를 친절히 대하는 그
누구도 그런 죽음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비록 슬픔 속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것이 내게는 언제나 기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내딸이자 고귀한 자식인, 긴 옷을 입은
크티메네와 함께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크티메네와 함께 자랐으며, 그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친자식들보다 거의 못하지 않게 귀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 둘이 그리워하던 청춘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결혼시키려고 사메로 보냈다.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혼인 예물을 받았다.

나에게는 달랐다. 나의 여주인께서는 나에게 아주 훌륭한 옷인 망토와 튜닉을 입혀 주셨고, 발에 신을 샌들도 주시며 나를 들판으로 보내 주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나를 더욱 사랑해 주셨다.

이제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다. 비록 나 개인으로서는, 내가 정성을 들이는 일들이 복된 신들의 도움으로 번창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는 그 일들로 먹고 마셨으며, 존경스러운 이방인들에게도 대접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나의 여주인에게서는 말이나 행동에서 그 어떤 즐거운 것도 들을 수 없다. 집안에 재앙이 닥쳤고,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여주인 앞에서 말하고 모든 것을 알아내며, 먹고 마시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 후에 들판으로 가져갈 무언가를 챙겨가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인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 말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에우마이오스라는 돼지치기여, 그대는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고향과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떠돌아다녔던 모양이구려.

자, 이제 내게 말해주시오.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그대의 아버지와 존경받는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길이 넓은 인간들의 도시가 함락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대가 양이나 소를 치며 혼자 있을 때 적들이 그대를 배에 태워 잡아갔고, 그대에게 좋은 값을 치른 이 주인에게 그대를 팔아넘긴 것인가?"

사람들을 이끄는 돼지치기가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렇게 물으시니 여기 앉아 포도주를 마시며 즐겁게 잠자코 들어 보십시오. 밤은 참으로 깁니다. 잘 때도 있고 이야기를 들으며 즐길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누울 필요가 없습니다. 잠도 너무 많이 자면 피곤한 법입니다.

다른 이들은 마음이 내키면 나가서 자고, 동이 트면 먹은 뒤 주인님의 돼지들을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둘은 오두막에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며, 우리가 기억해 내는 서로의 비통한 고통을 나누며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겪고 멀리 떠돌아다닌 사람이라면, 훗날
누구라도 고통 속에서조차 즐거움을 찾는 법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네가 묻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해주겠다.

"혹시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으나, 태양이 회전하는 곳인
오르티기아 위에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섬이 있다.

그곳은 사람이 아주 많이 살지는 않지만, 가축이 풍부하고 양
떼가 많으며, 포도주가 넘쳐나고 밀이 풍성한 좋은 땅이다.

그 땅에는 기근이 결코 찾아오지 않으며, 불행한
필멸자들에게 끔찍한 질병이 닥치는 일도 없다.

다만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은활을 든 아폴론이
아르테미스와 함께 찾아와 그들에게 부드러운 화살을 쏘아
그들을 죽게 한다.

그 섬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고, 온 땅은 그 두 도시 사이에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신들과 같은 사람인 나의 아버지, 오르메노스의 아들
크테시오스가 두 도시 모두를 왕으로서 다스렸다.

“그곳에 배로 유명한 페니키아인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악당들로, 검은 배에 셀 수 없이 많은 장신구를 싣고 왔다.

마침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아름답고 키가 크며, 영광스러운 수공예 기술에 능숙한 페니키아 여인이 살고 있었다.

교활한 페니키아인들이 그 여인을 속였다. 먼저, 그중 한 명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속이 깊은 배 옆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며 누웠다. 비록 정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여인의 마음을 홀리는 법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여인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우리 아버지의 지붕이 높은 집을 그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청동이 풍부한 시돈에서 왔습니다. 재물이 물줄기처럼 흘러들던 아뤼바스의 딸입니다. 들판에서 돌아오던 저를 타포스인 해적들이 붙잡아 이곳으로 데려와 저 남자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느라 좋은 값을 치렀습니다.’

“그녀와 남몰래 동침한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다시 고향에 가서, 지붕 높은 부모님의 집과 두 분을 만나고 싶은가? 두 분은 분명 아직 살아 계시고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들 선원들이 저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맹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선원들은 그녀가 명한 대로 모두 그 일에 맹세했다.

그런데 선원들이 맹세를 마치자, 여인은 다시 그들 사이에서 말을 이어가며 대답했다.

“‘이제 입을 다물어 주세요. 거리나 우물에서 저를 만나더라도 당신들 중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마세요. 누가 궁전에 가서 늙은 왕에게 알리면, 왕은 의심하여 저를 단단히 묶고 당신들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고 물건을 교역하는 일을 서두르세요.

배에 화물이 다 실리면 궁전에 있는 제게 곧 알려 주세요. 저도 손에 닿는 금을 가져가겠습니다. 게다가 뱃삯으로 다른 것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 고귀한 주인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궁전에서 그 아이의 유모입니다. 아주 영리해서 늘 저와 함께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제가 아이를 배에 데려오겠습니다. 낯선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팔러 어디로 데려가든 당신들은 큰 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떠났다.

그들은 우리 땅에 꼬박 일 년 동안 머물렀고, 속이 깊은
그들의 배에 무역품을 가득 실어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그들의 배가 돌아가기 위해 짐을 가득 실었을 때,
그들은 그 여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다.

교활함에 능숙한 한 남자가 금목걸이를 들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금목걸이에는 호박 구슬이 사이사이
꿰어져 있었다.

홀에 있던 처녀들과 나의 존경하는 어머니가 그 목걸이를
만져보고 바라보며 그에게 값을 치르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침묵을 지키며 여인에게 고개만 까딱였다.

그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그는 자신의 길을 따라
배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내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갔다.

궁전의 앞쪽 현관에서 그녀는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연회객들이 쓰던 잔과 탁자들을 발견했다. 연회객들은
회의장과 민회장으로 나간 상태였다.

그 여인은 재빨리 세 개의 잔을 품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갔고,
나는 부주의하게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해가 저물었고,
모든 길은 어둠에 잠겼다.

우리는 서둘러 아름다운 항구로 갔고, 그곳에는
페니키아인들의 빠른 배가 있었다. 그들은 배에 올라탔고
우리 둘도 함께 배에 태웠다. 그들은 바닷길을 항해했고,
제우스께서 그들에게 유리한 바람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밤낮으로 엿새 동안 항해했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가져다주셨을 때,
궁수 아르테미스가 그 여인을 내리쳤다. 그 여인은 바다새가
급강하하듯 배 밑창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물개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도록
바다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몹시 아픈 채로 홀로
남겨졌다.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실어 나른 끝에, 마침내 그들은
이타카에 도착했다. 그곳은 라에르테스가 자신의 재산으로
나를 사들인 곳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 눈이 이 땅을 보게 되었다."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에우마이오스여, 그대가 마음속에 품어온 그 슬픈 이야기를 모두 들려줌으로써 진실로 내 가슴을 깊이 울렸소. 하지만 그대의 경우에는 제우스께서 악한 일과 함께 좋은 일도 함께 내려주셨구려.

그대는 그 모든 고생 끝에 친절한 사람의 집으로 왔으니, 그가 그대에게 음식과 술을 친절하게 대접하며 그대는 잘 지내고 있지 않소. 반면 나는 수많은 인간의 도시를 떠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소.”

그들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잠을 잔 시간은 길지 않았고 잠시뿐이었다. 곧 아름다운 왕좌를 가진 새벽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사이 텔레마코스의 동료들은 해안가로 다가가 돛을 접고 돛대를 재빨리 내렸다. 그리고 노를 저어 배를 정박지로 몰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류용 돌을 던져 내리고 선미의 밧줄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 후 그들은 직접 바닷가로 나가 식사를 준비하고 불타는 듯한 포도주를 섞었다.

그런데 그들이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를 가라앉혔을 때,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검은 배를 저어 도시로 가거라. 나는 들판과 목자들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내 땅들을 둘러본 뒤 저녁에 도시로 돌아가마.

내일 아침에는 너희의 여정에 대한 보답으로, 고기 요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있는 훌륭한 잔치를 차려 주겠다."

그러자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바위투성이인 이타카를 다스리는 이들 중 누구의 집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니면 네 어머니의 집과 네 집으로 곧장 가야 하겠느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사정이 다르면 우리 집으로 가시라고 하겠지요. 나그네를 대접할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고 어머니도 만나 주시지 못할 테니 당신께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구혼자들 앞에 자주 나오지 않고 떨어진 위층 방에서 베를 짜십니다.

대신 가실 만한 다른 사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폴리보스의 빛나는 아들 에우리마코스입니다. 이타카
사람들은 지금 그를 신처럼 우러러봅니다.

그는 단연코 가장 뛰어난 사람이며, 나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오디세우스의 영광을 누리기를 가장 갈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거하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는
결혼 전에 자신이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닥치게 할지
아닐지를 알고 계신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폴론의 빠른 전령인 매 한 마리가
오른쪽에서 날아올랐다. 그 매는 발톱으로 비둘기 한 마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배와 텔레마코스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비둘기를 쪼아 깃털을 땅 위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때 테오클리메노스가 동료들로부터 그를 따로 불러냈다.
테오클리메노스는 그의 손을 맞잡고는 그에게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여, 분명 신의 허락 없이는 이 새가 우리의
오른편으로 날아오르지 않았을 것이네. 내가 그 새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징조를 알리는 새라는 것을 알았네.

이타카 땅에서 자네의 집보다 더 왕다운 집은 없네. 아니,
자네들은 언제나 최고라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다시 대답했다.

“아, 이방인이여, 당신의 그 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즉시 저의 친절과 수많은 선물을 알게 될 것이니, 당신을 만난 이가 당신을 복되다 말할 것입니다.”

그는 믿음직한 동료인 페이라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클리티오스의 아들 페이라이오스여, 다른 일들에서 너는 나와 함께 필로스로 갔던 내 모든 동료들보다 나를 가장 잘 따르곤 했지. 그러니 이제 부탁하노니, 이 이방인을 데려가 네 집에서 친절하게 맞이해다오.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에게 예우를 갖추어 대접해다오.”

그러자 유명한 창술사인 페이라이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텔레마코스여, 당신이 이곳에 오래 머물게 되더라도 내가 그를 대접하겠습니다. 그가 나그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대접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페이라이오스는 배에 올라탔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직접 배에 올라타 선미의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다.

동료들은 즉시 배에 올라타 노를 젓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발 아래에 고운 샌들을 묶고, 배의 갑판에서 날카로운 청동 촉이 달린 커다란 창을 집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선미의 밧줄을 풀었다.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명령한 대로, 사람들은 배를 밀어내어 도시를 향해 항해했다.

그러나 그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발걸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수많은 돼지들이 있는 농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걸어갔다. 그곳에는 주인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닌 덕망 있는 돼지치기가 돼지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제16권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한편 오두막 안에 있던 오디세우스와 선량한 돼지치기는 불을 피워 새벽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돼지 떼와 함께 목자들을 이미 내보낸 상태였다.

그러나 텔레마코스가 다가올 때, 사냥개들은 짖기는커녕 그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인품이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개들이 애교를 부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발소리 또한 그의 귀에 들려왔다.

오디세우스는 즉시 에우마이오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에우마이오스, 분명히 자네의 동료 중 누군가가 오고 있거나, 적어도 자네가 아는 사람인 모양이군. 사냥개들이 짖지 않고 그 사람 주위를 맴돌며 애교를 부리고 있네. 게다가 발소리도 들리는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문간에 서 있었다.

에우마이오스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불타는 듯한 포도주를 섞느라 분주히 움직이던 그의 손에서 그릇들이 떨어졌다.

에우마이오스는 주인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는 텔레마코스의 머리와 아름다운 두 눈, 그리고 두 손에 입을 맞추었고, 에우마이오스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먼 나라에서 십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다정한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았다.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슬픔을 견뎌 온 아버지처럼, 선량한 돼지치기는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를 품에 안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인 양 온몸에 입 맞추었다. 그는 울며 날개 돋친 말로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네가 왔구나, 텔레마코스, 내 눈의 달콤한 빛이여. 네가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난 뒤로는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줄로만 알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사랑하는 아이야. 다른 땅에서 막 돌아온 너를 내 집에서 바라보며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구나.

너는 농장이나 목자들을 자주 찾아오지 않고 마을에만 머물러 있더구나. 아마도 파괴적인 구혼자 무리를 지켜보는 것이 네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구나."

이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를 제 눈으로 직접 뵙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여전히 집안에 머물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다른 남자가 어머니와 결혼하여 오디세우스의 침상이 혹시 더러운 거미줄로 덮인 채 침구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사람들의 지도자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예,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왕님께서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당신의 집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여왕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돼지치기는 텔레마코스에게서 청동 창을 건네받았다. 텔레마코스는 안으로 들어가 돌로 된 문턱을 넘었다.

텔레마코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아버지 오디세우스는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만류하며 말했다.

"낯선 이여, 앉으십시오. 우리 농장 다른 곳에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뒤로 물러나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돼지치기는 텔레마코스를 위해 바닥에 푸른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양털을 덮어주었으며,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곳에 앉았다.

그러자 돼지치기는 전날 식사 때 남겨두었던 구운 고기 접시들을 그들 앞에 놓았다. 그리고 바구니에 빵을 빠르게 가득 채우고, 담쟁이덩굴 나무 그릇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섞어 준비했다. 돼지치기 자신도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들이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욕구를 모두 채우고 나서, 텔레마코스가 선량한 돼지치기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이 이방인은 어디에서 당신에게 왔나요? 선원들은 그를 어떻게 이타카로 데려왔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말했나요? 제 생각에 그는 결코 걸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아이야, 내가 네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마. 그는 자신이 넓은 크레타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신이 자신에게 정해준 운명에 따라 인간들이 사는 수많은 도시를 떠돌며 방랑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테스프로티아인들의 배에서 도망쳐 나와 나의 농장으로 왔다. 그러니 이제 그를 네 손에 맡기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는 스스로를 너의 간청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자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여, 당신이 방금 한 말은 참으로 내 마음을 찌르는군요. 내가 어떻게 이 이방인을 내 집에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젊을 뿐이며, 누군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 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에 관해서라면, 어머니의 마음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다.

남편의 침소를 존중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대청에서 어머니에게 구애하며 가장 많은 구혼 선물을 바치는 아카이아인 중 가장 뛰어난 자를 따라 지금 떠나버릴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나 진실로, 이 이방인에 관해서라면, 그가 이제 네 집에 왔으니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인 망토와 튜닉을 입혀 주겠다. 또한 그에게 양날 검과 발에 신을 샌들을 주어, 그의 마음과 정신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보내 주겠다.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그를 여기 농가에 머물게 하며 네가 돌보아라. 그러면 그가 너와 네 사람들에게 파멸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곳으로 옷과 먹을 모든 음식을 보내 주겠다.

하지만 나는 그가 구혼자들의 무리에 합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례하고 방자함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나그네를 조롱할까 두렵고, 그로 인해 나에게 슬픔이 닥칠까 걱정된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진실로 그들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오래 견뎌 온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친구여, 나도 대답해도 될 것이오. 그토록 훌륭한 그대를 무시하며 구혼자들이 집에서 그런 방자한 짓을 꾸민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오. 말해 보시오. 그대는 그런 억압을 원해서 받는 것이오? 아니면 온 백성이 신의 목소리를 따라 그대를 미워하는 것이오?

큰 싸움이 나도 믿고 의지할 형제들을 탓할 일이 있는 것이오?

지금의 이 마음 그대로 내가 그대처럼 젊거나, 허물없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거나, 오디세우스 자신이라면 좋겠소. 그렇다면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집에 가서 그들 모두를 파멸시키지 못할 경우, 어떤 나그네든 당장 내 목에서 머리를 잘라도 좋겠소.

그러나 만약 그들이 수로 나를 압도한다면, 홀로 남겨진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 수치스러운 광경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느니, 차라리 내 집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낯선 이들이 함부로 대접받고, 사내들이 아름다운 홀 안에서 하녀들을 수치스럽게 끌고 다니며, 술을 낭비하여 쏟아버리고, 사람들이 내 빵을 아무런 주의도 없이 끝도 없이 마구 먹어 치우는 꼴을 차마 볼 수 없다.”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저에게 아무런 원망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큰 다툼이 일어난다 해도,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형제들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우리 가문을 단 한 줄기로 이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르케시오스는 외아들 라에르테스를 낳았고, 라에르테스도 외아들 오디세우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외아들인 저를 낳아 이 집안에 남겨두었으나, 저로 인해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셀 수 없이 많은 적이 지금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둘리키온과 사메, 그리고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를 다스리는 모든 군주와, 바위투성이인 이타카를 지배하는 자들이 모두 내 어머니를 차지하려 구애하며 내 집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어머니는 그 가증스러운 혼인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끝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구혼자들은 잔치를 벌이며 내 재산을 축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나마저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참으로 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아버지, 서둘러 가 주십시오. 그리고 페넬로페에게 제가 무사하며 필로스에서 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녀에게만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다른 아카이아인들에게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듣는 저도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이것을 말해주십시오. 사실대로 밝혀주십시오.

불쌍한 라에르테스에게도 소식을 전하러 같은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는 한동안 오디세우스를 몹시 그리워하며 슬퍼하면서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전히 밭을 돌보고 집안의 노예들과 함께 먹고 마시곤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난 날부터, 사람들은 그가 예전처럼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밭을 돌보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앉아 울기만 할 뿐이며, 살은 뼈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군요. 하지만 우리가 슬프더라도 그를 그대로 두어야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날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소식을 전한 뒤에 곧장 돌아오십시오. 라에르테스를 찾아 들판을 헤매지 마시고요. 대신 제 어머니께 집안 살림을 맡은 여종을 몰래 급히 보내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여종이 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이 말을 마친 그는 돼지치기를 재촉했다. 돼지치기는 손에 샌들을 들고 발에 묶은 뒤 도시를 향해 나아갔다.

아테나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농가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테나는 아름답고 키가 크며 훌륭한 수공예 기술을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오두막 문 앞에 섰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눈앞에 있는 아테나를 보지 못했고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신들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와 사냥개들은 그녀를 보았다. 사냥개들은 짖지 않고, 오히려 낑낑거리며 두려움에 떨며 농장의 저편으로 슬그머니 숨어버렸다.

그녀가 눈썹을 움직여 신호를 보냈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 오디세우스는 홀에서 나가 마당의 커다란 담장을 지나 그녀 앞에 섰다.

이에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에게 말을 건넸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지금 네 말을 네 아들에게 들려주어라. 그 말을 숨기지 마라. 그래야 너희 둘이 구혼자들의 죽음과 운명을 계획한 뒤에, 저 유명한 도시로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나 또한 너를 오래 떠나 있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전투를 치르고 싶어 간절하구나."

아테나는 이 말을 하며 황금 지팡이로 오디세우스를 건드렸다. 아테나는 먼저 깨끗이 씻은 망토와 튜닉을 그의 가슴 위에 걸쳐 주었고, 그의 키를 키우고 젊은 활기를 더해주었다.

오디세우스의 피부색은 다시 검게 변했고, 뺨은 통통하게 차올랐으며, 턱 주변의 수염도 검게 자라났다.

아테나가 이와 같이 일을 마친 뒤 떠나자, 오디세우스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앞의 인물이 신일까 봐 겁이 나 눈을 돌렸다.

텔레마코스는 입을 열어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낯선 분이시여, 당신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입고 계신 옷도 다르고, 안색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드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 중 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정성껏 만든 황금 선물과 당신께 기쁨이 될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만 저희를 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인내심 강하고 선량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거라. 어찌하여 나를 불멸의 존재들과 비교하느냐?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나 때문에 신음하며 수많은 슬픔을 견뎌내고, 사람들의 폭력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고, 뺨에서 눈물 한 방울을 땅으로 흘려보냈다. 그전까지 그는 줄곧 꿋꿋이 눈물을 참아 왔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그는 아직 눈앞의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았기에—다시 대답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아닙니다. 어떤 신이 나를 속여서, 내가 더욱 울고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뜻대로 그를 젊게 만들거나 늙게 만들지 않는 한, 필멸의 인간이 자신의 지혜만으로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으나, 지금은 드넓은 하늘을 거느린 신들과 같으십니다."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네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것을 너무 놀라워하거나 경탄할 필요는 없단다. 이곳에 다른 오디세우스가 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확신해도 좋다.

고난과 수많은 방랑을 겪은 끝에, 바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인 내가 스무 해 만에 마침내 나의 고향 땅에 돌아왔단다.

그러나 너는 이것이 전리품을 이끄는 아테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녀는 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데,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어떤 때는 거지처럼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몸에 고운 옷을 걸친 젊은이처럼 만들기도 한다.

넓은 하늘을 지탱하는 신들에게는 필멸의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도, 비하하는 일도 모두 쉬운 법이다."

그렇게 말한 뒤 오디세우스는 자리에 앉았다. 텔레마코스는 고귀한 아버지를 두 팔로 껴안고 울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슬픔에 잠기고 싶은 갈망이 일었다.

그들은 굽은 발톱을 가진 바다수리나 독수리보다 더 격렬하게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시골 사람들이 깃털도 다 나지 않은 새끼들을 둥지에서 가로채 갔을 때의 그 새들처럼, 그들도 눈썹 아래로 애처롭게 눈물을 흘렸다.

만약 텔레마코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울음소리 위로 태양의 빛이 저물어 버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선원들이 어떤 배를 타고 당신을 이곳 이타카로 데려왔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말했나요? 제 생각에 당신은 분명 걸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닐 테니까요."

인내심이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주마. 배로 유명한 파이아케스인들이 나를 데려다주었다. 그들은 누구든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이라면 누구라도 길을 떠나보내 주는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내가 바다 위 빠른 배에서 잠든 사이에 나를 데려왔고, 나를 이타카에 내려주었다. 그리고 청동과 금, 그리고 짠 옷감들을 가득 담은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내게 주었지. 신들의 은총 덕분에, 이 보물들은 지금 동굴 안에 놓여 있단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테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으니, 우리 원수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구혼자들의 수를 세어 나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자들인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야 내가 고결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우리 둘이서만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그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이들도 찾아 나서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진실로 아버지의 위대한 명성을 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손의 힘도 강하고 지혜로운 조언도 뛰어난 전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서 저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 그것도 강력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혼자들은 열 명이나 스무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는 곧 그들의 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리키온에서 뽑힌 청년 쉰둘이 왔고 하인 여섯이 따릅니다. 사메에서는 스물넷, 자킨토스에서는 아카이아 청년 스물이 왔습니다. 이타카 자체에서는 가장 고귀한 자 열둘이 왔습니다. 전령 메돈과 신성한 가객, 고기를 써는 데 능한 시종 둘도 함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이 모두와 맞서면, 폭력에 복수하러 오신 아버지의 귀환이 쓰라린 파멸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둘을 기꺼이 도울 조력자가 떠오르시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인내심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너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버지 제우스와 함께하는 아테나가 우리 두 사람에게 충분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도움을 줄 이를 떠올려야 할지 잘 생각해보아라."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우스와 함께하는 아테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도와주신다면, 당신이 언급한 그 두 분의 도움은 확실히 충분할 것입니다. 비록 그분들이 구름 높은 곳에 머물며, 모든 인간과 불멸의 신들을 똑같이 다스리실지라도 말입니다."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내 궁전에서 구혼자들과 우리 사이의 싸움이 벌어져 아레스의 힘이 시험대에 오를 때, 저 두 신이 그 격렬한 싸움에서 그리 오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새벽에 집으로 가서 오만한 구혼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거라.

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슬프고 늙은 거지 모습을 한 나를 돼지치기가 도시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 집에서 나를 멸시한다 해도, 내가 모욕을 당하는 동안 너는 가슴속에 인내를 품어야 한다. 그들이 내 발을 붙잡고 끌어 집 문 앞까지 끌고 가거나, 나에게 물건을 던지고 나를 때린다 해도, 너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견뎌야 한다.

너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며 그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그들의 파멸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테니, 너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가 풍부한 아테나가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가 너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내겠다. 너는 그 신호를 알아채는 즉시, 네 집안에 놓인 모든 전쟁 무기를 가져다가 높은 창고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하나하나 치워 두어라.

그리고 구혼자들이 무기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속이며 이렇게 말하거라.

"'연기 속에서 그것들을 꺼내 놓았단다. 그 무기들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로 떠날 때 남겨두었던 옛것들과는 더 이상 같지 않구나. 불길의 숨결이 닿은 곳까지 모두 더러워졌기 때문이지.

게다가 크로노스의 아들이 내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을 심어 주었단다. 혹시라도 너희가 포도주에 취해 열이 올랐을 때, 서로 다툼을 일으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힘으로써 너희의 잔치와 구혼을 수치스럽게 만들까 두렵구나. 철제 무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니까.'

“하지만 우리 둘을 위해서는 칼 두 자루와 창 두 자루, 소가죽 방패 두 개를 남겨라. 달려가 곧 집어 들 수 있게 말이다. 구혼자들은 팔라스 아테나와 지혜로운 제우스께서 속이실 것이다. 또 하나 말할 테니 마음에 새겨라.

정말 네가 내 아들이고 우리 혈육이라면, 오디세우스가 집에 왔음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라에르테스도, 돼지치기도, 다른 집안사람도, 페넬로페 자신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너와 나 둘이서 여인들의 마음을 알아보자.

남종들도 여럿 시험하여, 누가 마음으로 우리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지, 누가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훌륭한 너를 업신여기는지 살펴보자.”

이에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대답했다.

“아버지, 제 마음은 결코 나약하지 않으니, 나중에 제 마음이 어떤지 분명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우리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 부디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버지가 농가들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일일이 시험하는 동안, 아버지는 오랫동안 헛수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사이 당신의 궁전에서는 다른 자들이 안락하게 지내며 무례하게도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을 제지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들 중 누가 아버지를 욕보이고 누가 죄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농장의 남자들을 시험하러 다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징조를 아신다면, 그 일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지요."

그들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사이 텔레마코스와 그의 동료들을 태우고 필로스에서 온 튼튼한 배가 이타카로 들어왔다. 그들이 깊은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검은 배를 해안가로 끌어올렸다.

자부심 넘치는 젊은이들은 갑옷을 밖으로 메고 나와, 아름다운 선물들을 곧장 클리티오스의 집으로 운반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령을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보내어,
지혜로운 페넬로페에게 텔레마코스가 농장에 있으며 배는
도시로 가라고 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는 고귀한
왕비가 불안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전령과 선량한 돼지치기는 여주인에게 소식을
전하려는 동일한 임무를 띠고 두 사람 모두 만났다.

그들이 신과 같은 왕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전령은 하녀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했다.

“여왕님, 지금 막 당신의 아들이 필로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돼지치기는 페넬로페에게 다가가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내용을 말해주었다.

돼지치기가 명령받은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다 전한 뒤에,
그는 돼지들에게로 가기 위해 안뜰과 홀을 떠났다.

그렇지만 구혼자들은 당황하여 낙담했다. 그들은 홀을 나와
궁전의 커다란 담장을 지나갔고,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 중에서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참으로 텔레마코스가 무례하게도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번 여정 말이다. 우리는 그가 결코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자,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검은 배를 띄우자. 그리고 노를 저을 선원들을 모으자. 그들이 즉시 소식을 전하여, 다른 이들이 신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자.”

암피노모스가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 깊은 항구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은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는 사람들이 돛을 접고 손에 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즐겁게 웃음을 터뜨리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소식을 전하러 보낼 필요는 없겠군. 그들이 이미 여기 집에 와 있지 않은가. 어떤 신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나가는 텔레마코스의 배를 보았으나 미처 붙잡지는 못한 모양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다. 사내들은 검은 배를 해안가로 빠르게 끌어올렸고, 당당한 젊은이들은 그들의 갑옷을 메고 나왔다.

그동안 그들은 모두 함께 회의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른 누구도 자신들과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보라, 이제 신들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셨는지 보아라. 날마다 파수꾼들이 바람 부는 높은 언덕에 앉아 밤낮으로 교대로 경계를 섰다. 해가 질 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해안가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

우리는 텔레마코스를 붙잡아 그를 직접 죽이기 위해, 우리의 빠른 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항해하며 빛나는 새벽을 기다리며 매복했다. 그런데 그사이 어떤 신께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었구나.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바로 텔레마코스에게 비참한 죽음을 선사할 계책을 세우자. 그가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 계책과 지혜에 능하니, 백성들이 이제 더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서 서두르자. 그가 아카이아인들을 모아 집회 장소로 모이기 전에 말이다.

그는 결코 행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일어나, 우리가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결국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악한 행위를 듣게 된다면 우리를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조국에서 쫓아내어,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이나 길 위에서 그를 붙잡는 것이다.

그의 재산과 부는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 다만 그의 집만은 그의 어머니가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그녀와 결혼할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하자.

그러나 만약 이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가 살아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지키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의 즐거운 재산들을
계속해서 축내지는 맙시다. 대신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선물을 바치며 그녀를 구애하고, 그녀를 얻으려 노력합시다.

그러면 페넬로페는 가장 많은 것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그녀의 운명적인 남편으로서 찾아오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이에 암피노모스가 그들의 집회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아레티아스의 아들인 군주 니소스에게서
태어난 빛나는 아들이었다.

그는 밀과 풀이 풍부한 둘리키온에서 온 구혼자들을 이끌고
있었다. 또한 암피노모스는 이해심 깊은 마음을 지녔기에,
무엇보다도 말솜씨로 페넬로페를 기쁘게 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
이는 바로 그였다.

“친구들이여, 나는 결코 텔레마코스를 죽이는 쪽을 택하지 않겠소. 왕족을 죽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오. 아니, 우선 신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만약 위대한 제우스의 신탁이 이를 승인한다면, 내가 직접 그를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모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겠소.

그러나 만약 신들이 우리를 그 행위로부터 돌려세운다면, 여러분도 그만두기를 바라오.”

암피노모스가 이와 같이 말하자,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매끄럽게 닦인 좌석에 앉았다.

이에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오만방자하게 구는 구혼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령 메돈으로부터 궁전에 있던 그녀가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메돈은 구혼자들의 모의를 엿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시녀들을 데리고 홀을 향해 나아갔다. 아름다운 여인이 구혼자들에게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잘 지어진 홀의 문설주 옆에 서서 빛나는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안티노오스를 꾸짖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오만함이 가득하고 악을 꾸미는 자, 안티노오스여! 그런데도 이타카 땅의 네 또래 가운데 네가 가장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계책과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말이다. 하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모양이구나. 미친 자여! 왜 텔레마코스의 죽음을 꾸미며, 제우스가 증인이 되어 지키는 탄원자를 돌보지 않느냐? 서로 해칠 음모를 꾸미는 것은 불경하다. 네 아버지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집으로 도망쳐 왔던 일을 모르느냐?

그는 타포스인 해적들과 어울려 우리와 동맹한 테스프로티아인들을 약탈했다. 그래서 백성이 네 아버지에게 몹시 분노했다.

그들은 네 아버지를 죽여 강제로 목숨을 빼앗고, 크고 풍요로운 재산을 모조리 삼키려 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그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막았다. 이제 너는 그분의 집을 대가도 없이 축내고 아내에게 구혼하며 아들을 죽이려 해 내게 큰 고통을 준다. 명하노니 그만두고, 다른 이들도 그만두게 해라."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대답했다. “이카리오스의 딸, 지혜로운 페넬로페여, 기운을 내시고 마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 땅 위의 빛을 보는 동안 당신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손댈 자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며, 태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저 남자의 검은 피가 내 창 주위로 흘러넘칠 것이다. 도시를 함락시키는 자 오디세우스는 진실로 나를 자주 당신 무릎에 앉히셨으며, 내 손에 구운 고기를 쥐여주고 내 입술에 붉은 포도주를 가져다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텔레마코스는 나에게 모든 사람 중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에게 적어도 구혼자들로 인한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신들로부터 오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에우리마코스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 아들에게는 죽음을 꾸미고 있었다.

그리하여 페넬로페는 빛나는 자신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녀의 눈꺼풀에 달콤한 잠을 내려줄 때까지, 사랑하는 남편인 오디세우스를 슬퍼하며 울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자 선량한 돼지치기가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한 살 된 수퇘지를 잡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아테나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갔다. 아테나는 지팡이로 그를 쳐서 다시 노인으로 만들었다.

또한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몸에 초라한 옷을 입혔다. 돼지치기가 오디세우스를 보고 그를 알아차려, 마음이 변치 않는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돼지치기가 그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텔레마코스가 돼지치기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훌륭한 에우마이오스여, 당신이 오셨군요. 성안에는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오만한 구혼자들이 그들의 매복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묻고 조사하며 도시를 돌아다닐 마음이 없었다. 내 마음은 소식을 전한 뒤에는 즉시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그렇지만 네 동료 중 한 명인 발 빠른 전령이 나에게 합류했다. 그 전령은 네 어머니에게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더 알고 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길을 가던 중에 헤르메스의 언덕이 있는 도시 위쪽에 있었는데, 그때 빠른 배 한 척이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배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방패와 양 끝이 뾰족한 창들로 가득 실려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확실히 아는 바는 없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강인하고 용맹한 텔레마코스는 미소를 지으며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돼지치기의 눈은 피했다.

그들이 노동을 마치고 식사를 준비했을 때, 그들은
본격적으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잔치가 차려져 있었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그들은 휴식을 생각하며
잠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였다.

제17권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는 발에 예쁜 샌들을 묶고 손에 꼭 맞는 강력한 창을 들었다.

텔레마코스는 서둘러 도시로 향하며 자신의 돼지치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도시로 가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셔야 하니까요. 제 생각에 어머니는 저를 직접 보시기 전까지는 슬픈 통곡과 눈물 어린 애도를 멈추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불쌍한 이방인을 도시로 인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그가 음식을 구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마음이 내키는 사람은 그에게 빵 한 덩이와 물 한 잔을 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여, 모든 사람을 다 돌보며 저 자신을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방인이 이 일로 크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에게 더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한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친구여, 나도 여기 남고 싶은 것은 아니니 그 점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거지는 들판보다 도시에서 구걸하는 편이 낫소. 마음 내키는 이가 내게 먹을 것을 줄 것이오. 나는 이제 농장에 머물며 감독자의 모든 명령을 따를 나이가 지났소. 그대는 길을 가시오.

내가 불에 몸을 녹이고 햇볕이 따뜻해지면, 그대가 명한 이 사람이 나를 데려갈 것이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초라해서, 아침 서리가 나를 덮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시가 너무 멀다고 말하는군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농가 밖으로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그리고 구혼자들에게 악의 씨앗을 뿌렸다.

텔레마코스가 위엄 있는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을 높은 기둥에 기대어 세워 두었다. 그러고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 돌로 된 문턱을 넘었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 위에 양털을 펴고 있다가, 그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곧장 달려갔다. 그러자 마음이 확고한 오디세우스의 다른 하녀들도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녀들은 사랑을 담은 환영의 뜻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아르테미스나 황금빛 아프로디테와 같았다.

페넬로페는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하는 아들을 두 팔로 껴안았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와 아름다운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페넬로페는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 네가 왔구나, 내 눈의 달콤한 빛이여. 네가 배를 타고 필로스로 떠났을 때, 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 나도 모르게 몰래, 그리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떠나버린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할 줄로만 알았다. 자, 어서 와서 네가 그를 어떻게 보았는지 내게 말해주렴."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발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완전히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제 가슴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대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그러고 나서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가 모든 신에게 서약하십시오. 언젠가 제우스께서 보답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대한 희생제를 올리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저는 집회 장소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필로스에서부터 저를 따라온 이방인을 우리 집으로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나의 신성한 동료들과 함께 앞서 보냈다. 그리고 페이라이오스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가 친절하게 환영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예우를 갖추어 대접하라고 일렀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페넬로페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제우스가 언젠가 보응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대한 희생제를 올리겠다고 모든 신에게 맹세했다.

그런데 그 후 텔레마코스는 손에 창을 들고 홀을 가로질러 나갔고, 날랜 사냥개 두 마리가 그를 따랐다.

아테나가 그에게 내려준 은총은 경이로웠다. 그가 다가오자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경탄했다.

오만한 구혼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

그럼에도 텔레마코스는 그 많은 사람의 무리를 피했다. 대신 그는 옛날부터 아버지 집안의 친구였던 멘토르와 안티포스, 그리고 할리테르세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그들이 텔레마코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그때 유명한 창술사인 페이라이오스가 다가와, 낯선 이를 데리고 도시를 지나 집회 장소로 안내했다.

텔레마코스는 손님에게서 오래도록 눈을 돌리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페이라이오스가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어서 내 집으로 여인들을 보내라. 그래야 내가 메넬라오스가 네게 주었던 선물들을 너에게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페이라이오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네. 만약 오만한 구혼자들이 내 집 안에서 나를 몰래 죽이고, 내 아버지들의 모든 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진다면, 나는 이들 중 누구보다 자네가 이 물건들을 직접 간직하고 누리기를 바라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들에게 죽음과 운명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자네도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 집으로 가져오게나."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몹시 지친 이방인을 집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위엄 있는 저택에 도착하자, 그들은 의자와 높은 좌석 위에 겉옷을 내려놓고 윤이 나는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다.

하녀들이 그들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준 뒤, 보들보들한 망토와 튜닉을 입혀주자 그들은 목욕탕에서 나와 의자에 앉았다.

한 하녀가 아름다운 금제 주전자에 손을 씻을 물을 담아 가져왔다. 하녀는 그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은제 대야에 물을 부어준 뒤, 그들 곁에 윤이 나는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살림을 맡은 점잖은 여인이 빵을 가져와 그들 앞에 놓았고, 자신의 비축물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고기와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냈다.

텔레마코스의 어머니 페넬로페는 홀의 문설주 옆 의자에 기대앉아 고운 실을 뽑으며 텔레마코스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들 중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텔레마코스, 나는 정말로 내 위층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울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일리오스로 떠난 날 이후로, 그 침대는 내 눈물로 늘 젖어 있어 나에게 통곡의 침대가 되어버렸구나.

그렇지만 너는 혹시라도 네 아버지의 귀환에 대해 들은 것이 있다면, 오만한 구혼자들이 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구나."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어머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로스에 가서 백성의 목자 네스토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높은 집으로 저를 맞아 친절히 대접했습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듯, 빛나는 아들들과 함께 저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마음 굳센 오디세우스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땅 위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스토르는 말과 연결된 마차를 내게 보내어, 유명한 창술가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에게로 나를 가게 했다.

그곳에서 나는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보았다. 신들의 뜻에 따라 아르고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이 그녀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전투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는 내가 어찌하여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에 왔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가 나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그놈들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스스로는 겁쟁이들이면서, 용맹한 마음을 가진 남자의 침상에 누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말이다.

마치 강력한 사자의 덤불 굴속에 암사슴이 갓 태어난 새끼들을 눕혀 놓고 잠들게 한 뒤, 먹이를 찾아 산비탈과 풀이 우거진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사자가 굴로 돌아와 그 둘에게 잔혹한 파멸을 내리는 것과 같다. 오디세우스도 이 자들에게 그와 같은 잔혹한 파멸을 내릴 것이다.

오, 제우스 아버지와 아테나여, 그리고 아폴론이시여. 제가 간절히 바라옵건대, 오디세우스가 예전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레스보스에서 필로멜레이데스와 맞붙어 싸워 그를 힘차게 내동댕이쳤을 때와 같은 기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아카이아인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디세우스가 그런 힘을 가지고 구혼자들 사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혼자들은 구애하는 과정에서 모두 신속한 파멸과 비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내게 묻고 간청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나는 결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곁길로 새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속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는 바다의 노인이 내게 말해준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당신에게 숨기거나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 노인은 오디세우스가 한 섬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칼립소라는 님프의 궁전에
머물고 있었으며, 칼립소는 그를 강제로 그곳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에게는 넓은 바다를 건너 길을 떠나게 해 줄 노가 달린
배도, 동료들도 곁에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창술사,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에 나는 집을 향해 떠났고,
불멸의 신들은 나에게 순풍을 내려주어 내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빠르게 데려다주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페넬로페의 가슴 속에는 동요가 일었다.

그때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도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하는 아내여, 그는 참으로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확실한 지식으로 그대에게 예언할 것이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리라.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제우스와, 내가 찾아온 이 환대하는 식탁과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화로를 나의 증인으로 삼노니, 오디세우스는 진실로 지금 고향 땅에 있다.

그는 그곳에서 쉬거나 움직이며 이 악한 일들을 알아가고 있으며, 모든 구혼자들을 위해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나는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에 앉아 있는 동안, 그토록 분명한 징조의 새를 목격했고 텔레마코스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 이방인이여, 당신의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즉시 저의 친절과 수많은 선물을 알게 될 것이며, 당신을 만난 사람은 당신을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말을 나누었다.

그사이 오디세우스의 궁전 앞에서는 구혼자들이 평소처럼 오만한 마음으로 원반 던지기와 투창 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들판 사방에서 양 떼들이 몰려오고, 평소에 그 가축들을 몰던 이들이 양 떼를 몰고 들어왔을 때였다.

그때 모든 전령 중 구혼자들이 가장 좋아하며 연회마다 늘 함께하던 메돈이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젊은이들아, 이제 너희 모두가 운동으로 마음을 즐겁게 했으니, 우리가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집으로 오너라. 제때에 식사를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일어나 그의 말을 따르며 길을 떠났다.

그들이 위엄 있는 저택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의자와 높은 좌석 위에 겉옷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커다란 양과 살찐 염소, 그리고 살찐 돼지와 무리에 있던 암소 한 마리를 잡기 시작하며 식사를 준비했다.

한편, 오디세우스와 선량한 돼지치기는 들판에서 도시로 서둘러 가고 있었다. 사람들을 이끄는 자인 돼지치기가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낯선 이여, 주인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도시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니 이제 함께 갑시다. 사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남아 농장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인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주인님께서 나를 꾸짖으실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의 꾸짖음은 매섭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 곧 저녁이 되어 날씨가 추워질 것입니다.”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알겠네, 명심하겠네. 그 말을 듣는 나도 분별이 있다네. 자, 어서 가세. 가는 길 내내 자네가 나를 안내해 주게.

다만, 어디선가 깎아 놓은 지팡이가 있다면 내가 짚고 갈 수 있도록 하나 주게나. 자네가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말을 마치고, 꼰 끈에 매달린 구멍 많은 초라한 주머니를 어깨에 둘렀다. 에우마이오스는 그에게 마음에 드는 지팡이를 주었다. 두 사람이 길을 떠났고 개들과 목자들은 농장을 지키려고 남았다. 돼지치기는 자기 주인을 도시로 이끌었다.

오디세우스는 슬프고 늙은 거지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몸에 걸친 옷도 초라했다.

그러나 그들이 험한 길을 따라가다 도시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긷는 잘 만들어진 아름답게 흐르는 샘에 다다랐다.

이 샘은 이타코스, 네리토스, 폴뤼크토르가 만든 것이었다. 샘 주변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미루나무 숲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바위 위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다. 샘 꼭대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제물을 바치는 님프들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돌리오스의 아들 멜란티오스가 암염소 떼를 몰고 가다가 그들을 만났다. 그 염소들은 구혼자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 위해 모든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었다. 두 명의 목동이 멜란티오스를 따라 함께 가고 있었다.

멜란티오스가 그들을 보자, 그는 말을 걸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멜란티오스는 끔찍하고 품위 없는 말들로 그들을 모욕하며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보시오, 참으로 비열한 자가 비열한 자를 이끌고 있구려. 신께서는 언제나처럼 비슷한 부류끼리 모이게 하시는군.

이보시오, 가련한 돼지치기여, 당신은 이 더러운 불행한 자를 어디로 데려가서 우리의 잔치를 망치려는 것이오? 이 자는 칼이나 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수많은 문설주에 어깨를 문지르고 다닐 사람이라오.

만약 당신이 이 자를 내 농장을 돌보고, 우리를 쓸고, 새끼 염소들에게 어린 싹을 가져다주는 일에 쓰게 해준다면, 그제야 이 자가 유청이라도 마시며 튼튼한 허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저 자는 오직 악한 행위만을 배워왔기에, 일에 몰두하며 힘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구걸을 하여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배를 채우려고 땅 위를 몰래 돌아다닐 생각만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저 자가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궁전으로 온다면, 사람들이 손으로 던지는 수많은 발받침이 머리 주변으로 날아들고, 집 안에서 퍼붓는 그것들이 그의 갈비뼈에 부딪혀 깨질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지나가면서, 어리석게도 오디세우스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길에서 쫓겨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지팡이로 그를 내리쳐 목숨을 끊어야 할지, 아니면 그를 껴안아 들어 올려 머리를 땅에 내동댕이쳐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참아냈고, 원래 하려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돼지치기는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 보고 꾸짖으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기도했다.

"샘의 님프들이여, 제우스의 딸들이여, 만약 오디세우스가 풍성한 지방을 씌운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의 넓적다리 살을 여러분의 제단 위에서 태운 적이 있다면,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의 주인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신이 그를 인도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그가 돌아온다면, 악한 목자들이 양 떼를
망가뜨리는 동안 도시를 떠돌며 지금 당신이 오만함 속에서
부리는 그 거만한 태도를 모두 흩어버릴 것입니다."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대답했다. "보아라, 저 개 같은 자가
못된 생각을 품고 떠드는구나. 언젠가 저자를 노 젓는 자리가
있는 검은 배로 이타카에서 멀리 데려가 큰돈을 벌겠다.
은활의 아폴론이 오늘 집 안에서 텔레마코스를 치거나
구혼자들이 그를 죽이기를!

먼 나라의 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의 날이 사라진 것만큼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멜란티오스는 천천히 걷는 두 사람을 뒤에
남겨 둔 채 성큼성큼 가서 왕의 궁전에 재빨리 닿았다. 그는
곧 들어가 구혼자들 사이, 누구보다 좋아하는
에우리마코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종들이 고기 한 몫을
놓아 주었고, 살림을 맡은 점잖은 여인이 먹을 빵을 내놓았다.

오디세우스와 선량한 돼지치기는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속이 빈 리라의 소리가 둘레에 울렸다. 페미오스가
구혼자들 앞에서 노래하려고 현을 뜯고 있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에우마이오스여, 이곳은 분명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집이로군. 많은 집 사이에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야.

건물 위에 건물이 이어져 있고, 마당은 담장과 덮개로 잘 쌓여 있으며, 이중 문에는 울타리까지 잘 쳐져 있으니, 그 어떤 사람도 이 집을 경멸하지 못할 것이네.

그리고 집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군.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에서 풍겨 나오고, 신들이 잔치의 동반자로 만들어 주신 리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말일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아주 쉽게 알아차렸군요. 모든 일에 있어 당신은 참으로 영리하니까요.

자,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생각합시다. 당신이 먼저 위엄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 구혼자들 사이에 들어가고 내가 여기 남든지, 아니면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여기 남고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지체하지는 마십시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밖에서 당신을 보고 돌을 던지거나 때릴지도 모르니까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십시오."

오래 견뎌 온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알겠소, 명심하겠소. 그 말을 듣는 나도 분별이 있소. 그대가 먼저 가고 나는 여기 남겠소. 매질과 돌팔매가 낯설지 않소. 파도와 전쟁에서 많은 고통을 견뎌 내 마음은 굳건하오. 이번 일도 지난 시련에 더해지면 그만이오.

그렇지만 탐욕스러운 배는 누구도 숨길 수 없소.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저주받은 재앙이지. 그 배 때문에 노 젓는 배들도 준비되어 쉬지 않는 바다 너머의 적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누었다.

그때 그곳에 누워 있던 사냥개 한 마리가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다. 바로 오디세우스의 사냥개 아르고스였다.

아르고스는 마음이 굳건한 주인을 모시던 개로, 오래전에 오디세우스가 직접 길러낸 개였다. 하지만 그 개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오디세우스는 신성한 일리오스로 떠났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야생 염소와 사슴, 그리고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이 사냥개를 데려가곤 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떠나버린 탓에, 개는 방치된 채 누워
있었다. 오디세우스의 노예들이 넓은 땅에 거름을 주러
가져가기 전까지, 노새와 소의 배설물이 문 앞에 더미로 쌓여
있는 그 깊은 오물 속에 개는 있었다.

사냥개 아르고스는 벌레가 가득한 채 그곳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오디세우스가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아르고스는 꼬리를 흔들고 두 귀를 늘어뜨렸다.
그러나 아르고스는 주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옆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냈고, 자신이
한 행동을 에우마이오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재빨리 숨겼다.

그리고 곧바로 에우마이오스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했다.

"에우마이오스여, 참으로 이 사냥개가 여기 배설물 속에 누워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로다. 이 개는 겉모습은 훌륭하나, 그
아름다움에 걸맞은 발놀림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저
주인들이 과시하기 위해 기르는 식탁 곁에 두는
애완견들처럼 그러한지는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겠구나."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참으로 이 개는 먼 땅에서 죽은 어떤 사람의 사냥개입니다. 만약 이 개가 오디세우스가 그를 남겨두고 트로이아로 떠날 때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개의 속도와 힘을 보고 곧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 그가 몰아낸 사냥감은 무엇이든 도망칠 수 없었으며, 냄새로 자취를 따르는 데도 예민했습니다.

지금 아르고스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의 주인은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으며, 부주의한 여자들은 그를 돌보지 않는다.

주인이 권력을 잃으면 노예들은 더 이상 정직하게 봉사하려 하지 않는다. 멀리까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우스께서, 노예의 날이 닥친 사람에게서는 그 가치의 절반을 앗아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위엄 있는 저택으로 들어가 귀족적인 구혼자들이 모여 있는 연회장으로 곧장 향했다.

그러나 아르고스는 오디세우스를 스무 해 만에 본 직후, 검은 죽음의 운명이 즉시 그를 덮쳤다.

돼지치기가 홀을 가로질러 올 때,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가 그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텔레마코스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여 그를 불러 자신의 곁으로 오게 했다.

에우마이오스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근처에 놓인 의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의자는 구혼자들이 홀에서 잔치를 벌일 때, 고기를 써는 시종이 그들을 위해 여러 부위의 고기를 썰며 앉곤 하던 것이었다.

에우마이오스는 의자를 가져와 텔레마코스의 식탁 맞은편에 놓은 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전령이 고기 한 점을 가져와 에우마이오스 앞에 놓아주었고, 바구니에서 빵도 가져다주었다.

그의 뒤를 바짝 따라 오디세우스는 슬프고 늙은 거지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몸에 걸친 옷은 비참할 정도로 남루했다.

오디세우스는 문 안쪽의 물푸레나무 문턱에 앉았다. 그는 옛날에 목수가 정교하게 대패질하여 직선으로 곧게 만든 사이프러스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었다.

이에 텔레마코스가 돼지치기를 자신에게 불렀다.
텔레마코스는 아름다운 바구니에서 빵 한 덩어리를 통째로 꺼내고,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만큼의 고기를 모두 집어 들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받아서 저 낯선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구혼자들 모두를 찾아다니며 구걸하라고 일러라. 궁핍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수치심은 결코 좋은 동료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뒤, 돼지치기는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와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낯선 이여, 텔레마코스가 이것들을 당신에게 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혼자들 모두에게 구걸하라고 전하라 합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제우스 왕이시여, 부디 텔레마코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을 받고, 그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받쳐 들고는 자신의 초라한 주머니 위에 발치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악사가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신성한 악사의 노래가 잦아들 무렵, 구혼자들은 홀 전체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테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곁으로 다가가, 그에게 구혼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빵 부스러기를 모으고 그들 중 누가 의로운 자이며 누가 법을 어기는 자인지 알아보라고 그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나는 구혼자들 중 그 누구도 파멸로부터 구해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마치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해온 사람처럼,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손을 뻗으며 모든 사람에게 빵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오디세우스를 가엽게 여겨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서로 물으며 그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염소들을 돌보는 멜란티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영광스러운 여왕의 구혼자들이여, 이 이방인에 대해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있소.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분명 저 돼지 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저 사람이 스스로 밝히는 출신지가 어디인지는 나도 확실히 모르겠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안티노오스가 돼지치기를 꾸짖었다.
"악명 높은 돼지치기야, 왜 이자를 도시로 데려왔느냐? 이자가 없어도 잔치를 망치는 성가신 거지와 떠돌이가 충분하지 않느냐? 여기 모여 네 주인의 재산을 먹어 치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자까지 부르는 것이냐?"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티노오스여, 당신이 비록 귀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는 말은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타지에서 온 이방인을 찾아내고 초대하겠소?

공공의 기술을 가진 장인이거나, 예언자, 혹은 병을 고치는 의사, 아니면 건축가, 그것도 아니라면 노래로 즐거움을 주는 신성한 가수가 아닌 이상 말이오.

이런 이들은 끝없는 대지 곳곳에서 초대를 받곤 하오. 하지만 거지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짐이 되겠다며 초대하지는 않는 법이라오.

그러나 당신은 구혼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오디세우스의 종들에게 가혹하게 굴며, 특히 나에게 가장 심하게 대한다.

그럼에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의 여주인인 절개 있는 페넬로페와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가 이 집안에 살아 있는 한 말이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입을 다무세요. 내가 부탁하건대, 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여 대꾸하지 마세요. 안티노오스는 늘 악한 방식으로 거친 말을 내뱉으며 화를 돋우고, 다른 이들까지 부추기는 자니까요."

그는 안티노오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안티노오스여, 네가 나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 진정으로 아끼고 있구나. 나에게 저 이방인을 강압적인 말로 당장 이 홀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신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아니, 차라리 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주고 대접해라. 나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오히려 네가 그에게 베풀기를 바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나의 어머니를 신경 쓰지 마라. 또한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집안에 있는 그 어떤 종들도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진실로 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전혀 다르구나. 너는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네 스스로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느냐."

그 말에 안티노오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텔레마코스, 이 허풍쟁이야, 무모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만약 모든 구혼자가 나만큼만 그에게 대접을 해준다면, 석 달 동안은 이 집에서 그를 멀리 떼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회를 즐길 때 빛나는 발을 올려두곤 하던 발받침을 붙잡아 식탁 아래 놓여 있던 그것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들은 선물을 주었고, 주머니를 빵과 고기 조각들로 채워 주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아카이아인들을 시험하고 아무 피해 없이 문턱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안티노오스 곁에서 멈춰 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구여, 내게 선물을 좀 주게. 내 눈에 자네는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고귀한 자로 보이네. 자네는 마치 왕과 같으니 말일세.

그러니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자네의 명성을 끝없는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네.

나 또한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의 집을 두고 살았으며, 부유한 집안의 부유한 사람이었네. 나는 나그네가 누구든, 어떤 사정으로 찾아오든 그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아주 자주 선물을 베풀곤 했었네.

나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노예도 있었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며 부유하다고 일컬어질 만한 다른 모든 것들도 풍부하게 있었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제우스의 뜻이었다.

제우스께서는 내가 파멸을 맞이하도록, 나를 떠돌이 해적들과 함께 멀리 이집트로 떠나게 하셨다. 나는 아이귑토스 강에 나의 굽은 배들을 정박시켰다.

그러고 나서 나는 믿음직한 동료들에게 배들 곁에 머물며 배들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정찰병들을 보내 전망이 좋은 곳들을 살피게 했다.

그런데 내 동료들은 방탕함에 굴복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날뛰며, 즉시 이집트 사람들의 아름다운 들판을 황폐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잡아갔고, 남자들은 죽였다. 그러자 그 외침이 곧 도시로 전해졌다.

함성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동이 틀 무렵 밖으로 나왔다. 평원 전체가 보병과 전차, 그리고 번뜩이는 청동 무기들로 가득 찼다.

벼락을 던지는 제우스께서 내 동료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몰아넣으셨다. 그 누구도 용기를 내어 적을 마주하고 맞서 싸우지 못했다.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카로운 청동 무기로 우리 중 많은 이를 죽였고, 다른 이들은 산 채로 도시로 끌고 가 강제로 부렸소. 나는 그들과 만난 한 친지에게 넘겨져 키프로스로 보내졌소. 키프로스를 힘 있게 다스리는 이아소스의 아들 드메토르에게로 말이오. 거기서 이제 몹시 괴로운 처지로 이곳에 왔소."

안티노오스가 대답했다. "어떤 신이 이 재앙을 보내 우리 잔치를 괴롭히느냐? 내 식탁에서 떨어져 저 가운데로 물러가라. 이 대담하고 뻔뻔한 거지야, 자칫 곧 쓰디쓴 이집트와 키프로스를 겪을 것이다. 너는 사람마다 차례로 다가가고, 그들은 함부로 내준다.

저마다 곁에 풍족한 음식이 있으니 남의 재산을 아낌없이 주는 데 거리낄 것도 망설일 것도 없겠지."

이에 교활한 오디세우스가 뒤로 물러나며 그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너는 적어도 네 아름다움에 걸맞은 지혜는 갖추지 못한 모양이구나. 너는 지금 다른 이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빵을 좀 나누어 내게 줄 마음조차 없으니, 네 자신의 재산으로는 네 간청하는 자에게 소금 한 알조차 내어주려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네 손 곁에는 지금 풍족한 것들이 놓여 있지 않느냐."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안티노오스는 마음속으로 더욱 분노했다.

안티노오스는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날개 돋친 말을 그에게 내뱉었다.

“이제 정말로, 네가 다시는 이 홀을 품위 있게 나가지 못할 것 같구나. 너는 지금 비난하는 말까지 내뱉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며 안티노오스는 발받침대를 움켜쥐어 던졌고,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 밑부분, 즉 등과 연결되는 부위를 맞혔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바위처럼 꿋꿋이 버텼으며, 안티노오스가 던진 물건 때문에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마음속 깊이 악한 일을 생각하며 침묵 속에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문턱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내용물이 가득 찬 가방을 내려놓고 구혼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영광스러운 여왕의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 가슴 속에서 명령하는 바를 말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재산, 즉 소나 흰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매를 맞는다면 마음의 고통도 슬픔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티노오스는 나의 비참한 배 때문에 나를 쳤으니, 이 배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오는 저주받은 재앙이로다.

아, 만약 거지들을 위해 신들과 복수자가 존재한다면, 안티노오스가 결혼하기 전에 죽음의 운명이 그에게 닥치기를!”

이에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가만히 앉아서 먹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런 말을 내뱉다가 젊은이들에게 손발이 붙잡혀 집안을 끌려다니며 살가죽이 다 벗겨지지 않도록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자 오만한 청년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티노오스, 네가 그 불쌍한 방랑자를 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저주받을 놈아, 만약 그가 혹시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신이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래, 신들은 멀리서 온 이방인의 모습으로 온갖 형상을 하고 나타나 도시들을 방문하며, 인간들의 폭력과 정의를 지켜보기도 하신단 말이다."

구혼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안티노오스는 그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텔레마코스는 그 매질을 당한 일로 마음속에 커다란 슬픔을 품었다. 비록 눈에서 눈물이 흘러 땅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침묵 속에 머리를 저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일을 생각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그 사람이 홀에서 맞았다는 말을 듣고 시녀들 사이에서 말했다. "명성 높은 궁수 아폴론이 너 자신도 그렇게 치시기를!"

그리고 집안일을 맡은 에우리노메가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아름다운 왕좌를 가진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유모여, 저들은 모두 악한 일을 꾸미는 적들이에요. 특히 안티노오스는 검은 운명과도 같아요.

어떤 불쌍한 이방인이 궁핍함 때문에 집안을 떠돌며
남자들에게 자선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모두
그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선물도 주었지만, 안티노오스만은
발판을 던져 그를 오른쪽 어깨 아래로 내리쳤어요."

그렇게 페넬로페는 자신의 방에 앉아 하녀들에게 말했고,
그사이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용모가 수려한 돼지치기를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거라, 선량한 에우마이오스야. 가서 그 이방인에게 이리로
오라고 전해다오. 내가 그를 맞이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에게
혹시 마음이 굳건한 오디세우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혹은 그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려 한다.
그 사람은 멀리 떠돌아다닌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왕이시여, 아카이아인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당신의 영혼마저 매료시킬 만큼 감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흘 밤 동안 제 곁에 머물렀고, 사흘 동안 제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배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왔지만, 아직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내 홀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마치 신들이 가르쳐 준 그리움의 노래를 인간들에게 불러주는 가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끝없이 듣고 싶어 한다. 그가 나를 그렇게 매혹했다.

그는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친구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미노스의 종족이 사는 크레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여행을 왔으며, 계속해서 방랑하며 끊임없이 고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오디세우스가 가까운 곳, 풍요로운 테스프로티아 땅에서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가서 이리 불러라. 내 앞에서 직접 말하게 해라. 저들은 마음이 즐거우니 문간이든 집 안이든 앉아서 놀게 두어라. 자기들 재산인 빵과 달콤한 포도주는 집에 고스란히 있고, 그들의 종들은 그것을 먹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구혼자들은 날마다 우리 집으로 몰려와 우리의 소와 양, 그리고 살찐 염소들을 잡아 죽이고 있다. 그들은 흥청거림을 일삼으며 불타는 듯한 독한 포도주를 무모하게 마셔대고,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집안의 파멸을 막아줄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여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자신의 고향 땅에 발을 딛는다면, 그는 즉시 아들과 함께 이 자들의 폭거에 대해 복수를 실행할 것이다.”

페넬로페가 그렇게 말했을 때, 텔레마코스가 크게 재채기를 했다. 그러자 주변의 방 전체가 경이롭게 울려 퍼졌다.

페넬로페는 웃음을 터뜨렸고, 곧바로 에우마이오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가서, 제발, 이 이방인을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내 아들이 나의 모든 말에 재채기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 구혼자들 모두에게 죽음이 닥칠 것이며, 그들 중 누구도 죽음과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테니, 너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만약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임을 내가 확인한다면, 내가 그에게 망토와 튜닉, 즉 아름다운 의복을 입혀주겠다."

페넬로페가 그렇게 말하자, 돼지치기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길을 떠났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가서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낯선 이여, 텔레마코스의 어머니인 현명한 페넬로페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녀는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 묻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망토와 튜닉을 입혀줄 것입니다.

음식에 관해서라면, 당신은 이 땅을 돌아다니며 구걸하여
배를 채우게 될 것이며,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음식을 줄 것입니다."

그 말에 인내심 강하고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여, 머지않아 나는 이카리오스의 딸인 현명한
페넬로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이네. 나 또한
오디세우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둘은 함께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이라네.

그렇지만 나는 이 거칠고 무례한 구혼자 무리가 두렵네.
그들의 방탕함과 폭력은 저 철의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라네.

방금 전에도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홀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저 자가 나를 치고 상처를 입혔는데도
텔레마코스나 다른 누구도 그 공격을 막아주지 않았네.

그러므로 이제 페넬로페에게는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홀에서 기다리라고 전해주시오.

그다음에 그녀가 내게 남편의 귀환 날짜에 대해 물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때 내게 불 근처의 자리를 내어주시오. 보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소. 당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올리지 않았소."

그는 그렇게 말했고, 돼지치기는 그 말을 듣고 물러갔다.

그가 문턱을 넘어갈 때, 페넬로페가 그에게 말했다.

"에우마이오스, 너는 그를 데려오지 않는구나. 방랑자가 대체 무슨 뜻으로 이러는 것이냐? 그가 누구를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집에서 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냐? 거지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는 오만한 자들의 무례함을 피하려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옳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여왕이시여, 당신께서도 이 이방인과 단둘이 대화하며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 이방인은 지혜롭구나. 그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어 보고 있어. 내 생각에, 저들만큼 방자하게 사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꾸미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페넬로페는 그렇게 말했고, 선량한 돼지치기는 그녀에게 모든 말을 전한 뒤 구혼자들의 무리 속으로 떠났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텔레마코스의 머리 가까이에 입을 대고, 날개 돋친 말을 곧장 건넸다.

"친구여, 나는 돼지들을 돌보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지키러 나가겠네. 그것들은 자네와 나의 생계라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일은 자네가 맡아주게.

무엇보다 먼저 자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게나. 혹시라도 자네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마음을 조심하게.
아카이아인들 중 많은 이가 악한 일을 꾸미고 있으니,
제우스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어 우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식사를 마치시면 가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오셔서 훌륭한 제물을 가져다주십시오.
이곳의 모든 일은 저와 불멸의 신들이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돼지치기는 다시 매끄럽게 닦인 의자에 앉았다.

그는 고기와 술로 배를 채운 뒤, 돼지들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연회객들로 가득 찬 마당과 홀을 뒤로하고 떠났다.

저녁이 찾아왔기에,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추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제18권

구혼자들 사이에서

이때 이타카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하곤 하는 거지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끝없이 먹고 마시는 탐욕스러운 배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힘이나 기력은 없었으나, 겉보기에는 정말 거구였다. 그의 이름은 아르나이오스였는데, 이는 그의 존경받는 어머니가 그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를 모두 이로스라고 불렀다. 누군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가 달려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오디세우스를 그의 집에서 쫓아내려 하며 나타났다. 그는 오디세우스를 욕하기 시작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늙은이여, 문간에서 비켜서라. 그러지 않으면 곧 발이 잡혀 끌려 나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며 눈짓하며, 너를 끌어내라고 나에게 시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런 짓을 하기가 부끄럽구나.

어서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툼이 주먹질로 번지게 될지도 모르니."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그에게 대답했다.

"이보게 친구, 나는 행동으로도 말로도 자네를 해치지 않네. 또한 어떤 사람이 자네에게 음식을 준다 해도, 설령 그가 퍼주는 몫이 크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네.

이 문턱은 우리 둘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니, 자네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시기할 필요가 없네. 자네는 나처럼 떠돌이처럼 보이는군. 그리고 행운에 관해서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줄 분은 신들이시네.

그러나 주먹으로 나를 너무 자극하지 마라. 자칫 나를 화나게 했다가는, 내가 비록 노인일지라도 네 가슴과 입술을 피로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내일 내가 더 평온할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궁전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에 떠돌이 이로스가 화를 내며 그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놈이 늙은 부엌데기처럼 얼마나 능청스럽게
떠드는지 보아라. 하지만 내가 저놈에게 재앙을 안겨 주겠다.
곡식을 망치는 돼지를 때리듯 좌우에서 주먹을 날려, 턱에
박힌 이빨을 모조리 땅바닥에 흩뿌려 놓겠다. 자, 허리를
동여매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싸움을 보게 말이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너보다 젊은 사내와 싸우겠느냐?"

그렇게 그들은 높고 웅장한 문 앞, 매끄럽게 닦인 문턱 위에서
서로의 분노를 아주 격렬하게 부추겼다.

강인하고 힘센 안티노오스가 그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리며 구혼자들 사이에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신께서 이 집에 이토록 즐거운 구경거리를
가져다주신 적은 전에는 결코 없었네. 저 이방인과 이로스가
서로 싸우자며 도발하고 있군. 자, 어서 가서 저들이 싸우게
만들자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구혼자들은 모두 웃으며 일어나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입을 열어
말했다.

“오만한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여기 불가에 염소의 위장이 놓여 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기름과 피로 채워 둔 것이다.

이제 두 사람 중 승리하여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가
일어나, 저것들 중 어느 것을 가질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게다가 그 승자는 언제든 우리와 함께 연회를 즐길 것이며,
우리는 다른 어떤 거지도 우리 무리에 합류하여 구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안티노오스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슬픔에 짓눌린 노인이 젊은이와 맞서 싸울 수는 없소. 하지만 말썽을 일으키는 내 배가 나를 부추기니, 저자의 주먹에 쓰러질지도 모르겠구려. 자, 모두 내게 굳게 맹세해 주시오.

누구도 이로스의 편을 들어 무거운 손으로 나를 비겁하게 때리지 않으며, 그렇게 힘으로 나를 저자에게 굴복시키지 않겠다고 말이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그가 명령한 대로 그를 때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들이 맹세를 마치고 끝냈을 때, 강인하고 힘 있는 텔레마코스가 그들 사이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낯선 이여, 만약 그대의 마음과 드높은 기개가 이 자를 때려눕히라고 명령한다면, 아카이아인들 중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치는 자는 그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대하여 싸워야 할 것이오.

그대를 손님으로 맞은 주인은 나이며, 신중한 사람들인 안티노오스와 에우리마코스 같은 지도자들도 이에 동의하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가 그의 말을 찬양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허리에 동여매고 자신의 허벅지를 드러냈다. 그의 허벅지는 보기 좋고 건장했다. 또한 그의 넓은 어깨와 가슴, 그리고 힘찬 팔도 모습을 드러냈다.

아테나가 가까이 다가와 그 백성의 목자인 오디세우스의 사지를 더욱 건장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자 구혼자들은 모두 몹시 경탄했다. 그들은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 노인의 누더기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를 보니, 이로스는 제 발로 재앙을 불러들였군. 이제 곧 이로스 노릇도 못 하게 되겠어."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이로스의 마음은 비참하게 흔들렸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겁에 질린 이로스를 억지로 띠를 묶어 일으켜 세운 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스는 사지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안티노오스가 그를 꾸짖으며 말을 건넸다.

“이보게 허풍쟁이, 만약 자네가 저 자를 두려워하며 저토록 겁에 질려 있다면, 차라리 지금 살아있지 않거나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네. 저 사람은 그저 늙었을 뿐이고,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 짓눌려 있는 사람일 뿐이라네.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이 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네.

만약 이 자가 너를 이기고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한다면, 나는 너를 검은 배에 던져 넣어 육지에 있는 에케토스 왕에게 보내버리겠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로, 무자비한 청동 칼로 네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네 내장을 끌어내어 개들이 뜯어먹도록 생으로 던져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의 사지는 더욱 심하게 떨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경기장 안으로 인도했고, 두 남자는 손을 들어 맞설 준비를 했다.

인내심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고민에 빠졌다. 그를 내리쳐서 쓰러지는 즉시 목숨을 끊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한 대 쳐서 땅바닥에 눕혀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오디세우스는 생각에 잠겼다. 아카이아인들이 자신을 눈여겨보지 않도록, 그를 가볍게 한 대 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두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이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로스의 귀 아래 목 부분을 내리쳐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러자 이로스의 입에서 즉시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이로스는 신음하며 먼지 위로 쓰러졌고, 이를 갈며 발로 땅을 찼다.

위엄 있는 구혼자들은 손을 들어 환호하며, 웃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오디세우스는 이로스의 발을 붙잡고, 그가 안뜰과 현관 문에 다다를 때까지 문밖으로 끌어냈다.

오디세우스는 그를 내려놓고 안뜰 벽에 기대게 했다. 그러고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여준 뒤,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제 거기 앉아서 돼지와 개들이 오지 못하게 쫓아버려라. 비참한 처지에 놓인 네가 이방인과 거지들의 주인 노릇을 하려 들지 마라. 그러다 혹시라도 더 나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구멍이 숭숭 뚫린 채 꼰 끈으로 매단 초라한 주머니을 어깨에 둘러멨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문턱으로 돌아가 앉았다. 구혼자들은 즐겁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고,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낯선 이여,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이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과 마음속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탐욕스러운 자가 이 땅에서 구걸하는 것을 멈추게 했으니 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 자를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에케토스 왕이 있는 육지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 길조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안티노오스는 기름과 피로 가득 찬 커다란 위장을 오디세우스 앞에 놓아주었다. 암피노모스는 바구니에서 빵 두 덩이를 꺼내 오디세우스 앞에 놓아주었다.

이어 암피노모스는 황금 잔으로 오디세우스에게 축배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방인이여. 비록 지금은 수많은 슬픔의 노예가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암피노모스여, 그대는 참으로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려. 그대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지. 둘리키온의 니소스가 용감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훌륭한 명성을 나도 들었소. 사람들이 그대를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더군. 그대는 말씨도 부드러운 사람 같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으시오.

이 땅 위에서 숨 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 땅이 길러 내는 어떤 것도 인간만큼 나약하지는 않소.

그는 신들이 자신에게 번영을 주고 다리에 힘이 있는 한, 앞으로는 결코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복된 신들이 다시 그에게 슬픔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그 슬픔 또한 몹시 괴로워하며 견뎌낸다.

지상에 사는 인간의 정신이란, 신들의 아버지이자 인간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하루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한때 인간들 사이에서 번영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는 나의 힘과 기세에 굴복하여,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믿으며 수많은 방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 그 누구도 어떤 때에도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신들이 내려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감사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구혼자들이 온갖 망령된 짓을 꾸미며 재산을 낭비하고, 머지않아 친구들과 고향 땅으로 돌아올 한 남자의 아내를 욕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아니, 그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어떤 신이 너를 이곳에서 네 집으로 인도하기를,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네가 그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일단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 구혼자들과 그 사이에는 필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술을 따르고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잔을 백성의 지도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렇지만 암피노모스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홀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피노모스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아테나 여신은 암피노모스마저 옭아매어, 그가 텔레마코스의 손에, 그리고 텔레마코스의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정해 두었다.

그리하여 암피노모스는 자신이 일어났던 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지혜로운 페넬로페의 마음속에 구상을 심어주었다. 구혼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남편과 아들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존중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의미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건넸고, 유모에게 말을 붙였다.

“에우리노메여, 그들이 아무리 가증스러울지라도, 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마음의 갈망이 생겨 구혼자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구나.

또한 내 아들에게도 그에게 이로운 말을 해주고 싶다. 즉,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뒤로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오만한 구혼자들과 결코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다."

그 말에 집안일을 돌보는 에우리노메가 그녀에게 말하며 대답했다.

"아,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아드님께 아가씨의 뜻을 전하시고,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먼저 몸을 씻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양 볼에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가십시오, 끊임없이 슬퍼하며 지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아드님은 그만한 나이가 되었고, 아가씨께서 불멸의 신들에게 그가 수염 난 성인이 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녀에게 다시 대답했다.

“에우리노메여, 나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는 말로 달콤하게 속이지 마세요. 올림포스를 지키는 신들이 내 남편이 속이 깊은 배를 타고 떠나간 그날부터, 나의 모든 아름다움은 파괴되었으니까요.

대신 아우토노에와 히포다메이아를 내게 오라고 불러주세요. 그들이 전당에서 내 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나는 부끄러우니, 사람들 사이로 혼자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한 뒤, 노파는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그러자 눈부신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웠다. 아테나는 이카리오스의 딸 페넬로페에게 달콤한 잠을 내려주었다.

페넬로페는 침상에 몸을 기대어 잠이 들었고, 그녀의 모든 관절은 이완되었다.

그동안 아름다운 여신 아테나는 아카이아인들이 페넬로페를 보고 경탄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불멸의 선물들을 내려주고 있었다.

아테나는 먼저 감미로운 향유로 페넬로페의 아름다운 얼굴을 빛나게 했다. 그 향유는 아름다운 왕관을 쓴 키테레아, 즉 아프로디테가 우아한 은총의 여신들의 춤에 참여하러 갈 때 스스로에게 바르는 신성한 향유였다.

또한 아테나는 페넬로페를 이전보다 더 키가 크고 위엄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갓 잘라낸 상아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었다.

아름다운 여신이 이 일을 마치고 떠나자, 하얀 팔을 가진 시녀들이 방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왔다.

그때 페넬로페가 달콤한 잠에서 풀려났다. 페넬로페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문지르며 말했다.

“아,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를 부드러운 잠이 감싸 안았구나. 순결한 아르테미스 여신께서 지금이라도 이토록 부드러운 죽음을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났던 내 사랑하는 남편의 그 수많은 탁월함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내 삶을 더는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하며 페넬로페는 빛나는 위층 방에서 내려왔다. 두 명의 여종이 그녀를 수행했기에 혼자는 아니었다.

아름다운 여인이 구혼자들에게 다다랐을 때, 페넬로페는 잘 지어진 전당의 문설주 옆에 서서 빛나는 베일을 얼굴 앞에 대고 있었다. 충실한 시녀가 그녀의 양옆에 한 명씩 서 있었다.

그러자 즉시 구혼자들의 무릎에 힘이 풀리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에 홀렸다. 구혼자들은 모두 각자 페넬로페의 곁에 눕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야, 네 마음과 생각은 예전처럼 확고하지 않구나. 네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더 영리한 생각들을 품곤 했지.

그런데 이제 네가 자라 성년의 경계에 이르렀고, 멀리서 온 이방인이 네 체격과 외모만 보고 너를 부유한 자의 아들이라 부르고 싶어 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네 마음과 생각은 예전처럼 올바르지 않구나.

이 전당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네가 저 이방인이 저토록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하다니!

만약 저 이방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 우리의 가혹한 대우 때문에 해를 입게 된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 일로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저는 언짢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하나하나 알고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린아이였지만요. 다만 모든 일을 지혜롭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악한 뜻을 품고 제 양옆에 붙어 제 뜻을 가로막고 있으며,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이방인과 이로스 사이의 싸움은 구혼자들이 바라던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 제우스 아버지와 아테나, 그리고 아폴론이시여, 지금 당장이라도 구혼자들이 우리 집 안에서 이처럼 굴복하여, 어떤 이는 마당에, 어떤 이는 홀 안에 머리를 떨구고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저기 마당 문가에 앉아 있는 이로스처럼, 모든 남자의 팔다리가 풀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로스는 지금 술 취한 사람처럼 머리를 떨구고 있으며, 팔다리에 힘이 풀려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자신이 평소 가던 곳으로 집을 향해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말을 나누었다. 하지만 에우리마코스가 페넬로페에게 말을 건네며 말했다.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현명한 페넬로페여, 만약 이아시아의 아르고스 전역에 있는 모든 아카이아인이 당신을 볼 수 있다면, 내일부터는 당신의 궁전에서 연회를 즐기는 구혼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오. 당신은 아름다움과 체구, 그리고 그 안에 깃든 현명한 마음까지 모든 여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여, 나의 아름다움과 자태를 포함한 모든 탁월함은 아르고스인들이 일리오스로 출정하던 날 신들에 의해 사라졌고, 나의 남편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함께 떠났어요.

만약 그가 돌아와 나의 삶을 보살펴 줄 수만 있다면, 나의 명성은 더 높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는 슬픔에 잠겨 있어요. 어떤 신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가져다주었거든요.

진실로,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나 나아갈 때, 그는 나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내여, 나는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춘 아카이아인들이 트로이아에서 모두 무사히,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사람들의 말로는 트로이아인들이 전쟁의 사내들이며, 창을 던지고 활을 당기며, 대등한 전쟁의 거대한 갈등을 가장 빠르게 결정짓는 빠른 말들을 모는 자들이라고 하니 말일세.

그러니 신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지, 아니면 내가 저 트로이아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네. 그러니 당신이 이곳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게.

내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마음을 써서 이 집에 계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살펴 주오. 하지만 내 아들이 수염 난 어른이 된 것을 보거든, 그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 집을 떠나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이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제우스가 나의 행복을 앗아갔으니, 저주받은 나에게는 혐오스러운 결혼이 닥칠 밤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영혼에는 쓰라린 슬픔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구혼자들의 방식은 결코 당신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여인과 부유한 자의 딸을 구애하고자 하며 서로 경쟁하는 이들은, 스스로 소와 훌륭한 가축 떼를 가져오고 신부의 친구들을 위한 연회를 차리며 그녀에게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바친다.

그러나 그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계를 탕진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인내심이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페넬로페가 구혼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홀렸으나,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이카리오스의 딸, 지혜로운 페넬로페여,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군가 이곳에 선물을 가져오려 한다면 받으십시오.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아카이아인 중 가장 훌륭한 이와 결혼할 때까지 우리 땅으로도, 다른 어디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안티노오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의 마음이 흡족해졌다. 이에 남자들은 저마다 전령을 보내 자신의 선물을 가져오게 했다.

안티노오스의 전령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크고 아름다운 겉옷을 가져왔다. 그 옷에는 굽은 걸쇠가 달린 금빛 브로치 열두 개가 달려 있었다.

또 다른 이는 즉시 에우리마코스에게 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목걸이를 가져왔다. 그 목걸이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호박 구슬들이 꿰어져 있었다.

에우리다모스의 시종들은 세 개의 방울이 뭉쳐 달린 귀걸이 한 쌍을 가져왔다. 그 귀걸이에서는 커다란 우아함이 빛났다.

폴뤼크토르의 아들인 귀족 페이산드로스의 집에서는 그의 시종이 매우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아카이아인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인 페넬로페는 그 후 자신의 위층 방으로 올라갔고, 그녀의 하녀들이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들어 날랐다.

그렇지만 구혼자들은 춤과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 어두운 저녁이 찾아왔다. 곧이어 그들은 빛을 밝히기 위해 홀에 세 개의 화로를 세웠다. 그리고 화로 주변에는 오래전에 말려 단단해진, 도끼로 막 쪼갠 마른 나뭇가지들을 놓았다. 그 사이사이에는 횃불을 세웠다.

그러자 마음이 굳건한 오디세우스의 하녀들이 차례로 불을 붙였다. 그때 수많은 꾀를 가진,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가 하녀들 사이에서 직접 말을 건넸다.

"오랫동안 떠나 계셨던 오디세우스의 처녀들아, 너희의 존귀한 여왕께서 머무시는 방으로 가거라. 그 곁에 앉아 실을 잣거나 손으로 양털을 빗으며 여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려라.

대신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밝혀 주겠다. 만약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옥좌에 앉은 새벽을 기다리고자 한다면, 결코 나를 앞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니라."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하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돌리오스가 낳았으나 페넬로페가 친자식처럼 키우고 아껴주며,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까지 주었던 뺨이 고운 멜란토가 오디세우스를 수치스럽게 꾸짖었다.

그런데 멜란토는 마음속으로 페넬로페를 위해 슬퍼하지 않았다. 멜란토는 에우리마코스를 사랑했으며 그와 함께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러고 나서 멜란토는 모욕적인 말들로 오디세우스를 꾸짖었다.

"가련한 이방인이여, 당신은 그저 정신 나간 자로군요. 대장간에 가서 잠을 자거나 여관에 머물 생각은 하지 않고,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니,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나 보군요.

분명 술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켰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당신의 정신이 이토록 허망한 소리나 지껄이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혹시 그 부랑자 이로스를 때려눕힌 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머지않아 이로스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의 머리를 무거운 손으로 두들겨 패고, 피를 줄줄 흘리게 하여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녀에게 대답했다.

"부끄러운 것아, 네가 그렇게 떠들어대니 내가 곧 저기로 가서 텔레마코스에게 말해주마. 그러면 그가 당장 이곳에서 네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 여인들이 흩어졌다. 여인들은 홀을 가로질러 도망쳤고, 공포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빛을 밝히기 위해 타오르는 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서서, 모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일들이었다.

그러나 아테나는 오만한 구혼자들이 비열한 만행을 멈추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것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마음에 고통이 더욱 깊게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구혼자들 사이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디세우스를 조롱하며 동료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영광스러운 여왕을 구애하는 자들이여, 내 가슴 속에서 명령하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어라. 이 남자가 오디세우스의 궁전에 온 것은 신들의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어쨌든 그에게서는 횃불 같은 번뜩임이 느껴진다. 그의 머리에서 말이다.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으니, 아니,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그러고는 도시를 함락시키는 오디세우스를 불러 말했다.

"이방인이여, 내가 너를 외딴 농장에 고용한다면 품삯을 받고 일할 마음이 있느냐? 품삯은 확실히 주겠다. 담장에 쓸 돌을 모으고 키 큰 나무를 심는 일이다. 그곳에서 일 년 내내 먹을 것을 대 주고, 옷도 입히고 발에 신을 샌들도 주겠다. 하지만 너는 못된 짓만 배웠으니 일에 힘쓸 생각은 없겠지.

오히려 이 땅을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네 끝없는 식탐을 채울 먹을거리나 구하고 싶은 게로구나."

그 말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에우리마코스여, 낮이 길어지는 봄철에 우리가 함께 풀을 베며 누가 더 잘하는지 겨루어 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손에 굽은 낫을 들고 네가 그와 비슷한 낫을 들고서 말이다. 풀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굶으며 일한 뒤에 우리의 솜씨를 시험해 볼 수 있다면 좋겠구나.

아니면 차라리, 황갈색을 띠고 덩치가 크며, 풀을 잘 먹어 기운이 넘치고, 나이와 멍에를 끄는 힘이 비슷한, 지칠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들이 있어 몰 수 있다면 좋겠구나.

또한 네 에이커에 달하는 들판이 있고, 쟁기가 나아갈 때 흙이 순순히 갈린다면 좋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곧은 고랑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오늘, 크로노스의 아들이 어디선가 우리에게 전쟁을 몰고 오기를 바란다. 내게 청동으로 된 방패와 두 자루의 창, 그리고 내 관자놀이에 꼭 맞는 투구가 있다면, 내가 최전방의 전사들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배를 비웃으며 떠들어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정말 무례하고 마음씨도 잔인하구나. 고작 몇 안 되는 약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네가 스스로를 대단하고 강력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구나.

만약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그의 고향 땅에 발을 들일 수만 있다면, 저 문들이 아무리 넓다 한들 네가 도망칠 때는 너무나 좁게 느껴질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에우리마코스는 마음속으로 더욱 분노했다.

에우리마코스는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이 비천한 놈아, 네가 수많은 귀족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떠들어대며 마음속에 두려움조차 없으니, 곧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분명 술이 네 정신을 흐려놓았거나, 아니면 네 마음이 원래부터 이토록 헛소리를 지껄이는 성미인 모양이구나.

혹시 저 부랑자 이로스를 때려눕힌 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말하며 에우리마코스는 발받침대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에우리마코스가 두려워 둘리키온의 암피노모스 무릎 곁에 앉았다.

에우리마코스는 술 따르는 사람의 오른손을 맞혔다. 그러자 술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술 따르는 사람은 신음하며 먼지 위로 뒤로 넘어졌다.

이에 구혼자들은 어스름한 홀 전체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구혼자들은 이웃 사람을 곁눈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저 이방인이 방랑 중에 다른 곳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저 자가 우리 사이에 이런 소란을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지 하나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풍성한 잔치에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으리라."

그때 강인하고 용맹한 텔레마코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낯선 분들이여,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군요. 분명 어떤 신이 당신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연회를 즐겼으니, 이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며 텔레마코스가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경탄했다.

그때 암피노모스가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고귀한 지도자 니소스의 아들이었다. 니소스는 아레티아스의 아들이었다.

"친구들이여, 정당하게 행해진 말에 대하여 그 누구도 화를 내며 말다툼 섞인 대답을 하지는 않을 것이오.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집안에 있는 이 이방인이나 종들을 더는 비난하지 마시오.

자, 어서 술을 따르는 이에게 잔에 제물을 바칠 술을 따르게 합시다. 우리가 포도주를 부어 바친 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시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왔으니 텔레마코스가 돌보도록 오디세우스의 거처에 그대로 둡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내뱉은 말은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때 둘리키온에서 온 전령이자 암피노모스의 종자였던 귀족 물리오스가 그들을 위해 술을 섞었다.

물리오스는 차례대로 한 사람씩 다가가 모두에게 술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복된 신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바쳤고,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를 부어 바치고 마음껏 술을 마신 뒤에, 사람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19권

페넬로페와 나누는 이야기

그리하여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겨졌다. 그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구혼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곧바로 텔레마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야, 전쟁 무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안쪽에 치워
두어라. 구혼자들이 무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물으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속이며 이렇게 말하거라. ‘연기가 닿지
않는 곳에 치워 두었습니다.

오디세우스께서 트로이아로 떠나시며 남겨 두셨던 때와는
달리, 불의 기운이 닿은 곳마다 모두 그을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께서 제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술기운에 달아올라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혀,
잔치와 구혼에 수치를 가져올까 두렵습니다. 쇠붙이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그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내어 말했다.

"유모, 어서 오세요. 내가 명령하니, 여인들을 방 안에 가두어 두세요. 나는 창고에 아버지의 무기들을 치워 두겠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기에, 그 훌륭한 무기들은 홀에 방치된 채 연기에 그저 그을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 무기들을 잘 치워 두려고 합니다."

그 말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 얘야, 네가 언제나 집안일을 돌보고 그 모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면 좋겠구나. 하지만 이리 오렴, 그러면 누가 불을 가져다 너를 위해 비춰주겠느냐? 불을 밝혀줄 수도 있었던 하녀들이 네 앞서가는 것을 네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니 말이다."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기 있는 이 이방인이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멀리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몫의 식량을 건드리는 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에우리클레이아는 더는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위엄 있는 홀의 문들을 잠갔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 텔레마코스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투구와 돌출된 부분이 있는 방패, 그리고 끝이 날카로운 창들을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서는 팔라스 아테나가 황금 등불을 들고 매우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텔레마코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진정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집의 벽들과 아름다운 전나무 서까래와 대들보, 그리고 높이 솟은 기둥들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의 빛을 머금은 듯 제 눈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곳에 어떤 신이 계십니다. 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 중 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조용히 하거라, 생각을 가라앉히고 아무것도 묻지 마라.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신들의 방식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내가 네게 말해주마.

너는 가서 휴식을 취하거라. 나는 여기 남아서 하녀들과 네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네 어머니가 울면서 내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따로 물어볼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텔레마코스는 타오르는 횃불의 빛을 받으며 홀을 지나 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달콤한 잠이 찾아올 때마다 쉬곤 했던 자신의 침소로 가서 누우려 했다.

그는 그곳에 누워 빛나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겨졌다. 그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구혼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아르테미스나 황금빛의
아프로디테처럼 자신의 방에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페넬로페가 평소에 앉던 불가에 상아와 은으로 소용돌이무늬를 새긴 의자를 놓아주었다. 그 의자는 옛날에 장인 이크말리오스가 만든 것이었다.

의자에는 발을 올려두는 발받침이 일체형으로 달려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양털 덮개를 늘 놓아두곤 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 의자에 앉자, 하얀 팔을 가진
시녀들이 여인들의 홀에서 걸어 나왔다.

시녀들은 풍성한 음식과 탁자, 그리고 귀한 분들이 술을 마시던 잔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로에서 타오르는 불덩이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빛과 온기를 내기 위해 화로 위에 신선한 장작을 가득 쌓아 올렸다.

그렇지만 멜란토는 오디세우스를 다시 한번 비난하기 시작했다.

멜란토가 말했다. "낯선 이여, 당신은 밤새도록 집안을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재앙이 될 셈인가요? 여자들을 몰래 훔쳐보기라도 하려는 건가요?

아니, 이 비천한 자여,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저녁 식사로 만족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당장 횃불에 맞고 쫓겨나든지 하세요."

그러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성난 눈길을 보내며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인이여, 대체 왜 그토록 화를 내며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오? 내가 더럽고 몸에 초라한 옷을 걸친 채 이 땅에서 구걸하기 때문이오? 그래요, 궁핍한 형편이 나를 몰아세우기 때문이지요. 거지와 떠돌이들은 다 그런 처지라오.

나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이었고,
풍요로운 집에서 살던 부자였소. 떠돌이가 찾아오면 그가
누구든, 어떤 필요 때문에 왔든, 나는 곧잘 선물을 주곤 했소.

나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노예가 있었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며 부유하다고 일컬어질 만한 다른 모든 것들도 넘쳐났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드셨으니, 그것이 그의 뜻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여인이여, 그대 또한 언젠가 지금 하녀들 사이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여주인이 화가 나서 그대에게 분노하거나, 혹은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말이다.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이는 모습 그대로 정말 죽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폴론의 은총을 입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만약 궁전의 여인들 중 누구라도 방탕하게 행동한다면,
텔레마코스가 그것을 모를 리 없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그의 말을 들었다.

페넬로페는 그 하녀를 꾸짖으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네 이 무모하고 파렴치한 것아, 네가 저지른 그 안하무인 격인 행동이 내게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라. 너는 네 머리로 직접 그 죄의 얼룩을 닦아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궁전에서 이방인에게 내 남편에 관해 묻고자 한다는 것을 너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 않느냐?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

페넬로페는 집안일을 맡은 에우리노메에게도 이렇게 말하며 명령했다.

“에우리노메야, 의자에 양털을 덮어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래야 이 이방인이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에우리노메는 재빨리 윤이 나는 의자를 가져와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양털을 덮어 놓았다.

그러자 인내심 강하고 용모가 수려한 오디세우스가 그 의자에 앉았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낯선 이여, 이 질문은 내가 먼저 그대에게 묻겠노라.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대의 도시는 어디이며, 그대의 부모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부인, 끝없는 대지 위의 그 어떤 필멸자도 당신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명성은 넓은 하늘까지 드높으니, 마치 결점 없는 어느 왕의 명성과도 같습니다.

그 왕은 마음속에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수많은 용맹한 이들의 주군이 되어 정의를 수호합니다. 그 왕의 선한 통치 덕분에 검은 땅은 밀과 보리를 내고, 나무들은 열매를 가득 맺으며, 가축들은 끊임없이 새끼를 낳고, 바다는 물고기를 내어줍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번영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집에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게 물으셔도 좋으나, 나의 가문과 고향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욱 고통으로 가득 찰까 두렵습니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울며 통곡하며 앉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녀들이나 당신 자신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눈물 속을 헤엄치고 있다고 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나의 아름다움과 자태를 포함한 모든 탁월함은 아카이아인들이 일리오스로 출항하던 날 신들이 앗아갔으며, 나의 남편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와 나의 삶을 보살펴 줄 수만 있다면, 나의 명성은 지금보다 더 커지고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 나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신이 내게 너무나 많은 재앙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

둘리키온과 사메, 그리고 나무가 우거진 자킨토스 같은 섬들을 다스리는 모든 군주들과, 눈에 잘 보이는 이타카 섬 자체에 사는 이들까지, 그들 모두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구혼하며 나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낯선 이들이나 간청하는 이들, 혹은 공적인 일을 업으로 삼는 전령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직 오디세우스를 그리워하며 내 마음을 낭비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내 결혼을 재촉하고, 나는 꾀를 내어 실타래를 잣는다.

먼저 어떤 신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셨는지, 나는 내 궁전에서 커다란 베를 짜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베는 실이 고우면서도 아주 넓었다. 그리고 나는 즉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나의 구혼자들이여,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나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내가 이 옷을 완성할 때까지는 인내해 주시오. 나의 길쌈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오. 이 옷은 라에르테스 님을 위해 만들 것이니, 가혹한 죽음의 운명이 그를 덮칠 때를 대비한 수의로 삼으려 하오.

만약 큰 재산을 모은 이가 수의도 없이 누워 있게 된다면, 이 땅의 아카이아 여인들 중 누구라도 나에게 화를 낼까 두렵소.'

"그렇게 말하자, 오만한 마음을 품은 구혼자들은 동의했다. 그 후 나는 매일 낮에는 커다란 베틀에서 옷을 짰고, 밤이 되면 곁에 횃불을 놓아둔 채 짠 것을 다시 풀었다.

그렇게 삼 년 동안 나는 아카이아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였다. 하지만 계절이 흐르고, 달이 저물고, 수많은 날이 차례로 지나가 네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구혼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모한 나의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나를 찾아내어 붙잡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베를 다 짜버리고 말았다.

이제 나는 결혼을 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계책을 세울 수도 없다. 부모님은 내게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고 계신다.

내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저 남자들이 아들의 생계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이제 다 자란 성인이니, 제우스께서 영광을 내려주시는 가정을 돌볼 능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혈통에 대해 말해다오. 그대는 옛이야기에 나오는 참나무에서 태어났거나 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인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아내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의 혈통에 대해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내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수많은 사람의 도시를 떠돌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늘 그러한 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묻고 궁금해하는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포도주 빛깔처럼 짙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 크레타라고 불리는 땅이 있다. 그곳은 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아흔 개의 도시가 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쓰지는 않으며, 여러 언어가 섞여 있다. 그곳에는 아카이아인들과 용맹한 크레타 토착민들, 키도니아인들, 깃털 장식을 흔드는 도리아인들, 그리고 훌륭한 펠라스기아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도시 중에는 거대한 도시 크노소스가 있다. 그곳에서는 미노스가 아홉 살 때 통치했는데, 그는 위대한 제우스와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이며, 나의 아버지인 용맹한 데우칼리온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이제 데우칼리온이 나를 낳았고, 이도메네우스 왕자를 낳았다.

이도메네우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뾰족한 배를 타고 일리오스로 떠났다. 하지만 나의 유명한 이름은 아이톤이다. 나는 그보다 나중에 태어났으며, 이도메네우스는 나보다 먼저 태어난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오디세우스를 만났고 그에게 환대의 선물을 주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땅으로 향하던 중에 바람의 힘 때문에 그 역시 크레타로 밀려왔고, 말레아를 지나 경로를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에일리티이아의 동굴이 있는 암니소스의 험한 항구에 배를 정박했는데, 그는 간신히 폭풍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곧 도시로 올라가 이도메네우스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이도메네우스의 사랑받고 존중받는 친구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도메네우스가 뱃머리가 뾰족한 배를 타고 일리오스로 떠난 지 이미 열흘이나 열하루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와 친절히 맞이하고 집에 쌓인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를 따라온 나머지 동료들에게도 공용 창고에서 보리 가루와 빛나는 포도주, 희생 제물로 쓸 황소를 모아 나누어 주어 마음껏 즐기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량한 아카이아인들은 열두 날 동안 머물렀다.
어떤 분노한 신이 북풍을 일으켰기에, 강한 북풍이 그들을
그곳에 가두어 버렸고 그들이 육지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세 번째 날에 바람이 잦아들었고, 그들은 바다로
나아갔다."

오디세우스가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이야기 속에 수많은
거짓을 섞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냈다.

그의 말을 듣던 페넬로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높은 산 위의 눈이 녹아내리듯 무너져 내렸다.

그 눈은 서풍이 흩뿌려 놓은 것을 동풍이 녹일 때, 녹아내리며
강물을 가득 채우는 산 위의 눈과 같았다.

그녀는 바로 곁에 앉아 있는 남편을 위해 울며 슬퍼하느라, 그
아름다운 뺨이 눈처럼 녹아내렸다.

오디세우스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아내를 가엽게 여겼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뿔이나 철로 만든 것처럼 눈꺼풀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교묘하게 눈물을 숨겼다.

반면 페넬로페는 눈물 섞인 통곡을 실컷 쏟아낸 뒤, 다시
그에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낯선 이여, 이제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궁전에서 신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내 남편을 정말로 대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시험해 보려 합니다.

그가 몸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또한 그를 따르던 동료들에 대해서도 말해 주십시오.”

이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여인이여,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말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떠나 내 나라를 떠난 지 이제 스무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대로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보랏빛의 양털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겹으로 된 망토였으나, 그 위의 옷핀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두 개의 걸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옷핀 앞면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앞발로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사슴을 붙잡고 있었고, 새끼 사슴이 몸부림치는 동안 사냥개는 그것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에 사람들은 경탄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냥개가 새끼 사슴을 물어 숨을 막고 있는데, 그 새끼 사슴은 발을 버둥거리며 도망치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디세우스의 몸에 걸쳐진 튜닉도 눈여겨보았다. 그 옷은 말린 양파 껍질의 광택처럼 눈부시게 빛났으며, 매우 부드러웠다. 그 옷은 태양처럼 번쩍였다.

참으로 많은 여인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 마음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오디세우스가 고향에서 과연 이런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그가 빠른 배에 올라탈 때 동료 중 한 명이 그에게 옷을 주었는지, 혹은 혹시 낯선 이가 준 것인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오디세우스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니, 아카이아인들 중에서 그와 대등한 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에게 청동 칼 한 자루와 두 겹으로 된 아름다운 보라색 망토, 그리고 가장자리에 장식이 달린 튜닉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예우를 갖추어 그를 노를 젓는 배에 태워 보냈다.

게다가 그를 수행하는 전령이 있었는데, 그는
오디세우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해주겠다.

그의 이름은 에우리바테스였으며, 어깨가 둥글고 피부는
검고 머리카락은 곱슬거렸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리바테스를
다른 동료들보다 더 존중했는데, 이는 그가 오디세우스와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고, 오디세우스가 말한 확실한 증거들을
알아차리자 마음속에서 울고 싶은 욕구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눈물 섞인 통곡을 실컷 쏟아낸 뒤에야,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이방인이여, 전에는 가엾은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이 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손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명한 바로 그 옷을 남편에게 준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옷을 개어 창고에서 꺼내 왔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빛나는 옷핀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나는 끝내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속이 깊은 배를 타고,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저 불길한 일리오스로 떠난 것은 참으로 사나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귀한 아내여, 이제 남편 때문에 울면서 아름다운 얼굴을 더는 상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든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 준 정식 남편을 잃으면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지요.

사람들이 신들과 같다고 하는 오디세우스와는 크게 다른 사람이 남편이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음을 그치고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최근에 들은 오디세우스의 귀환 소식을 확실한 진실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가까운 곳, 풍요로운 테스프로티아인들의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 땅을 돌아다니며 구걸해 모은 귀한 보물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리나키아 섬에서 떠나오다가 포도주 빛깔의 검푸른 바다에서 충실한 동료들과 속이 깊은 배를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헬리오스의 소를 죽여 제우스와 헬리오스가 그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동료들은 모두 거친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만은 배의 용골에 매달린 채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떠밀려 왔다. 그곳은 신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파이아케스인들의 땅이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마치 신을 대하듯 진심으로 예우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그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렇다, 오디세우스는 진작에 이곳에 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넓은 세상을 떠돌며 재물을 모으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오디세우스는 다른 필멸의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로운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인간도 그와 겨룰 수는 없었다.

테스프로티아인들의 왕 페이돈이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궁전에서 포도주를 부어 바치며 내 앞에서 맹세했다. 배는 이미 물에 띄워 놓았으며, 오디세우스를 그리운 고향 땅으로 데려다줄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었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그는 나를 먼저 보내주었다. 테스프로티아인의 배 한 척이 밀이 풍부한 둘리키온으로 떠나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오디세우스가 모은 모든 보물을 내게 보여주었다. 왕의 궁전에 쌓여 있는 그 재산이 어찌나 막대한지, 오디세우스가 죽은 뒤에도 그의 자손 열 대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오디세우스가 도도나로 떠났다고 말했다. 신께 바쳐진 가지가 높이 솟은 참나무를 통해 제우스의 뜻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토록 긴 부재 끝에, 오디세우스가 공개적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몰래 돌아올지,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대로, 그는 무사하며 곧 돌아올 것이오. 그는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며, 머지않아 친구들과 고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만 내가 그대에게 맹세하겠소. 가장 높고 위대한 신이신 제우스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찾아온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화로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 내가 말한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그믐달이 기울고 초승달이 떠오를 때, 바로 이번 달 안에 오디세우스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오."

이에 현명한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 이방인이여, 당신의 그 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즉시 저의 친절과 수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을 만난 이들은 당신을 복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장차 일어날 일처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당신 또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는 오디세우스처럼 존경받는 이방인을 배웅하고 환대할 만한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이 집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녀들아, 여전히 이 이방인의 발을 씻겨 주고 침상을 준비해라. 침대 틀과 겉옷, 그리고 빛나는 덮개들을 준비하여, 그가 온기와 안락함 속에서 황금 왕좌에 앉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를 씻기고 기름을 발라 주어라. 그래야 그가 우리 집에서 텔레마코스의 곁에 머물며, 홀에 앉아 있을 때 음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영혼을 고통으로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든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가 아무리 격렬한 분노를 품는다 해도, 그 이후로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낯선 이여, 그대가 만약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초라한 옷을 입은 채 내 궁전에서 식사를 한다면, 내가 다른 여인들보다 지혜와 신중한 조언에 있어 어떠한 면에서 뛰어난지를 그대가 어찌 알 수 있겠소?

인간의 삶은 짧은 법이라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칠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면, 모든 필멸의 인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앞으로 닥칠 불행을 그에게 빌 것이며, 그가 죽은 뒤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할 것이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허물이 없고 결백한 마음을
가졌다면, 낯선 이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명성을 널리
알릴 것이며, 많은 이가 그를 진정한 사람이라 부를 것이오."

이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아내여, 내가
긴 노를 가진 배를 타고 크레타의 눈 덮인 산들을 처음
뒤로하고 떠나던 날, 망토와 빛나는 덮개들은 내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

아니, 지난날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쉬곤 하던 그대로 누우려
한다. 나는 수많은 밤 동안 불결한 침상에 누워 빛나는 왕좌를
가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그렇소. 발을 씻기는 일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오.
당신의 궁전에서 일하는 여종들 중 그 누구도 내 발을
만져서는 안 되오.

다만, 나만큼이나 마음속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온 진실한
마음을 가진 노부인이 있다면, 그분이라면 내 발을 만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소."

이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다시 대답했다.

“친애하는 이방인이여, 멀리서 온 이방인들 중에서 당신처럼 신중한 남자가 이토록 환영받는 손님으로 내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모두 지혜롭고 사려 깊습니다.

내게는 가슴속에 이해심 깊은 마음을 지닌 노파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노파는 불행한 내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폈으며,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던 날 그를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그 노파가 당신의 발을 씻겨 드릴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지혜로운 에우리클레이아여, 이제 일어나서 당신의 주인과 비슷한 연배인 이의 발을 씻겨 드려라.

오디세우스의 발도 아마 지금쯤은 저와 같을 것이며, 그의 손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 속에서 인간은 빠르게 늙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노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픈 탄식을 내뱉었다.

“아, 아이야,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말이다. 너는 분명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제우스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너를 미워하셨음이 틀림없다.

네가 번개 치는 자, 제우스에게 바친 그 수많은 기름진 허벅지 고기와 그토록 많은 제물들을 보아라. 그 어떤 필멸자도 너만큼 제우스에게 많은 제물을 바치며, 네가 평안하고 풍족한 노년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키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아라, 이제 제우스께서는 오직 너에게서만 네가 돌아올 날을 완전히 끊어버리셨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렴치한 자들이 당신을 모두 비웃는 것처럼, 그도 낯설고 먼 땅의 어떤 영광스러운 집을 찾아갔을 때 여인들이 그를 비웃었을 것이오.

당신이 저들에게 당신의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저들의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피하기 위함이겠지. 하지만 전혀 마다하지 않는 나에게는, 이카리오스의 딸인 현명한 페넬로페가 당신의 발을 씻겨 주라고 명했소.

그러니 나는 페넬로페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의 발을 씻겨 주겠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고난을 겪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왔었지만, 나는 단언컨대 당신처럼 모습이 다른 사람과 이토록 닮은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발도 오디세우스와 똑같습니다."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노부인여, 우리 둘을 본 눈을 가진 모든 사람도 당신이 알아보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매우 닮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노파는 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물이 담긴 빛나는 솥을 가져왔다. 노파는 솥에 찬물을 듬뿍 붓고, 거기에 따뜻한 물을 더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화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즉시 어둠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노파가 자신의 몸을 만지다가 흉터를 발견하여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오디세우스의 마음속에 즉시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가가 주인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고, 곧 흉터를 알아보았다. 오래전 오디세우스가 파르나소스로 외할아버지 아우톨리코스와 그의 아들들을 찾아갔을 때, 멧돼지가 흰 엄니로 낸 상처였다. 어머니의 고귀한 아버지 아우톨리코스는 도둑질과 맹세에서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 솜씨를 준 이는 바로 헤르메스 신이었다.

아우톨리코스는 어린 양과 새끼 염소의 넓적다리 살을 태워 신이 반기는 제물을 바치곤 했고, 그래서 헤르메스는 기꺼이 그의 편이 되어 주었다.

한편 아우톨리코스는 한때 풍요로운 땅 이타카에 왔다가, 자신의 딸이 낳은 손자가 갓 태어난 아기인 것을 발견했다.

아우톨리코스가 저녁 식사를 마치려 할 때, 에우리클레이아가 그 아이를 그의 무릎 위에 눕히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우톨리코스여, 당신의 자식의 자식에게 줄 이름을 이제 정하십시오. 그 아이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아이입니다.”

아우톨리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내 사위와 내 딸아, 내가 말하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 주어라. 나는 풍요로운 이 땅 곳곳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에게 노여움을 품은 채 이곳에 왔다.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을 오디세우스라 하여라.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 내 재산이 있는 파르나소스의 외가 큰집으로 오면, 내 재산을 나누어 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오디세우스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아우톨리코스가 그에게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주기 위해서였다.

아우톨리코스와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은 환영의 뜻으로 오디세우스의 손을 맞잡고 다정한 말로 그를 맞이했다. 오디세우스의 외할머니인 암피테아는 오디세우스를 품에 안고 그의 머리와 아름다운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아우톨리코스는 영광스러운 아들들을 불러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부름에 귀를 기울였다.

아들들은 즉시 다섯 살 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와, 그 황소의 가죽을 벗기고 손질하여 모든 부위를 잘게 나누었다.

그들은 고기를 정교하게 썰고 꼬챙이로 꿰어, 능숙하게 구운 뒤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잔치를 벌였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풍성한 잔치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누워 잠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장미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사냥개들과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 그리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도 함께 사냥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숲으로 뒤덮인 가파른 파르나소스 산을 올라갔고, 곧 바람 부는 산골짜기에 다다랐다.

부드럽게 흐르는 깊은 오케아노스에서 태양이 떠오르며 들판을 막 비추기 시작할 무렵, 몰이꾼들이 숲의 빈터에 도착했다.

사냥개들이 앞장서서 냄새를 추적했고, 그 뒤를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이 따랐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사냥개들의 바로 뒤에서 긴 창을 휘두르며 그들 사이를 뒤따랐다.

그곳에는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울창한 은신처에 누워 있었다. 그 은신처는 매우 빽빽해서 젖은 바람의 힘도 결코 불어 들어올 수 없었고, 빛나는 태양의 광선도 내리쬐지 못했으며, 빗줄기조차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그곳에는 낙엽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다.

그때 사냥을 몰아붙이는 사람들과 개들의 발소리가 멧돼지 주변에서 들려왔다. 멧돼지는 은신처에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멧돼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눈에는 불꽃을 번뜩이며, 그들 바로 앞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멈춰 섰다.

이에 무엇보다 먼저 오디세우스가 달려들었다. 그는 그를 내리치고 싶은 마음에 튼튼한 손으로 긴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나 멧돼지는 오디세우스보다 훨씬 빨랐다. 멧돼지는 옆으로 돌진하며 오디세우스의 무릎 위쪽을 들이받았고, 엄니로 살점을 길게 찢어 놓았다. 다만 사람의 뼈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정확한 조준으로 멧돼지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빛나는 창끝이 어깨를 관통하여 뚫고 지나갔다. 멧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먼지 속으로 쓰러졌고, 목숨이 끊어졌다.

아우톨리코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체 처리에 몰두했다. 그들은 신과 같은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상처를 능숙하게 붕대로 감아 묶어 주었고, 주문을 사용하여 검은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했다. 그러고는 곧장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우톨리코스와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이 오디세우스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주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디세우스를 그의 고향인 이타카로 신속히 돌려보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는 그의 귀환을 기뻐하며, 그가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물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다.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과 함께 파르나소스에 사냥을 하러 갔을 때, 멧돼지가 하얀 엄니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말해주었다.

노파는 그 다리를 손바닥으로 받쳐 들었을 때, 만져보고는 이 흉터를 알아차리고는 발을 놓아버렸다.

다리가 대야 속으로 떨어지자 놋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대야가 기울어 넘어지는 바람에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 순간 노파의 마음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의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목소리는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노파는 오디세우스의 턱을 만지며 말했다.

"참으로 당신은 오디세우스군요,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주인의 몸 구석구석을 다 만져보기 전까지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말을 하며,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음을 페넬로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눈길을 페넬로페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테나가 페넬로페의 생각을 돌려놓았기에, 페넬로페는 에우리클레이아의 시선을 마주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반면 오디세우스는 여인의 목을 더듬다가 오른손으로 그 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에우리클레이아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어머니,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친히 이 젖가슴으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차리셨고 신께서 어머니의 마음에 이 생각을 심어주셨으니, 대청의 다른 이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도록 침묵하십시오.

내가 어머니께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신께서 위엄 있는 구혼자들을 내게 굴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대청의 다른 여종들을 죽일 때 나의 유모인 어머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이야, 네 입술 사이로 어찌 그런 말이 흘러나왔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굽히지 않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단단한 돌이나 철처럼 요지부동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테니, 너는 이를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만약 신께서 위엄 있는 구혼자들을 네게 굴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네 궁전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누가 너를 욕보이는 자이고 누가 죄가 없는 자인지 네게 하나하나 일러주겠다."

이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잘 살펴보고,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이 일을 가슴에만 묻어 두시고, 결과는 신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오디세우스가 말하자, 노파 에우리클레이아는 발을 씻길 물을 가져오기 위해 홀을 가로질러 나갔다. 이미 물을 한 차례 다 쏟아버린 상태였다.

에우리클레이아가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기고 기름을 듬뿍 발라주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몸을 녹이기 위해 다시 의자를 불 가까이로 끌어당겼고, 누더기로 자신의 흉터를 가렸다.

현명한 페넬로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낯선 이여, 내가 당신에게 이 작은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곧 즐거운 휴식을 취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고통 속에서도 달콤한 잠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주셨다. 나는 매일같이 집안일과 여인들의 일을 돌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에서 오히려 하루의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나 밤이 찾아와 잠이 모든 이를 사로잡으면, 나는 침대에 눕는다. 그러면 날카로운 근심들이 고동치는 내 심장 주위로 빽빽하게 몰려들어, 내가 슬퍼하는 동안 나를 괴롭힌다.

마치 판다레우스의 딸, 푸른 숲의 나이팅게일이 봄이 갓 찾아왔을 때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 앉아 달콤하게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실수로 칼로 죽이고 만 제토스 왕의 아들, 사랑하는 이틸로스를 위해 풍성한 목소리를 떨며 슬프게 울부짖습니다.

내 마음도 그와 같이 의구심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침소와 백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내 아들과 함께 머물며 나의 재산과 노예들, 그리고 지붕이 높고 거대한 나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지 고민됩니다.

아니면, 이 궁전에서 나에게 구혼하며 셀 수 없이 많은 혼수 예물을 바치는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를 따라 지금 떠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내 아들은 어린아이였고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내가 결혼하여 남편의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다 자라 성인이 되었으니, 보라, 아들은 오히려 나에게 이 궁전에서 다시 떠나라고 간청하고 있다. 아카이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축내며 먹어 치우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자, 이제 나의 이 꿈을 듣고 나를 위해 해석해 주시오. 우리 집에는 물에서 나와 밀을 먹는 스무 마리의 거위가 있는데, 나는 그 거위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굽은 부리를 가진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왔다. 그 독수리는 거위들의 목을 모두 부러뜨려 죽였다. 거위들은 홀 안에 한 더미로 흩어져 죽어 있었고, 독수리는 밝은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그 꿈속에서 나는 울며 통곡했다. 독수리가 나의 거위들을 죽였기에 나는 비통하게 슬퍼했다. 그러자 머리칼이 아름다운 아카이아 여인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에 그는 다시 돌아와 툭 튀어나온 지붕 서까래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필멸의 인간과 같은 목소리로 나의 울음을 그치게 하며 말했다.

"'기운을 내거라, 멀리 이름 높은 이카리오스의 딸아. 이것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좋은 일에 대한 진실한 환영이다.

거위들은 구혼자들이고, 이전에 독수리였던 나는 이제 네 남편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나는 저 모든 구혼자들에게 잔혹한 운명을 내릴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달콤한 잠에서 풀려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위들이 예전에 먹이를 먹던 곳인 구유 옆에서 밀을 먹고 있었다."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부인, 이 꿈을 밀어내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디세우스 자신이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당신에게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구혼자들의 파멸은 모든 이가 명백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죽음과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다시 대답했다.

"낯선 이여, 참으로 꿈이란 사람을 현혹하고 그 의미도 불분명한 법입니다. 꿈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그림자 같은 꿈이 드나드는 문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뿔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상아로 만들어졌습니다.

톱으로 켠 상아 문을 통해 지나가는 꿈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결코 실현되지 않을 말들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매끄럽게 닦은 뿔 문을 통해 나오는 꿈들은, 필멸의 인간이 그것을 보았을 때 진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나의 이 기이한 꿈은 그 문을 통해 온 것이 아닌 듯합니다.

아, 정말 그랬다면 나와 내 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네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테니, 너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오디세우스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불길한 이름의 아침이 바로 오늘 오고 있다. 나는 오늘,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홀에 배를 건조할 때 쓰는 지지대처럼 열두 개의 도끼를 줄지어 세워두고, 멀리 서서 화살을 쏘아 그것들을 꿰뚫곤 했던 그 도끼들로 경연을 열 것이다.

이제 나는 구혼자들 앞에 이 경연을 내걸 것이다. 손에 든 활에 가장 쉽게 시위를 걸고, 열두 개의 도끼를 모두 관통하여 화살을 쏘는 자가 누구든, 나는 그와 함께 떠나 나의 혼인 생활이 깃든 이 집을 떠나겠다.

이 집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내 생각에 나는 꿈속에서조차 이 집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인 오디세우스의 존경하는 아내여, 이제 더는 당신의 궁전에서 이 경연을 미루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이 매끄러운 활을 다루는 저 사람들이 활시위를 걸고 철제 도끼들을 화살로 꿰뚫기도 전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곳에 도착할 것이오."

그러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낯선 이여, 만약 당신이 내 궁전에 앉아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내 눈꺼풀 위로 잠이 쏟아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원히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멸의 신들이 곡식을 내어 주는 땅 위의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내 위층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울 것입니다. 그 침대는 오디세우스가 결코 이름 불러서는 안 될 불길한 일리오스를 보러 떠난 날 이후로, 내 눈물로 늘 젖어 있는 통곡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저 위층 방에 가서 누울 것이니, 당신은 바닥에 잠자리를 펴고 여기 홀에 누워 계십시오. 아니면 시녀들에게 당신을 위한 침상을 마련하라고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페넬로페는 밝은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혼자 가지 않았고, 그녀의 시녀들도 함께 따라갔다.

페넬로페가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간 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슬퍼하며 울었다. 눈부신 눈을 가진 아테나가 페넬로페의 눈꺼풀에 달콤한 잠을 내려줄 때까지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제20권

결전 앞의 징조

그러나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집의 앞쪽 현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는 바닥에 가공하지 않은 소가죽을 깔고, 그 위에 아카이아인들이 흔히 잡던 양털 여러 장을 펴 놓았다. 에우리노메는 오디세우스가 자리를 잡자 그에게 망토를 덮어 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에게 닥칠 재앙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예전에 구혼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하곤 했던 여인들이 홀에서 나왔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며 떠들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마음이 요동쳤다. 오디세우스는 여인들을 뒤쫓아 달려들어 하나하나 죽여버려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그 무례한 구혼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섞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지 마음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의 마음은 속에서부터 으르렁거렸다.

모르는 남자를 보았을 때, 암캐가 자신의 어린 새끼들을
지키며 싸우고 싶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로 그의 마음이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마음을 꾸짖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견뎌라, 나의 마음아. 너는 예전에 그날, 대담함을 억제하지
못한 키클롭스가 나의 용맹한 동료들을 잡아먹었을 때도
이보다 더한 일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때 너는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동굴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빠져나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는 가슴 속의 마음을 꾸짖으며 그렇게 말했고, 그의 마음은
꿋꿋이 견뎌내기 위해 가슴 속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자신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누워 있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커다란 불길 앞에서 기름과 피가 가득 찬
위장을 빠르게 구워 먹고 싶어 안달하며 이리저리 재빨리
돌리는 것과 같이, 오디세우스도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는 혼자서 저 수많은 구혼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러자 아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여인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아테나는 그의 머리맡에 서서 그에게 말을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는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여? 보아라, 이곳은 그대의 집이며, 그대의 아내와 아이가 이 안에 있다. 내 생각에 그 아이는 누구나 아들로 삼기를 기도할 만큼 훌륭한 아이로구나."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여신에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여신이여. 하신 말씀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 일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늘 집 안에 무리 지어 있는데, 혼자인 제가 어떻게 저 파렴치한 구혼자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려운 문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여신의 뜻으로 그들을 죽인다 해도, 그 뒤에는 어디로 가야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번뜩이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고집스러운 자여, 많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약한 친구도 믿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며 나만큼 지혜롭지도 못한 친구를 말이다. 그러나 나는 신이며, 네 모든 고난 속에서 끝까지 너를 지켜 주는 존재다. 분명히 말하겠다.

쉰 무리의 인간들이 전투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에워싼다 해도, 너는 그들의 소와 훌륭한 양 떼까지 몰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잠이 너를 덮게 하여라.

밤새도록 깨어 경계하며 지키는 일 또한 고단한 법이다. 그리고 이제 곧 너는 너의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테나는 말을 마쳤고, 오디세우스의 눈꺼풀 위로 잠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신 아테나는 스스로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잠이 그를 사로잡아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었다. 사람의 사지를 나른하게 만드는 그 잠이 그를 덮쳤다.

그사이 마음을 다한 그의 아내 페넬로페는 부드러운 침상에 앉아 울며 깨어났다.

페넬로페가 마음껏 울고 난 뒤에, 그 아름다운 여인은 무엇보다 먼저 아르테미스에게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여, 제우스의 딸이여, 차라리 지금 당신의 화살을 내 가슴에 꽂아 이 순간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소서.

아니면 폭풍이 나를 휩쓸어 저 어두운 길 너머로 실어 가고, 예전에 폭풍이 판다레우스의 딸들을 휩쓸어 갔던 것처럼, 거꾸로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입구에 나를 내던져 버려 주소서.

신들은 그들의 부모를 죽였고, 소녀들은 궁전에 고아로 남겨졌다.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는 치즈와 달콤한 꿀, 그리고 즐거운 포도주로 소녀들을 돌보았다.

헤라는 소녀들에게 다른 모든 여인보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었다. 정결한 아르테미스는 소녀들에게 당당한 체격을 주었고, 아테나는 소녀들에게 명성 높은 수공예 기술을 가르쳤다.

그러나 아름다운 아프로디테가 그 소녀들에게 즐거운 혼례가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러 높은 올림포스로 향하던 중이었다.

아프로디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벼락을 내리치는 제우스에게 가려 했다. 제우스는 필멸의 인간들이 겪는 행복과 불행을 모두 알고 계셨다.

그 사이 폭풍의 정령들이 그 소녀들을 낚아채 갔고, 소녀들을 가혹한 에리니에스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게 했다.

차라리 올림포스에 거처를 둔 신들이 나를 눈앞에서 지워버렸으면, 혹은 아름다운 머리칼의 아르테미스가 나를 내리쳤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오디세우스가 살아있는 채로, 차라리 저주받은 지하 세계로 떠나버릴 수 있다면, 결코 저 비열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낮 동안 마음이 몹시 괴로워 울다가도, 밤이 되어 잠이 찾아오면 그것은 견딜 만한 악이 된다. 잠이 일단 눈꺼풀을 덮으면, 사람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은 나에게 악몽까지 보내고 계신다.

오늘 밤에도 그와 꼭 닮은 이가 내 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군대와 함께 떠날 때의 모습과 똑같은 이였다.
나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마침내 마주한 진실이라고
생각했기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황금 옥좌를 가진 새벽이 곧바로
찾아왔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자신을 알고 그의
머리맡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누워 있던 망토와
양털들을 거두어 홀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았다. 그는 소가죽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내려놓았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제우스에게 기도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만약 신들께서 저를 모질게 괴롭히신
뒤에, 당신들의 선한 뜻으로 저를 육지와 바다를 건너 제
고향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면, 깨어나는 이들 중 누군가가 집
안에서 저를 위한 길조의 말을 내뱉게 하소서. 또한 밖에서는
제우스께서 보내시는 표징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오디세우스가 기도를 올리자, 조언자이신 제우스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우스는 즉시 빛나는 올림포스 높은 곳, 구름 사이에서 천둥을 울렸다. 그러자 선량한 오디세우스는 기뻐했다.

그때, 백성의 목자인 오디세우스의 방앗간이 있는 집 안에서, 곡식을 갈던 한 여인이 징조가 될 만한 말을 내뱉었다.

그 방앗간에서는 열두 명의 여인이 늘 일하며, 인간의 양식인 보리와 밀을 갈아 가루로 만들곤 했다.

다른 이들은 밀을 다 갈아놓았기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만은 아직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가 그들 중 가장 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맷돌질을 멈추고, 자신의 주인에게 징조가 될 말을 내뱉었다.

“신들과 인간들의 주님이신 제우스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정말로 크게 천둥을 치셨으나, 정작 어디에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당신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입니다.

이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저를 위해서도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이루어 주소서. 구혼자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는 없을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하소서.

제가 보리를 가루로 만드는 동안 쓰라린 노동으로 제 팔다리를 지치게 했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즐기게 하소서."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 징조의 말과 제우스의 천둥소리를 듣고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다른 시녀들은 한데 모여 화로에 지치지 않는 불을 지피고 있었다.

신과 같은 사내인 텔레마코스는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어깨에 찼고, 빛나는 발에는 아름다운 샌들을 묶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청동 날이 달린 강력한 창을 들고 문턱으로 가서 섰다. 그러고는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을 건넸다.

“사랑하는 유모님, 우리 집의 이 이방인에게 침상과 음식을 대접하여 예우를 갖추었나요, 아니면 그가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누워 있나요?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현명하실지라도 늘 그런 식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상대가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경이로운 방식으로 대접하시면서, 정작 더 나은 사람에게는 예우를 갖추지 않고 돌려보내시곤 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얘야, 이 일에는 잘못이 없는 어머니를 탓하지 마라. 손님은 이곳에 앉아 원하는 만큼 포도주를 마셨다. 어머니가 음식을 권하셨지만, 손님은 더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다. 손님이 쉬며 잠들려 하자 어머니는 시녀들에게 잠자리를 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침상에서 담요를 덮고 자려 하지 않았다. 앞쪽 현관에서 무두질하지 않은 소가죽과 양털 위에 누웠고, 우리가 그에게 망토를 덮어 주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텔레마코스는 손에 창을 든 채 홀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재빠른 사냥개 두 마리도 그를 따라 나갔다.

텔레마코스는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춰 찬 아카이아인들의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 집회 장소로 향했다.

한편, 페이세노르의 아들 옵스의 딸인 선량한 여인 에우리클레이아는 자신의 시녀들을 불러 모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 너희 중 몇몇은 부지런히 홀을 쓸고 물을 뿌려라. 모양이 잘 잡힌 의자들 위에는 보랏빛 덮개를 덮어두고, 다른 이들은 스펀지로 모든 탁자를 닦고 혼합용 그릇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중 잔들을 깨끗이 씻어라. 또 다른 이들은 물을 길으러 샘으로 가서 그것을 재빨리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구혼자들이 홀을 비우는 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곧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축제일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하녀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다.

그들 중 스무 명은 검은 물이 흐르는 샘으로 향했고, 나머지 하녀들은 집 안에서 숙련된 솜씨로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아카이아인들의 하인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그 후로 나무 장작을 능숙하고 솜씨 좋게 패었다. 여인들도 샘에서 돌아왔다.

그들 뒤를 이어 돼지치기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돼지 떼 중에서 가장 좋은 수퇘지 세 마리를 몰고 왔다. 돼지치기는 이 수퇘지들을 아름다운 마당에서 먹게 내버려 두고,
오디세우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을 건넸다.

"이방인이여, 아카이아인들이 그대를 이제는 좀 더 존중하며 대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대궐에서 그대를 모욕하는가?"

이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 에우마이오스여,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방탕하게 악한 어리석음을 꾸미고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는 이 무도한 행위에 신들이 복수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말을 나누었다.

그때 염치없는 구혼자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모든 무리 중에서 가장 좋은
암염소들을 몰고 그들 근처로 다가왔다. 두 명의 목동이 그를 따라왔다.

멜란티오스는 메아리치는 주랑 아래에 염소들을 묶어 두었다. 그리고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조롱 섞인 말로 말을 걸었다.

“이방인이여, 너는 아직도 이곳 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셈이냐, 도대체 언제 떠날 것이냐?

내 생각에, 너의 구걸은 도무지 품위가 없으니, 우리가 서로의 주먹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헤어지지 못할 것 같구나.

또한 아카이아인들을 위한 잔치가 이곳에서만 열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그저 침묵 속에 고개를 저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일을 생각했다.

이들 외에 세 번째 사람인 필로이티오스가 나타났다. 그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으며, 구혼자들을 위해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 한 마리와 살찐 암염소들을 몰고 오고 있었다.

이 짐승들은 본토에서 나룻배 사공들이 실어 온 것이었다. 그 사공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배에 태워 보내곤 했다.

필로이티오스는 울림이 있는 주랑 아래에 짐승들을 조심스럽게 매어 두었다. 그러고는 돼지치기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했다.

"돼지치기여, 우리 집에 새로 온 이 낯선 이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그의 친척들과 고향의 들판은 어디에 있는가?

가엾은 사람이로다! 하지만 참으로 그의 모습은 왕자처럼 위엄이 있구나. 비록 신들이 고난의 실타래를 자아낼 때면, 그들이 왕일지라도 멀리 떠도는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을지라도 말이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낯선 이여, 반갑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슬픔의 노예가 되어 있으나, 앞으로 당신에게 행복한 운명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우스 아버지여, 당신보다 더 해로운 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직접 낳아 주셨음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고난과 비참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남자를 눈여겨보았을 때 나는 식은땀이 흘렀고,
오디세우스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살아 있어서 태양 빛을 보고 있다면, 그 역시 지금쯤
누더기를 걸친 채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방랑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그가 이미 죽어 하데스의 집에 있다면, 결백한
오디세우스 때문에 나는 참으로 비통할 것이다. 내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는 케팔로니아 땅에서 나에게 자신의
소들을 돌보게 맡겼었다.

이제 그 소들은 다 자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이처럼 넓은 이마를 가진 소 떼가 필멸의 인간에게 이보다 더
나은 번성함을 가져다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낯선 이들은 내가 이 소들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몰아주기를 요구했다. 그들은 집에 남겨진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신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떠나 있는 우리 주인의 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기에만 급급했다.

이제 나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내 가슴 속의 마음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되뇌고 있다.

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 내 소들을 데리고 낯선 이들의 땅,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민족에게로 떠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넘겨준 소들을 맡은 채 이곳에 남아 고난을 겪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다.

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도망쳐서 다른 위엄 있는 왕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불행한 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혹시라도 어디선가 돌아오셔서, 자신의 집에서 구혼자들을 흩어버리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 말에 교활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소치기여, 그대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 듯 보이네. 또한 그대가 총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겠네. 그러니 나는 내 말을 확증하기 위해 솔직하게 말하며 위대한 맹세를 하겠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제우스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이 환대의 식탁과 내가 찾아온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화로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기를 바라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대가 원한다면 이곳에서 위세를 떨치는 구혼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네."

그러자 소를 치는 목동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 이방인이여, 크로노스의 아들이 당신의 이 말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손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우마이오스도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모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말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사이 구혼자들은 텔레마코스를 죽이고 운명을 결정지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왼쪽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것은 겁에 질린 비둘기를 움켜쥔 채 높이 비행하는 독수리였다.

암피노모스가 그들의 모임에서 입을 열어 말했다.

"친구들이여, 텔레마코스를 죽이려는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일단 잔치에 대해 생각해보세."

그렇게 암피노모스가 말했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의자와 높은 좌석 위에 겉옷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커다란 양과 살찐 염소, 그리고 살찐 돼지와 무리에 속한 암소를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장을 구워 대접하고 그릇에 포도주를 섞었으며, 돼지치기가 잔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의 지도자인 필로이티오스는 아름다운 바구니에 빵을 담아 가져왔고, 멜란티오스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지만 텔레마코스는 교묘한 생각을 품고, 오디세우스를 돌로 만든 문턱 옆의 잘 지어진 홀 안쪽에 앉혔다. 그리고 그를 위해 보잘것없는 의자와 작은 탁자를 놓아주었다.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 곁에 내장 요리를 차려놓고 금잔에 포도주를 따라 부으며 그에게 말했다.

"여기 귀족들 사이에 앉아 포도주를 마시게. 모든 구혼자가 퍼붓는 비난과 매질로부터 내가 직접 자네를 지켜주겠네. 이곳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집이며, 오디세우스가 나를 위해 얻어준 곳이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구혼자들인 자네들도 비난과 매질을 하려는 마음을 거두게나. 그리하여 어떤 다툼이나 싸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말일세."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며 텔레마코스가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경탄했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카이아인들이여, 거북하더라도 텔레마코스의 말을 받아들이자. 저자가 말로 대담하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말이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자가 아무리 낭랑하게 떠들어도 우리는 벌써 이 전당에서 그 입을 막아 버렸을 것이다."

안티노오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텔레마코스는 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동안 전령들은 신들에게 바칠 성대한 희생제에 쓸 거룩한 제물들을 도시로 끌고 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궁수 신인 아폴론의 그늘진 숲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내장 밖의 살코기를 굽고 꼬챙이에서 고기를 빼낸 뒤에는, 각자의 몫을 나누어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였다.

그때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스러운 아들 텔레마코스가 명령한 대로, 시중을 드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몫을 자신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양으로 떼어 놓았다.

그렇지만 아테나는 오만한 구혼자들이 비열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결코 막지 않았다. 그것은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마음속에 고통이 더욱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구혼자들 중에는 법도를 무시하고 무법을 일삼는 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크테시포스였고, 사메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끝없는 재산을 믿고서, 오랫동안 떠나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내를 구혼하고 있었다.

오만한 구혼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가 말을 꺼냈다.

"오만한 구혼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이방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몫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 집에 오는 사람이 누구든, 텔레마코스의 손님에게 그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다.

아니, 이리 오너라. 나 또한 그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선물을 주겠다. 그리하여 그가 답례로 목욕시키는 여인이나,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말하며, 크테시포스는 바구니에 놓여 있던 소의 발굽을 힘찬 손으로 집어 들어 내던졌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머리를 재빨리 돌려 그것을 피했다. 오디세우스는 마음속으로 아주 잔인하고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소의 발굽은 잘 지어진 벽에 부딪혔다.

텔레마코스가 크테시포스를 꾸짖으며 말했다.

"크테시포스여, 진실로 이번 일은 네 영혼에 이득이 된 일이다. 네가 던진 것을 그 이방인이 몸을 돌려 피했기에 그가 맞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그가 맞았다면, 나는 분명 날카로운 창으로 너를 몸통째 꿰뚫었을 것이며, 네 아버지는 이 땅에서 혼례 잔치 대신 장례 잔치를 치르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경고하노니, 누구도 내 집에서 주제넘게 행동하지 마라. 이전의 나는 그저 어린아이였으나, 이제 나는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들을 지켜보며 견디고 있다. 양들이 도살되고, 술이 마셔지며, 빵이 소비되는 동안에도 말이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억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니까.

이제 그만두어라. 너희의 악한 마음으로 더는 나를 해치려 들지 마라. 만약 너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칼로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택하겠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낯선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회장에서 하녀들을 수치스럽게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 말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가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정당하게 말한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며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집 안에 있는 이방인이나 종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아라.

만약 내 말이 텔레마코스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싶다.

현명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며 궁전에서 구혼자들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비난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자신의 집으로 복귀했다면, 그것은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어머니 곁에 앉아 이 말을 전해드려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가장 많은 예물을 바치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야 네가 먹고 마시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고, 어머니께서도 다른 이의 집안을 돌보실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니오, 아겔라오스여, 제우스와 이타카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죽었거나 방랑하고 계실 나의 아버지의 고난을 걸고 맹세컨대, 나는 어머니의 결혼을 결코 늦추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남자와 결혼하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게다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강요하는 말로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어머니를 홀에서 몰아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신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마코스가 그렇게 말했으나, 팔라스 아테나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멈출 수 없는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정신을 흐트러뜨렸다.

이제 구혼자들은 낯선 입술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이 먹는 고기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마음은 통곡에 사로잡혔다.

그때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아, 비참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들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몸을 받치는 무릎까지 밤의 어둠에 가려져 있구나. 통곡 소리는 타오르고, 뺨은 눈물에 젖었으며, 벽과 아름다운 서까래에는 피가 튀어 있도다.

현관과 안뜰은 어둠 속에서 에레보스로 서둘러 내려가는 유령들로 가득 찼구나. 하늘에서는 태양이 사라졌고, 사악한 안개가 모든 것 위에 감돌고 있도다.”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구혼자들은 모두 그를 향해 즐겁게 웃어댔다.

그들 중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방금 막 타지에서 온 이 이방인은 미쳤구나. 젊은이들아, 어서 저 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이곳이 마치 밤처럼 어둡다고 하니, 저 자가 갈 길인 집회 장소로 보내버려라.”

그 말에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여, 나는 결코 네가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에게는 눈과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으며, 내 가슴 속에는 결코 보잘것없이 만들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다.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악한 어리석음을 꾸미는 너희 구혼자들 중 그 누구도 피하거나 면할 수 없는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것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위엄 있는 대강당을 나서서 페이라이오스에게로 갔다. 페이라이오스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구혼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텔레마코스의 손님들을 비웃음으로써 그를 자극하려 했다.

그러자 오만한 청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이 자와 같은 불결한 부랑자를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으니, 그대보다 손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자는 늘 빵과 포도주를 탐하며, 평화로운 일에도 전쟁의 일에도 능숙하지 못한, 그저 땅의 짐일 뿐이다.

게다가 저 다른 자는 또 일어나 예언을 하려 드는구나. 차라리 내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 이방인들을 노를 젓는 배에 실어 시칠리아로 보내버리자.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적당한 값을 쳐서 가져다줄 것이다."

구혼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텔레마코스는 그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텔레마코스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저 파렴치한 구혼자들에게 손을 뻗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러나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지혜로운 페넬로페는 그들을 마주 보고 아름다운 의자를 놓은 채, 홀 안에서 들려오는 사내들 각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구혼자들은 많은 짐승을 잡아, 웃음꽃을 피우며 달콤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곧 여신과 위대한 영웅이 그들 앞에 차려줄 저녁 식사만큼 달갑지 않은 식사는 없을 것이었다. 구혼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1권

활 겨루기

그렇지만 눈부신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지혜로운 페넬로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집 홀에 있는 구혼자들 앞에 활과 회색 철을 내놓게 하여, 경합을 벌이게 함으로써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페넬로페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높은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튼튼한 손으로 굽은 열쇠를 쥐었다. 그것은 상아 손잡이가 달린 훌륭한 청동 열쇠였다.

이어 페넬로페는 시녀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소유인 청동과 금, 그리고 공들여 가공한 철로 된 보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뒤로 굽은 활과 화살을 담은 화살통이 놓여 있었다. 화살통 안에는 신음 소리가 들릴 듯한 수많은 화살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오디세우스의 친구가 그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 친구는 한때 라케다이몬에서 만났던, 신들과도 같았던 에우리토스의 아들 이피토스였다.

두 사람은 메세네에 있는 현명한 오르틸로코스의 집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사실 온 백성이 자신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메세네 사람들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이타카에서 양 삼백 마리와 목자들을 함께 실어 갔기 때문이었다.

오디세우스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다른 원로들이 그를 보냈기에, 그는 바로 이것들을 구하기 위한 사절단으로서 먼 길을 떠났던 것이었다.

한편 이피토스는 자신이 잃어버린 번식용 암말 열두 마리와 그 젖을 먹던 튼튼한 새끼 노새들을 찾아 나선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용맹한 행적을 잘 아는 제우스의 아들, 강인한 헤라클레스를 찾아갔을 때, 그 만남은 그에게 죽음과 파멸을 가져다주었다.

헤라클레스는 이피토스가 자신의 손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서 무자비하게 그를 죽였다.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분노도, 자신이 이피토스 앞에 차려 놓았던 식탁의 예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이피토스를 죽인 뒤, 그 튼튼한 발굽을 가진 암말들을 자신의 궁전에 차지했다.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던 중에 이피토스가 오디세우스를 만났고, 그에게 활을 주었다. 그 활은 옛날 위대한 에우리토스가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그가 죽으면서 높은 저택에 있는 아들에게 남겨준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이피토스와 사랑이 넘치는 우정을 시작하기 위해, 그에게 날카로운 칼과 강력한 창을 선물로 주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식탁에서 서로를 마주할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제우스의 아들이, 오디세우스에게 활을 주었던 신과 같은 사람인 에우리토스의 아들 이피토스를 죽였기 때문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훌륭한 활을 검은 배에 싣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 활은 그리운 친구를 기리는 기념물로서 그의 집 안 홀에 놓여 있었으며, 그는 오직 자신의 땅에 있을 때만 그 활을 지니고 다녔다.

아름다운 여인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녀는 참나무로 된 문턱을 밟았다. 그 문턱은 옛날에 목수가 숙련된 솜씨로 먹줄에 맞추어 매끄럽고 곧게 깎아 만든 것이었다. 목수는 그 문턱에 문설주를 맞추고 빛나는 문들을 달아 놓기도 했다.

그녀는 즉시 손잡이에서 끈을 빠르게 풀고 열쇠를 꽂아 넣었다. 그리고 정확한 조준으로 빗장들을 뒤로 밀어 열었다.

열쇠가 문을 치자, 마치 초원에서 풀을 뜯던 황소가 울부짖는 것처럼 빛나는 문들이 큰 소리를 냈다. 그러자 문들은 그녀 앞에서 빠르게 활짝 열렸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향기로운 옷들이 보관된 상자들이 놓인 높은 바닥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그곳에서 손을 뻗어, 걸이에 걸려 있던 활과 그 활을 감싸고 있는 빛나는 케이스를 함께 집어 들었다.

페넬로페는 그곳에 앉아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크게 울었다. 그러고는 남편의 활을 꺼냈다.

그러나 눈물 섞인 통곡을 실컷 하고 난 뒤, 페넬로페는 손에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들고 위엄 있는 구혼자들이 모여 있는 홀로 향했다. 뒤로 휘어진 그 활과 함께 가져온 화살통에는 신음을 안겨 줄 화살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곁에서는 시녀들이 상자 하나를 운반하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의 남편이 쓰던 무구인 철제와 청동제 장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 페넬로페가 구혼자들에게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잘 지어진 홀의 문설주 옆에 섰다. 페넬로페는 빛나는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충실한 시녀가 그녀의 양옆에 한 명씩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곧바로 말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들으라, 오만한 구혼자들이여. 이 집의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너희는 끝없이 먹고 마시기 위해 이 집을 에워쌌구나.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하고 싶다는 것 말고는 너희가 내세울 다른 구실조차 찾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이제 오라, 구혼자들이여. 이것이 너희의 전리품임이 분명해졌으니.

나는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거대한 활을 너희 앞에 놓겠다. 누구든 자기 손으로 그 활에 가장 쉽게 시위를 걸고, 열두 개의 도끼 구멍을 모두 관통하는 화살을 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조차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 같은,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결혼 생활의 집을 나는 버리겠다."

페넬로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선량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구혼자들을 위해 활과 회색 철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에우마이오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것들을 가져다 놓았다. 다른 곳에서는 소치기 또한 자신의 주인이 쓰던 활을 보고 울었다.

그러자 안티노오스가 그들을 꾸짖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의 일들만 신경 쓰는 어리석은 무뢰한들아! 가련한 두 사람아, 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여인의 가슴을 괴롭히는 것이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음은 이미 고통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말이다.

차라리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울어라. 그리고 구혼자들을 위한 결정적인 경합의 도구인 이 활은 여기 남겨두어라. 내 생각에 이 매끄러운 활에 시위를 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를 직접 보았다.

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소, 비록 그때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활에 시위를 걸고 철제 도끼들을 관통하는 화살을 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그는 고귀한 오디세우스의 손에서 발사된 화살을 가장 먼저 맛보게 될 운명이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홀에 앉아 있었는데, 안티노오스는 그를 모욕하며 자기 동료들까지 모두 부추기고 있었다.

그때 강인하고 용맹한 텔레마코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보십시오, 참으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저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이 집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저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구혼자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전리품임이 분명해졌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여인은 지금 아카이아 땅에도, 신성한 필로스에도, 아르고스에도, 미케네에도, 이타카 자체에도, 혹은 어두운 본토 어디에도 그와 같은 분을 찾아볼 수 없는 여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칭송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변명하며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볼 수 있도록 활쏘기를 너무 오래 미루지도 마십시오.

또한 저도 직접 저 활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활시위를 걸어 화살을 철 고리 사이로 통과시킨다면,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이 집을 떠나 다른 주인을 따라가신다 해도 저는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의 훌륭한 전투 장비들을 다룰 능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텔레마코스는 등에 걸친 진홍빛 망토를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어깨에 멨던 날카로운 칼을 내려놓았다. 먼저 도끼들을 모두 세울 하나의 긴 도랑을 파서 먹줄에 맞추어 곧게 만들었다. 거기에 도끼들을 세우고 둘레의 흙을 발로 다졌다.

이전에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질서 있게 늘어놓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그러고는 문턱으로 가서 서서 활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활을 당기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세 번이나 활을 떨며 당기려 했으나, 세 번 모두 힘을 풀고 말았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활시위를 걸어 철 고리 사이로 화살을 쏘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말이다.

마침내 네 번째로 시위를 당기려 했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시위를 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고, 의욕에 찬 텔레마코스를 제지했다.

강인하고 용맹한 텔레마코스가 그들 사이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나는 앞으로도 겁쟁이에 약골로 남을 모양이군.
아니면 아직 너무 어려서, 누군가 까닭 없이 화를 내며 달려들 때 내 힘으로 맞설 자신이 없는 것인가. 자, 나보다 더 힘센 여러분이 활을 시험해 보시오. 이 경연을 끝냅시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활을 내려 바닥에 놓았다. 활은 마디가 있는 매끄러운 문에 기대어 놓았다.

그는 날카로운 화살을 아름다운 활 끝에 바로 옆에 기대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금 일어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앉았다.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우리 일행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술을 따르는 자가 있는 곳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어나 주십시오."

안티노오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은 구혼자들에게 즐겁게 들렸다.

이에 먼저 그들의 예언자인 오이놉스의 아들 레이오데스가 일어났다. 레이오데스는 언제나 전당 가장 안쪽에 있는 아름다운 혼합 그릇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탕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유일하게 혐오했으며, 모든 구혼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레이오데스가 가장 먼저 활과 빠른 화살을 집어 들고 문턱으로 가서 섰다. 그는 활을 시험해 보기 시작했으나, 활시위를 걸 수는 없었다.

그가 시위를 당기려 애쓰는 동안, 거친 일에 단련되지 않은 그의 여린 손은 힘이 빠져 지쳐갔다. 그리고 레이오데스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이 활에 시위를 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십시오.

수많은 귀족이 이 활 때문에 기운과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히 기다리며 이곳에 모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남자가 마음속으로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갈망한다.

그러나 그가 활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다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카이아 여인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예물을 바치며 구애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가장 많은 것을 바치는 자, 그리고 그녀의 운명적인 남편으로서 다가온 자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활을 내려놓았다. 그는 활을 마디가 있고 매끄럽게 닦인 문에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날카로운 화살을 아름다운 활 끝에 기대어 놓은 뒤, 방금 일어났던 자리인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러나 안티노오스가 그를 꾸짖으며 말을 건넸다.
"레이오데스여, 그대의 입술 사이로 어찌 그리 무섭고도 참혹한 말이 흘러나왔단 말인가! 만약 이 활이 정말로 귀족들의 기운과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면, 그대가 활시위를 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내가 네게 말하건대, 네 존경받는 어머니는 네가 활을 당겨 화살을 쏠 수 있을 만큼 강한 아들을 낳아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고귀한 구혼자들 중 다른 이들이 곧 그 활에 시위를 걸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를 불렀다.

“멜란티오스, 어서 전당에 불을 지펴라. 양털을 덮은 큰 의자를 그 곁에 놓고,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도 큰 것으로 가져오너라. 우리 젊은이들이 활을 데우고 기름을 발라 시험해 본 뒤에 이 경연을 끝낼 수 있도록 말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멜란티오스는 즉시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지폈다.

멜란티오스는 양털을 깐 커다란 의자를 가져와 불가에 놓았고, 안에 들어있던 커다란 지방 덩어리도 가져왔다.

청년들은 이렇게 활을 데우며 시험해 보았으나, 활시위를 걸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힘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티노오스는 여전히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고, 용맹함이 가장 뛰어난 구혼자들의 우두머리인 에우리마코스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종인 소치기와 돼지치기 두 사람은 이미 함께 홀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자신도 그들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문과 마당 밖으로 나갔을 때, 오디세우스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을 건넸다.

"소몰이치, 그리고 너도 돼지치야,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말해줄까, 아니면 그냥 비밀로 할까? 아니, 내 마음이 말해주라고 하는구나. 만약 오디세우스가 어디선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고, 어떤 신이 그를 데려온다면, 너희는 오디세우스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는 구혼자들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오디세우스를 도울 것이냐? 너희의 마음과 정신이 시키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 보아라."

이에 소치기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부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 남자가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신이라도 그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우마이오스도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신에게 기도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오디세우스는 대답하며 그들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이제 나는 진실로 나 자신으로서 여러분 앞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은 끝에, 스무 해 만에 나의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나의 모든 종들 중에서 오직 여러분 두 사람만이 나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 가운데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사람에게는 일어날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만약 신께서 저 위엄 있는 구혼자들을 제게 굴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당신들 각자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 주고, 재산과 제 집 근처에 지은 집도 줄 것입니다. 그 후로 당신들 둘은 내 눈에 텔레마코스의 친구이자 형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들이 잘 알고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내가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과 함께 파르나소스에 갔을 때, 멧돼지가 하얀 엄니로 내게 남긴 상처의 흉터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오디세우스는 커다란 흉터 위를 덮고 있던 누더기를 걷어냈다.

두 사람이 그 흉터를 보고 모든 것을 자세히 확인하자, 그들은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를 팔로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사랑을 담은 환영의 뜻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오디세우스 역시 그들의 머리와 손에 입을 맞추었다.

오디세우스가 직접 그들을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울고 있는 동안 해가 저물었을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이제 울음과 통곡을 그쳐라. 혹시라도 누군가 홀에서 나와 우리를 보고, 그 사실을 안쪽까지 알리게 될까 두렵구나.

그러나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한 명씩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너희가 들어가라. 이것을 신호로 삼도록 하자.

위세 당당한 구혼자들은 나머지 모두가 나에게 활과 화살통을 넘겨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훌륭한 에우마이오스야, 네가 홀을 지나 활을 들고 올 때 그것을 내 손에 쥐여다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그들의 홀에 있는 꼭 맞는 문들을 빗장으로 잠그라고 일러라.

만약 그들 중 누구라도 우리 성벽 안에서 신음 소리나
사람들의 소란을 듣게 된다면,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오지
말고 각자 하던 일을 조용히 계속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나 용맹한 필로이티오스, 너에게는 명하노니, 마당의
문을 빗장으로 잠그고 재빨리 밧줄을 던져 고정해 두어라.”

그렇게 말한 뒤, 오디세우스는 위엄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일어났던 자리에 가서 다시 앉았다.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두 노예도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에우리마코스는 이제 활을 손에 들고 불빛 아래에서 활의
이쪽저쪽을 데우며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는
활시위를 걸 수 없었다.

그는 고결한 마음속으로 신음했다.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만둬라! 진정 나는 나 자신과 너희 모두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 내가 이토록 크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코 결혼
때문이 아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자체에도, 혹은 다른
도시들에도 아카이아인 여인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활에 시위를 걸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니, 진정 우리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위력에 이토록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이 슬프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조차 듣게 된다면 비난할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자 에우페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네. 자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은 온 땅에 신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 거룩한 날이라네.

그런 날에 누가 활을 쏘려 하겠는가? 아니, 그냥 조용히 활을 내려놓게나. 그리고 도끼들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떤가? 내 생각에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전당에 찾아와서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네.

자, 어서 술을 가져온 사람에게 잔에 제물을 위한 술을 따르게 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부어 바치게 하고, 저 굽은 활은 잠시 치워두세.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염소치기 멜란티오스에게 명하여 온 무리에서 가장 좋은 암염소들을 가져오게 하세. 이름 높은 궁수 아폴론의 제단에 넓적다리 살을 올려 바치고, 그 뒤에 활을 시험하여 이 경연을 끝내세."

안티노오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자 전령들이 사람들의 손에 물을 부어 씻겼고, 청년들은 그릇에 마실 것을 가득 채워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먼저 잔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술을 조금씩 따랐다.

그들이 포도주를 부어 바치고 마음껏 술을 마신 뒤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영광스러운 여왕을 구애하는 자들이여, 내 가슴 속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무엇보다 에우리마코스에게 간청하며, 신과 같은 안티노오스에게도 간청한다. 안티노오스가 한 말, 즉 지금은 활을 쏘는 시험을 멈추고 결과는 신들에게 맡기자는 그 말은 옳았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이면 신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나에게 그 매끄러운 활을 주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내 손과 힘을 증명해 보이겠소. 내 유연한 사지에 예전과 같은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의 방랑과 굶주림이 그 힘을 앗아갔는지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가 잘 닦인 활에 시위를 걸까 두려워하며 모두 몹시 화를 냈다.

안티노오스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아, 가련한 이방인이여, 그대에게는 지혜가 전혀, 아니 단 한 조각의 지혜도 없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리 사이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연회를 즐기고, 잔치에 부족함이 없으며, 다른 이방인이나 거지들은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말과 대화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대를 상처 입히는 것은 바로 포도주로구나.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가, 만약 누군가 그것을 크게 들이켜고 지나치게 마신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법이다.

용맹한 에우리톤이라는 이름의 켄타우로스조차, 그가 라피타이인들을 찾아갔을 때 마음이 넓은 피리토오스의 홀에서 어리석게 만든 것은 바로 술이었다.

술로 인해 마음이 어리석어지자, 에우리톤은 광기에
사로잡혀 피리토오스의 집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때 영웅들이 슬픔에 잠겨 벌떡 일어났고, 무자비한 청동
칼로 에우리톤의 귀와 콧방울을 잘라낸 뒤 그를 성문 밖으로
끌어냈다.

마음이 어리석어진 에우리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를
짊어진 채,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길을 떠났다.

그 일로 인해 켄타우로스들과 인간들 사이에 원한이
생겨났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었던 그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온 것이었다.

만약 네가 활에 시위를 건다면, 너에게도 커다란 화가 닥칠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너는 우리 땅의 그 누구에게도
친절을 입지 못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너를 검은 배에 태워
곧장 에케토스 왕에게 보내버릴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이며, 너는 그의 손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조용히 하고 네 술이나 마셔라. 너보다 어린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마라."

그 말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티노오스여, 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마땅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에요. 저 낯선 이가 자신의 힘과 기력을 믿고 오디세우스의 커다란 활에 시위를 건다 한들, 그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 자신조차 가슴속에 그런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중 누구도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여기서 식사를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정말로 품위 없는 일이니까요."

폴리보스의 아들 에우리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이카리오스의 딸이자 지혜로운 페넬로페여, 우리가 저 남자가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품위 없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다만 남녀들의 입방아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훗날 아카이아인들 중 어떤 비천한 자가 이렇게 말할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훨씬 약한 자들이 고귀한 남자의 아내를 구혼하고 있는데, 그의 매끄러운 활에 시위조차 걸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방랑하다 찾아온 다른 거지 하나는 저 활에 쉽게 시위를 걸고 철을 꿰뚫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다시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여, 군주의 집을 욕보이고 집안의 재산을 축내어 없애버리는 자들에 대해 이 땅에서 좋은 평판이 들릴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일을 수치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 이방인은 키가 매우 크고 체격도 건장하며, 스스로를 선한 아버지의 아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 매끄러운 활을 그에게 건네주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겠다.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만약 그가 활에 시위를 걸고, 아폴론이 그에게 영광을 내려준다면, 나는 그에게 아름다운 옷인 망토와 튜닉을 입혀줄 것이다.

또한 개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카로운 투창과 양날 검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발에 맬 샌들도 그에게 주어, 그의 마음과 정신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를 보내주겠다."

이에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머니, 활에 관해서라면, 아카이아인들 중 그 누구도 제가 원하는 이에게 활을 주거나 주지 않을 권리를 저보다 더 잘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바위투성이 이타카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나, 말들이 풀을 뜯는 엘리스 쪽 섬들에 사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저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설령 제가 이 활을 이 이방인에게 곧장 주어 그가 가지고 떠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들 중 누구도 제 뜻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베틀과 물레를 돌리며 어머니의 일에 전념하시고, 여종들에게도 각자의 일을 하라고 명하십시오.

활을 다루는 일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모든 남자의 일이지만 무엇보다 제 몫입니다. 이 집의 권한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페넬로페는 아들의 현명한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페넬로페는 시녀들과 함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사랑하는 남편인 오디세우스를 위해 슬피 울다가,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녀의 눈꺼풀에 달콤한 잠을 내려주어서야 울음을 그쳤다.

이제 선량한 돼지치기가 활을 집어 들고 그것을 운반하고 있었으나, 구혼자들은 모두 홀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쳤다.

이에 오만한 청년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가련한 돼지치기, 정신 나간 자여, 그 굽은 활을 대체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 아폴론과 다른 불멸의 신들께서 우리 편을 들어 주신다면, 곧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돼지 떼 곁에서 네가 직접 기른 빠른 사냥개들에게 너 혼자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그는 들고 있던 활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대청에서 많은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텔레마코스는 위협하듯 소리쳤다.

"어르신, 활을 계속 가져가십시오. 모두의 말을 듣다가는 곧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더 젊지만 어르신을 들판으로 내쫓으며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힘은 제가 더 세니까요. 이 집의 모든 구혼자보다도 제가 그만큼 힘과 기력이 뛰어나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짓을 꾸미는 저들 중 많은 사람을 곧장 집 밖으로 쫓아내어, 비참한 꼴로 제 갈 길을 가게 할 텐데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구혼자들은 모두 그를 향해 즐겁게 웃어댔고 텔레마코스에게 품었던 분노의 쓰라림도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돼지치기는 활을 들고 홀을 가로질러 걸어와,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활을 쥐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내어 그녀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에우리클레이아여, 텔레마코스께서 당신에게 명하셨다. 대궐의 빈틈없는 문들을 걸어 잠그라고 말이다.

만약 집 안의 여인들 중 누구라도 우리 성벽 안에서 남성들의 신음 소리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거든,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각자 하던 일을 조용히 계속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위엄 있는 홀의 문들을 닫아걸었다.

그렇지만 필로이티오스는 침묵 속에 집 밖으로 서둘러 나가 울타리가 잘 쳐진 마당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때 주랑 아래에는 비블로스 식물로 만든 굽은 배의 밧줄이 놓여 있었는데, 필로이티오스는 그 밧줄로 문을 단단히 고정한 뒤 자신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필로이티오스는 자신이 일어났던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아 오디세우스를 바라보았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활을 만지며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다. 주인인 그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벌레들이 뿔을 갉아먹지는 않았는지, 그는 활을 이리저리 살피며 시험해 보고 있었다.

이때 사람들은 곁에 있는 이웃에게 눈짓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말로 저 자는 눈썰미가 예리하고, 활을 다루는 데 아주 교활한 놈이로군. 저 망할 놈의 부랑자가 집에 저런 활을 쌓아두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 생각이라서 저렇게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

또 다른 오만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저자가 이 활에 시위를 거는 데 성공할 만큼만 세상살이에서도 덕을 보았으면 좋겠군."

구혼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는 커다란 활을 들어 올려 사방을 살폈다.

마치 수금과 노래에 능숙한 사람이 꼰 양 창자 줄의 양끝을 단단히 고정하고 새 줄감개에 쉽게 감아 팽팽하게 하듯, 오디세우스도 힘들이지 않고 커다란 활에 줄을 맸다.

오디세우스는 활을 오른손에 쥐고 줄을 시험해 보았다. 줄은 그의 손길 아래에서 마치 제비의 울음소리처럼 달콤하게 노래했다.

그러자 구혼자들에게 커다란 슬픔이 닥쳤고, 그들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리고 제우스가 크게 천둥을 울려 자신의 징조를 나타냈다.

인내심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굽은 계책을 쓰는 크로노스의 아들이 자신에게 징조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날카로운 화살 하나를 집어 들었다. 다른 화살들은 속이 빈 화살통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화살들은 곧 아카이아인들이 맛보게 될 화살들이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화살을 집어 활의 받침에 올려놓았다. 앉아 있던 의자에서 그대로 활시위와 오늬를 끼운 화살을 당기고 정확히 겨누어 쏘았다. 청동으로 무게를 실은 화살은 도끼 자루 끝을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모두 곧게 통과하여 맨 끝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네 집안에 앉아 있는 저 이방인이 너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화살을 빗맞히지도 않았고, 활에 시위를 거느라 오래 고생하지도 않았다. 나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다. 구혼자들이 나를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과는 다르단다.

이제는 아직 빛이 남아 있을 때 아카이아인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고 나면 노래와 리라를 곁들인 다른 즐거움도 나누어야 하겠지. 그런 것들이야말로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곁들임이니까."

오디세우스는 말을 하며 눈썹을 까딱하여 신호를 보냈다.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는 허리에 날카로운 칼을 찼다. 그리고 그는 창을 손에 쥐고, 번쩍이는 청동 무기로 무장한 채 아버지의 의자 곁에 섰다.

제22권

구혼자들의 최후

하지만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활과 화살이 가득 찬 화살통을 챙겨 거대한 문턱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발치에 빠른 화살들을 쏟아놓고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이제 마침내 이 결정적인 경합이 끝났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맞히지 못한 또 다른 목표가 있으니, 내가 혹시 그것을 맞힐 수 있을지, 그리고 아폴론께서 내게 영광을 내려주실지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안티노오스에게 쓰라린 화살을 겨누었다. 안티노오스는 아름다운 황금 잔,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잔을 막 입술로 들어 올리려던 참이었다. 포도주를 마시려 잔을 들고 있을 뿐,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식사하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선 단 한 명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자기에게 끔찍한 죽음과 검은 운명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조준하여 안티노오스의 목에 화살을 쏘았다. 화살촉은 부드러운 목을 완전히 관통했다. 안티노오스는 한쪽으로 쓰러졌고, 화살을 맞은 순간 그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다. 곧이어 그의 콧구멍을 통해 인간의 붉고 진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안티노오스는 발로 탁자를 급히 밀쳐냈고, 탁자 위의 모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다. 빵과 구운 고기들은 모두 더럽혀졌다.

그 광경을 보고 구혼자들은 대강당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쓰러진 남자를 본 구혼자들은 높은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대강당을 가로질러 달아났고, 잘 지어진 벽을 따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붙잡을 방패나 강력한 창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향해 분노 섞인 말들을 퍼부었다.

“이방인이여, 그대는 스스로를 해치기 위해 사람을 쏘았구나. 그대는 다시는 다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이제 그대의 완전한 파멸은 확실하다.

그렇다, 그대는 방금 이타카의 청년들 중 단연 최고였던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독수리들이 이곳에서 그대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했기에, 각자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들은 자신들 모두에게 파멸의 밧줄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 개들아, 너희는 내가 트로이아 땅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 집 재산을 탕진하고, 여종들과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며, 내가 아직 살아 있는데도 몰래 내 아내에게 구혼했구나. 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도, 훗날 닥칠 사람들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이제 너희 모두에게 파멸의 밧줄이 단단히 매여 있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는 창백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각자 어떻게 해야 완전한 파멸을 피할 수 있을지
살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오직 에우리마코스만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고향으로 돌아온 이타카의 오디세우스라면,
아카이아인들이 저지른 일에 관한 당신 말씀은 옳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전당에서도, 들판에서도 방탕하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자, 바로 안티노오스가
죽어 누워 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안티노오스였다. 그는 결혼에
대한 욕망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품고 이 일을
꾸몄다.

그는 정착된 땅 이타카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을
매복하여 죽이려 했다.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께서도
그가 이 일을 이루도록 돕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백성들은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돌아다니며, 그대의 집에서 마셔대고 먹어치운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낼 것이오. 우리는 각자 그 대가로 소 스무 마리 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가져올 것이며, 그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청동과 금으로 갚아 줄 것이오.

그때까지는 그대가 분노한다 해도 아무도 그대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오."

그 말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대답했다.

"에우리마코스, 설령 당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과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보상으로 준다 해도, 거기에 당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재물까지 더한다 해도, 나는 구혼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전까지는 살육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들에게 남은 선택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죽음과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도망치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많은 이들이 처참한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서 있던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때 에우리마코스가 그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저 남자가 자신의 천하무적 같은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자는 잘 닦인 활과 화살통까지 손에 넣었으니, 우리 모두를 죽일 때까지 매끄러운 문턱 너머에서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자, 어서 전투를 준비합시다.

칼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식탁을 방패 삼아 저 급사시키는 화살들을 막아냅시다. 우리가 한꺼번에 저자에게 달려듭시다. 저자를 문턱과 입구 밖으로 밀어내고, 도시 전체로 달려가 경보를 신속히 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 자도 곧 마지막 화살을 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에우리마코스는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청동 검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오디세우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에우리마코스의 가슴, 유두 옆을 꿰뚫고 들어가 그의 간에 박혔다.

에우리마코스는 손에서 검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탁자 위에서 몸을 뒤틀며 구부정하게 쓰러졌고, 바닥에는 음식과 두 손잡이가 달린 잔에 담긴 술이 쏟아졌다.

그는 영혼의 고통 속에서 이마로 땅을 쳤다.

또한 그는 양발로 의자를 걷어차며 흔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안개가 드리워졌다.

이에 암피노모스는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를 향해 곧장 돌진하며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다. 오디세우스가 문 앞에서 자신에게 길을 내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암피노모스보다 훨씬 빨랐다.
텔레마코스는 청동 촉이 달린 창을 던져 암피노모스의 어깨 사이를 찔러 뒤에서 강타했다. 창은 암피노모스의 가슴을 관통했다.

암피노모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이마로 땅을 세게 들이받았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긴 창을 뽑으려다 아카이아인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거나, 시신 위로 몸을 굽히고 있을 때 타격을 가할까 봐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긴 창을 암피노모스의 몸에 박힌 채 그대로 두고 뒤로 뛰어 물러났다.

그리하여 텔레마코스는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에 빠르게 다다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방패 하나와 창 두 자루, 그리고 관자놀이에 잘 맞는 청동 투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제 몸을 무장하고, 돼지 치는 목자와 저기 소 치는 목자에게도 갑옷을 입혀 주겠습니다. 갑옷을 갖춰 입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 말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달려가서 그것들을 가져오너라. 내가 아직 나를 지킬 화살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문밖으로 몰아내고, 홀로 남겨진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니."

그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경청하며 영광스러운 무기들이 보관된 창고로 길을 떠났다.

텔레마코스는 그곳에서 청동으로 된 방패 네 개와 창 여덟 자루, 그리고 말갈기가 두껍게 달린 청동 투구 네 개를 챙겼다. 그는 그것들을 메고 서둘러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왔다.

텔레마코스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몸에 청동 갑옷을 둘렀다. 두 노예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갑옷을 입고, 지혜롭고 교활한 마음을 가진 오디세우스의 양옆에 자리를 잡고 섰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지켜줄 화살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화살을 겨누었고, 자신의 집에서 구혼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구혼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오디세우스가 화살을 쏘아대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그는 활을 잘 지어진 홀의 문설주에 기대어 놓았고, 활이 밝은 입구 벽에 기대어 있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 네 겹의 방패를 어깨에 둘렀고, 말총 장식이 달린 잘 만들어진 투구를 그의 강인한 머리에 썼다. 투구의 장식은 그의 위에서 무시무시하게 휘날렸다. 그리고 그는 청동 촉을 단 두 자루의 강력한 창을 들었다.

잘 지어진 벽에는 뒷문이 하나 있었다. 잘 지어진 홀의 문턱 가장 높은 곳을 따라 통로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는데, 그곳은 딱 맞는 접이식 문으로 닫혀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뒷문을 선량한 돼지치기가 가까이 서서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겔라오스가 구혼자들 사이에서 말을 꺼내어, 모든 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친구들이여, 누군가 뒷문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즉시 경보를 울리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 자가 곧 마지막 화살을 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대답했다.

"제우스께서 돌보시는 아겔라오스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당의 큰 문이 너무 가까이 있고 통로 입구는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용감한 사람 한 명이면 모두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창고에서 여러분이 걸칠 무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훌륭한 아들이 무기를 둔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그 안쪽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는 홀의 계단을 올라 오디세우스의 창고로 향했다.

멜란티오스는 그곳에서 방패 열두 개와 창 열두 자루, 그리고 말갈기 장식이 두껍게 달린 청동 투구 열두 개를 챙겼다. 멜란티오스는 무기를 가지고 길을 떠났고, 곧 구혼자들에게 그것들을 가져다주었다.

구혼자들이 갑옷을 입고 손에 긴 창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오디세우스는 무릎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에게 닥친 과업이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곧 텔레마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여, 진정 대궐의 여인들 중 누군가가 우리를
상대로 악한 싸움을 일으키고 있거나, 어쩌면
멜란티오스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아버지, 이것은 제 잘못이며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꼭 맞는 창고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저들의
감시자가 저보다 더 눈이 밝았습니다. 훌륭한
에우마이오스여, 어서 가서 창고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 자가 여인들 중 하나인지, 아니면 제 짐작대로
돌리오스의 아들 멜란티오스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그렇게 말을 나누었다.

하지만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는 아름다운 갑옷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저장실로 향했다.

선량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그를 눈여겨보았고, 곧바로
근처에 있던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시여, 제우스의 혈통이시며,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시여, 저기 우리가 의심하던 그 재수 없는 놈이
다시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그놈보다 용맹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제가 그를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당신에게 이곳으로 끌고 와서, 그놈이 당신의 집에서 꾸민 수많은 죄악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까?"

이에 수단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진실로 나와 텔레마코스가 구혼자들이 아무리 사납게 굴더라도 그들을 홀 안에서 막아내겠다. 대신 너희 둘은 그의 뒤에서 다리와 팔을 꺾어 누르고, 그를 창고 안으로 던져 넣어라. 그리고 그의 등 뒤에 판자를 대라.

그런 다음 꼬인 밧줄을 그의 몸에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그를 높은 기둥 위로 끌어올려 지붕 들보 근처까지 매달아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않고 오래도록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하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다.

그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창고를 향해 나아갔다. 그 남자는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무기를 찾고 있었고, 두 사람은 문기둥 양옆에 서서 매복했다.

한 손에는 훌륭한 투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녹이 슬어 얼룩진 넓고 오래된 방패를 든 채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문턱을 넘으려던 참이었다.

그 방패는 라에르테스 주인이 젊은 시절 들고 다니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한쪽에 놓여 있었고 끈의 이음매도 느슨해져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멜란티오스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멜란티오스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끌고 들어와,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자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명령한 대로, 그의 손과 발을 살을 파고드는 밧줄로 묶어 등 뒤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들은 멜란티오스의 몸에 꼬인 밧줄을 매달아, 그를 높은 기둥 위로 끌어올려 지붕 들보 근처까지 가져다 놓았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여, 그때 그대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멜란티오스, 너는 이제 네게 어울리게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지켜보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네가 구혼자들을 위해 연회를 준비하려고
염소들을 몰고 나가는 그 시간에, 황금빛 왕좌에 앉은 새벽이
오케아노스의 물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멜란티오스는 끔찍한 결박을 당한 채 그곳에
남겨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갑옷을 입고 밝은 문을 닫은 뒤,
지혜롭고 교활한 마음을 지닌 오디세우스에게로 갔다.

그곳에 그들이 섰다. 문턱에 서 있는 이들은 네 명뿐이었으나
분노를 내뿜고 있었고, 홀 안에 있는 이들은 많고 용맹했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멘토르의 모습과 목소리를 빌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멘토르여, 파멸을 막아주게. 그리고 자주 자네를 도와주었던
자네의 친한 동료인 나를 기억해주게. 자네는 나와 나이가
비슷하지 않은가."

오디세우스는 그 여신이 군대를 불러 모으는 아테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반대편 홀에서는 구혼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중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가 가장 먼저 아테나를 꾸짖으며 말했다.

"멘토르, 오디세우스의 말에 속아 구혼자들과 싸우며 그를 돕지 마라. 우리의 뜻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다음에는 너도 그들과 함께 죽일 것이다. 네가 이 전당에서 그런 짓을 하려 드니, 네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칼로 너의 힘을 빼앗고 나면, 네가 집 안과 들판에 가진 모든 재산을 오디세우스의 재산과 섞어버릴 것이다. 또한 우리는 네 아들이나 딸들이 네 궁전에 머무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네 충실한 아내가 이타카 성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테나는 마음속으로 더욱 분노했다. 그리고 아테나는 화가 난 목소리로 오디세우스를 꾸짖었다.

"오디세우스여,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확고한 힘도, 용맹함도 남아 있지 않구나.

하얀 팔을 가진 고귀한 신분의 헬레네를 위해 아홉 해 동안 트로이아인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무시무시한 전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의 계책으로 프리아모스의 넓은 길을 가진 도시를 함락시켰던 그때의 용맹함은 간데없구나.

어찌하여 너는 이제 네 집과 네 재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며 사내답게 행동하기를 주저하며 구혼자들에 맞서기를 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네, 친구여, 이리로 와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행적을 보게나. 알키모스의 아들 멘토르가 적진 한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갚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말이네."

아테나는 말을 건넸으나,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놓을 만큼 그에게 힘을 주지는 않았다. 대신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힘과 용기를 계속해서 시험했다.

그리고 아테나 자신은 연기가 자욱한 전당의 지붕 들보 위로 날아올라, 제비의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지켜보았다.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겔라오스와 에우리노모스, 암피메돈, 데모프톨레모스, 그리고 폴뤼크토르의 아들 페이산드로스, 그리고 현명한 폴리보스가 구혼자들을 독려했다. 이들은 살아남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든 구혼자들 중에서 용맹함이 단연 으뜸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구혼자들은 이미 활과 빠르게 날아드는 화살에 맞아 쓰러진 상태였다.

그때 아겔라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을 하며, 모든 이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했다.

"친구들이여, 이제 마침내 저 자가 그 천하무적의 손길을 멈출 것이오. 보시오, 멘토르는 그에게서 떠나버렸고, 그저 빈 허풍만 떨었을 뿐이니, 저들은 바깥 문 앞에 홀로 남겨져 있소.

그러니 지금 당장 저들에게 긴 창을 한꺼번에 퍼붓지는 마시오. 대신 당신들 여섯 명이 먼저 창을 던집시다. 제우스께서 오디세우스가 맞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영광을 얻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오.

저 자가 쓰러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구혼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모두 열망을 담아 창을 던졌다. 하지만 아테나가 그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은 잘 지어진 전당의 문설주를 맞혔고, 다른 사람은 빈틈없이 맞물린 문을 맞혔다. 또 다른 사람의 청동이 무겁게 달린 물푸레나무 창은 벽을 때렸다.

구혼자들의 창을 피한 뒤, 인내심 강하고 아름다운 오디세우스가 그들 중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이제 우리도 구혼자들의 무리에게 창을 던지자고 내가 말하노라. 저들은 이전의 잘못에 더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목표를 확실히 겨냥하여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오디세우스는 데모프톨레모스를 찔렀고, 텔레마코스는 에우리아데스를 찔렀으며, 돼지치기는 엘라토스를 찔렀다. 그리고 소치기는 페이산드로스를 죽였다.

그 순간, 이들 모두는 바닥에 쓰러져 입을 벌린 채 바닥을 들이받았다. 구혼자들은 전당의 가장 안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앞으로 달려 나가 죽은 몸에서 창을 뽑아냈다.

그러자 구혼자들도 다시금 날카로운 창을 열렬히 내던졌다. 하지만 아테나가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셨기에, 구혼자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었다.

어떤 이는 잘 지어진 전당의 문설주를 찔렀고, 다른 이는 꼭 맞물린 문을 찔렀으며, 또 다른 이는 청동이 달려 무거운 물푸레나무 창을 벽에 박아 넣었다.

암피메돈은 텔레마코스의 손목 부근을 스치듯 찔렀고, 그 청동 창끝은 피부 표면을 찢어 놓았다.

크테시포스의 긴 창이 에우마이오스의 어깨를 스쳤으나, 그 상처는 방패 위쪽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창은 방패를 넘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지혜롭고 교활한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창을 구혼자들의 무리 속으로 내던졌다.

도시를 파괴하는 자인 오디세우스는 다시 에우리다모스를 쓰러뜨렸고, 텔레마코스는 암피메돈을 쓰러뜨렸으며, 돼지치기는 폴리보스를 쓰러뜨렸다.

그 뒤를 이어 소를 치는 목자가 크테시포스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 쓰러뜨리고는,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뽐냈다.

“폴리테르세스의 아들이여,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자여, 어리석음에 굴복하여 다시는 큰소리치지 마라. 신들이 훨씬 더 강력하시니, 모든 일은 신들에게 맡겨라.

이것은 네가 얼마 전,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걸할 때 그에게 던졌던 발굽에 맞먹는, 네가 받는 환대의 답례 선물이다.”

윤기 나는 소를 기르는 목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근접전 중에 긴 창을 찔러 넣어 다마스토르의 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텔레마코스 또한 에베노르의 아들 레이오크리토스에게 창을 찔러 사타구니에 상처를 입혔다. 텔레마코스가 찌른 청동 창은 몸을 완전히 관통했고, 레이오크리토스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이마로 땅을 세게 들이받았다.

그때 아테나가 지붕 위로 필멸자들의 파멸인 아이기스를 높이 들어 올렸다.

구혼자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홀을 가로질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봄철에 긴 낮이 찾아왔을 때, 날아다니는 등에가 달려들어 몰아내는 소 떼와 같았다.

굽은 발톱과 굽은 부리를 가진 독수리들이 산에서 내려와, 구름 아래 낮게 날며 평원을 훑는 작은 새들을 덮치는 것과 같았다. 독수리들이 그 새들을 덮쳐 죽이면, 작은 새들은 방어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 사냥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구혼자들을 덮쳐 홀 안에서 좌우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머리가 타격당할 때마다 끔찍한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해졌다.

그런데 레이오데스가 앞으로 달려 나가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오디세우스여, 당신의 무릎을 붙잡고 간청하오니, 나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오. 나는 당신의 집안 여인들에게 경박한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당신에게 선언하오. 아니, 오히려 다른 구혼자들이 그런 짓을 하려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을 저지하려 노력했소.

그러나 그들은 악행을 멈추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경박한 어리석음 때문에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저, 그들 중의 예언자는 저들처럼 쓰러지게 되겠군요. 선행을 베풀어도 나중에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대답했다.

"만약 네가 진정으로 이 사람들 중 예언자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아마도 내 집안에서 즐거운 귀환의 결과가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아이를 낳아주기를 자주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비참한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근처에 놓여 있던 칼을 강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 칼은 아겔라오스가 죽임을 당할 때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칼로 그의 목을 내리쳤다. 레이오데스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머리는 먼지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테르페스의 아들인 악사 페미오스조차 구혼자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르며, 검은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었다.

그는 맑은 소리가 나는 리라를 손에 든 채 뒷문 근처에 서 있었다. 페미오스의 마음은 갈팡질팡했다.

그는 홀에서 몰래 빠져나가, 라에르테스와 오디세우스가 소의 제물을 많이 태웠던 마당을 지키는 신, 위대한 제우스의 잘 만들어진 제단 옆에 앉아야 할지 고민했다.

아니면 앞으로 달려 나가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간절히 빌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페미오스는 이 일을 고민하며,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붙잡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속이 빈 리라를 혼합용 그릇과 은으로 장식된 의자 사이의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달려가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며, 날개 돋친 말로 입을 열었다.

"오디세우스여, 당신의 무릎을 잡고 간청하나이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만약 당신이 신들과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악사, 즉 저를 죽인다면, 당신 자신에게도 장차 슬픔이 닥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노래를 배웠으며, 신께서 제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노래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신에게 하듯 노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목을 베려 하지 마소서.

맞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텔레마코스도 이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의지나 욕망을 가지고 당신의 집을 찾아가 구혼자들의 잔치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들이 저보다 훨씬 수가 많고 힘도 셌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끌려갔던 것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강인하고 용맹한 텔레마코스가 그 말을 들었다. 텔레마코스는 곁에 있던 아버지에게 재빨리 말을 건넸다.

"손을 멈추십시오. 칼로 이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가 어릴 적부터 늘 저를 돌봐주었던 전령 메돈도 살려주십시오. 혹시 필로이티오스나 돼지치기가 이미 그를 죽였거나, 혹은 당신이 집안을 휩쓸며 분노를 터뜨릴 때 그가 당신과 마주쳤던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마음이 영리한 메돈이 그 말을 들었다. 메돈은 불행한 운명을 피하고자 의자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며, 방금 가죽을 벗겨낸 황소 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메돈은 즉시 의자 아래에서 일어나 황소 가죽을 벗어 던졌다. 그러고는 앞으로 달려가 텔레마코스의 무릎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며, 날개 돋친 말로 입을 열었다.

"친구여, 내가 여기 있소. 그대는 손을 멈추고 아버지께도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오. 아버지가 구혼자들에게 품은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막강한 힘으로 인해 날카로운 청동 무기로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말이오. 그 구혼자들은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어리석게도 그대를 전혀 예우하지 않았소."

하지만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기운을 내거라. 그가 너를 구해냈으니,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일인지 네 마음속으로 깨닫고 다른 이에게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너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는 이 살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내가 집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홀에서 나가 마당에 앉아 있거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두 사람은 홀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방을 살피며 위대한 제우스의 제단 곁에 앉았다.

오디세우스 또한 자신의 집 안을 구석구석 살폈다. 혹시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검은 운명을 피하려고 그곳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들 모두가 피와 먼지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무리 전체가 마치 어부들이 회색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굽이진 해변에 펼쳐 놓은 물고기들처럼 되어 있었다. 물고기들은 모래 위에 한데 쌓여 바다의 파도를 갈망하고 있었고, 밝은 태양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구혼자들도 바로 그 모습처럼 서로의 몸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때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오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녀에게 전해야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경청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문을 흔들며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일어나 이리로 오시오, 연로하신 유모님. 당신은 이 궁전의 모든 여종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소. 어서 오시오, 내 아버지가 당신을 부르시니, 당신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소.”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에우리클레이아는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위엄 있는 홀의 문들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텔레마코스가 그녀의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그곳에서 에우리클레이아는 죽임을 당한 시체들 사이에 있는 오디세우스를 발견했다. 오디세우스는 온통 피와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마치 농장의 소를 잡아먹고 온 사자처럼, 그의 가슴과 양쪽 뺨은 피로 물들어 있어 바라보기에 무시무시할 정도였다.

오디세우스는 그와 같이 더러워져 있었으며, 그의 발과 손 또한 온통 피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시체들과 거대한 피의 더미를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자 기쁨의 큰 비명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머물러 서서 그녀의 열띤 행동을 제지했다. 그리고 그는 날개 돋친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늙은 유모여, 그대 마음속으로는 기뻐하되, 겉으로 드러내어 크게 울부짖지는 마시오. 죽은 자들을 두고 뽐내는 것은 불경한 짓이오.

이곳의 남자들은 신들의 운명과 그들 자신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파멸했소.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공경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방탕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자초한 것이오.

자, 이제 나에게 말해 보시오. 대궐에 있는 여인들 중 누가 나를 모욕하고 있으며, 누가 죄가 없는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대 보시오."

이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참으로, 나의 아이야, 내가 네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마. 네 궁전에는 쉰 명의 여종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양털을 빗질하고 노예의 처지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법 등 맡은 일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들 중 열두 명은 수치스러운 길을 걷고 있으며, 나나 페넬로페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여종들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한단다.

그런데 이리 오너라, 내가 저 밝은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어떤 신이 잠을 내려보낸 네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게 해다오."

그러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직 그녀를 깨우지는 마시오. 다만 예전에 수치스러운 일을 꾸몄던 여인들을 이리로 오라고 부르시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노파는 여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 홀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와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를 불러 세우고는 그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이제 죽은 시신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해라. 그리고 여자들에게 너희를 돕도록 시켜라. 그 일이 끝나면 물과 구멍이 많은 스펀지로 아름다운 의자들과 탁자들을 닦아라.

하지만 집안의 모든 정돈을 마친 뒤에는, 여자들을 잘 지어진 홀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마당의 둥근 지붕과 튼튼한 울타리 사이의 장소로 데려가서, 너희의 긴 칼로 그들을 내리쳐라. 그들 모두의 생명을 앗아갈 때까지 계속하여 내리쳐라.

그리하여 여자들이 구혼자들의 요구에 따라 몰래 그들과 잠자리를 가졌을 때 품었던 그 사랑을, 모두 잊게 만들어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여인들이 무리 지어 몰려왔다. 여인들은 처절하게 통곡하며 큰 눈물을 흘렸다.

먼저 여인들은 죽임을 당한 이들의 시신을 밖으로 실어 날랐다. 그리고 울타리가 잘 쳐진 안뜰의 주랑 아래에 시신들을 하나씩 서로 기대어 세워 두었다.

오디세우스가 직접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일을 서두르게 했기에, 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신들을 밖으로 실어 날라야 했다.

그러고 나서 여인들은 아름답고 높은 좌석들과 탁자들을 물과 구멍이 많은 스펀지로 깨끗이 닦아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와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는 괭이로 잘 지어진 집의 바닥을 긁어냈다. 여인들은 그 긁어낸 것들을 밖으로 실어 날라 문밖으로 내다 버렸다.

여인들이 대강당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자, 사람들은 여인들을 잘 지어진 대강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돔과 안뜰의 훌륭한 울타리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다른 이들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넸다.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내 머리 위에 비난을 쏟아부었으며, 평소 구혼자들과 함께 누워 지내던 이 여인들의 목숨을, 결코 깨끗한 죽음으로 거두지는 않으리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뱃머리가 검은 배의 밧줄을 커다란 기둥에 묶고는 돔을 따라 높이 둘러 쳤다. 아무도 발이 땅에 닿지 못하도록 밧줄을 높게 매달았다.

마치 날개가 긴 지빠귀나 비둘기가 덤불 속에 놓인 덫에 걸려드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쉴 곳을 찾아 헤매다 마주한 그 안식처는 오히려 끔찍한 침상이 되고 말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인들도 줄을 지어 머리를 숙였고, 그들 모두의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졌다. 여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인들은 잠시 발을 버둥거리며 몸부림쳤으나,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멜란티오스를 문과 마당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무자비한 청동 칼로 멜란티오스의 콧구멍과 귀를 잘라냈다. 또한 개들이 날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의 내장을 끌어냈다.

그들은 멜란티오스를 향한 격렬한 분노 속에서 그의 손과 발마저 잘라버렸다.

그 일이 끝난 뒤, 그들은 손과 발을 씻고 오디세우스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노파여, 부정함을 씻어낼 유황을 가져오고, 이 홀을 정화할 수 있도록 불도 가져다주시오. 그리고 페넬로페에게 여종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고 전하고, 집 안의 모든 여인에게도 오라고 명령해 주시오.”

그 말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 아이야, 당신이 말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이리 오세요, 내가 당신에게 입을 망토와 튜닉을 가져다줄 테니, 넓은 어깨에 누더기만 걸친 채 이 복도에 그렇게 서 있지 마세요. 그러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 당장 이 홀에 불을 피워 주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그에게 거역하지 않았다. 에우리클레이아는 불과 유황을 가져왔다.

오디세우스는 홀과 집, 그리고 마당을 불과 유황으로 구석구석 정화했다.

그 후 노파는 오디세우스의 아름다운 집을 가로질러 돌아가,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오라고 일렀다. 여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그들의 홀에서 나왔다.

여인들은 오디세우스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를 껴안았다. 그리고 사랑 가득한 환영의 뜻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울며 통곡하고 싶은 달콤한 그리움에 사로잡혔다. 마음속으로 그 여인들을 모두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3권

페넬로페와의 재회

그러자 노파는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 크게 웃으며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노파의 무릎은 민첩하게 움직였고, 발은 경쾌하게 움직이며 나아갔다. 노파는 주인 여인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넬로페여, 깨어나거라,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평생토록 갈망해 온 것을 네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오디세우스가 여기 있다. 비록 돌아오기까지는 늦었지만,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집을 괴롭히고 재산을 축내며 아들을 압박하던 오만한 구혼자들을 모두 처단했다."

그러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유모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유모여, 신들이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군요. 신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조차 어리석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사람을 이해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이 온전했으나, 이제 신들이 당신의 이성을 흐려 놓았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나를 왜 놀리며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나를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까? 내 눈꺼풀을 감싸고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달콤한 잠을 왜 깨우는 것이냐고요?

오디세우스가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될 사악한 일리오스를 보러 떠난 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이토록 깊이 잠든 적이 없었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서 여인들의 거처로 돌아가거라. 만약 내게 속한 다른 여인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며 나를 잠에서 깨웠다면, 나는 즉시 그 여인을 꾸짖어 다시 거처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연로하시니 이번만큼은 그런 벌을 면하게 해 드리겠어요.”

이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놀리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말하는 대로 오디세우스가 정말로 이곳에, 집으로 돌아왔단다. 그는 모든 이들이 연회장에서 모욕했던 그 이방인이 바로 그란다.

텔레마코스는 오래전에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텔레마코스는 신중하게도, 오만한 자들의 폭거에 복수할 때까지 아버지의 계획을 숨겨 두었단다."

유모가 그렇게 말하자 페넬로페는 기뻐했다.

페넬로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파를 두 팔로 껴안았고, 눈꺼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날개 돋친 말로 노파에게 말을 건넸다.

"자, 이제 말해 주세요, 사랑하는 유모여. 당신의 말대로 그가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이라면, 제발 진실을 말해 주세요. 그가 혼자 있는 동안, 집 안에서 늘 무리를 지어 머물던 그 파렴치한 구혼자들에게 어떻게 손을 뻗어 맞섰는지 말해 주세요."

그때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나는 보지도 못했고, 묻지도 못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만을 들었을 뿐이다.

우리 여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잘 지어진 방의 가장 안쪽에서 앉아 있었다. 꽉 닫힌 문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고, 네 아들 텔레마코스가 홀에서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텔레마코스의 아버지가 그를 보내 나를 부르게 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오디세우스가 죽은 이들의 시신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시신들은 딱딱한 바닥 위에 그를 둘러싸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서로 겹쳐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보았다면 너의 마음도 기쁨으로 따뜻해졌을 것이다.

이제 시신들은 모두 안뜰 문가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유황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집을 정화하고 있으며, 커다란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당신을 부르기 위해 저를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와 함께 가십시오. 당신들 두 사람이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마침내 당신의 그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직접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집 화로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당신과 그의 아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반면 그에게 해를 끼쳤던 구혼자들을 포함한 자들에게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에서 그들 모두에게 복수를 마쳤습니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유모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유모여, 아직 그들을 향해 크게 웃으며 뽐내지 마세요. 그가 궁전에 나타나는 것이 모든 이에게, 무엇보다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과 나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일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불멸의 신들 중 누군가가 그 오만한 구혼자들의 참혹한 무례함과 악행에 분노하여, 그 위엄 있는 구혼자들을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찾아오는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지상의 그 어떤 인간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방탕한 어리석음 때문에 재앙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카이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갈 길을 잃었으며, 그 자신도 목숨을 잃었다."

그 말에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페넬로페에게 대답했다.

“아가야, 네 입술 사이로 어찌 그런 말이 흘러나왔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화로 곁에 있는 네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니! 네 마음은 늘 믿음이 없구나.

자, 이리 오너라. 내가 네게 분명한 증거를 하나 더 말해주마. 오래전 멧돼지가 하얀 엄니로 그에게 남긴 상처의 흉터 말이다.

그 사실을 나는 그의 발을 씻겨 드리는 동안 알아차렸고, 당신에게도 기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내 입에 손을 얹어 막았고, 그 깊은 지혜를 지닌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만약 내가 당신을 속이는 것이라면,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나를 죽여도 좋다고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유모여, 당신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영원한 신들의 뜻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로 갑시다. 구혼자들이 죽은 모습과 그들을 죽인 자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페넬로페는 위층 방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남편을 멀리서 지켜보며 질문을 던져야 할지, 아니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와 손에 입을 맞추고 껴안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페넬로페가 안으로 들어와 돌로 된 문턱을 넘은 뒤, 그녀는 안쪽 벽 옆의 불빛 아래 오디세우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디세우스는 높은 기둥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고귀한 아내가 자신을 발견하고 무슨 말이라도 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영혼에는 경악이 찾아왔다.

그녀는 눈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려다가도, 오디세우스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가 그녀를 꾸짖으며 말을 건넸다.

“어머니, 잔인한 어머니여, 마음이 완고하신 어머니여.
어찌하여 아버지로부터 이토록 멀리 떨어져 계시며, 아버지 곁에 앉아 묻고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편으로부터 이토록 마음을 굳게 닫고 멀리 서 있을 여인은 어머니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돌보다도 더 단단하군요.”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이야, 내 가슴 속의 마음은 경이로움에 빠져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구나. 질문을 던질 수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단다.

다만 만약 그가 정말로 오디세우스가 맞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맞다면, 우리 둘은 분명 서로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숨겨진 표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란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인내심이 강하고 선량한
오디세우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곧바로 텔레마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 이제 네 어머니가 이 집 안에서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하거라. 그러면 곧 어머니는 더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초라한 모습이고, 몸에는 비천한 옷을 걸치고 있기에 어머니가 나를 경멸하며,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어느 한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인 자는, 설령 그를 위해 복수해 줄 사람이 많이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유배를 떠나야 하며 친족과 고향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타카의 청년들 중 가장 고귀한 자들이자, 그 도시를 지탱하던 기둥들을 죽였다. 이 점에 대해 네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께서 직접 이 일을 살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조언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며,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아버지와 겨룰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있는 한, 용맹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너에게 말해주마. 우선 너희는 몸을 씻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대청의 하녀들에게도 옷을 챙기라고 일러라.

그러나 맑은 소리가 나는 리라를 손에 든 신성한 악사가 우리의 즐거운 춤을 이끌게 하자. 그래야 지나가는 행인이든 근처에 사는 사람이든,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혼례 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나무가 우거진 농장으로 떠나기 전에, 구혼자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도시 전체에 퍼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도착한 뒤에, 올림포스의 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이득이든 함께 도모하도록 하자."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

먼저 그들은 목욕을 하고 튜닉을 입었으며, 여인들도 옷차림을 갖추었다. 그리고 신성한 악사가 속이 빈 리라를 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미로운 노래와 아름다운 춤을 추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커다란 홀 안은 춤추는 남자들의 발소리와 허리에 아름다운 띠를 두른 여인들의 발소리로 사방이 울려 퍼졌다. 집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아, 참으로 누군가가 수많은 구혼자가 따르던 여왕과 혼인했구나. 그녀는 잔인한 여인이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위대한 집을 끝까지 지켜낼 마음조차 없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사이 집안일을 맡은 에우리노메는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마음이 넓은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망토와 튜닉을 입혀주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머리 위에 풍성한 아름다움을 내려주어, 그를 보기에 더 크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머리카락이 히아신스 꽃처럼 곱게 말려 흐르도록 만들어 주었다.

마치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나가 온갖 기술을 가르친 교묘한 장인이 은 위에 금을 입히는 것과 같았다. 그가 만들어낸 작품은 우아함이 넘쳐흘렀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머리와 어깨에 우아함을 내려주었다. 목욕을 마친 오디세우스는 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아내의 맞은편에 있는, 아까 일어났던 의자에 다시 앉았다. 오디세우스는 아내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여인이로다!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은 다른 모든 여인들과 달리 당신에게는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주었구려.

다른 어떤 여인도 당신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는 않을 것이오.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온 남편을 두고, 당신은 저토록 멀찍이 떨어져 서 있구려.

아니, 어서 오시오, 유모여. 나를 위해 침상을 펴 주시오. 나 혼자 누울 수 있도록 말이오. 진실로 저 여인의 가슴 속 마음은 강철과 같구려."

그 말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상한 분이시군요. 나는 오만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경멸하는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긴 노가 달린 배를 타고 이타카를 떠날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에우리클레이아, 그가 직접 만든 튼튼한 신방 밖으로 견고한 침대를 내어 놓고 잠자리를 마련해 드려요. 그곳으로 침대를 가져가서 양털과 망토, 밝은 덮개를 깔아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페넬로페는 남편을 시험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다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여, 당신이 한 말은 참으로 쓰디쓴 말이구려. 누가 내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단 말이오? 신이 직접 내려와서 자신의 의지로 쉽게 옮겨 놓지 않는 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침대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아무리 젊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침대를 제자리에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필멸자는 없다.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침대에는 커다란 표식이 새겨져 있으며, 그것을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뜰 안에는 잎이 길게 늘어진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기둥처럼 굵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이 나무를 둘러싸서 방을 만들었고, 촘촘하게 돌을 쌓아 방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붕을 잘 덮은 뒤, 빈틈없이 딱 들어맞는 이음매 있는 문들을 달았다.

그 후 나는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냈다. 그리고 뿌리 쪽부터 줄기를 다듬으며, 자귀를 사용하여 능숙하고 정교하게 줄기 주위를 매끄럽게 깎아내어 직선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침대의 기둥을 만들었다.

나는 그 기둥 전체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는 침대를 깎아 만들었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는 금과 은과 상아로 장식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주색으로 빛나는 황소 가죽 끈을 팽팽하게 씌웠다.

나는 너에게 이 증표를 말해준다. 하지만 여인이여, 내 침대가 여전히 제자리에 굳건히 있는지,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올리브 그루터기 아래를 잘라내어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구나."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앉아 있던 그녀의 무릎에 힘이 풀리며 마음이 녹아내렸다. 오디세우스가 말해준 확실한 증표들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목을 두 팔로 껴안고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디세우스여,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머물며 젊음을 누리고 노년의 문턱에 이를 수 없도록 시기한 것은 바로 신들이었습니다. 신들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 일로 나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에 가득 차지 말아 주세요.

내 가슴 속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혹시라도 어떤 남자가 찾아와 감언이설로 나를 속이지 않을까 두려웠다.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아니, 제우스의 딸인 아르고스의 헬레네조차도 그러했을 것이다. 만약 아카이아인들의 호전적인 아들들이 그녀를 다시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데려다줄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다른 민족의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눕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실로 그녀의 경우에는 신이 그녀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도록 부추긴 것이었다. 그 어리석은 생각, 즉 우리에게 처음 슬픔을 가져다준 그 비통한 어리석음을 그녀는 그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우리 침상의 명백한 증거들을 말해주었으니, 그 증거는 당신과 나,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악토르의 딸인 단 한 명의 여종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우리 견고한 신방의 문을 지켰던 그 여종 말이다.

이로써 당신은 굳게 닫혀 있던 나의 마음을 설득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의 마음속에는 슬픔의 갈망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오디세우스는 사랑스럽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아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바람과 거센 파도에 밀려가던 중, 포세이돈이 내리친 견고한 배를 잃고 바다를 헤엄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지가 보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들 중 아주 소수만이 회색 바다에서 헤엄쳐 해안으로 탈출하곤 하는데, 그들의 몸은 소금기로 두껍게 뒤덮여 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땅을 밟으며 그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페넬로페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은 더없이 반가웠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자신의 하얀 팔로 감싸 안은 채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만약 눈부신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장미빛 손가락의 새벽은 그들의 울음소리 위로 떠올랐을 것이다.

아테나는 긴 밤이 끝날 무렵 그 밤을 붙잡아 두었다. 또한 황금빛 왕좌에 앉은 새벽이 오케아노스의 강가에서 떠오르는 것을 막았다.

아테나는 새벽의 망아지인 람포스와 파에톤, 즉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발 빠른 말들에 새벽이 멍에를 씌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아직 모든 시련을 다 겪은 것은 아니오. 앞으로도 끝이 없을 만큼 길고 고된 고난이 남아 있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야만 하오.

내가 동료들과 나 자신의 귀환에 관해 묻기 위해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던 날,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이 내게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오.

하지만 이리 오시오, 여보. 이제 침소로 가서 달콤한 잠에 취해 휴식의 기쁨을 누립시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할 때라면 언제든 당신을 위한 침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신들께서 당신을 이 잘 지어진 집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이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 신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주셨다면, 어서 이 시련에 대해 내게 말해 주세요. 내 생각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아는 것이 조금도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이상한 여인이여!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라고 그토록 재촉하는 것이오? 하지만 내가 말하겠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소.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못할 것이오. 나 자신이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말이오.

테이레시아스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손에 모양이 잘 잡힌 노를 들고 수많은 사람의 도시를 돌아다녀야 한다고 했소. 바다를 전혀 모르고 소금이 섞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말이오.

또한 그들은 보랏빛 뺨을 가진 배도 모르고, 배의 날개가 되어주는 모양이 잘 잡힌 노도 모르는 사람들이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 분명한 징조를 말해주었다.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숨기지 않겠다.

나를 만난 다른 나그네가, 내 튼튼한 어깨에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메고 있다고 말할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그가 명령한 때이다.

그때 나는 노를 땅에 꽂고, 바다의 주신 포세이돈에게 숫양과 황소, 그리고 암퇘지와 교미하는 수퇘지를 바치며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의 집으로 떠나야 하며, 넓은 하늘을 떠받치는 불멸의 신들에게 각 신의 차례에 맞춰 거룩하고 성대한
희생제를 올려야 한다.

또 나에게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이
찾아오리라고 했소. 풍족한 노년에 기력이 다했을 때, 아주 온화한 죽음이 나를 눕힐 것이라고 했지요. 그때 백성들은 내 주위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을 것이오. 테이레시아스는 내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했소."

그 말에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만약 신들께서 진정 당신에게 더 행복한 노년을 가져다주려 하신다면, 당신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겠군요.”

그들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에우리노메와 유모는 타오르는 횃불 빛 아래에서 부드러운 덮개로 침상을 준비했다.

그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침대를 분주히 펴 놓자, 늙은 유모는 눕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실의 시녀인 에우리노메는 손에 횃불을 들고 그들을 침대로 안내했다.

에우리노메가 그들을 신혼방까지 안내한 뒤에 다시 돌아갔다. 그러자 그들은 예전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침상으로 기쁘게 나아갔다.

하지만 텔레마코스와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는 춤추는 것을 멈추고 여인들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어둑한 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 뒤에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화하는 즐거움에 빠졌다.

아름다운 여인 페넬로페는 궁전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수많은 짐승과 소, 그리고 훌륭한 양들을 죽여대는 파괴적인 구혼자 무리를 지켜보며 견뎌야 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때 구혼자들은 항아리에서도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꺼내 마셨다고 했다.

하지만 제우스의 혈통을 이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모든 재앙과, 슬픔 속에서 스스로 견뎌내야 했던 모든 고난을 이야기했다.

페넬로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했다. 오디세우스가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그녀의 눈꺼풀에는 달콤한 잠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키코네스인들을 물리쳤는지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땅에 도착했던 일과, 키클롭스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또한 키클롭스가 자비라고는 전혀 베풀지 않은 채 잡아먹은, 오디세우스의 용맹한 동료들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그에게 치르게 했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다음으로 그는 아이올로스에게 갔던 일을 말했다.
아이올로스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를 맞아주었고 그를 길을
떠나보내 주었다. 하지만 아직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도착할 운명은 아니었다. 아니, 폭풍우가 다시 그를 휩쓸어
갔고, 괴롭게 신음하는 그를 생명이 가득한 깊은 바다 위로
실어 날랐다.

다음으로 그는 라이스트뤼고네스인들의 도시인
텔레퓔로스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이야기했다. 그곳 사람들은
오디세우스의 배들을 파괴했고, 정강이 가리개를 잘 갖춰
찼던 그의 동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했다.
오디세우스만이 그의 검은 배를 타고 간신히 탈출했다.

그다음 그는 키르케의 온갖 속임수와 교활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노를 젓는 배를 타고 하데스의 축축한
집으로 가서 테베 사람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에게 조언을
구했던 일도 말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동료와, 그가
어렸을 때 낳아 기르고 젖을 먹여 키워준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노래하는 세이렌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일과, 방황하는 암초들에 도달했던 일, 그리고 두려운
카리브디스와 스킬라에게 이르렀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스킬라로부터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탈출한 적이 없었다.

이어 그의 동료들이 헬리오스의 소들을 죽인 일과, 높은 하늘에서 천둥을 치는 제우스가 불타는 번개로 그의 빠른 배를 내리친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로 인해 그의 훌륭한 동료들은 모두 한꺼번에 죽었으나, 오디세우스만은 그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가 오기기아 섬에 도착하여,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고 싶어 하며 깊숙한 동굴에 붙잡아 두었던 님프 칼립소를 만난 이야기도 이어졌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돌보며, 그가 평생 동안 죽지 않고 늙지도 않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으나,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결코 돌려놓지는 못했다.

그 후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파이아케스인들에게 도달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파이아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마치 신처럼 정성껏 대접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청동과 금, 그리고 의복을 넉넉히 건네준 뒤, 오디세우스를 그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배에 태워 보내주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사람의 팔다리를 나른하게 만드는 달콤한 잠이 그에게 덮쳐왔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도 함께 풀려나갔다.

그때 눈부신 눈을 가진 여신 아테나가 다시 다른 계책을 세웠다.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아내와의 정을 나누고 잠을 자는 것으로 충분히 채워졌다고 판단하자, 아테나는 즉시 오케아노스로부터 황금 왕좌를 가진 새벽을 깨워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부드러운 침상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아내여, 이제 당신과 나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충분히 고생했소. 당신은 이곳에서 나의 고달픈 귀향길을 슬퍼하며 지냈고, 나는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채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결박해 둔 슬픔 속에 갇혀 있었소. 내가 돌아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음에도 말이오.

그러나 이제 우리 둘이 갈망하던 침상에 함께 닿았으니, 그대는 내가 집안에 남겨둔 재산들을 돌보아 주시오. 무례한 구혼자들이 탕진해 버린 가축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전리품으로 많은 수를 되찾아 올 것이고, 아카이아인들이 다른 가축들을 가져다주어 내 우리를 가득 채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오.

나는 나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는 고결한 아버지를 뵙기 위해 나무가 울창한 나의 농장으로 떠날 것이오. 아내여, 그대가 지혜롭긴 하나, 내가 이 임무를 그대에게 맡기겠소.

해가 뜨는 즉시, 내가 집 안에서 죽인 구혼자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녀들을 데리고 네 위층 방으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러라.

어떤 남자도 쳐다보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는 말을 마치고 어깨에 아름다운 갑옷을 둘렀다. 그리고 텔레마코스와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를 깨워 모두에게 전쟁 무기를 손에 들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들은 청동 갑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갔으며,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그 무렵 지상에는 이미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아테나가 그들을 밤의 어둠 속에 숨겨주어 도시 밖으로 신속하게 인도했다.

제24권

마지막 화해

한편, 킬레네의 헤르메스가 구혼자들의 영혼을 불러냈다. 헤르메스는 손에 황금으로 된 아름다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지팡이로 원하는 이의 눈을 감겨 잠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든 이들을 깨울 수도 있었다.

헤르메스는 이 지팡이로 영혼들을 깨워 이끌었고, 영혼들은 웅얼거리며 그를 따랐다. 마치 경이로운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박쥐들이 서로 매달린 줄에서 한 마리가 바위 아래로 떨어지자 나머지가 웅얼거리며 날아다니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영혼들은 웅얼거리며 헤르메스를 따라갔고, 조력자인 헤르메스는 그들을 데리고 축축한 길을 내려갔다.

그들은 오케아노스의 강들을 지나고, 레우카스 바위를 지나고, 태양의 문과 꿈의 땅을 지나갔다. 그리고 고난을 마친 사람들의 망령인 영혼들이 머무는 아스포델 초원에 빠르게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영혼과 파트로클로스의 영혼을 만났다. 또한 비길 데 없는 안틸로코스의 영혼과 아이아스의 영혼도 만났다. 아이아스는 비길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외모와 체격이 모든 다나오스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아킬레우스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영혼이 슬퍼하며 그들 근처로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는 아이기스토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운명을 맞이한 모든 이들의 영혼이 모여들었다.

그때 펠레우스의 아들인 아킬레우스의 영혼이 가장 먼저 아가멤논에게 말을 건넸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이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에게 평생토록 다른 어떤 영웅들보다도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고난을 겪었던 트로이아 땅에서 당신이 수많은 용맹한 이들의 주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당신에게도 너무나 일찍 죽음의 운명이 닥쳐왔군요. 태어난 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말입니다.

아, 당신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지키며 트로이아 땅에서 죽음과 운명을 맞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아카이아인 군대 전체가 너를 위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며, 너는 네 아들에게도 다가올 날들에 커다란 영광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아하니 너는 가장 가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운명이 결정된 듯하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펠레우스의 운 좋은 아들이여,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아 땅에서 전사하였고, 그대의 시신을 두고 싸우는 동안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의 아들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이 그대 곁에서 쓰러졌도다.

그대는 먼지 구름 속에서 그 위엄 있는 힘을 떨치며 누워 있었으나, 자신의 기마술조차 잊고 있었구나. 우리 또한 하루 종일 싸웠으나, 만약 제우스께서 폭풍으로 우리를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로다.

그러나 우리가 전투에서 당신을 배로 실어 나른 뒤, 당신을 시신 안치대에 눕혔다. 우리는 따뜻한 물과 기름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살결을 닦아주었다.

다나오스인들은 당신 주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당신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불멸의 바다 님프들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때 깊은 바다 위로 경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모든 아카이아인이 몸을 떨었다.

만약 옛 지혜에 밝은 한 사람이 그들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모두 벌떡 일어나 속이 깊은 배들을 향해 달려갔을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이전에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던 네스토르였다.

네스토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아르고스인들이여, 멈추어라. 아카이아의 청년들이여, 도망치지 마라.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불멸의 바다 님프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지금 바다로부터 이곳으로 나오고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용맹한 아카이아인들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자 바다의 노인의 딸들이 그대 주변에 서서 가련하게 울부짖으며, 그대에게 불멸의 옷을 입혀 주었다.

그리고 아홉 명의 뮤사들이 달콤한 목소리로 서로 화답하며 장송곡을 이끌었다.

맑은 목소리를 가진 뮤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깊이 움직였기에, 아카이아인이라면 누구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불멸의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은 열이레 동안 밤낮으로 당신을 위해 슬피 울었다.

열여덟째 날이 되자 우리는 당신을 불길에 맡겼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수많은 양과 윤기 나는 소들을 잡았다.

당신은 신들의 의복과 풍성한 향유, 그리고 달콤한 꿀 속에서 불타올랐다. 당신이 불타고 있을 때, 수많은 아카이아인 전사들이 갑옷을 입고 보병과 전차병 모두 장작더미 주위를 돌며 움직였고, 커다란 소음이 일어났다.

그런데 헤파이스토스의 불꽃이 아킬레우스를 모두 태워 없앴을 때, 우리는 아침에 아킬레우스의 하얀 뼈를 거두어 순수한 포도주와 향유에 담았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황금으로 만든 두 손잡이 항아리를 가져와, 이것은 디오니소스가 준 선물이며 명성 높은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하얀 뼈가 이 안에 누워 있다. 그리고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인 죽은 파트로클로스의 뼈도 그 뼈들과 함께 섞여 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죽은 파트로클로스 이후에 다른 동료들보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안틸로코스의 뼈는 따로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위에 크고 훌륭한 무덤을 쌓아 올렸다. 아르고스 창병들의 강력한 군단인 우리가, 넓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돌출된 곳에 그 무덤을 만들었다.

그 무덤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가 먼 바다 너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세워졌다.

그러나 너의 어머니는 신들에게 아름다운 경기 상품을 청하였고, 아카이아인 지도자들을 위해 경기장 중앙에 그것들을 놓아두었다.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사들의 장례 경기에도 참석했었다. 왕이 죽었을 때 젊은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기를 준비하던 그 자리들에 말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진심으로 경탄했을 것이다. 은빛 발을 가진 여신 테티스가 너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그토록 아름다운 상들을 놓아두었으니, 너는 신들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여, 너는 죽어서도 이름을 잃지 않았으며, 앞으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 관해서라면, 전쟁의 실타래를 끝맺은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내가 돌아갈 때, 제우스께서 아이기스토스와 나의 저주받은 아내의 손을 빌려 나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누었다. 그때 아르고스를 죽인 자인 전령이 오디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구혼자들의 영혼들을 이끌고 다가왔다. 두 사람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그들에게로 향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아가멤논의 영혼은 이타카에 살며 자신을 대접해 주었던, 멜라네오스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영광스러운 암피메돈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암피메돈이여, 뛰어난 용사들이자 비슷한 연배인 그대들이 어찌하여 이 어두운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는가? 만약 어느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이들을 뽑으려 한다면, 다른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바로 그대들을 뽑았을 것이네.

포세이돈이 잔인한 바람과 긴 파도를 일으켜 그대들의 배를 내리쳤는가? 아니면 그대들이 적들의 소와 아름다운 양 떼를 빼앗고 있을 때, 혹은 적들이 자신들의 도시와 여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적들이 육지에서 그대들에게 해를 끼쳤는가?

내가 묻는 것에 답해주게. 나는 그대의 가문의 친구임을 밝히노라.

내가 신과 같은 메넬라오스와 함께 당신의 집으로 찾아가,
배를 타고 일리오스로 함께 가자고 오디세우스를 재촉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도시를 함락시키는 오디세우스를
우리 뜻대로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그 넓은 바다를
건너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암피메돈의 영혼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사람들의 왕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시여.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우리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말에 대해 당신에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떠나 있던 오디세우스의 아내를
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혐오스러운 결혼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결코 끝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죽음과 검은 운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니라, 페넬로페는 마음속으로 이 교활한 계책 또한 꾸몄다.
그녀는 자신의 궁전에 커다란 베를 설치하고는 베를 짜기
시작했다. 그 베는 실이 가늘고 폭도 매우 넓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구혼자들이여, 나의 구혼자들이여,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죽었으니 나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내가
이 옷을 다 만들 때까지는 참아다오. 나의 길쌈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라에르테스 경이 비참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운명에 맞닥뜨릴 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수의다.

만약 큰 재산을 모은 그가 수의도 없이 누워 있게 된다면, 이
땅의 아카이아 여인들이 나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오만했던 우리의 마음도 동의했다.

그 후 그녀는 낮 동안에는 커다란 베를 짜고, 밤이 되면 곁에
횃불을 켜둔 채 그 베를 다시 풀어헤치곤 했다.

그녀는 이 수법으로 삼 년 동안 아카이아인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여 넘겼다.

하지만 계절이 흐르고, 달이 저물고, 수많은 날이 지나 네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녀의 여종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페넬로페가 화려한 베를 풀어헤치는 현장을
붙잡았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베를 완성해야만 했다.

“그녀가 거대한 직물을 짜고 그것을 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옷은 태양이나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잔인한 신이 오디세우스를 어딘가에서 데려와,
돼지치기가 살고 있는 땅의 경계까지 이끌었다.

신성한 오디세우스의 사랑스러운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검은
배를 타고 모래 많은 필로스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곳에
도착했다.

구혼자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선사할 계획을 세운 이 두
사람은 유명한 도시로 향했다.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도착했지만, 텔레마코스가 그의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그때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비참하고 늙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옷을 입은
주인을 데려왔다. 오디세우스가 몸에 걸친 옷은 매우
비참했다.

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우리 중 누구도 그가
오디세우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나이가 지긋한
이들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악한 말들을 퍼붓고 무기를 던지며
공격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굳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한동안 비난과 조롱을 견뎌냈다.

그러다 마침내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뜻이 그를 움직였을 때,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아름다운 무기들을 챙겨 창고에 넣어두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 후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여, 아내에게 구혼자들 앞에 자신의 활과 회색 철제 도끼들을 놓아두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구혼자들에게는 경합의 도구이자 죽음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강력한 활의 시위를 당길 수 없었다. 아니, 우리는 그 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활이 오디세우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활을 주지 말라고 모두가 크게 소리쳤다.

오직 텔레마코스만이 오디세우스를 격려하며 활을 잡으라고 재촉했다.

그때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손에 활을 쥐었다. 그는 아주 쉽게 시위를 걸고 화살을 철제 장치 사이로 통과시켰다.

그러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문턱으로 가서 화살들을 쏟아냈다. 그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안티노오스 왕을 쏘아 맞혔다.

그 후 오디세우스는 다른 구혼자들에게도 확실한 조준으로 화살을 날렸다. 화살이 날아갈 때마다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내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신이 그들의 조력자로 나서고 있음을 알았다. 분노에 휩싸인 오디세우스 일행이 홀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돌진하며 좌우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머리가 맞아 쓰러질 때마다 끔찍한 신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해졌다.

아가멤논, 우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몸은 오디세우스의 궁전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놓여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에서 검은 피를 씻어내고, 통곡하며 우리의 시신을 눕혀줄 친구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라에르테스의 행복한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당신이 얻은 아내는 참으로 모든 탁월함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이카리오스의 딸 페넬로페는 이해심이 깊고 비할 데 없이 훌륭하여, 남편인 오디세우스를 충실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미덕에 대한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불멸의 신들은 지조 있는 페넬로페를 기리며 지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즐거운 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틴다레오스의 딸은 그와 같지 않았소. 그녀는 악한 일을 꾸며 자신의 남편을 죽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에 관한 노래는 혐오스러운 노래가 될 것이며, 그녀는 모든 여인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여인에게까지 나쁜 평판을 안겨 주는구려."

그렇게 두 사람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하데스의 집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도시에서 내려와, 라에르테스가 과거에 스스로 일구어낸 아름답고 잘 정돈된 농장에 빠르게 도착했다. 라에르테스는 그 농장을 얻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었다.

그곳에는 그의 집이 있었고, 집 주변으로는 노예들이 먹고, 앉고, 잠을 자는 막사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노예들은 라에르테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집 안에는 한 시칠리아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 농장에서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하인들과 아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제 잘 지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로 쓸 가장 좋은 돼지를 곧장 잡아라.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해 보겠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식별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지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한 뒤, 오디세우스는 종들에게 자신의 전투 장비를 건네주었다. 종들은 그 후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목적을 가지고 결실이 풍부한 포도밭으로 다가갔다. 오디세우스가 커다란 과수원으로 내려갔을 때, 돌리오스는 그곳에 없었다. 그의 종들이나 아들들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 그들은 포도밭 담장을 쌓을 돌을 모으러 떠난 상태였고, 노인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함께 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잘 정돈된 포도밭에서 식물을 가꾸며 홀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라에르테스는 더럽고 누더기가 된 초라한 튜닉을 입고 있었다. 그는 긁히는 것을 막으려고 정강이에 소가죽을 꿰매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묶고 있었고, 가시 때문에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염소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인내심 강하고 선량한 오디세우스가, 노쇠하고 마음속에 커다란 슬픔을 짊어진 그의 아버지를 보았을 때, 오디세우스는 커다란 배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마음속으로 고민했다. 아버지를 입맞추고 껴안으며, 자신이 어떻게 돌아와 고향 땅에 닿았는지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것인가, 아니면 먼저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져 모든 것을 확인해 볼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생각을 거듭하던 중, 오디세우스는 먼저 농담 섞인 말로 아버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선량한 오디세우스는 그 생각을 품고 아버지에게 곧장 다가갔다.

그는 참으로 고개를 숙인 채 식물 주위를 파고 있었다. 그때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넸다.

"노인장이여, 정원을 가꾸는 솜씨가 부족함이 없구려. 아니, 정성을 아주 잘 들이셨소. 식물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아니 올리브나 배나무든, 혹은 들판의 그 어떤 밭이라도 돌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려.

그러나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하니, 부디 마음속에 노여움을 품지 마시오. 당신 자신은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구려. 당신은 슬픈 노년을 견디고 있을 뿐이며, 그 때문에 외모도 지저분하고 단정치 못하며 비천한 옷을 입고 있소.

또한 네 주인이 너를 돌보지 않는 것이 결코 네 게으름 때문은 아닐 것이다. 너는 겉모습이나 체격 면에서 결코 노예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너는 마치 왕과 같구나. 목욕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편안히 잠을 청해야 하는 왕과도 같다. 노인들은 본래 그렇게 사는 법이다.

자, 이것을 내게 말해주고 진실하게 밝혀다오. 너는 누구의 노예이며, 누구의 과수원을 돌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 또한 내게 진실하게 말해다오.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방금 나를 만난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도착한 이곳이 정말로 이타카가 맞는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이다.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내 친구가 혹시 아직 살아 있는지, 아니면 죽어서 하데스의 집에 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려 하지도 않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여라.

언젠가 나의 사랑하는 고향 땅에서, 우리 집을 찾아온 한 남자를 대접한 적이 있었다. 멀리 사는 이방인 중에서 그보다 더 환영받는 손님은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이 혈통상 이타카 출신이라고 밝혔으며, 자신의 아버지는 아르케시오스의 아들 라에르테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우리 안에 있는 풍족한 양식들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했다. 또한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우정의 선물들도 건넸다.

나는 그에게 잘 만들어진 황금 일곱 탈란트를 주었다.

또한 꽃무늬가 양각된 은으로 된 혼합용 대접 하나와, 한 겹으로 된 망토 열두 벌을 주었다.

그와 같은 수의 덮개와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튜닉들도 그만큼 주었다.

게다가 훌륭한 수공예에 능한 아름다운 여인 네 명도 주었소. 그가 직접 원하는 이들을 고른 것이었소."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낯선 이여, 당신은 참으로 당신이 묻는 그 나라에 오긴 했으나, 지금 그곳은 방탕하고 무모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네.

당신이 베푼 그 수많은 선물들은 모두 헛된 것이 되었네. 만약 당신이 이타카 땅에서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만났더라면, 그는 당신에게 충분한 보답과 정성 어린 대접을 하며 길을 떠나보냈을 것이네. 친절을 먼저 베푸는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라네.

자, 이것을 내게 말해주게. 사실대로 말해주게나.

그 불행한 손님, 내 아들을 대접한 지 벌써 몇 해나 흘렀느냐? 그처럼 참으로 불운한 사람이 또 있었겠느냐? 내 운 없는 아들이, 친구들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혹시라도 물고기들에게 깊은 바다에서 잡아먹혔거나, 아니면 해안가에서 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 아이를 낳은 우리, 곧 어머니도 아버지인 나도 그를 장사지낼 채비를 하고 울어 주지 못했소. 많은 예물을 받고 혼인한 정숙한 페넬로페도 남편이 죽을 때 눈을 감겨 주고, 안치된 시신 앞에서 마땅한 애도를 하지 못했지요. 그것은 죽은 사람이 받아야 할 예우인데 말이오. 또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그대의 도시와 부모는 어디에 있소? 신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그대를 이곳에 데려온 빠른 배는 어디에 매여 있소?

혹은 다른 사람의 배에 승객으로 타고 왔다가, 그들이 당신을 해안에 내려놓고 떠나버린 것입니까?"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집이 있는 알리바스에서 왔습니다. 나는 군주 폴리페몬의 아들 아페이다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내 이름은 에페리토스입니다.

그러나 신이 나를 떠밀어 시카니아에서 이곳까지 방랑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배는 저기 경작지 너머,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에 관해서라면, 그가 그곳을 떠나 내 나라를 떠난 지 이제 다섯 해째가 되었습니다. 가련한 사람 같으니!

그런데 그는 길을 떠날 때 길조를 알리는 새들을 보았고, 그 새들은 그의 오른편에서 날아올랐다.

그를 떠나보낼 때 나는 그 새들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다시 만나 손님과 주인으로서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라에르테스는 슬픔의 검은 구름에 휩싸였다. 라에르테스는 두 손으로 검은 흙을 집어 들더니, 끊임없이 신음하며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 위로 흙을 뿌렸다.

그때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요동쳤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오디세우스의 콧속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다.

오디세우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바로 당신이 묻고 계신 그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제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저는 스무 해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슬픔과 눈물 섞인 통곡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서둘러야 할 사정이 매우 급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 대청에서 구혼자들을 모두 죽였고,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오만함과 악행에 대해 복수를 마쳤습니다.”

라에르테스가 그에게 다시 대답하며 말했다.

“만약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오디세우스로서 이곳에 온 것이라면,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이제 분명한 증표를 하나 말해다오.”

수많은 꾀를 가진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먼저 이 흉터를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파르나소스에 갔을 때 멧돼지가 흰 엄니로 낸 상처입니다. 저를 그곳 외할아버지 아우톨리코스에게 보내 주신 분은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에 이곳에 오셨을 때 제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예전에 당신이 내게 주셨던 질서 정연한 정원의 나무들에 대해서도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고, 당신을 따라 정원을 거닐며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나무들 사이를 지나갔고, 당신은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각각에 대해 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게 배나무 열세 그루를 주셨고, 사과나무 열 그루와 무화과나무 마흔 그루를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내게 줄지어 심은 포도나무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쉰 줄이었는데, 그 나무들은 저마다 다른 시기에 익어갔다.

제우스의 계절이 위에서 그 나무들을 짓누를 때마다, 포도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포도 송이들이 열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서 있던 자리에서 아버지의 무릎에 힘이 풀렸고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오디세우스가 말해준 확실한 증거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두 팔로 껴안았고, 인내심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아버지를 붙들었다.

아버지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정신이 가슴 속으로 돌아오자, 그는 다시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만약 구혼자들이 그들의 방자하고 무모한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면, 신들께서는 참으로 올림포스 높은 곳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에는 경이로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타카의 모든 남자가 즉시 우리를 대적하러 이곳으로 몰려오고, 케팔로니아인들의 도시 곳곳으로 전령들을 보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기운을 내세요, 아버지. 이런 일들로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신 과수원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곳에 텔레마코스와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를 미리 보내어, 그들이 서둘러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훌륭한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이 위엄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텔레마코스와 소치기, 그리고 돼지치기가 고기를 넉넉히 썰고 있었으며, 불타는 듯한 포도주를 섞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시칠리아 출신의 여종이 용기 있는 라에르테스를 집에서 목욕시키고 기름을 발라주었으며, 그에게 아름다운 망토를 입혀주었다.

그때 아테나가 다가와서, 백성의 목자인 라에르테스의 사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키를 더 크게 하여 보기에 더욱 위엄 있게 만들었다.

라에르테스가 목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오디세우스는 불멸의 신들과 같은 모습이 된 아버지를 보고 경탄했다.

오디세우스는 입을 열어 날개 돋친 말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분명 영원히 존재하는 신들 중 누군가가 아버지의 용모와 체격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나 봅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라에르테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오,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 그리고 아폴론이시여, 제가 케팔로니아인들의 군주였을 때 해안가에 잘 지어진 요새인 네리코스를 점령했던 그때와 같은 힘을 제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이 있었다면, 어제 우리 집에서 어깨에 갑옷을 두른 채 당신 곁에 서서 구혼자들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 많은 구혼자의 무릎을 전당 안에서 맥없이 꺾어 놓았을 것이고, 당신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식사를 준비하자, 그들은 차례대로 의자와 높은 좌석에 앉았다.

그들이 막 음식을 먹으려 할 때, 노인 돌리오스가 다가왔다. 밭에서 일하느라 지친 그의 아들들도 함께 다가왔다.

그들의 어머니이자 시칠리아 출신의 노파가 그들을 부르러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 노파는 그들의 식사를 챙겼으며, 노인에게 노년의 고통이 찾아온 뒤로 그를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보고 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홀에 서서 경이로움에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을 건네며 말했다.

"노인장이여, 저녁 식사를 위해 앉으십시오. 경탄하는 마음은 이제 그만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어 안달하면서도, 당신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며 이 홀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돌리오스는 두 손을 내밀며 그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돌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손을 움켜쥐고 손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돌리오스는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친애하는 주인님,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했으나 이제는
다시는 뵙지 못할 줄로만 알았던 저희에게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신들께서 직접 당신을 데려다주셨나이다.
당신을 환영하며, 신들께서 당신에게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것도 진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당신이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녀에게
전령을 보내야 합니까?"

그 말에 수단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노인이여, 그녀는 이미 알고 있소. 그대가 왜 이런 일로
마음을 쓰려 하는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이는 다시 매끄럽게 닦인 의자에
앉았다.

마찬가지로 돌리오스의 아들들도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의
주위로 모여들어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버지인 돌리오스의 곁에 차례대로
앉았다.

그들은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그사이 전령인 소문이 도시 전역을 빠르게 누비며, 구혼자들이 맞이한 끔찍한 죽음과 운명에 대해 알렸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즉시 들었고, 신음과 통곡을 내뱉으며 오디세우스의 궁전 앞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각자의 죽은 이를 데려와 장례를 치렀다. 다른 도시 출신의 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빠른 배에 태워 선원들이 운반하게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슬픈 마음을 안고 다 함께 집회 장소로 향했다.

그들이 모두 모여 집회를 열었을 때, 에우페이테스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처음으로 죽인 자인 안티노오스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에우페이테스는 안티노오스를 위해 울며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친구들이여, 이 자가 참으로 아카이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꾸몄도다. 그는 많은 수의 훌륭한 사람들을 자신의 배에 태워 데리고 나갔으나, 자신의 배들을 모두 잃고 부하들도 완전히 잃어버렸도다. 또한 그는 돌아오는 길에 다른 이들을 죽였으니, 그들은 케팔로니아인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던 자들이로다.

그러니 자, 그자가 필로스나 에페이오스인들이 다스리는 훌륭한 엘리스로 빠르게 떠나버리기 전에 우리가 나아가자.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조차 이 일을 듣고 수치를 느낄 것이다.

만약 복수하지 못한다면, 내게 삶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나는 즉시 죽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 머물고 싶다.

자, 어서 나아가자.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 빨리 움직여 바다를 건너가 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고, 모든 아카이아인들은 연민에 휩싸였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메돈과 신성한 가객이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사람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고, 모든 이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마음이 지혜로운 메돈이 그들 사이에서 말을 꺼냈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오디세우스가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진실로 불멸의 신들의 뜻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소.

나 자신이 직접 보았소. 한 불멸의 신이 오디세우스 곁에 가까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모든 면에서 멘토르와 같아 보였소.

그 신은 오디세우스 앞에서는 그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가도, 다시 홀 안을 휘저으며 구혼자들을 겁주며 분노를 터뜨리곤 했소. 그럴 때면 구혼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는 창백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스토르의 아들인 늙은 영주 할리테르세스가 그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친구들이여, 이 모든 일은 바로 그대들의 겁 많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대들은 아들들이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게 하라는 나와 백성의 목자인 멘토르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눈먼 방탕한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한 군주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의 아내를 욕보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명하는 대로 내 말을 귀담아들어라.

우리는 나아가지 말자. 혹시라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초래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나머지는 자리에 함께 남아 있었다. 일어난 이들은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에우페이테스의 말을 따랐으며, 곧바로 무기를 챙기러 달려갔다. 그들은 번쩍이는 청동 무구로 몸을 갖추고 넓은 도시 앞에 모였다.

에우페이테스는 아들의 죽음에 복수하리라는 생각으로 어리석게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운명을 맞이할 참이었다.

하지만 아테나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크로노스의 아들이시여, 모든 주권자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여,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묻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극적인 전쟁과 두려운 전투의 소란을 일으키실 것입니까, 아니면 두 집단 사이에 우정을 세워 주실 것입니까?"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아테나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내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것을 묻고 질문하느냐?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 진실로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너 자신이 아니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하지만 나는 무엇이 적절한 일인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제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에게 복수를 마쳤으니, 그들이 엄숙한 맹세를 하게 하자.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평생 동안 왕으로 지내게 하자.

우리 또한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죽임당한 일을 잊게 해주자. 그리하여 그들이 예전처럼 서로 사랑하며, 부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자."

그렇게 말하며 제우스는 이미 간절히 원하고 있던 아테나를 재촉했다. 그러자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높은 곳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내려갔다.

그러나 달콤한 음식을 탐하던 욕망을 떨쳐버렸을 때, 인내심이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누구 한 명을 밖으로 보내서, 저들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게나."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명령에 따라 돌리오스의 아들이 밖으로 나갔다.

그는 나가서 문턱에 서서 적들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즉시 오디세우스에게 날개 돋친 말로 전했다.

"적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어서 무장을 합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일어나 갑옷을 갖추어 입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네 명이었고, 돌리오스의 아들들은 여섯 명이었다.

라에르테스와 돌리오스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비록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전사로서 갑옷을 입었다.

그들이 번쩍이는 청동으로 몸을 감싸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멘토르의 모습과 목소리를 빌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즉시 말을 건넸다.

"텔레마코스, 이제 너는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장 뛰어난 전사들이 시험을 받는 저 전투의 현장에 네가 직접 와서, 네 조상들의 가문에 수치를 가져다주지 않는 법을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온 세상의 그 누구보다 힘과 용맹함에 있어 앞서 왔느니라."

그러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원하신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당신의 가문에 수치를 안겨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라에르테스는 기뻐하며 말했다.

"자비로운 신들이시여, 제게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참으로 기쁩니다. 내 아들과 손자가 서로 용맹을 겨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번뜩이는 눈을 가진 아테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르케시오스의 아들이여, 나의 모든 친구들 중 가장 소중한 이여. 번뜩이는 눈을 가진 처녀와 아버지 제우스에게 기도를 올리시오. 그러고 나서 즉시 그대의 긴 창을 높이 들어 던지시오."

팔라스 아테나가 그렇게 말하며 그에게 커다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에 라에르테스는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기도한 뒤, 즉시 긴 창을 높이 들어 던졌다. 창은 청동 뺨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뚫고 에우페이테스를 타격했다.

창은 멈추지 않고 청동을 뚫고 지나갔으며, 에우페이테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의 갑옷은 몸 주변에서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어 오디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칼과 양날이 달린 창으로 적들을 찔렀다.

만약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크게 소리치며
군대 전체를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돌아가지 못하게 끊어버렸을 것이다.

아테나는 이렇게 외치며 그들을 막아섰다.

"이타카의 사람들이여, 참혹한 전쟁을 멈추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신속히 헤어질 수 있게 하라."

아테나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창백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여신이 목소리를 높이자, 공포에 질린 그들의 손에서
무기들이 모두 빠져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고자 서둘러 도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때 인내심 강하고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무섭게 소리쳤다.
오디세우스는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마치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크로노스의 아들이 불타는 번개를 던졌고,
번개는 번뜩이는 눈을 가진 위대한 아버지의 딸, 아테나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러자 번뜩이는 눈의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제우스의 혈통이자 수많은 계책을 가진 오디세우스여, 손을 멈추어라. 대등한 전쟁의 다툼을 끝내라. 혹시라도 크로노스의 아들이신 제우스께서 너에게 노하시지 않도록 하라. 그분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지느니라.”

아테나가 그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그 말에 순종했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 후, 제우스의 딸이자 아이기스를 든 팔라스 아테나가 멘토르의 모습과 목소리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 두 진영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을 엄숙한 약속을 맺었다.

번역과 검수 안내

직접 번역 대상은 A. T. Murray의 1919년 영어 산문 번역입니다. 그리스어 직접 번역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전자 텍스트는 권·행 대응 자료로 보존했습니다.

초안은 로컬 Gemma로 만들고, 대화의 주 AI가 수록된 모든 원문·번역 구간을 대조했습니다. 주체와 화자, 부정·조건, 인물 관계, 고유명사, 수량, 내용 누락, 낭독 시 문장 호흡을 검토하고 발견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I 검수는 전문가 교열이나 의미 정확성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술과 직접화법의 문체를 구분하고, 긴 문장은 뜻을 유지하며 나눴습니다. 문단과 권별 설명 제목은 새로 편집했습니다. 영어판의 편집자 주석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검수 기록과 원문 대응 정보는 별도 파일에 보존했습니다.

낭독용 텍스트와 JSONL에서는 출처, 페이지 번호, 편집 설명을 본문과 분리했습니다. JSONL의 권 시작 표시와 문단·권 사이 쉼은 읽지 않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쉼 길이는 조정용 초깃값이며 실제 음성 합성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녹음·합성 전 발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어 전자 텍스트에는 10권 456행, 16권 101행, 23권 49행의 식별자가 없습니다. 이를 임의로 채우지 않았고, 영어판의 번역 대상 본문은 별도로 전체 처리했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Homer, The Odyssey with an English Translation, A. T. Murray, 1919, Vols. 1–2. William Heinemann / G. P. Putnam's Sons. Loeb Classical Library.

전자 텍스트: Perseus Digital Library / Trustees of Tufts University.
영어 번역본 · 그리스어 원전

Perseus 저장소 이용 안내에 따라 자료와 이 번역·편집물에는 CC BY-SA 4.0 조건을 적용합니다. 한국어 번역, 문장 편집, 문단·제목, 조판과 낭독용 데이터 구성이 추가됐습니다. Perseus의 공식 번역·승인판이 아닙니다.